



해적解的 노략국어

비4이다비4이다부디4월에4이다를속시원하게시원하게드림김할수있게해주소서비4이다비4이다

4이다

해 해적국어연구소

04월 경기도 주관 학력평가

2012

95

90

83

73

2013

A95 B95

A88 B90

A82 B82

A72 B75

2014

A91 B93

A84 B86

A75 B78

A65 B68

2015

A98 B94

A95 B88

A89 B79

A81 B68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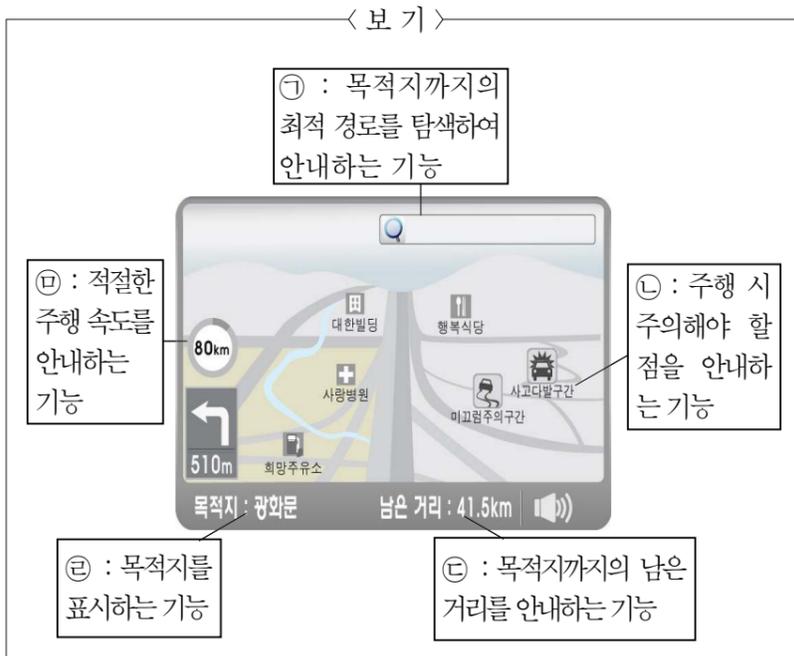
93

86

79

69

6. <보기>의 내비게이션 기능에 착안하여, 학업성취도가 낮아 고민하는 후배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방법을 연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 ② ㉡ : 학습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
- ③ ㉢ : 학습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남은 학습량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 ④ ㉣ : 학습 과정을 통해 도달해야 할 학습 목표를 안내해야 한다.
- ⑤ ㉤ : 학습 목표 성취를 위해 알맞은 학습 환경을 조성하도록 조언해야 한다.

[7 ~ 8] 다음은 '생활 속 나눔 운동'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기 위해 쓴 글의 초고이다. 7번과 8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나눔은 메마른 세상을 풍요롭게 만드는 작은 실천입니다. 최근 들어 생활 속에서 ㉠ 실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싶어도 도움 방법을 몰라 나눔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우리 학교 학생들이 손쉽게 ㉡ 실천될 수 있는 '생활 속 나눔 운동'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렇듯 나누려는 마음만 있으면 어려운 이웃에게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전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생활 속 나눔 운동'에 동참하여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단체에서 주관하는 '생활 속 나눔 운동'은 해당 홈페이지에 신청만 하면 언제든지 참여하여 나눔과 기부를 실천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 그러나 자신의 기부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학생도 있을 것입니다. 기부의 ㉣ 종류도 현금 기부뿐만 아니라 의류, 도서, 학습지 등의 물품 기부, 그리고 강연과 같은 재능 기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누구나 기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7. 위 글을 고쳐 쓰기 위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는 문장에 필요한 성분이 빠져있으므로 '나눔을'을 넣는다.
- ② ㉡은 문장성분 간의 호응을 고려하여 '실천할'로 바꾼다.
- ③ ㉢은 글의 흐름에서 벗어난 내용이므로 삭제한다.
- ④ ㉣은 단어의 쓰임이 부적절하므로 '주체'로 바꾼다.
- ⑤ 문단 간의 연결 관계를 고려하여 둘째 문단과 셋째 문단의 순서를 바꾼다.

8. 위 글을 고쳐 쓴 후, 학생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홍보 문구를 작성하려고 한다. <보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것은?

< 보 기 >

<조건>

- '생활 속 나눔'의 의미를 담을 것.
- 비유와 역설적 표현을 활용할 것.

- ①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나눔
나눔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 ② 낮추면 낮출수록 높아집니다.
겸손은 마음의 벽을 녹이는 미덕입니다.
- ③ 내가 입던 옷도, 내가 가진 목소리도
밝은 세상을 만드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 ④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나눔의 마법
작은 것을 나누면 더 큰 것을 얻게 됩니다.
- ⑤ 세상을 다 가지려는 욕심은 신기루와 같습니다.
쓰지 않는 물품으로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9. '지역사회 청소년 동아리 활성화'와 관련된 글을 쓰기 위해 <보기>와 같이 개요를 작성하였다. 수정·보완할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I. 서론
- 청소년 여가 활동의 필요성 증대 ㉠

II. 본론

1. 실태 ㉡
-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저조한 동아리 참여율
2. 장애 요인
가. 동아리 활동을 위한 지역 내 시설 및 공간 부족
나. 문화 행사 유치에 대한 지역 간 경쟁 과열 ㉢
다. 동아리 활동을 지도할 지역 내 전문 인력 부족
3. 활성화 방안 ㉣
가. 지역 내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시설 및 공간 확보
나. 지역 청소년들의 요구를 반영한 동아리의 추가 개설

III. 결론
-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지역 주민의 인식 제고 ㉤

- ① ㉠은 논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 동아리 활동의 필요성 증대'로 바꾼다.
- ② ㉡에는 내용을 보강하기 위해 '학교 체험 활동과의 연계성 강화'라는 하위 항목을 추가한다.
- ③ ㉢은 글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지역 청소년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동아리의 부족'으로 고친다.
- ④ ㉣에는 글의 완결성을 고려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 내 동아리 지도자 양성'을 추가한다.
- ⑤ ㉤은 글의 흐름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청소년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관련 기관의 지원 촉구'로 바꾼다.

10. <보기>를 활용하여 ‘할인 쿠폰의 사용’에 관한 글을 쓰고자 할 때,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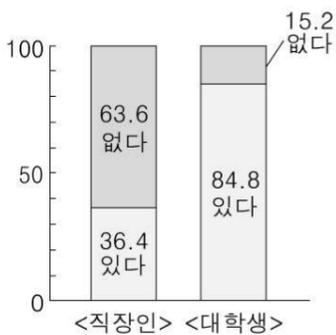
(가) 신문 기사

온라인에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할인 쿠폰의 사용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 침체로 소비자들의 가격 민감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대학생 을 비롯한 젊은 소비자들의 쿠폰 사용이 보편화되어감에 따라 일반 소비자에게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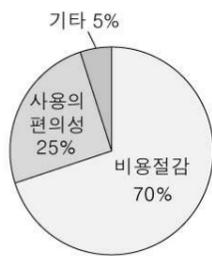
(나) 통계 자료 (설문 조사)

1. 할인 쿠폰 이용 실태

• 사용 경험



• 사용 이유



* 응답 대상: 할인 쿠폰 사용 경험이 있는 대학생

2. 할인 쿠폰 이용 시 불만 사항

불만 사항	비율(%)
사용 기한이 너무 짧음	30.9
제품이 한정되어 있음	29.6
할인율이 너무 적음	21.1
쿠폰을 사용할 경우 불친절함	12.5
기타	5.9

(다) 인터뷰 자료

“할인 쿠폰으로 원하는 상품을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고 현명한 소비자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어서 좋아요. 그런데 할인이 적용되는 상품의 폭이 좁고 사용 기한에 여유가 없어서 아쉽기도 해요. 그래서 앞으로 할인 쿠폰을 사용할 때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할 것 같아요.”

- 소비자 ○○○ -

(라) 연구 자료

할인 쿠폰은 기존 사용자들에게 반복 구매를 유발하기도 하고 소비자들이 고가의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인하는 수단이기도 하므로 충동구매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① (가) : 할인 쿠폰 사용이 보편화되는 추세는 경제적 상황과 관련이 있음을 밝힌다.
- ② (다) : 할인 쿠폰 사용으로 인해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심리적 만족감도 얻을 수 있음을 제시한다.
- ③ (가)와 (라) : 할인 쿠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불필요한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 ④ (나)-1과 (라) : 대학생들이 할인 쿠폰을 사용하여 고가의 상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 ⑤ (나)-2와 (다) : 할인 쿠폰 사용의 제약으로 인해 불만이 생길 수 있으므로 쿠폰의 사용 시 소비자의 신중한 태도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11.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의 용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손’은 우리 신체의 일부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이지만, 씹씹이나 사람 간의 관계 등과 같은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특히 사람이 일을 하는 솜씨나 처리 속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손’과 관련된 관용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솜씨가 좋은 경우와 나쁜 경우, 일을 처리하는 속도가 빠른 경우와 느린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 ① 이제부터는 나쁜 친구들과 손을 끊어라.
- ② 제가 손이 서툴러서 일을 망쳤으니 어찌면 좋아요.
- ③ 철수는 손이 여물어서 어려운 일도 잘 마무리합니다.
- ④ 영수 엄마는 손이 재서 음식을 금방 만들어 내왔습니다.
- ⑤ 손이 뜬 민수만 빼놓고 다른 사람은 모두 작업을 끝냈습니다.

12. <보기>를 바탕으로 연결어미 ‘-(으)니까’와 ‘-아서/-어서’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 ㄱ. 비가 와서 / *왔어서 길이 젖었다.
- ㄴ. 비가 오니까 / 왔으니까 길이 젖었을 거야.
- ㄷ. 비가 와서 우산을 샀니?
- ㄹ. 비가 오니까 / *와서 제가 우산을 살까요?
- ㅁ. 비가 오니까 / *와서 우산을 가져가라. / 가져가자.

*는 문법적으로 잘못된 것.

- ① ㄱ과 ㄴ을 보니, ‘-아서/-어서’는 ‘-(으)니까’와 달리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어미와 함께 쓰일 수 없군.
- ② ㄱ과 ㄷ을 보니, 이유를 나타낼 때에는 ‘-아서/-어서’를 사용하여 문장을 연결할 수 있군.
- ③ ㄷ과 ㄹ을 보니, 의문문 중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경우 ‘-아서/-어서’를 사용할 수 없군.
- ④ ㄹ과 ㅁ을 보니, ‘-(으)니까’로 연결된 문장은 앞뒤의 주어가 일치해야 하는군.
- ⑤ ㅁ을 보니, ‘-아서/-어서’는 ‘-(으)니까’와 달리 명령형과 청유형 문장에서는 사용될 수 없군.

[13 ~ 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수만호 빛이라야 할 내 고향이언만
노랑나비도 오잖는 무덤 위에 이끼만 푸르리라.

슬픔도 자랑도 집어삼키는 검은 꿈
파이프엔 조용히 타오르는 꽃불도 향기론데

연기는 돛대처럼 날려 항구에 들고
옛날의 들창마다 눈동자엔 짜운 소금이 저려

바람 불고 **눈보라** 치잖으면 못살이라
매운 술을 마셔 돌아가는 그림자 발자취 소리

숨 막힐 마음속에 어데 강물이 흐르뇨
달은 강을 따르고 나는 차디찬 강물에 들리라

수만호 빛이라야 할 내 고향이언만
노랑나비도 오잖는 무덤 위에 이끼만 푸르리라.

- 이육사, 「자야곡(子夜曲)」 -

(나)

나도 봄산에서는
나를 버릴 수 있으리
솔이파리들이 가만히 이 세상에 내리고
상수리나무 묵은 잎은 저만큼 지네
봄이 오는 이 숲에서는
지난날들을 가만히 내려놓아도 좋으리
그러면 지나온 날들처럼
남은 생도 벽차리
봄이 오는 이 **솔숲**에서
무엇을 내 손에 쥐고
무엇을 내 마음 가장자리에 잡아두리
솔숲 끝으로 해맑은 햇살이 찾아오고
박새들은 솔가지에서 솔가지로 가벼이 내리네
삶의 근심과 고단함에서 돌아와 거니는 숲이여 거기 이는 바람이여
찬 서리 내린 실가지 끝에서
눈뜨리
눈을 뜨리
그대는 저 수많은 새 잎사귀들처럼 푸르른 눈을 뜨리
그대 생의 이 고요한 솔숲에서

- 김용택, 「그대 생의 솔숲에서」 -

(다)

내 이미 백구 잇고 백구도 나를 잇네
㉠ **둘이 서로 잇었으니** 누군지 모르리라
언제나 해옹을 만나 이 둘을 가려낼꼬

붉은 잎 산에 가득 빈 강에 쓸쓸할 때

- ㉡ **가랑비** 낚시터에 낚싯대 제 맛이랴
㉢ **세상에 득 찾는 무리** 어찌 알기 바라리

내 귀가 시끄러움 내 바가지 버리려문
내 귀를 씻은 샘에 내 소는 못 먹이리*
㉣ **공명은 해진 신이니** 벗어나서 즐겨보세

옥계산 흐르는 물 못 이뤄 **달** 가두고
맑으면 갓을 씻고 흐리면 발을 씻네
㉤ **어떠한 세상 사람도 청탁(淸濁)을 모르래라**

- 이별, 「장육당육가(藏六堂六歌)」 -

* 벼슬 제안을 들은 귀를 영수에 씻은 허유와 그 물을 소에게 먹이지 않은 소부의 고사에서 차용한 것임.

13.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역동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생동감을 자아낸다.
- ②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한다.
- ③ 관조적인 자세로 대상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한다.
- ④ 자연물을 통해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내면이 드러난다.
- ⑤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시선을 이동하며 시상을 전개한다.

14. (가)와 (나)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어순을 도치하여 시적 긴장을 높이고 있다.
- ② (가)는 (나)와 달리, 처음과 끝을 대응시켜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 ③ (나)는 (가)와 달리, 유사한 시구를 반복 변주하여 시적 정서를 강화하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직유를 통해 시각적 인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특정 종결 어미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15. (가)~(다)의 시어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노랑나비’와 (나)의 ‘박새’는 화자가 부정적으로 여기는 대상이다.
- ② (가)의 ‘눈보라’와 (나)의 ‘찬 서리’는 화자의 심리적 갈등이 해소되는 계기가 된다.
- ③ (가)의 ‘달’과 (다)의 ‘달’은 화자가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매개가 된다.
- ④ (나)의 ‘술이파리들’과 (다)의 ‘붉은 잎’은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소재이다.
- ⑤ (나)의 ‘술숲’과 (다)의 ‘강’은 화자의 구체적 체험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17.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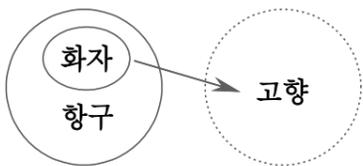
- ① ‘내리고’, ‘지네’ 등에 드러난 하강 이미지는 ‘삶의 근심과 고단함’에서 벗어나려는 화자의 태도와 관련된다.
- ② ‘묵은 잎’은 화자가 지나온 삶을, ‘새 잎사귀’는 화자가 기대하는 삶을 함축한다.
- ③ ‘이 세상’, ‘이 고요한 술숲’ 등에서처럼 시적 공간을 한정하는 지시어를 사용하여 공간이 지닌 의미에 주목하게 한다.
- ④ ‘내 마음 가장자리’, ‘술숲 끝으로’에는 소외된 삶에 대한 외로움이 부각되어 있다.
- ⑤ ‘봄산’ → ‘봄이 오는 이 숲’ → ‘봄이 오는 이 술숲’으로 시상을 구체화하면서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6.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자야곡」에서는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통해 일제 강점 하의 냉혹한 현실을, 향구라는 공간적 배경을 통해 고향을 떠나 타향을 유랑하고 있는 시인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 시의 시적 상황을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① ‘이끼’만 푸를 ‘무덤’을 떠올리는 화자의 모습에서 고향의 현재 상황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시인의 마음이 느껴져.
- ② ‘검은 꿈’이 ‘슬픔’과 ‘자랑’을 집어삼킨다는 표현에는 일제 강점 하의 현실을 이겨내려는 시인의 의지가 드러나 있군.
- ③ ‘매운 술’을 마시고 ‘돌아가는 그림자’에는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한 시인의 인식이 드러나 있어.
- ④ ‘숨 막힐 마음속’에는 고향을 떠나 타향을 유랑하던 시인의 답답한 마음이 담겨져 있어.
- ⑤ ‘강땀’을 ‘차디찬’으로 수식한 것으로 보아 시인은 자신이 처한 냉혹한 현실에 주목하고 있어.

18. <보기>를 참고하여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이별은 갑자사화로 인해 유배되었다가 풀려난 후 옥계산에 은거하였다. 그는 속세의 명리를 버리고 자연 속에 은거한 은일지사(隱逸之士)의 정신을 지향했다. 이 시에서는 현실 세계를 혼탁한 세상으로 여긴 반면, 자연을 친화적 공간으로 생각하며 그 속에서 삶을 즐기려는 태도가 드러난다.

- ① ㉠ : 혼탁한 세상에서 떨어져 자연에 친화된 화자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 ② ㉡ : 은일의 공간에서 풍류를 즐기는 삶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 ③ ㉢ : 화자와는 달리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로 볼 수 있다.
- ④ ㉣ : 속세의 명리를 중시하지 않는 화자의 가치관을 보여준다.
- ⑤ ㉤ : 세상의 청탁을 구분할 수 없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아쉬움이 담겨 있다.

[19 ~ 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경제 분야의 게임이론이란 상호의존적 상황에서의 전략적 의사결정 결과를 밝히는 모형을 말한다. 특정 제품에 대해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복점기업의 경우, 한 기업의 의사결정은 다른 기업에 영향을 미치므로 상호 의존적 상황이 된다. 복점기업의 게임은 의사결정이 동시적이냐, 순차적이냐에 따라 그 양상이 달라진다.

의사결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복점기업의 게임 상황을 보자. 게임에서 얻는 이득을 보수라 하는데, <표>는 두 기업이 각각 얻게 될 보수를 나타낸 것이다. A사와 B사는 제품 가격을 결정할 때, 고가전략과 저가전략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A사가 고가전략을 선택할 경우 B사는 고가전략에서 8억, 저가전략에서 10억의 보수를 얻게 되므로 저가전략이 유리하다. A사가 저가전략을 선택할 경우에도 B사는 저가전략이 유리하다. A사 역시 B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저가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데, 이처럼 상대방의 전략 선택 여하에 관계없이 각 기업에게 보다 안정적인 보수를 가져다주는 전략을 우월전략이라 한다. 얼핏 보면 8억씩의 보수를 얻을 수 있는 고가전략이 우월전략처럼 보이지만 상대의 전략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 두 기업은 저가전략에서 우월전략의 균형을 이루게 된다.

<표> A사와 B사의 보수행렬 (단위: 원)

구 분		B사	
		고가전략	저가전략
A사	고가전략	(8억, 8억)	(1억, 10억)
	저가전략	(10억, 1억)	(4억, 4억)

(괄호 왼쪽은 A사, 오른쪽은 B사의 보수를 나타냄.)

기업은 최대의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므로, A사와 B사는 우월 전략 균형 상태에서 4억씩의 보수를 얻기보다는 고가전략으로 담합함으로써 8억씩의 보수를 얻고자 할 것이다. 따라서 두 기업이 현재 모두 8억씩의 보수를 얻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는 담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때 A사가 담합을 깨고 저가전략을 선택하면 일시적으로는 10억의 보수를 얻을 수 있지만, B사도 곧바로 저가전략으로 선회할 것이므로, 이후로는 두 기업 모두 4억의 보수를 얻게 된다. 따라서 담합에서 이탈하는 것보다 담합을 유지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한편 복점기업 중 한 기업이 먼저 의사결정을 하고, 그에 반응하여 다른 기업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순차게임이라 한다. 순차게임에서 기업은 의사결정 순서와 예상 결과를 나타낸 ㉠ '의사결정나무'의 분석을 통해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저지할 수도 있다. 가령, A사가 특정 지역에 매장을 개장하기로 먼저 결정하고 이어서 B사도 같은 지역에 진입하려 한다고 하자. 이때 A사는 대형 매장을 선택하는 경우와 소형 매장을 선택하는 경우에 따라 얻게 되는 수익률을 분석하여 매장의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A사의 선택 여하에 따라 B사는 시장에 진입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의사결정나무'의 분석을 통해 A사는 B사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고 최대의 이윤을 얻는 매장 규모를 선택하게 된다.

이처럼 경쟁 관계의 복점기업들은 상호 의존성이 강하기 때문에 제품 가격, 생산량, 시장 진입 등을 결정할 때 게임이론을 활용하여 전략적으로 행동하게 된다.

이처럼 경쟁 관계의 복점기업들은 상호 의존성이 강하기 때문에 제품 가격, 생산량, 시장 진입 등을 결정할 때 게임이론을 활용하여 전략적으로 행동하게 된다.

19.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게임 상황에서 얻게 되는 이득을 보수라 한다.
- ② 순차게임에서는 의사결정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 ③ 복점기업이란 특정 제품에 대해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두 기업을 의미한다.
- ④ 복점기업들은 상호 의존성이 강하기 때문에 의사를 결정할 때 게임이론을 활용한다.
- ⑤ 우월전략은 안정적 보수를 얻을 수 있는 전략으로, 상대 기업의 전략 선택에 영향을 받는다.

20. 위 글을 읽고 <보기>에 대해 보일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음료를 생산하는 복점기업인 '갑'과 '을'은 저가전략을 유지하다가, 동시에 음료의 가격을 10%씩 인상하기로 담합하였다.

- ① '갑'과 '을'은 담합 이전에는 최대의 보수를 얻을 수 없었겠군.
- ② '갑'과 '을'은 담합을 통해 우월전략의 균형을 이루고자 했겠군.
- ③ '갑'이 담합을 깨고 가격을 인하한다면 '을'도 곧 가격을 인하하겠군.
- ④ '갑'과 '을'은 고가전략을 선택함으로써 더 많은 보수를 얻고자 했겠군.
- ⑤ 담합 이후 '갑'이 독단적으로 가격을 인하한다면 일시적으로는 '갑'의 보수가 증가하겠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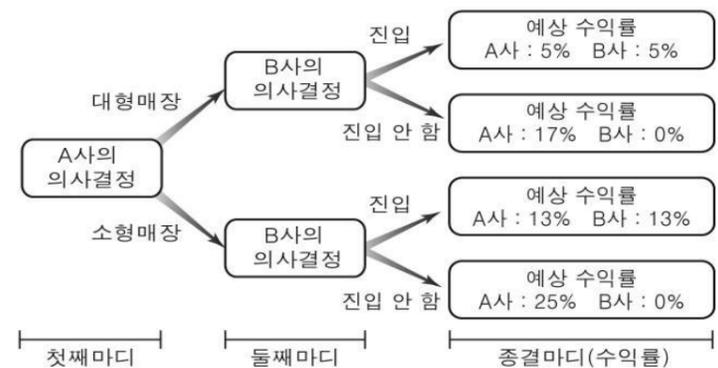
21. <보기>는 ㉠의 사례이다.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보기 >

A사는 ○○ 지역에 직판매장 개점을 결정하고 아래의 의사결정나무를 분석하여 매장의 규모를 선택할 예정이다.

(단, B사는 초기 투자 비용 때문에 최소 10% 이상의 수익률을 낼 경우에만 매장을 개점한다고 가정함.)



- ① 'A사'가 대형매장을 선택하고 'B사'가 시장에 진입하면 'B사'의 수익률은 'A사'보다 더 높을 것이다.
- ② 'A사'가 소형매장을 선택하고 'B사'가 시장에 진입하면 'A사'의 수익률은 'B사'보다 더 높을 것이다.
- ③ 'A사'가 소형매장을 선택한다면 'B사'의 진입 여부와 상관없이 'A사'는 가장 높은 수익률을 얻을 것이다.
- ④ 'A사'가 대형매장을 선택한다면 'B사'는 최소 10% 이상의 수익률을 얻을 수 없어 시장에 진입하지 않을 것이다.
- ⑤ 'A사'가 선택한 매장의 규모에 상관없이 'B사'가 시장에 진입할 경우 'A사'는 최소 10% 이상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2 ~ 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과를 본 철수가 ‘사과는 붉다’고 지각(知覺)했을 때, ‘사과’는 지각의 대상, ‘철수’는 지각의 주체, ‘사과가 붉다’는 지각의 내용이 된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의 ‘지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경험주의는 인간의 정신이 개입되지 않는 객관적인 세계가 있고, 그 세계가 인과적으로 지각된다고 보았다. 여기에는 대상이 주는 자극과 대상으로부터 얻는 지각의 일대일 대응 관계가 ㉠ 전제되어 있다. 철수가 사과를 지각하는 경험을 예로 들면, 대상인 사과에서 자극된 색깔의 요소가 철수에게 감각되고, 그 요소가 뇌에 전달되어 ‘사과는 붉다’는 식으로 지각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험주의의 관점으로는 붉은 색과 녹색이 뒤섞인 사과를 회색으로 지각하는 경우처럼, 대상과 일치하지 않는 지각 경험은 설명하기 곤란하다.

주지주의는 인간의 지각에서 정신 작용을 강조했다. 달리 말해, 지각은 인간의 정신에 존재하는 개념에 감각된 요소들을 일치시키는 것이라고 보았다. 예를 들어 철수가 ‘사과는 붉다’고 지각했다면, 철수의 정신에 존재하는 ‘사과’, ‘붉다’ 등의 개념을 중심으로 감각된 요소들을 재구성하는 것이라는 식의 설명이다. 주지주의의 이론대로라면 정신 내에 개념이 형성되지 않은 대상은 지각이 불가능해야 하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메를로 폰티는 경험주의와 주지주의의 지각에 대한 설명을 비판했다. 그는 경험주의가 지각 주체에 비해 대상을 지나치게 중요시하는 ㉡ 오류를 범했고, 주지주의는 대상에 비해 지각 주체의 정신을 지나치게 중요시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본다. 그리고 그러한 오류의 공통된 원인은 지각 과정에서 지각 주체인 인간의 ‘몸’을 무시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메를로 폰티는 인간의 ‘몸’에 ㉢ 주목한다. 그가 말하는 ‘몸’은 정신을 주관하는 주체이고, 육체와 정신으로 분리되지 않으며, 무엇인가를 의식하는 지향성을 지닌 ‘몸’이라는 점에서, 생리학적인 몸과 구별된다. 그는 ‘몸’을 핵심으로 하는 ‘현상학적 장’ 개념을 도입해 지각을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지각은 ‘몸’이 특정한 상황에서 대상과 마주할 때에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간성과 공간성을 지닌다. 즉, 의식의 주체로서의 ‘몸’이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서 대상과 마주하는 장면이 ‘현상학적 장’이고, 이러한 ‘현상학적 장’에서 ‘몸’이 ㉣ 체험한 것이 곧 지각이라는 것이다.

메를로 폰티의 관점에 따르면, 붉은 색과 녹색이 뒤섞인 대상이 회색으로 지각된 것은, ‘몸’의 착각이나 시간과 공간 등의 ㉤ 변수에 영향을 받은 현상학적 체험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 인간의 의식 개념이 형성되지 않은 대상에 대한 지각도 ‘몸’이 의식과 구분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개념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몸’의 체험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메를로 폰티의 지각에 대한 설명은 경험주의와 주지주의의 틀을 극복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22. 위 글에 사용된 글쓰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핵심 용어를 설명하며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 ② 논의 대상을 대비하여 차이점을 부각하고 있다.
- ③ 의문을 제기하여 독자의 관심을 환기하고 있다.
- ④ 상반된 이론을 절충하면서 논지를 종합하고 있다.
- ⑤ 구체적 사례를 활용하여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23. 위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 ① 경험주의는 대상과 지각이 일치하지 않는 원인을 해명하고자 했다.
- ② 주지주의에 따르면 인간은 감각된 요소들을 중심으로 개념을 재구성한다.
- ③ 메를로 폰티는 주지주의와 달리 인간의 ‘몸’에 주목하여 지각을 설명한다.
- ④ 메를로 폰티는 경험주의가 지각 주체의 정신을 지나치게 중시했다는 점을 비판했다.
- ⑤ 메를로 폰티의 지각 개념보다 경험주의의 지각 개념이 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고 있다.

24. 위 글을 읽고,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철수는 장미꽃이 놓인 식탁에 앉았다. 철수는 그 꽃을 빨간 흑장미라고 생각했다. 잠시 후, 실내가 어둡다고 생각한 철수가 커튼을 걷고 보니 그 꽃은 노란 빛깔의 장미꽃이었다.

- ① 경험주의의 관점에 따르면 ‘장미꽃이 놓인 식탁’은 객관적인 세계에 해당하겠군.
- ② 주지주의의 관점에서는 ‘장미꽃’을 지각하는 과정에서 ‘식탁’보다 ‘철수’의 정신 작용을 더 중요시하겠군.
- ③ 메를로 폰티의 이론에 따를 때 동일한 ‘식탁’이더라도 시간이 달라지면 ‘현상학적 장’은 다른 것이겠군.
- ④ 경험주의에서는 ‘철수’가 ‘노란 빛깔’의 장미를 ‘빨간 흑장미’로 지각한 것을 지각 주체의 개념 형성 과정에서 생긴 오류로 설명하겠군.
- ⑤ 메를로 폰티의 이론에 따르면 ‘철수’가 ‘노란 빛깔의 장미꽃’을 ‘빨간 흑장미’로 지각한 것은 ‘커튼’이 쳐진 어두운 실내 공간이 변수로 작용한 것이겠군.

25. ㉠ ~ ㉤의 사전적 뜻풀이로 바르지 않은 것은? [1점]

- ① ㉠: 어떠한 사물이나 현상을 이루기 위하여 먼저 내세우는 것.
- ② ㉡: 그릇되어 이치에 맞지 않는 일.
- ③ ㉢: 경고나 훈계의 뜻으로 일깨움.
- ④ ㉣: 자기가 몸소 겪은 경험.
- ⑤ ㉤: 어떤 상황의 가변적 요인.

[26 ~ 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낙동강 주변의 고지대 ‘마삿등’ 사람들은 공공 수도가 설치되지 않아 고통을 겪는다. 황거칠 씨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산에 우물을 파서 마을로 물을 끌어 쓰는 데 성공한다. 그런데 호동팔은 그 산이 자신의 형 호동수가 매입한 산이므로 수도 시설을 철거하라고 한다. 황거칠 씨는 재판에서 진 후, 강제로 우물을 헐고 수도 시설을 철거하던 사람들과 몸싸움을 벌이다 경찰에 연행된다.

일행이 구류장에서 풀려 나왔을 때는 산에 있는 황거칠 씨의 수도 시설은 완전히 철거되고, 파괴됐던 다섯 개의 우물은 호동팔 측에 의해서 복구 작업이 시작되고 있었다. 드디어 소원 성취를 한 동팔이가 ‘마삿등’ 일대의 수도를 독차지하겠다는 것이다.

‘죽일 놈!’

하고, 황거칠 씨가 이를 악물고 있는 판에 뜻밖에 동팔이 측에서 사람을 하나 보내 왔다. 용건이 또 걸작이었다. - ㉠ ‘마삿등’ 일대의 배수 시설을 자기에게 팔든가(물론 헐값으로), 정 놓기 싫으면 자기와 공동 경영을 하자는 것이었다. 아니꼽게도 이쪽의 약점을 노린 수작이었다.

“가거라, 이 개 같은 놈아! 밥을 치먹는 놈이 그따위 심부름을 하고 다녀?”

황거칠 씨는 벼락같은 소릴 쳤다. 차라리 거저 내버렸음 내버렸지, 동팔이에게 시설을 판다든가, 더구나 공동 경영 따위 쓸개 빠진 것은 입에 담기조차 창피한 일이었다. 교섭을 왔던 사람이 코를 싸고 돌아간 뒤에도 그는 내쳐 주먹을 떨어 댔다.

‘누굴 자기 같은 놈인 줄 알았든가? 뻔뻔스런 놈 같으니!’

아무리 생각해도 분했다.

배수 시설의 양도를 거절당한 동팔이는 어디 보자는 듯이 ‘마삿등’ 일대에 ㉡ 자기대로의 시설을 하기 시작했다. 그 바람에 매일같이 많은 물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콩나물 장수, 두부집, 그리고 두꺼비가 그려진 소주의 깃발을 늘어놓고 소주랑, 막걸리, 청주까지 만들어서 파는 ‘두꺼비집’ 같은 데서는 만부득이 호동팔의 물이라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밖에도 동팔이와 특별한 관계 - 가령 그의 목수 허드렛일을 맡아 있다든가, 인척 관계인 몇몇 사람들도 그 물을 쓰기 시작했다.

한편 복수라기보다 자기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여러 날 여러 밤을 골똘히 궁리해 오던 황거칠 씨는 드디어 ㉢ 호동수의 산이 아닌 다른 산에서 물을 끌어오기로 결심했다.

‘어디 제 놈들의 산이 아니면 물이 없을까!’

이튿날부터 황거칠 씨는 예의 쇠 작대기를 찾아 들고 집을 나섰다. 수정암 뒤편 뒤 굴밤나뭇골이란 데 가서 새 수원을 찾기로 했다. 그곳은 안심할 수 있는 국유 임야였다.

(중략)

그날 밤 그는 실근이를 비롯해서 가까이 지내는 통·반장 몇 사람과 저번 날 일로 말미암아 함께 구류를 살던 청년들을 자기 집으로 불렀다.

먼저, 동팔이와 화해를 앓음으로써 본의 아니게 주민들에게 물 곤란을 주고 있는 자기의 안타까운 심정을 사과 겸 말하고, 그날 낮 산을 돌아본 얘기와 자기의 ㉣ 새로운 계획을 비쳐 보았다.

“한번 진다는 건 두 번 질 장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들은 지다가 지다가 지금 같은 꼴들이 된 게 아닐까요? 내가 그런 업두를 낸 것은 결코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황거칠 씨는 자못 흥분된 어조로 말했다. 평소 말을 잘 안 하는 그

의 입에서 어떻게 그런 말들이 쏟아져 나올까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새삼스레 어떤 희망이라기보다는 목은 분노라도 되살아나는 듯 눈마저 이상스럽게 이글거리는 것 같았다.

“됐심더! 내일부터 당장 시작합시더. 그까짓 새미 땃 개썸, 여러 사람이 가문 하리면 다 안 파겠능기요. 똥파리의 원수를 어서 갚아야 잠이 오지, 온.....”

동팔이를 때렸다가 혼이 난 인호란 청년이 이렇게 말하자, 모두들 동조를 했다.

소주를 큰 걸로 두병이나 사 온 황거칠 씨의 할멈도 못내 기쁜 표정을 지었다.

“호씨 형제들의 심보도 심보지만, 산에 나오는 물꺼정 마음대로 몬 목구로 하는 법도 더럽지요!”

그녀는 새삼 억울하게 당한 일을 생각하곤 이렇게 빈정대기도 했다.

마을 사람들이 떠난 뒤, 황거칠 씨의 할멈은 북창 위 시렁에 모셔둔 세존 단지 곁에, 영감이 산에서 가져온 물풀을 엮어 두고는 성주 세손에게 한참 동안 기도를 올렸다.

쇠뿔도 단김에 썰다는 격으로 날이 새기가 바쁘게 ‘마삿등’ 남정들은 ㉤ 마을 뒤 언덕배기로 모여들었다. 실근이란 통장이 지난밤 황씨 집에서 얘기된 계획을 말하자 죄다 물 곤란을 겪던 터이라 누구 하나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거 참 잘 생각했소. 더러 놈이 가져오는 물 목을 뽀 했딩이!”

“그렇기 말입더.”

모두 잘코사니*를 치며 돌아갔다. 그것은 비단 호동팔이가 미워서만 하는 소리가 아닌 것 같았다.

‘마삿등’ 따라지 - 그러나 악바리들은 조반을 끝내기가 바쁘게 팽이랑 삽들을 들고, 더러는 황거칠 씨 집 앞길에 모여 들고 더러는 바른총으로 굴밤나뭇골로 올라갔다. 골은 거기서 십 리나 떨어져 있었다.

좁은 골목길에는 호동팔의 인부들이 열심히 ㉥ 파이프를 묻고 있었다.

“우리들 것 다칠라, 단딩이 하소!”

동네 사람들은 지나오면서 동팔이의 인부들을 보고 이렇게 주의를 시켰다. 그들은 황거칠 씨의 것을 ‘우리들 것’이라고 말했다. 말하자면 그만큼 그 수도 시설을 아끼는 심정들이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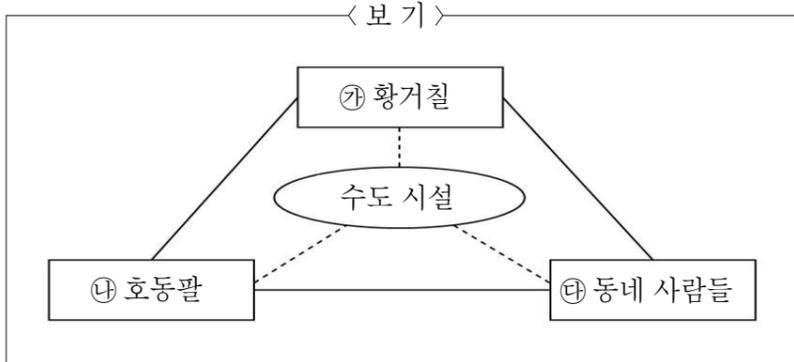
* 잘코사니 : 고소하게 여기는 일. 주로 미운 사람이 불행을 당한 경우에 하는 말임.

- 김정환, 「산거족(山居族)」 -

26. 위 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거와 현재를 교차 서술하여 사건의 인과 관계를 부각시키고 있다.
- ② 인물의 외양을 섬세하게 묘사하여 성격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③ 서술자가 인물과 사건의 정황을 직접 서술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④ 장면마다 서술의 초점을 달리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시간적 배경을 상징적으로 제시하여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

27. 위 글의 인물 간의 관계를 <보기>와 같이 나타낼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자신의 수도 시설을 철거하게 만든 ㉡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 ② ㉠은 자신의 권리를 되찾으려는 심리에서 새로운 수도 시설을 ㉡의 소유가 아닌 곳에 설치하려고 한다.
- ③ ㉡가 ㉠에게 한 제안은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다.
- ④ ㉡는 ㉠가 제시한 요구 조건을 받아들여 수도 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 ⑤ ㉡는 ㉠의 의견에 동조하며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공동체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28.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새 수원’을 찾아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 ② ‘국유 임야’를 매입하여 ‘우물’을 파는 것이다.
- ③ ‘호동팔의 물’을 쓰는 사람들을 응징하는 것이다.
- ④ ‘호동팔’의 ‘시설’을 빌려서 물을 끌어다 쓰는 것이다.
- ⑤ ‘우물’을 파서 물을 길어다 쓰는 것이 구체적인 내용이다.

29. a~c 중, ‘우리들 것’에 해당하는 것은? [1점]

-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30 ~ 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집진 기술이란 산업 현장의 공정 과정에서 발생한 입자 형태의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기술을 의미하는데, 전기식 집진 방식은 인위적으로 발생시킨 전자를 먼지나 유해 물질에 ㉠ 흡착하게 만든 후 이들을 집진판에 ㉡ 포집함으로써 오염 물질을 걸러내는 방식이다.

또한 오염 물질 제거 과정은 같지만 집진판을 ㉢ 세정하는 방식에 따라 전기 집진기는 건식과 습식으로 구분되며 국내 발전소에 설치, 운전 중인 집진기는 거의 대부분이 건식 전기 집진기이다. 그런데 점차 환경 규제가 강화되어 초미세먼지 등의 오염 물질에 대해서는 건식 전기 집진기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여 습식 전기 집진기를 최종적인 오염 제어 설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최근의 추세이다.

㉣ 습식 전기 집진 장치의 본체는 그 형태가 다양하지만 원통형 집진 장치를 예로 들면, 우선 본체의 ㉤ 하부에는 오염된 가스가 유입되는 통로가, 상부에는 오염 물질이 걸러져 깨끗해진 공기를 ㉥ 배출하는 통로가 각각 연결되어 있다. 또한 원통 안의 중심부에는 끝이 뾰족한 방전침이 달린 방전봉이, 원통 내벽에는 오염된 입자를 포집하기 위한 집진판이 설치되어 있다. 방전봉과 집진판에는 고압발생

장치에 의해 각각 (-)극과 (+)극이 연결되어 있다. 이밖에도 포집된 오염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집진판에 세정수를 공급하는 장치 등이 추가로 설치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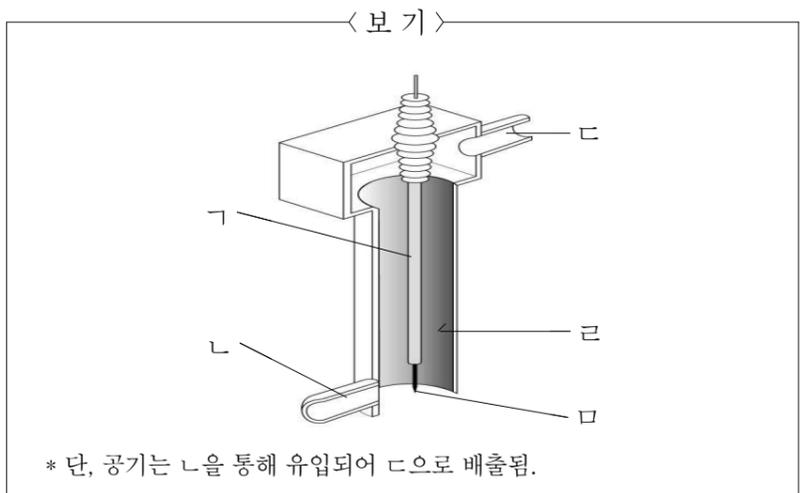
㉣ 습식 전기 집진기에서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고압 발생 장치를 통해 방전봉에 높은 전압이 계속 가해지면 방전봉의 끝 부분에서는 코로나 방전이 발생하게 된다. 코로나 방전이란, 금속과 달리 전기가 통하지 않는 절연 상태인 기체가 높은 전압에 의해 그 절연 상태가 파괴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침처럼 끝 부분이 뾰족한 어떤 물체에 높은 전압이 지속적으로 가해지면 뾰족한 부분으로 (-)전하*가 몰리게 되고 정전기력이 급격히 증가한다. 이 때문에 그 주변의 기체 분자는 핵으로부터 전자(-)가 분리되어 기체의 절연 상태가 파괴되는 것이다. 이후 코로나 방전에 의해 발생된 전자들은 극성에 의해 (+)극의 집진판 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이 전자들은, 방전봉과 집진판 사이를 통과하여 상승하는 공기 중의 미세한 오염 물질들과 부딪치게 된다. 이러한 충돌에 의해 전자가 오염 물질의 표면에 흡착하게 되면 오염 물질은 음전하를 띄게 되는데, 이를 오염 물질의 대전*이라고 한다. 대전된 오염 물질, 즉 대전입자는 (-)극의 방전봉과 (+)극의 집진판 사이에 형성된 전기장에 의해 집진판 쪽으로 이동하여 집진판에 포집된다. 그리고 세정수에 의해 씻겨 내려가면서 오염 물질은 최종적으로 제거되는 것이다.

* 전하: 물체가 띠고 있는 정전기의 양.
* 대전: 물질이 (+) 또는 (-)의 전기적 성질을 갖게 되는 것.

30. 위 글에서 답을 확인할 수 있는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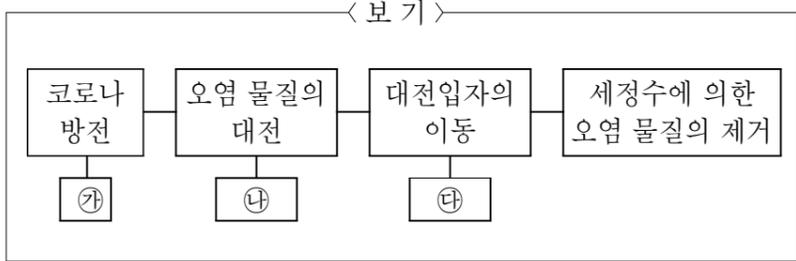
- ① 코로나 방전을 일으키는 가장 효율적인 전압은 얼마인가?
- ② 집진 장치의 본체를 원통형으로 설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③ 건식 전기 집진 장치에서 집진기를 세정하는 원리는 무엇인가?
- ④ 방전봉과 집진판에 서로 다른 극을 연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⑤ 집진 장치의 내부에서 상승하는 공기의 속도를 조절하는 장치는 무엇인가?

31. <보기>는 ㉣의 단면도이다. 위 글을 바탕으로, ㉣~㉥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는 (-)극이, ㉤에는 (+)극이 흐르고 있다.
- ② 공기 속 오염 물질은 극성에 의해 ㉣으로 포집된다.
- ③ ㉥을 지나는 공기 속 오염 물질의 양은 ㉦보다 많다.
- ④ ㉤에는 오염 물질 제거를 위한 세정수가 공급되어야 한다.
- ⑤ 높은 전압이 계속 가해지면 ㉦으로 (-) 전하가 몰리게 된다.

32. <보기>는 ㉠을 도식화한 것이다.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이 발생하기 전, 방전봉 주변의 기체는 절연 상태를 유지하고 있겠군.
- ② ㉡와 ㉢사이의 과정에서는 집진판 쪽으로 이동하던 전자들이 오염 물질의 입자와 부딪치겠군.
- ③ 오염 물질의 표면에 흡착하지 못한 전자는 ㉢에서 방전봉 쪽으로 이동하려고 하겠군.
- ④ ㉢의 대전입자는 방전봉으로부터 멀어지려는 성질을 지니고 있겠군.
- ⑤ ㉡~㉢의 과정은 건식과 습식 전기 집진기의 공통된 과정이겠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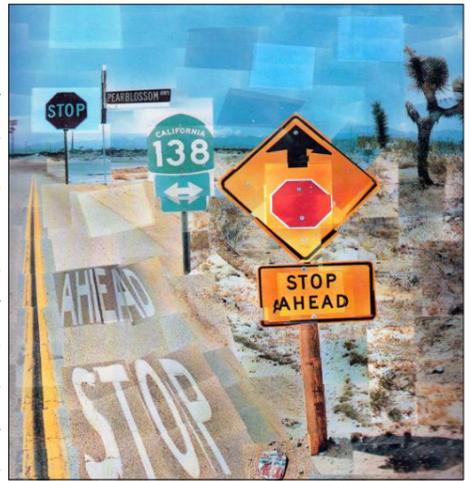
33. ㉠~㉢를 바꾸어 쓴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 : 스며들게 ② ㉡ : 모음으로써
- ③ ㉢ : 깨끗하게 씻는 ④ ㉢ : 아래쪽 부분에는
- ⑤ ㉢ : 밀어 내보내는

[34 ~ 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실제 대상을 사실적이고 객관적으로 재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존의 사진과는 달리, '메이킹 포토그래피'(Making Photography)는 콜라주* 기법이나 설치 미술 또는 회화적 요소를 활용하여 대상을 변화시키거나 아예 처음부터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 찍은 사진을 말한다. 이는 1980년대 들어 포스트모더니즘 미술과 함께 본격적으로 전개된 하나의 사진 예술이라 할 수 있다.

1980년대 메이킹 포토그래피 작품을 만든 작가로는 데이비드 호크니가 있다. 그의 작품 ㉠ <페어블라슈 고속도로>는 많은 사진들로 구성된 콜라주 작품이지만 그 구성이 자연스러워 마치 고속도로가 있는 어떤 장면을 한 시점에서 찍은 한 장의 사진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작품을 구성하는 사진들을 세밀하게 살펴보면 서로 다른 시점에서 찍은 사진들을 이어나가면서 고속도로를 표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감상자들의 시선은 전체의 모습을 보다가도 다시 각각의 사진을 들여다보기 위해 움직이게 된다. 더욱이 각각의 사진들은 시점은 물론이거니와 크기나 방향마저 제각각인데다가 중첩되어 있어 시선의 이동을 불편하게 한다. 호크니가 의도한 것은 바로 이러한 시각적 혼란이었다.



카메라는 르네상스 시대에 고안된 원근법의 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하는 과정에서 탄생되었다. 그래서 카메라로 찍은 사진은 언제나 원근법 체계로 구성된 세상을 보여 준다. 따라서 카메라를 통해서 대상은 한 시점으로밖에 볼 수 없다. 하지만 호크니는 대상을 다양한 시점을 가진 '사진'으로 분해하여 재구성하였고, 이를 통해 2차원의 평면인 사진으로 3차원의 공간감을 주는 작품을 만들어냈다.

또한 1980년대 메이킹 포토그래피를 주도한 작가 중 한 명은 샌디 스코글랜드이다. 그녀의 작품은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다. 먼저 콘티*를 ㉡ 짜고 무대를 설치한 후, 무대에 배치될 소품들과 형상들을 조각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조각에 색을 칠하고 다시 정교하게 배치한 다음, 사람을 무대에 올리고 사진을 찍는다. 그녀는 이런 과정을 통해 일종의 가상적 무대를 설정하고, 물질문명에 강박적으로 매달리는 인간에 대한 경고, 환경 파괴에 의해 닥쳐올 공포에 대한 암시 등 다양한 주제를 표현하고자 했다.

㉠ 메이킹 포토그래피는 사진의 표현 영역을 넓히고 새로운 전망을 제시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사진이 아니다.'라는 부정적인 평가도 함께 받았다. 그러나 사진의 다양한 예술성을 보여주는 데 기여한 것만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 콜라주 : 근대 미술에서, 화면에 종이·인쇄물·사진 따위를 오려 붙이고, 일부에 가필하여 작품을 만드는 일.

* 콘티 : 촬영이나 연출을 위해 각본을 기초로 하여 장면의 내용을 상세히 기술한 것.

34. 위 글에 언급되지 않은 것은?

- ① 메이킹 포토그래피의 유래
- ② 메이킹 포토그래피의 개념
- ③ 메이킹 포토그래피에 사용된 기법
- ④ 메이킹 포토그래피가 지니고 있는 의의
- ⑤ 메이킹 포토그래피와 기존 사진의 차이점

35. ㉠과 <보기>의 작품을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이 작품은 피카소의 <인형을 든 마야>이다. 이 작품에서 마야의 얼굴을 보면, 눈은 정면에서 바라본 형태이지만 코는 측면에서 바라본 형태이다. 왼쪽 다리와 오른쪽 다리가 겹쳐진 모습도 자연스럽지 않다. 이처럼 이 작품에서는 여러 부분들이 다양한 시점을 통해 재구성되어 있다. 피카소는 이러한 방식을 통해 평면에서 입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 ① ㉠과 <보기>의 작품은 모두 대상을 재구성하여 표현한 작품이다.
- ② ㉠과 <보기>의 작품은 모두 대상을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고 작품화했다.
- ③ ㉠과 <보기>의 작품은 모두 평면이 주는 표현의 제약을 극복하고자 한 작품이다.
- ④ ㉠은 카메라의 특성을 이용하여 입체감을 주었고, <보기>의 작품은 동일한 형태의 연속적 반복을 통해 입체감을 주었다.
- ⑤ ㉠은 구성이 자연스러워 한 시점에서 표현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보기>의 작품은 대상의 모습이 변형되어 부자연스럽게 느껴진다.

36. <보기>의 '스티글리츠'가 ㉡에 대해 비판한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스티글리츠에 따르면, 사진은 조각이나 회화 또는 회화처럼 보이는 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사진 그 자체'이다. 그는 사진의 사실성은 사진으로 대상을 '있는 그대로' 포착해내는 것이라고 보았으며 이러한 '사실성'이 있을 때, 사진의 본질과 더 가까운 것이라고 생각했다.

- ① 사진의 본질은 사진 이외의 다른 요소들을 이용해 사진의 표현 영역을 넓히는 것이다.
- ② 사진의 본질은 '사진 그 자체'의 아름다움보다 인간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드러내는 데에 있다.
- ③ 사진의 본질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대상을 찍는 것이지, 대상을 가공하여 찍는 것이 아니다.
- ④ 사진의 본질은 인위적인 일련의 작업 과정을 통해 '사실성'을 가지고 있을 때, 가장 잘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 ⑤ 사진의 본질은 대상을 사실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가상적인 설정을 통해 작가의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37. ㉢와 문맥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1점]

- ① 그는 내 동생과 짜고 나를 골탕 먹였다.
- ② 그는 액자를 짜고 그 안에 가족사진을 넣었다.
- ③ 할머니께서는 털실로 스웨터를 짜서 입혀 주셨다.
- ④ 같은 반 친구들끼리 조를 짜니 마음이 서로 잘 맞았다.
- ⑤ 철수는 방학을 맞아 학습 계획을 짜고 그것을 실천했다.

[38 ~ 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위승상의 차남 위진의 부인 채씨는 장남 위윤의 부인 반씨를 모해한다. 이로 인해 시어머니 양부인에 의해 친정으로 쫓겨난 채씨가 부친을 움직여 반씨의 남편 위윤, 부친 반공을 유배 보낸다. 이에 양부인은 득병하여 죽고 위진은 채씨를 불러들인다. 채씨가 반씨와 그녀의 아들 위홍을 모함해 집에서 쫓아내려 하자 반씨 모자는 양부인 묘 근처에 거처를 정한다.

일일은 흥이 서당에서 글을 읽는데 홀연 한 사람이 청사도복(靑絲道服)에 청사자(靑獅子)를 몰아 들어오거늘, 흥이 마당으로 내려와 맞이하여 예를 마치고 살펴보니, 풍채가 표일단아(飄逸端雅)한지라. 마음에 기이하게 여겨 공경 문왈,

“도인께서 누추한 곳에 임하사 미천한 아이를 찾으시니 황공하여이다.”

도인 왈,

“지나다가 책 읽는 소리를 듣고 한번 보고자 왔거니와, 성명이 무엇이니?”

대왈,

“위홍이로소이다.”

도인 왈,

“듣던 바와 같도다.”

흥 왈,

“그런즉 이적선이시니이까.”

도인 왈,

“그러하다.”

흥 왈,

“선생을 기다린 지 오래로소이다.”

도인 왈,
 “양부인이 옥경(玉京)에 득죄하고 인간에 적거하였다가 도로 광한전(廣寒殿)에 올라 계시나, 군의 모자를 잊지 못하여 태을(太乙)께 청하여 나를 보내었으니 세상 사람이 알게 말라.”
 하고, 인하여 밤마다 와서 글을 가르치니 일 년 만에 고금(古今)을 통하니, 반씨가 감격하여 사례하고자 하되 밤에만 왕래하니 얼굴을 보지 못할러라.
 화설, 채씨는 홍이 스승을 얻어 글을 배운다 하되, 기이한 선관(仙官)이 밤마다 임한다 함을 듣고 위진에게 이 말을 일러 왈,
 [A] “반씨가 삼년이나 나오지 아니함을 괴이히 알았더니, 원래 이 같이 음일(淫佚)*한 행사가 낭자하니 이제 바빠 처치하소서.”
 위진이 대로하여 이날 밤에 사내종 이십여 인을 보내어 반씨 모자를 죽이려 할새, 이에 분부 왈,
 “너희는 반씨의 여막에 가 불을 놓고 반씨 모자를 불의에 들이치면 마땅히 상을 후하게 하리라.”
 하니, 사내종이 저마다 좋아서 뛰어 일시에 가니라.
 차시에 반씨는 정히 혼미하여 잠깐 졸더니, 비몽사몽(非夢似夢)간에 양부인이 큰소리로 왈,
 “오래지 않아 액이 당도하거늘 무슨 잠을 자느뇨.”
 반씨 놀라 깨달으니 침상일몽(枕上一夢)이라. 또 이르되,
 “어서 피하라. 만일 지체할진대 가히 면치 못할러라.”
 반씨 대경하여 급히 홍을 불러 이 말을 이르니, 홍이 놀라 왈,
 “이는 반드시 왕모의 혼령의 가르침이라. 바빠 피하사이다.”
 하고, 모친을 붙들어 한 피를 넘어가 부인을 바위틈에 앉히고 피에 올라 바라보니, 벌써 집에 불이 일어나고 무수한 사람이 두루 다니며 요란하거늘, 급히 돌아와 모친께 고왈,
 “만일 도적 같으면 우리를 찾을 바 없거니와, 우리를 찾으니 매우 의심스러운지라. 이곳에 있지 못할지니 멀리 가사이다.”
 하고, 모친을 인도하여 산곡으로 들어가니, ㉠ 천지가 아득하여 갈 길이 묘연하고 기력이 점점 쇠진하니 모자가 서로 붙들고 통곡하더라.
 이때 문득 한 노인이 이르러 문왈,
 “그대는 어떤 사람이관대 적막한 산중에서 이같이 방황하며 슬퍼하느뇨.”
 홍이 대왈,
 “깊은 밤에 길을 잃고 정신이 아득하여 우나이다. 원컨대 대인은 길을 인도하소서.”
 노인이 웃어 왈,
 “공자가 과도히 놀랐도다.”
 하고, 인하여 소매 안으로부터 줄 같은 것들을 내어주며 왈,
 “모자가 하나씩 나눠 먹으라.”
 하니, 홍의 모자가 받아 먹으며 문득 정신이 쇠락*한지라.
 정히 사례코자 하더니, 노인 왈,
 “나는 이 산을 지키는 신령(神靈)이더니, 양부인의 청을 듣고 그대 모자를 구하노라.”
 하고 문득 간 데 없거늘, 홍이 공중을 우러러 무수히 사례하고 모친을 모셔 양강(揚江)에 이르니, 부인이 통곡하여 왈,
 “친정이 비록 가까우나 이 거동으로 어찌 촌중(村中)에 들어가리오.”
 홍이 위로하며 모셔 외가 반부(潘府)를 찾아 나아가니, 유부인이 반씨를 보고 크게 반기며 홍이 이같이 장성하여 수미(秀美)함을 보고 반기는 중, 반공과 위상서가 유배됨이 슬퍼 모녀가 서로 위로하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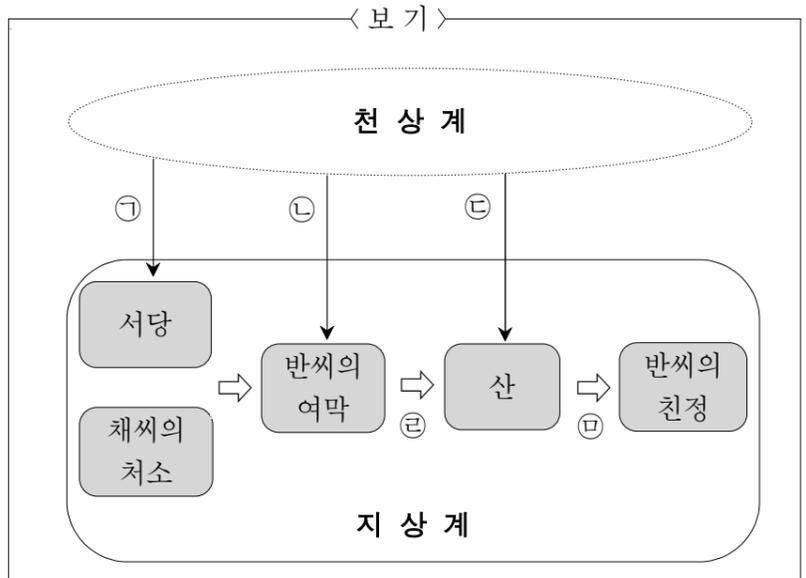
- 작자미상, 「반씨전」 -

* 음일(淫佚) : 음란하고 방탕하게 놀다.
 * 쇠락(灑落) : 기분이나 몸이 상쾌하고 깨끗함.

38.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반씨는 위홍과 달리 이적선을 만나지 못했다.
- ② 위홍은 도적의 정체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다.
- ③ 위진은 사내종을 시켜서 반씨 모자를 해치려 했다.
- ④ 반씨 모자는 산에서 노인을 찾아가 도움을 구하고 있다.
- ⑤ 반씨는 지금의 처지로 친정이 있는 마을에 들어가기를 꺼려하고 있다.

39. 위 글을 <보기>와 같이 구조화한다고 할 때,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은 천상계 존재가 지상계 인물의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것과 관련이 깊다.
- ② 천상계 존재가 위협에 처한 지상계 인물에게 도움을 주는 방식이 ㉡과 ㉢에서 각각 다르다.
- ③ ‘채씨의 처소’에서 일어난 일은 지상계 인물들의 이동인 ㉣과 ㉤의 원인이 된다.
- ④ 지상계 인물의 공간 이동인 ㉤은 천상계 존재가 피신처인 ‘산’을 안내해 준 ㉡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다.
- ⑤ ㉠, ㉡, ㉢에서는 모두 천상계 존재인 ‘양부인’이 사건 전개에 개입하고 있다.

40. [A]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사실을 왜곡하여 상대방을 부추기고 있다.
- ② 상황을 가정하여 태도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 ③ 자신의 처지를 내세워 상대방을 회유하고 있다.
- ④ 상황의 심각성을 부각하여 반성을 촉구하고 있다.
- ⑤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여 동정심을 유발하고 있다.

41. ㉠의 상황에 쓸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구사일생(九死一生) ② 동상이몽(同床異夢)
- ③ 사필귀정(事必歸正) ④ 설상가상(雪上加霜)
- ⑤ 자승자박(自繩自縛)

[42 ~ 4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비나 눈과 같은 강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구름은 공기 중의 수증기가 응결하여 생긴 미세한 물방울이나 작은 얼음 결정이 공중에 떠 있는 것인데, 이러한 물방울이나 얼음 결정이 구름 속에서 성장하는 과정을 거치면 강수가 생성된다.

온대 지방이나 한대 지방에서는 얼음 결정이 커져 강수가 생성된다. 구름 속 온도가 0℃에서 영하 40℃ 사이인 경우, 구름 속에는 과냉각 물방울과 얼음 결정이 공존한다. 과냉각 물방울은 대기 중의 작은 물방울이 0℃ 이하의 온도에서도 얼지 않고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0℃ 미만에서는 과냉각 물방울에 대한 포화수증기압*이 얼음 결정에 대한 포화수증기압보다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과냉각 물방울은 증발하여 수증기가 되고, 이 수증기는 얼음 결정으로 이동한다. 이동한 수증기가 얼음 결정에 달라붙어 점차 얼음 결정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빙정 과정’이라 한다. 이렇게 커진 얼음 결정이 지상으로 내리면 눈이 되고, 내려오는 도중에 녹으면 비가 된다. 빙정 과정을 응용하여 인공 강우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요오드화은을 구름에 뿌리면 얼음 결정 생성에 도움을 주는데 생성된 얼음 결정은 빙정 과정을 거쳐 성장하여 눈이나 비가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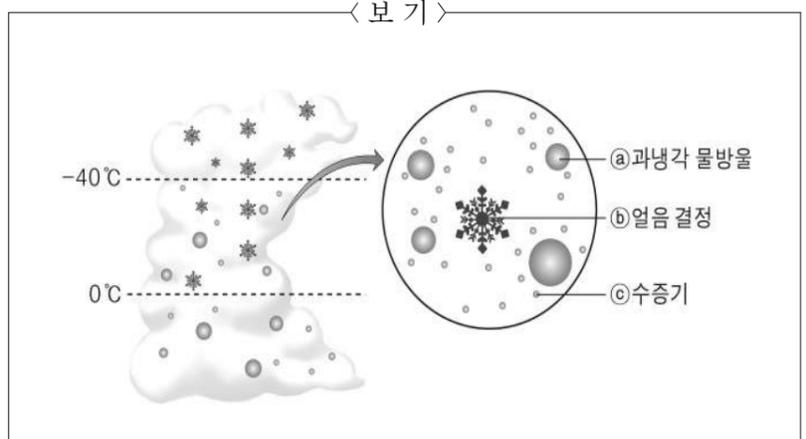
한편 열대 지방에서 구름 속의 온도가 0℃ 이상인 경우에는 얼음 결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지방에서는 빙정 과정과 다른 과정을 거쳐 강수가 생성된다. 구름 속에는 다양한 크기의 물방울이 존재하는데, 상대적으로 큰 물방울은 떨어지면서 작은 물방울들과 충돌하며 합쳐진다. 이때 구름 속 상승기류는 큰 물방울이 구름 속에 더 오래 머물게 하여 작은 물방울들과 반복적으로 충돌하게 한다. 이로 인해 더 커진 물방울은 떨어지면서 다른 물방울과 충돌하며 합쳐지는 과정을 반복한다. 이러한 과정을 ㉠ ‘충돌-병합 과정’이라 한다. 충돌-병합 과정으로 수백만 개의 물방울이 합쳐지면 빗방울이 되어 지면으로 떨어진다. 충돌-병합 과정을 응용하여 소금 입자와 같이 공기 중의 습기를 흡수하는 물질이나 물방울을 공중에 뿌려 구름 속 물방울이 크게 성장하도록 함으로써 인위적으로 강수를 유발하기도 한다.

* 포화수증기압 : 주어진 온도에서 공기 중에 존재할 수 있는 수증기량의 최대가 되었을 때의 수증기의 압력.

42. 위 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공 강우의 원리
- 수증기의 이동을 중심으로
- ② 물방울의 과학적 특징
- 과냉각 상태의 특징을 중심으로
- ③ 구름의 종류와 형성 과정
- 수증기의 응결 작용을 중심으로
- ④ 강수가 생성되는 원리
- 얼음 결정과 물방울의 성장을 중심으로
- ⑤ 빙정 과정에 작용하는 과학적 원리
- 지역에 따른 강수 생성의 과정을 중심으로

43.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에 대한 포화수증기압은 ㉡에 대한 포화수증기압보다 크다.
- ② ㉠은 ㉢가 달라붙어 점차 성장하는 빙정 과정을 거친다.
- ③ 0℃ 이하에서도 ㉠은 액체 상태로 존재하며 증발하면 ㉢가 된다.
- ④ 구름에 요오드화은을 뿌리면 ㉡가 생성되는 데에 도움이 된다.
- ⑤ ㉡가 성장하여 눈으로 내리다가 도중에 녹으면 비가 된다.

4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구름 속의 온도가 0℃ 이상인 경우에 강수가 생성되는 원리이다.
- ② 구름 속 물방울들의 수가 적을수록 짧은 시간 내에 강수를 생성한다.
- ③ 상승 기류는 구름 속 물방울들이 반복적으로 충돌하고 합쳐지도록 한다.
- ④ 구름 속 물방울의 크기가 다른 것은 강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 ⑤ 공기 중의 습기를 흡수하는 물질을 뿌려 인위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다.

[45 ~ 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S#42. 안방(밤, 회상)

혁이와 옥이도 다락에서 내려와 있다.
서둘러 군복을 벗고 혁이의 옷을 입는 민이.
어머니와 경아는 밥상을 들고 들어선다.

어머니 (경아에게 군복을 내밀며) 얼른 아궁이에 넣어 태워 버려라.

경아 (군복을 받아들이고 나간다)
 민이 (밥을 달게 먹는다. 심한 고생을 했음이 역력하다)
 혁이 진작 이리로 오시지 그랬어요.
 큰아버지 여기라고 안전할 리도 없잖니.
 어머니 그야 그렇지만..... 서로 얼굴이라도 보는 게 얼마나 의지가 되는지요.
 옥이 큰집 식구들은 아직 영동에 그냥 계신 거예요?
 큰아버지 부산까지 갈 작정이긴 하다만.....
 민이 (식사만 한다)
 가까이에서 들리는 포성에 놀라는 식구들.

S#43. 부엌(밤, 회상)

밥상을 치우는 어머니와 경아, 불안한 시선을 주고 받는다.
 어머니 깨끗하게 태웠지?
 경아 네, 엄마. (사이) 큰아버지와 민이 오빠 죽 우리 집에 계실 건가?
 어머니 내일 일을 어찌 알겠느냐. 코앞의 일도 모르겠는데.
 경아 전쟁 같은 건 도대체 누가 일으키는 거야? 이게 무슨 꼴인지 모르겠어.
 어머니 불평할 기운도 없구나. 닥친 일은 닥친 대로 취나가는 수밖에
 경아 큰집 식구들 잠자린 어디로 할 거예요?
 어머니 오밤중에도 뒤지러들 오니 어디.....
 경아 왜 하필 우리 집으로 와? 먹을 것도 넉넉잖고..... 우리 오빠들도 위험한데.
 어머니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 도와야지. 남도 아닌 사촌끼리 그게 할 소리냐? 누가 들을까 겁나는구나.
 경아 엄마 앞이니까 해본 소린데요, 뭘.
 어머니 잠자릴 어떻게 해야 할는지 모르겠구나.
 경아 큰아버지께서 계시긴 찬마루 위 다락방이 너무 비좁잖아요.
 어머니 식량도 몇 군데로 나눠 감추지들 않니. 혹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함께 몽땅 당할 수는 없는 노릇이구.
 경아 엄마, 행랑채 벽장, 어때요?
 어머니 너무 외져서.....
 경아 (은밀하게) 그러니까 더 안전하죠. 그쪽은 거들떠도 안 보던데.
 어머니 원체 오래 비워놓기두 했구..... 지저분해서.....
 경아 그러니 좀 좋아요. 후딱 치우면 되죠, 뭐.
 어머니 글썸다.
 경아 (은밀하게) 우리 오빠들을 그리로 보내요.
 어머니?
 경아 거기가 더 안전할 거예요. 찬마루 위 다락방보단.
 어머니 (흠칫하고 민망해 하며) 원 애도.....

(중략)

S#46. 행랑채(밤, 회상)

방바닥에 쌓인 흙더미와 으스스한 기왓장 위에 널브러져 있는 어머니. 웅하니 뚫어진 지붕의 커다란 구멍으로 마구 쏟아지는 달빛. 그 달빛으로 보이는 처참한 광경. 피. 피. 피.....
 시뻘겋게 물든 호칭. 사방에 고여 있는 검붉은 선혈. 여기저기 흩어진 살점들.
 쓰러져 있는 어머니 위로 경아도 함께 실신해 버린다.

S#47. 건넌방(밤, 현실)

회상에 잠긴 경아가 철철 울고 앉아 있다.
 경아 (E) 내 오빠들은 그렇게 갔습니다. 거짓말처럼 그렇게요. 큰 아버지와 민이 오빠는 멀쩡하게 살아남았습니다. 큰집 식구들을 전처럼 좋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도 악마의 속삭임 같은 내 목소리를 듣습니다. 오빠들을 그리로 보내요. 행랑채가 더 안전할 거예요, 어머니.
 자신의 귀를 틀어막고 책상다리에 고개를 묻고 숨죽여 우는 경아.

S#48. 마루(밤)

어머니가 탈진한 채 서서 불 밝혀진 건넌방을 보고 있다.
 경아의 숨죽인 흐느낌 소리가 들린다.

- 박완서 원작, 박진숙 각색, 「나무」 -

45. 위 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민이는 현재 자신의 신분을 숨겨야 하는 인물이다.
- ② 큰아버지는 현실을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인물이다.
- ③ 어머니는 가족 간의 도리를 중시하지 않는 인물이다.
- ④ 경아는 과거를 떠올리며 스스로를 위로하는 인물이다.
- ⑤ 옥이는 주변 사람들의 처지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인물이다.

46. 위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S#42에서는 가까이에서 들리는 대포 소리를 통해 전쟁 상황을 사실감 있게 나타내고 있군.
- ② S#46에서 뚫어진 지붕 구멍 사이로 쏟아지는 달빛은 어머니가 처한 상황을 부각하고 있군.
- ③ S#47에서는 효과음(E)을 통해 울고 있는 경아의 심리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군.
- ④ S#42에서 S#43으로의 공간 이동은 어머니와 경아의 은밀한 대화를 가능하게 하고 있군.
- ⑤ S#46~S#48에서는 시간 흐름을 통해 상황을 극복하려는 어머니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군.

47. <보기>를 참고하여 위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극문학의 등장인물은 사건 발생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사건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이러한 관계가 인과적으로 연결될 때 작품의 사실성을 높일 수 있다. 위 글에서 폭격으로 인한 오빠들의 죽음이라는 사건의 발생은 등장인물의 영향을 받았으며, 사건 이후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 ① 경아와 어머니의 의견 대립으로 인해 사건이 발생한다.
- ② 경아네 집을 방문한 큰집 식구들은 사건 발생에 영향을 준다.
- ③ 경아는 사건 발생이 자신의 제안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자책한다.
- ④ 사건 이후에 큰집 식구들에 대한 경아의 심리적 거리는 멀어지게 된다.
- ⑤ 사건의 발생과 그 이후의 경아네 가족의 상황은 인과 관계에 의해 연결된다.

[48 ~ 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음성언어**가 음성으로 표현되고 청각으로 이해되는 체계임에 비해 ㉡ **수화**는 손 운동 등으로 표현되고 시각으로 이해되는 체계이다. 또한 수화는 음성언어에 비해 조사나 어미와 같은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형태소가 발달되지 않아서 주로 어순이나 수화의 맥락 등에 따라 그 문장성분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예쁘다} {꽃}*’의 순서로 수화하면 {예쁘다}가 어미의 활용 없이 ‘꽃’을 꾸미는 관형어가 되지만, ‘{꽃} {예쁘다}’의 순서에서는 {예쁘다}가 서술어가 되는 것이다.

수화는 손을 사용하는 수지 신호와 손 이외의 얼굴이나 눈썹의 움직임, 입 모양 등의 비수지 신호로 의미를 전달한다. 비수지 신호는 수지 신호와 함께 자연스럽게 나타나며, 일반적인 음성언어 상황에서 사용되는 비언어적 요소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비언어적 요소가 의사소통 상황에서 발화자의 감정을 강조하는 보조적 역할에 그치는 데 비해 비수지 신호는 문장 종결 등의 문법적인 역할까지 수행한다.

- (1) 비수지 신호: 눈썹을 올리고 입을 크게 벌리며 얼굴을 뒤로 약간 젖힘
 수지 신호: {나} _____ {화나다} *
 의 미: 나는 굉장히 화났다.

(1)에서 비수지 신호는 수지 신호에 동반되어 수지 신호만으로 의미를 전달할 때보다 수화자(말하는 사람)의 감정이나 느낌을 더욱 강조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음성언어의 비언어적 요소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 (2) ㄱ. 비수지 신호: 눈썹을 올리고 입을 벌리며 고개를 앞으로 내밀
 수지 신호: {이해} {되다} {-ㅂ니다}
 의 미: 이해가 됩니까?

- ㄴ. 비수지 신호: 눈썹을 올리고 입을 벌리며 고개를 앞으로 내밀
 수지 신호: {이해}
 의 미: 이해가 됩니까?

일반적으로 국어에서는 의문형 종결 어미가 서술어의 어간에 결합되어 의문문이 된다. 그러나 ‘(2)-ㄱ’에서처럼 수화에서는 ‘{-ㅂ니다}’라는 수지 신호와 ‘의문’의 의미를 나타내는 비수지 신호를 함께 사용하여 의문형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런데 일반적인 수화 상황에서는 문장을 축약하는 특성이 있어 ‘(2)-ㄴ’에서처럼 {-ㅂ니다}라는 수지 신호 없이 의문을 나타내는 비수지 신호만으로 의문형을 표현한다.

- (3) 비수지 신호: 눈썹을 올리고 입을 크게 벌림
 수지 신호: {빨리빨리} {결정}
 의 미: 빨리빨리 결정해라.

수화의 명령문은 (3)에서처럼 ‘눈썹을 올리고 입을 크게 벌림’ 등과 같은 비수지 신호로 나타낼 수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3)에서처럼 문장 끝에 있는 수지 신호와 함께 나타나는데, 특히 강하게 명령할 때에는 비수지 신호를 문장 처음에 있는 수지 신호에서부터 지속적으로 강하게 표현한다.

이렇듯 수화는 수지 신호와 비수지 신호가 함께 의미를 전달하는 의사소통 방식이자, 시각적 신호와 의미의 대응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언어 체계이다.

* { } : 수지 신호임을 알려주는 표시.
 * _____ : 수지 신호 중 밑줄이 표시된 부분은 수지 신호와 비수지 신호가 함께 지속되는 부분임을 알려주는 것임.

48. 위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일반적인 수화 상황에서는 문장을 축약하는 특성이 있다.
- ② 비수지 신호는 음성언어 상황의 비언어적 요소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 ③ 수지 신호는 주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형태소의 역할을 수행한다.
- ④ 수화는 수지 신호와 비수지 신호가 함께 의미를 전달하는 의사소통 방식이다.
- ⑤ 명령문에서 비수지 신호가 처음부터 강하게 사용되면서 지속될 경우에는 명령의 의도가 강조된다.

49. ㉠과 ㉡의 공통점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 기 >

ㄱ. 감각 기관을 통해 이해되는 체계이다.
 ㄴ.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ㄷ. 어순에 따라 단어의 문장성분이 결정된다.
 ㄹ. 표정이나 몸짓 등이 보조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50. <보기>는 ‘아이는 방에서 놀니까?’를 수화로 표현한 것이다.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비수지 신호				
	{아이}	{방}	{놀다}	{-ㅂ니다}
수지 신호				
	b	c	d	e

- ① ㉠은 국어에서의 의문형 종결어미와 동일한 기능을 한다.
- ② b 앞에 {예쁘다}를 표현하면 ‘예쁜 아이’라는 의미가 된다.
- ③ {에서} 없이 c만으로도 ‘방에서’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
- ④ <보기>를 명령문으로 바꾸어 표현하려면 d를 바꾸면 된다.
- ⑤ e를 표현하지 않더라도 a와 d를 함께 사용하면 ‘놀니까?’라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 확인사항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면은 여백입니다.

2012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1교시 언어 영역 •

1	④	2	②	3	③	4	④	5	④
6	⑤	7	④	8	④	9	②	10	④
11	④	12	④	13	④	14	①	15	⑤
16	②	17	④	18	⑤	19	⑤	20	②
21	④	22	④	23	③	24	④	25	③
26	③	27	④	28	①	29	①	30	④
31	②	32	③	33	①	34	①	35	④
36	③	37	⑤	38	④	39	④	40	①
41	④	42	④	43	②	44	②	45	①
46	⑤	47	①	48	③	49	④	50	④

[듣 기]

〈1번〉 이제 여러분은 이야기 한 편을 듣게 됩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어느 날 한 아주머니가 간디의 오두막을 찾아왔습니다. 아주머니는 근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게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단 것을 너무 좋아해서 건강을 해칠까 걱정스럽습니다. 아무리 타일러도 제 말은 듣지 않습니다. 제 아들은 선생님을 존경하오니 부디 한번 만나서 타일러 주십시오.” 간디는 한참 생각한 뒤 2주 후에 아들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2주 후에 찾아온 젊은이에게 간디가 말했습니다. “젊은이, 단 것을 너무 많이 먹으면 건강에 해로우니 그만 먹는 게 좋을 듯하오.” 젊은이가 대답했습니다. “어렵겠지만 선생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젊은이가 돌아가고 난 뒤 제자가 간디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바로 다음 날 오라고 하시지 않고 2주 후에 부르셨습니까?” 간디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단 것을 끊어버리는 데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일세. 나도 단 것을 먹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단 것을 끊으라고 말할 수는 없었단네.”

1. [출제의도] 이야기를 듣고 교훈 파악하기

간디는 젊은이에게 단 것을 먹지 말라는 말을 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단 것을 끊었다. 따라서 이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타인을 가르치기에 앞서 자신을 먼저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이다.

〈2번〉 이번에는 한옥에 대한 대화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민서 : 할아버지! 학교에서 한옥에 대해 알아오라고 숙제를 내줬어요. 근데 너무 막막해요.
 할아버지 : 그래? 할아버지가 좀 도와줄까? 우리 민서, 한옥의 건물 배치에도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는데, 들어 본 적 있니?
 민서 : 아니요, 처음 들어 봐요.
 할아버지 : 할아버지한테 책이 하나 있는데.(휴지) 자, 여기 그림을 한번 볼까? 우리 조상들은 시원한 바람을 얻기 위해 ‘바람길’이란 걸 만들었어. 그림에서 두 건물 사이에 길이 하나 나 있는 거 보이지? 이게 바로 바람길이야.
 민서 : 아~ 이게 바람길이군요. 그런데 왜 바람길 남쪽과 북쪽의 간격이 달라 보이죠?
 할아버지 : 그래, 잘 봤구나. 네가 본 것처럼 남쪽이 북쪽보다 간격이 더 넓지? 이건 의도적으로 건물을 그렇게 배치했기 때문인데, 여기에 바로 과학적 원리가 담겨 있어. 길이 넓은 남쪽에서 들어온 바람은 좁은 북쪽 길로 빠져나가면서 속도가 빨라지고 세차진단다. 반대로 북쪽에서 들어온 바람은 남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속도가 느려지고 순해지지. 한마디로 바람길은 여름에 불어오는 남동풍은 북쪽까지 시원하게 밀려가게 하고, 겨울에 부는 차가운 북서풍은 순하게만 들어주는 거야.

민서 : 와~ 정말 신기하네요.
 할아버지 : 그렇지? 그럼 할아버지가 하나 물어볼까? 만약 여름에 땀을 식힌다면, 이 그림에서 가장 시원한 곳은 어디일까?

2. [출제의도] 대화를 듣고 상황에 적용하기

여름에 넓은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좁은 북쪽 길로 빠져나갈 때 바람의 속도가 빨라지고 세차진다고 했으므로, 북쪽에 인접한 ㉠이 가장 시원한 곳이라 할 수 있다.

〈3번〉 이번에는 강연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오늘은 ‘문화할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 문화권의 문화 상품이 다른 문화권으로 진입할 때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그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을 문화적 할인이라고 합니다. 이때 그 할인되는 비율을 문화할인율이라고 하죠. 일반적인 상품의 경우 그 가치가 낮게 평가될수록 할인의 폭이 크고 할인율이 높아지게 되죠. 이와 마찬가지로 문화 상품도 그 가치가 낮게 평가될수록 문화할인율은 높아지게 됩니다. 결국 문화할인율이 높다는 것은 문화 상품이 언어나 사고방식 등의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다른 문화권에 수용되기 어렵다는 의미이고, 반대로 문화할인율이 낮다는 것은 수용되기 쉽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문화할인율의 개념이 아직 좀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드라마는 문화적·정서적 성향이 비슷한 일본과 중국 등지에서는 비교적 쉽게 수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문화할인율은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나라와 문화적 토양이 전혀 다른 유럽이나 아프리카 등지에서는 수용되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문화할인율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문화할인율이 높아 다른 문화권에 진입하기 어렵던 문화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문화적 친근감을 높인다면 문화할인율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문화 산업을 아시아를 넘어 세계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문화 상품을 제작할 때 시장 전략의 하나로 문화할인율을 고려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3. [출제의도] 반응의 적절성 파악하기

한 문화권의 문화 상품이 다른 문화권으로 진입할 때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문화적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문화적 친근감을 높여야 한다. 이렇게 문화적 친근감을 높인다면 ‘문화할인율’은 낮아질 수 있다. ① ‘문화할인율’이 낮다는 것은 한 나라의 문화 상품이 다른 나라에 쉽게 수용될 수 있다는 것이고, ‘문화할인율’이 높다는 것은 한 나라의 문화 상품이 다른 나라에 수용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문화할인율’의 높고 낮음을 확인하면 문화의 수용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게 된다. ② 동일한 문화 상품도 문화적 배경의 차이에 따라 쉽게 수용될 수도 있고, 수용이 어려울 수도 있다. ⑤ ‘문화할인율’이 낮다는 것은 한 나라의 문화 상품이 다른 나라에 쉽게 수용될 수 있다는 것이기에 세계시장을 염두에 두고 문화 상품을 제작할 때는 ‘문화할인율’을 낮추는 전략이 필요하다.

〈4~5번〉 이번에는 라디오 시사 대담을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진행자 :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에 ‘한국형 컨슈머 리포트’를 제작하기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님을 모시고 ‘한국형 컨슈머 리포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컨슈머 리포트라는 말이 좀 낯선데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남 성 : 예, 컨슈머 리포트는 미국의 소비자협회가 1936년부터 발행해 온 월간지인데요. 소비자들에게 각종 상품의 성능이나 가격 등을 비교·분석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 네,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컨슈머 리포트 도입은 늦은 감이 있군요. 그래도 뒤늦게나마 한국형 컨슈머 리포트를 만든 데에는 어떤 의도가 있을 듯한데요. 도입한 취지는 무엇입니까?

남 성 : 날마다 수많은 상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정작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믿을 만한 상품 정보를 얻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관하여 각종 상품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를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행자 : 예, 그렇군요. 소비자들도 크게 환영할 듯 한데요,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청취자분들도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남 성 : 우선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과 연계해서 관심 품목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컨슈머 리포트를 작성합니다. 이후 작성된 컨슈머 리포트는 온라인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데, 미국과는 달리 소비자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 그런데 미국의 경우 LCD TV 하나의 성능 조사에만 5억 원을 들인 것에 비해,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배정한 1년 예산은 2억 원 정도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남 성 : 적은 예산으로도 발상만 전환하면 내실 있는 보고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형 컨슈머 리포트’는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참여하여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이 올린 사용 후기를 참고하여 상품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진행자 : 네, 소비자들의 참여로 예산 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마지막으로 ‘한국형 컨슈머 리포트’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남 성 : 소비자가 원하는 좋은 정보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생산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지식이 필요한 제품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입해서 분석을 시도하고, 결과가 나오면 엄정하게 순위까지 매겨서 보고서를 만들 생각입니다.

4. [출제의도] 진행자의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진행자가 네 번째 발언에서 구체적 자료를 토대로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발언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대담자의 발언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대담자의 설명을 요구하는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5. [출제의도] 대담의 세부 정보 파악하기

대담자의 세 번째 발언을 보면 ‘한국형 컨슈머 리포트’는 온라인을 통해 무료로 제공된다고 말하고 있다.

[쓰 기]

6. [출제의도] 연상 내용의 적절성 파악하기

㉠의 기능은 적절한 주행 속도의 안내를 통해 운전자가 과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연상하면 ‘학습자는 주어진 학습 환경이나 조건에 맞추어 공부해야 한다.’ 정도가 적절하다.

7. [출제의도] 고쳐 쓰기의 적절성 파악하기

‘현금 기부’, ‘물품 기부’, ‘재능 기부’는 기부의 주체가 아니라 기부의 종류라고 할 수 있으므로, ‘종류’를 ‘주체’로 고쳐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실천하

는'의 목적어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목적어 '나눔을'을 삽입하는 것이 적절하다. ② '생활 속 나눔 운동'은 '학생들이' 실천하는 것이므로 '실천할'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③ 앞문장이 '생활 속 나눔 운동'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있으므로 그것을 부연 설명하는 내용이 이어져야 하며, 기부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학생들의 의구심을 언급한 내용이 이어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첫째 문단에서 생활 속 나눔 운동을 소개하겠다고 하였으므로 그것을 소개한 셋째 문단이 이어져야 하며, 둘째 문단처럼 생활 속 나눔 운동의 의의를 밝히고 동참을 권유하는 내용은 셋째 문단의 뒤에 이어지는 것이 적절하다.

8. [출제의도] 조건에 맞게 표현하기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나눔'에서 나눔의 의의가, '나눔의 마법'에서 비유가, '작은 것을 나누면 더 큰 것을 얻게 됩니다'에서 역설적 표현이 나타나고 있다. ① 비유와 역설적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② 나눔의 의의가 나타나지 않는다. ③, ⑤ 역설적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9. [출제의도] 개요 작성 및 수정·보완하기

<보기>는 '지역사회 청소년 동아리 활성화'에 관련된 글을 쓰기 위한 개요이고, ㉠은 실태를 확인하는 항목이다. 그런데 '학교 체험활동과의 연계성 강화'라는 항목을 추가하면 상위항목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된다. 따라서 적절한 수정·보완의 방법이 될 수 없다. ① ㉠은 논지를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지역사회 청소년 동아리 활동의 필요성 증대로' 바꾸어야 한다. ③ ㉡의 '문화 행사 유치에 대한 지역 간 경쟁 과열'은 글의 논지와 동떨어진 내용이므로 '지역 청소년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동아리의 부족'으로 고쳐야 한다. ④ 'II-2-다'의 내용을 고려할 때 ㉢에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 내 동아리 지도자 양성'을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다.

10. [출제의도] 자료 활용의 적절성 판단하기

자료 (가)는 할인 쿠폰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음을 밝히는 신문 보도이다. 자료 (나)-1은 직장인보다 대학생들이 가격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 쿠폰 이용률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자료 (나)-2는 할인 쿠폰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불만을 느끼는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자료 (다)는 할인 쿠폰을 이용함으로써 경제적 비용의 절감과 심리적 만족감을 얻을 수 있으나 사용의 제약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으며, 자료 (라)는 할인 쿠폰이 기업의 판매 전략으로써 소비를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자료 (라)를 통해 소비자들이 할인 쿠폰을 사용하여 고가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내용은 이끌어 낼 수 있으나 이를 자료 (나)-1과 연관지어 대학생들이 할인 쿠폰으로 고가의 상품을 구매하는 경향이 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11. [출제의도] 관용적 표현 이해하기

'손이 재다'는 '일처리가 빠르다.'의 의미이다. ① '손을 끊다'는 '교제나 거래, 맺었던 관계를 중단하다.'의 의미이다. ② '손이 서들다'는 '어떤 일에 익숙하지 않다.'의 의미이다. ③ '손이 여물다'는 '일하는 것이 빈틈없고 매우 꼼꼼하다.'의 의미이다. ⑤ '손이 뜨다'는 '일하는 동작이 매우 굼뜨서 일을 빨리 처리하지 못한다.'의 의미이다.

12. [출제의도] 연결어미 이해하기

ㄴ의 '-(으)니까'로 연결된 문장에서 앞의 주어는 '비가'이고, 뒤의 주어는 '제가'로 앞뒤의 주어가 일치하지 않는다. ㄹ에서도 역시 앞의 주어는 '비가'이지만, 뒤의 주어는 명령형일 때에는 '네가', 청유형일 때에는 '우리가'로 앞뒤의 주어가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④에서 언급한 '-(으)니까'로 연결된 문장은 앞뒤의 주어가 일치해야 한다는 진술은 옳지 않다.

[시가복합]

[13~18] <출전> 이육사, 「자야곡(子夜曲)」, 김용택, 「그대 생의 숲속에서」, 이별, 「장육당육가(藏六堂六歌)」

13. [출제의도] 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하기

(가)에서는 '무덤 위에' 푸를 '이끼'를 통해 화자가 기대하는 모습의 고향이 아닌 상황에 안타까워하는 화자의 내면 심리가 드러난다. (나)에서는 '내리는' '솔이파리들'과 지는 '상수리나무 목은 잎'을 보고 자연의 변화에 주목하며 과거에서 벗어나겠다는 화자의 의식이 드러난다. (다)에서는 '나를 잊'은 '백구'를 통해 자연과 하나 된 경지를 느끼는 화자의 정서가 드러난다.

14. [출제의도] 작품의 표현상 특징 비교하기

(나)에서는 '그대는 저 수많은 새 잎사귀들처럼 푸르른 눈을 뜨리 / 그대 생의 이 고요한 숲속에서'를 어순이 도치된 표현으로 이해할 수도 있으나, (가)에는 어순이 도치된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② (가)는 처음과 끝을 반복하여 대응시킴으로써 상황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으나, (나)는 처음과 끝이 서로 대응되지 않는다. ⑤ (가)는 '-리라'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으며, (나)는 '-(으)리', '-네'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15. [출제의도] 시어의 의미나 기능 비교하기

(나)의 '숲속'은 화자가 떨어지는 나뭇잎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에 대해 생각하는 구체적인 체험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며, (다)의 '강'은 그곳의 냇수터에서 화자가 낚시하는 구체적인 체험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16. [출제의도] 자료를 바탕으로 작품 감상하기

'검은 꿈'은 슬픔과 자랑 같은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 표현조차도 불가능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절망적인 화자의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에 일제 강점 하의 현실을 이겨내려는 의지는 드러나 있지 않다.

17. [출제의도] 작품 심화하여 이해하기

'내 마음의 가장자리'는 화자의 마음 한 구석으로 과거의 삶을 마음속에 잡아두지 않겠다는 화자의 마음이 내포되어 있으며, '숲속 끝'은 해맑은 햇살이 찾아오는 밝은 이미지를 지니고 있는 곳이므로, 이 시구들에는 소외된 삶에 대한 외로움은 드러나 있지 않다.

18. [출제의도] 자료를 참고하여 시구 이해하기

㉠은 맑고 탁함을 분별하여 혼탁한 세상에서는 벼슬을 하지 않고 자연에 은거하고 있는 화자 자신과는 달리, 맑고 탁함을 분별하지 못하고 혼탁한 현실 속에서도 세상에 나아가 이득을 취하려는 세상 사람들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세상의 청탁을 구별하지 못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아쉬움이 담겨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사 회]

[19~21] <출전> 조순, 정운찬 외 「경제학원론」

19. [출제의도] 사실적 정보 확인하기

우월전략에 대한 내용은 2문단에 나와 있다. 우월전략이 안정적 보수를 얻을 수 있는 전략이라는 진술은 맞지만, 이 글에는 상대방의 전략 선택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진술되어 있다.

20. [출제의도] 사례에 맞는 반응의 적절성 파악하기

2문단을 보면 우월전략은 담합이 이루어지기 이전 상황에서 복점기업들이 상대 기업의 전략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전략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갑'과 '을'은 담합을 통해 우월전략의 균형을 이루고자 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21. [출제의도] 자료 이해의 적절성 파악하기

<보기>의 사례에서 B사는 10% 이상의 수익률을 낼 수 있어야만 시장 진입이 가능하다. A사가 소형매장을 선택한다면 B사는 시장에 진입하여 13%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 B사는 시장에 진입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A사와 B사는 각각 13%의 동일한 수익률을 얻게 된다. 반면, A사가 대형매장을 선택한 경우에는 B사가 시장에 진입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5%이기 때문에 B사는 시장 진입을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A사는 대형매장을 선택함으로써 B사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고 17%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인 문]

[22~33] <출전> 김철호 외, 「세계의 사상 100선」

22. [출제의도] 글쓰기에 활용된 전략 파악하기

절충은 '서로 다른 견해나 관점을 어느 편으로도 치우치지 않게 조절하여 알맞게 함'이란 뜻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상반된 이론을 절충하는 방식을 활용했다고 볼 수는 없다. ② 2문단 이하에서 경험주의, 주지주의, 메를로 폰티의 이론을 대비하여 차이점을 부각했다. ③ 1문단에서 의문을 활용하여 독자의 관심을 환기했다. ⑤ 각각의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 '사례'를 활용했다.

23. [출제의도] 사실적 정보 확인하기

주지주의는 인간의 지각에서 정신 작용을 강조했지만 메를로 폰티는 인간의 '몸'에 주목하여 '현상학적 장'에서 '몸'이 체험한 것이 곧 지각이라고 설명했다.

24.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2문단에서 경험주의는 대상과 일치하지 않는 지각 경험은 설명하기 곤란하다고 하였으므로, 경험주의의 관점에서는 '철수'가 '노란 빛깔의 장미'를 '빨간 흑장미'로 지각한 것을 설명할 수 없다. ① 2문단에서 경험주의의 관점에 따른 객관적 세계를 확인할 수 있다. ② 3문단에서 주지주의가 지각 주체의 정신작용을 객관적인 세계보다 더 중시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5. [출제의도] 어휘의 사전적 의미 파악하기

'주목'은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핌'의 의미이다. '경고나 훈계의 뜻으로 일깨움'의 의미를 지닌 단어는 '주의(注意)'이다.

[현대소설]

[26~29] <출전> 김정환, 「산거죽」

26. [출제의도] 작품의 서술상 특징 파악하기

이 글은 작품 밖의 전지적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와 사건의 정황을 모두 알고, 이를 직접 서술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① 과거에서 현재의 시간적 순서에 의해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② 이 글에서 등장하는 인물의 외양을 섬세하게 묘사하는 부분은 찾기 어렵다.

27. [출제의도] 인물 간의 관계로 작품 감상하기

'배수 시설의 양도를 거절당한 동팔이는 어디 보자는 듯이 '마삿등' 일대에 자기대로의 시설을 하기 시작했다'는 부분으로 보아, 호동팔이 수도 시설을 설치한 것은 황거철의 제안 거부에 대한 반발 심리로 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글에서 동네 사람들이 수도 시설과 관련하여 호동팔이에게 어떤 요구 조건을 내세우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호동팔이(㉠)이 동네 사람들(㉡)이 제시한 요구 조건을 받아들여 수도 시설을 설치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28. [출제의도] 구절의 의미 파악하기

황거칠 씨가 밝힌 '새로운 계획'은 새 수원이 있는 굴밤나뭇골에 샘을 파서 마을로 연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새로운 계획'은 '새 수원'을 찾아야 이를 수 있는 것이라는 설명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29. [출제의도]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우리들 것'은 황거칠 씨가 동네 사람들과 함께 마을에 설치한 배수 시설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리들 것'에 해당하는 것은 '마삿동' 일대의 배수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과 ㉡는 호동팔이 마을에 설치하는 배수 시설을 의미한다.

[기 술]

[30~33] <출전> 송동근 외, 「전기집진 기술현황」

30. [출제의도] 주요 정보 이해하기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전자(-)를 얻기 위해서는 방전봉에 (-)극을 연결하여 높은 전압을 가해야 하며, 전자(-)와 결합하여 대전된 오염물질을 포집하기 위해서는 집진판에 (+)극이 연결되어야 하므로 이 글을 통해 방전봉과 집진판에 서로 다른 극을 연결하는 이유를 확인할 수 있다.

31. [출제의도] 세부 내용 확인하기

우선 극성에 의해 이동하는 물질은 코로나 방전 이후 발생한 전자(-)이다. 왜냐하면 전자(-)는 (+)극인 집진판으로 이동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또한 전자(-)에 의해 대전된 공기 속 오염물질 역시 음전하를 띠게 되므로 (-)극인 ㄱ(방전봉)이 아니라 (+)극인 ㄴ(집진판) 쪽으로 이동하여 포집된다.

32. [출제의도] 내용 추론하기

코로나 방전에 의해 기체 분자의 핵으로부터 분리된 전자(-)는 극성에 의해 (+)극의 집진판 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또한 그 과정에서 오염 물질의 표면에 흡착하게 되면 오염 물질을 대전시키게 되고, 대전된 오염 물질, 즉 대전입자가 (+)극의 집진판 쪽으로 이동하게 만든다. 하지만 오염 물질의 표면에 흡착하지 못했다고 해서 전자의 극성이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전자(-)가 (-)극인 방전봉 쪽으로 이동한다는 추론은 적절하지 않다.

33. [출제의도] 단어의 문맥적 의미 이해하기

'흡착하다'는 '어떤 물질이 달라붙다'는 의미이므로 '스며든다'라는 단어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예 술]

[34~37] <출전> 정한조, 「사진 감상의 길잡이」

34. [출제의도] 글에 언급된 내용 파악하기

이 글에는 '메이킹 포토그래피'가 어디에서부터 유래되었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단지 1980년대 들어 포스트 모더니즘 미술과 함께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고만 하였다. ㉠ 1문단에 언급되었다. ㉡ 5문단에서 메이킹 포토그래피는 사진의 다양한 예술성을 보여주는 데 기여하였다고 했다.

35. [출제의도] 글의 내용 작품에 적용하기

㉠은 대상을 여러 시점에서 카메라로 찍은 다음 사진들을 이어 붙여서 입체감을 드러냈고, <보기>의 작품은 대상의 부분들을 다양한 시점을 통해 표현하여 입체감을 드러냈다. <보기>의 작품이 동일한 형태를 연속적으로 반복하여 입체감을 드러낸 것은 아니다. ㉢ ㉠과 <보기>의 작품은 모두 평면에 입체감을 구현한 작품들이기 때문에 평면이 주는 제약

극복하고자 한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다. ㉤ 2문단에서 ㉠은 구성이 자연스러워 한 시점에서 찍은 사진처럼 느껴진다고 하였고, <보기>에서 피카소의 작품은 코와 얼굴을 바라본 시점이 다르고, 겹쳐진 다리의 모습도 자연스럽지 않다고 했다.

36. [출제의도] 글의 내용 적용하기

<보기>에 따르면, 스티글리츠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포착하여 '사실성'을 가질 때 사진의 본질에 더 가까운 것이라 생각했고, 메이킹 포토그래피 작가들은 다양한 기법들을 동원해 대상을 변화시키거나 아예 처음부터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서 사진을 찍었으므로 스티글리츠가 메이킹 포토그래피 작가들을 비판한다면 '사진의 본질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대상을 찍는 것이지, 대상을 가공하여 찍는 것이 아니다.'라 했을 것이다. ㉠ 스티글리츠는 사진의 사실성을 추구했으므로 사진 이외의 다른 요소들을 사용하지 않았다. ㉤ 스티글리츠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포착한 사진가이므로 가상적인 설정을 하지 않았다.

37. [출제의도]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의 '짜다'는 '계획이나 일정 따위를 세우다.'의 의미이므로 '학습 계획을 짜다.'와 문맥적 의미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 '짜다'는 '사개를 맞추어 가구나 상자 따위를 만들다.'라는 의미이다. ㉣ '짜다'는 '사람을 모아 무리를 만들다.'라는 뜻이다.

[고전소설]

[38~41] <출전> 작자미상, 「반씨전」

38. [출제의도] 세부 정보 확인하기

반씨 모자가 채씨와 위진이 해치려는 계략을 피해 산으로 피신하여 노인(신령)을 만나 도움을 얻게 된 것은 양부인의 청에 의한 것이지 반씨 모자가 노인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한 것은 아니다.

39. [출제의도] 서사 구조 파악하기

반씨의 꿈에 양부인이 나타나 위험에 처했음을 알려 줌으로써 반씨 모자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양부인이 산이라는 피신처를 안내해 준 것은 아니다.

40. [출제의도] 말하기 방식의 특징 파악하기

[A]에서 채씨는 남편인 위진에게 반씨가 비도덕적인 행위를 한다고 사실을 왜곡하여 반씨 모자를 처치하도록 부추기고 있다.

41. [출제의도] 한자 성어 적용하기

㉠은 여막을 벗어나 산곡으로 들어간 반씨 모자가 깊은 밤에 길을 잃은 데다 몸의 힘까지 점점 바닥이 나고 있는 상황에 해당하므로 '난처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 잇따라 일어남'의 뜻을 지닌 '설상가상(雪上加霜)'이 적절하다.

[과 학]

[42~44] <출전> 안중배 외, 「대기과학」

42. [출제의도] 중심 내용 파악하기

강수가 형성되는 원리를 온대 지방이나 한대 지방에서는 얼음 결정이 성장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열대 지방에서는 물방울이 충돌-병합 과정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43. [출제의도] 구체적 과정 이해하기

㉢가 달라붙어 성장하는 빙정 과정을 거치는 것은 ㉤이다. ㉠ 2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문단에서 ㉠은 0℃ 이하의 온도에서도 얼지 않고 액체 상태로 존재하며, 이것이 증발하여 수증기가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44. [출제의도] 세부 내용 이해하기

충돌-병합 과정은 구름 속에 있는 다양한 크기의 물방울들이 서로 충돌하고 합쳐져서 강수가 생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구름 속 물방울의 수가 많을수록 강수가 생성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구름 속 물방울의 수가 적을수록 짧은 시간 내에 강수를 생성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3문단에서 충돌-병합 과정은 상대적으로 큰 물방울이 떨어지면서 작은 물방울들과 충돌하며 합쳐지고, 이렇게 더 커진 물방울이 떨어지면서 다른 물방울과 충돌하며 합쳐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구름 속 물방울의 크기가 다른 것이 강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 공기 중의 습기를 흡수하는 물질을 뿌리면 구름 속 물방울이 크게 성장하므로 충돌-병합 과정이 일어나게 된다.

[극문학]

[45~47] <출전> 박완서 원작, 박진숙 각색, 「나목」

45. [출제의도] 인물이 처한 상황 파악하기

서둘러 군복을 벗고 혁이의 옷으로 갈아입는 민이의 모습을 통해 민이는 현재 자신의 신분을 숨겨야 하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 큰아버지는 자신과 가족들이 처한 현실을 안전하지 않다고 보는 인물이다. ㉣ 경아는 자신의 제안으로 두 오빠가 죽게 된 일에 대해 회상하며 깊은 자책에 빠지게 되는 인물이다. ㉤ 옥이는 큰집 식구들의 현재 거처에 관심을 보이는 인물이다.

46. [출제의도] 장르적 특성을 바탕으로 작품 감상하기

S#46에서 실신을 하여 쓰러져 있던 어머니는 S#48에서는 탈진 상태로 겨우 서서 경아가 숨죽여 울고 있는 건넌방을 바라보고 있다. 따라서 S#46~S#48로의 시간 흐름을 통해 상황을 극복하려는 어머니의 의지가 드러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S#47에서 제시된 효랑채(E)에서 경아는 자신의 제안으로 두 오빠가 행랑채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던 지난 일을 회상하면서 두 오빠를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자책하고 있다. ㉣ 큰집 식구들이 있는 안방에서 부엌으로 공간을 이동하게 됨으로써 어머니와 경아는 오빠들의 거처 이동과 관련한 은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

47. [출제의도] 등장인물과 사건 간의 관계 파악하기

경아와 어머니는 오빠의 거처 이동과 관련하여 불안한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누었으며, 오빠들의 거처를 행랑채로 옮기자는 경아의 제안은 S#46에서 비참한 결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아와 어머니의 의견 대립으로 사건이 발생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큰집 식구들이 방문하여 경아의 두 오빠들은 행랑채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기에 큰집 식구들이 사건 발생에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S#47에서 경아는 자신의 제안으로 인해 사건이 발생했다는 자책에 빠져 있다. ㉣ S#47에서 경아는 사건 이후 큰집 식구들에 대한 반감과 야속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사건의 발생과 그 이후에 경아네 가족이 처한 비극적 상황은 인과 관계에 의해 연결된다.

[언 어]

[48~50] <출전> 윤병천, 「한국수화의 비수지신호에 대한 언어학적 특성 연구」

48.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2문단에서 비수지 신호가 문장 종결 등의 문법적 역할까지 수행한다고 하였으므로, 수지 신호가 주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형태소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없다. ㉠ 4문단에서 일반적인 수화 상황에서는 문장을 축약하는 특성이 있다고 하였다. ㉡ 2문단에

서 비수지 신호는 음성언어 상황에서 사용되는 비언어적 요소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하였다. ④ 6문단에서 수화는 수지 신호와 비수지 신호가 함께 의미를 전달하는 의사소통 방식이라고 하였다. ⑤ 5문단에서 강하게 명령할 때에는 비수지 신호를 문장 처음에 있는 수지 신호에서부터 지속적으로 강하게 표현한다고 하였다.

49. [출제의도] 핵심 개념의 공통점 파악하기

1문단에서 음성언어는 청각으로, 수화는 시각으로 이해되는 체계임을 알 수 있다.(ㄱ) 1, 2문단을 통해 음성언어와 수화는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체계임을 알 수 있다.(ㄴ) 2문단에서 음성언어 상황의 비언어적 요소와 수화의 비수지 신호는 감정이나 느낌을 강조하는 보조적 역할을 수행함을 알 수 있다.(ㄷ) 1문단에서 수화는 주로 어순이나 맥락 등에 의해 문장성분이 결정된다고 하였지만, 음성언어가 어순에 따라 단어의 문장 성분이 결정되는지의 정보는 확인할 수 없다.(ㄹ)

50.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2문단에서 비수지 신호는 문장 종결 등의 문법적인 역할까지 수행한다고 하였고, 5문단에서 수화의 명령문은 비수지 신호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보기>를 명령문으로 바꾸어 표현하는 것은 ㉠가 아니라 ㉡와 관련이 있으며, ㉠를 바꾸는 것만으로 명령문을 표현할 수 없다. ① 4문단에서 의문을 나타내는 비수지 신호만으로 의문형을 표현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는 국어에서의 의문형 종결어미와 동일한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② 1문단에서 '{예쁘다} {꽃}'의 순서로 수화하면 {예쁘다}가 어미의 활용 없이 '꽃'을 꾸미는 관형어가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예쁘다} {아이}'는 '예쁜 아이'라는 의미가 된다. ③ 1문단에서 수화는 조사나 어미와 같은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형태소가 발달되지 않았다고 하였다. 또한 <보기>의 표에서는 {에서}의 수지 신호가 나타나 있지 않으면서 {방}으로 '방에서'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⑤ 4문단에서 {-ㅂ니까}라는 수지 신호 없이 의문을 나타내는 비수지 신호만으로 의문형을 표현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 없이 ㉠에 ㉡를 함께 사용하면 '뉘니까?'라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3. 다음 대화에서 선생님이 사용한 의사소통 전략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선생님: 지아야, 힘이 없어 보이네. 무슨 일 있니?
지 아: 아니에요. 선생님.
선생님: 그래, 그럼 다행인데, 아무래도 선생님은 지아가 걱정이 있는 것 같은데?
지 아: 저..... 고민이 있긴 한데.....
선생님: 저런, 고민이 있어서 그렇게 힘이 없어 보였구나.
지 아: 사실 저는 다시 미술 공부를 하고 싶는데, 부모님께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선생님: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래, 지금 네 입장에서는 걱정이 많이 되겠구나.
지 아: 네.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잠시 접었던 미술 공부를 대학에 가서 다시 하고 싶어요. 그런데 진로를 바꾸기에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냐며 부모님께서 반대하실 것 같아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선생님: (고개를 끄덕이며) 아, 그래서 대학에서 미술 공부를 하고 싶다는 네 생각을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못했다는 얘기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지 아: 음..... 아무래도 제 진로를 부모님과 얘기해 보는 것이 좋겠죠? 부모님께서 반대하실지 확실하지도 않고요.
선생님: 응, 그래. 부모님과 얘기해 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겠구나.
지 아: 네, 선생님.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래, 앞으로는 지아의 밝은 모습을 기대할게.

- ① 자신의 경험담을 활용하여 상대방의 이야기를 이끌어 내고 있다.
- ② 상대방 말에 맞장구치며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끌어 가고 있다.
- ③ 상대방의 주요 표현들을 반복하여 상대방의 이야기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 ④ 상대방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며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다.
- ⑤ 상황에 맞는 표정과 몸짓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4~5] 다음은 면접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면접관: 지금부터 면접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학생에게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차례대로 대답해 주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심리학과에 지원한 동기를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과 관련하여 답변해 보세요.
학생 1: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저의 꿈은 경찰이에요. 근데 요즘은 범죄가 날로 지능화되고 있어요. 이러한 범죄에 대처하려면 이제는 범인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 경찰에게 필수적인 능력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심리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어요.
학생 2: (면접관과 시선을 맞추며) 저는 어릴 때부터 사람 사이의 관계나 심리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수학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심리에 대해 알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친구들의 심리를 정확하게 읽어내서 친구들을 놀라게 한 적도 있었습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면접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입학 후 학업 계획에 대해 답변해 보세요.

학생 1: 저는 미리 대학 홈페이지에서 교육과정을 찾아보았어요. 그래서 1학년 때에는 평소에 흥미 있었던 심리학 개론, 심리 통계 등 전공 필수 과목을, 2학년 때에는 내가 하려는 직업과 관련된 법심리학, 범죄 심리학과 같은 선택 과목을 공부할 계획이에요.

학생 2: 음.....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적은 없지만, 일단 전공과목을 열심히 공부하고, 영어가 중요하다고 말씀들을 하시니까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면접관: 마지막 질문입니다.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지음이 있습니까? 있다면 함께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학생 1: 모르는 단어가 있어서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데..... [A] 근데 지음이 뭐예요?

학생 2: 죄송합니다. 저도 질문의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4. 두 학생에 대해 면접관이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면접 채점표

평가 준거	학생 1		학생 2		
	그렇다	아니다	그렇다	아니다	
지원 동기를 면접관의 질문 의도에 맞게 답변했는가?	✓			✓	... ①
학업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답변했는가?		✓		✓	... ②
불필요한 내용이 답변에 포함되어 있는가?		✓	✓		... ③
격식에 맞는 어법으로 답변했는가?		✓	✓		... ④
비언어적 표현이 적절한가?	✓		✓		... ⑤

5. [A]에서 의사소통 장애가 발생한 원인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학생들이 답변의 순서를 지키지 않고 말했기 때문이다.
- ② 학생들이 서로에게 과도한 경쟁심을 노출했기 때문이다.
- ③ 면접관이 학생들의 면접 태도를 지적했기 때문이다.
- ④ 면접관이 두 학생을 공정하게 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⑤ 면접관이 사용한 어휘를 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6~7] '장애인 고용 문제'에 대해 논설문을 작성하려고 한다. 물음에 답하시오.

6. <보기>는 협동 작문을 위해 모둠원들이 협의한 내용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 글쓰기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해연: 이번 협동 작문 과제는 장애인 고용 문제에 대한 것인데,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논지로 글을 쓰는 것은 어때?

종원: 어떤 책에서 보았는데, 장애인 고용자 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등 양적인 측면은 많이 개선되었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해. 이번에는 고용의 안정성, 직업군, 직무 만족도 등 질적 수준에 초점을 두고 글을 쓰는 것이 좋겠어. 그런데 장애인들도 취업을 위해서는 그 직종에 필요한 능력을 키우는 직업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던데.....

본호: 그럼 글의 주제를 고용의 양적인 측면이 아니라 '직업 훈련을 내실화하여 장애인 고용의 질적 수준을 높이자.'라고 하는 것이 어떨까? 그러려면 장애인 고용 환경의 문제점에 대한 내용으로 글을 시작하면 좋겠어. 그리고 장애인 취업에 관한 통계 자료를 제시하여 장애인들이 어떤 직종에서 어떤 형태로 고용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논의해야겠어.

도은: 그래 좋은 생각이야. 그러면 장애인 직업 훈련이 고용의 질적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자료와 직업 훈련 실태에 관한 자료도 찾아보자. 그리고 직업 훈련을 받는 사람들에게 설문 조사한 것도 찾아보면 좋겠어. 이런 것들을 분석하면 장애인 직업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적절한 해결 방안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주제문	· 장애인 직업 훈련을 내실화하여 장애인 고용의 질적 수준을 높이자.
수집할 자료	· 직업별, 고용 형태별 장애인 취업자 구성 비율에 대한 통계 자료 · 장애인 직업 훈련 실태에 대한 신문 기사 자료 ... ① · 장애인 고용 관련 인터뷰 자료 · 직업 훈련을 받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자료 ②
내용 구성 방안	I. 서론 : 장애인 고용의 실태를 제시하며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함. ③ II. 본론 1. 장애인 고용 실태와 직업 훈련의 상관성을 제시함. 2. 직업 훈련이 부실한 원인을 밝힘. ④ 3. 직업 훈련 부실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함. 4. 장애인 고용 인원 증가를 위해 직업 훈련을 개선해야 함을 제시함. ⑤ III. 결론 : 논의를 종합하며 주제를 강조함.

7. <보기>는 글쓰기 계획을 작성한 후, 수집한 자료의 일부이다. 자료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가) 통계 자료

1. 직업군별 구성 비율(장애인 취업자/전체 취업자)

직업군	장애인 취업자 (%)	전체 취업자 (%)
관리직	1.0	2.3
전문직	8.0	18.7
사무직	8.3	15.3
서비스직	5.5	10.2
판매직	11.8	12.2
농림 어업직	17.5	6.6
기능직	9.8	9.5
기계 조립직	11.1	11.1
단순 노무직	27.0	14.1

2. 비정규직/정규직 비율(단위: %)

장애인 취업자		전체 취업자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63.2	36.8	33.1	66.9

(나) 신문 기사

장애인 고용의 안정성과 직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장애인 직업 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장애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직업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는 장애인은 장애인 전체 인구의 3.9%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또한 직업 훈련은 몇몇 직업군에 집중되어 있어 선택의 기회가 많지 않으며, 장애인 근로자의 평균 임금도 전체 인구의 평균 임금 대비 2/3 수준이다.

- ○○신문 -

(다) 전문가 인터뷰

현재 장애인 직업 훈련은 몇몇 분야에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문적인 분야에 취업하지 못하기도 하고, 자신이 원하는 직종에 취업할 수 없어 직무 만족도가 낮습니다. 또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 고용에 대한 불안감이 높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 김○○ 교수

- ① (가)와 (다)를 활용하여, 장애인 고용 상황이 고용 안정성과 직무 만족도에서 미흡한 수준임을 문제점으로 제시한다.
- ② (나)를 활용하여, 장애인의 직업 고용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고,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장애인에 대한 직업 훈련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 ③ (나)와 (다)를 활용하여, 희망하는 분야에 대한 취업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직업 훈련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 ④ (가)-1과 (나)를 활용하여, 장애인의 직업 훈련이 전문적 직업군 보다는 희망 취업 분야의 직업군에 집중되어 있는 실태를 제시한다.
- ⑤ (가)-2와 (다)를 활용하여, 장애인 취업자의 정규직 비율을 높이기 위한 전문적인 직업 훈련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함을 제시한다.

8. 동아리 공지 사항을 바탕으로 '하윤'과 '원우'가 초대장의 초고를 작성하였다. 상호 평가 과정에서 서로에게 조언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참소리' 동아리 공지 사항

- ○○고등학교 관현악 동아리 '참소리' 창단 연주회가 2013년 5월 5일 오후 7시에 평화문화센터 1층 강당에서 개최됨.

- 이번 공연은 열심히 연습한 우리 동아리의 연주를 통해 '참소리' 동아리의 창단을 알리고 지역 주민과 문화적 감성을 공유하려는 취지로 마련됨.

- 많은 주민들이 우리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따라서 다음 회의 때까지 각자 초대장을 작성해 올 것. 초대장의 내용을 상호 검토하여 최종안을 작성할 예정임.

【하윤의 초대장】

'참소리'의 창단을 알리는 관현악으로의 초대

드디어 ○○고등학교 관현악 동아리 '참소리'가 2013년 5월 5일에 평화문화센터 1층의 넓은 강당에서 역사적인 공연을 펼칩니다. '참소리'의 창단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연은 아름다운 음악의 향연을 통해 지역 주민과 감성을 공유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오후 7시까지 많이 많이 오셔서 즐기세요.

【원우의 초대장】

여러분을 ○○고등학교 관현악 동아리 '참소리'가 만드는 아름다운 선율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이번 공연은 지역 주민과 함께 멋진 연주를 하고 '참소리'와 우리 학교 동아리들의 활동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 일시 : 2013년 5월 5일 오후 7시
- 장소 : 평화문화센터 1층 강당

싱그러운 봄날,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여러분들을 기다리겠습니다.

하윤이 원우에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지 사항에 제시되지 않은 내용은 전달하지 말아야 해. ① • 알고자 하는 내용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제목을 붙이는 것이 좋겠어. ②
원우가 하윤에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자들이 행사의 취지나 목적을 알 수 있도록 밝히는 것이 좋겠어. ③ • 독자와 글의 성격을 고려하여 적절한 어휘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어. ④ • 중요한 내용을 독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항목별로 구분해 주는 것이 좋겠어. ⑤

[9~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과제] 친구들에게 여행지를 추천하는 글을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리자.

[학생이 쓴 글]

- 처음 쓴 글

진도에 가면 조수간만에 따라 바다가 갈라져 드러나는 바닷길이 있어. 그때 '신비의 바닷길 축제'가 열리는데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아. 이것저것 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진도 여행을 추천할게.



- 수정하여 쓴 글

진도에서는 조수간만에 따라 바다가 갈라져 마치 모세의 기적과 같은 바닷길이 형성됩니다. 이 기간에는 '신비의 바닷길 축제'가 열려 남도들노래를 배우는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여행으로 자연도 즐기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우리의 전통 문화도 경험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진도 여행을 추천합니다. 올해 '신비의 바닷길 축제' 기간은 4월 25일부터 4월 28일까지입니다.



- 게시판에 올린 글

제목 : '진도, 신비의 바닷길' 여행을 추천합니다!

진도에서는 조수간만에 따라 ㉠ 물의 수심이 낮아지면서 바닷길이 형성됩니다. ㉡ 예를 들면, 조개도 줌고 지역특산물도 무료로 맛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기간에는 '신비의 바닷길 축제'가 열려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강술래 ㉢ 공연과 남도들노래도 배울 수 있습니다. ㉣ 진도군 역시 이 축제로 해마다 적지 않은 관광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축제에서 남도민요를 배웠던 경험과 바닷길을 걸으며 느꼈던 상쾌한 기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경험해 보고 주변 친구들에게도 많이 ㉤ 소개해 주세요.

한 번의 여행으로 자연도 즐기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우리의 전통 문화도 경험할 수 있는 진도 여행! 올해 '신비의 바닷길 축제' 기간은 4월 25일부터 4월 28일까지입니다.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더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 '신비의 바닷길 축제' 홈페이지 <http://miraclesea.jindo.go.kr/>

9. 작문 과제의 수행 중 A, B에서 활용한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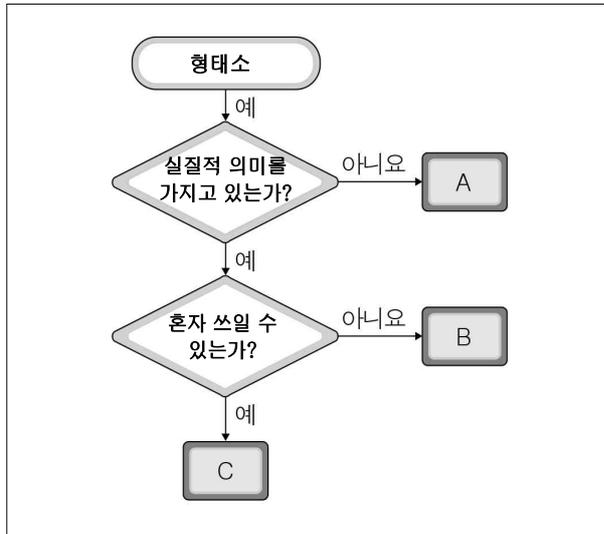
- ① A: 글의 의도를 살리기 위해 축제의 구체적인 정보를 추가한다.
- ② A: 학교 홈페이지는 여러 사람이 읽는 공식적인 매체이므로 정중한 표현을 사용한다.
- ③ B: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 내기 위해 직접 체험한 내용을 추가한다.
- ④ B: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간적 순서에 따라 내용을 조직한다.
- ⑤ B: 독자가 축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더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10.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의미가 중복되므로 '물의'를 삭제한다.
- ② ㉡: 문장 간 긴밀한 연계를 위하여 뒤의 문장과 순서를 바꾼다.
- ③ ㉢: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을 고려하여 '공연도 보고'로 고친다.
- ④ ㉣: 글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삭제한다.
- ⑤ ㉤: 어법에 맞지 않으므로 '소개시켜'로 고친다.

11. 다음의 탐구 과정에 따라 <보기>의 ㉠~㉥을 분류하고자 한다.

A ~ C에 해당하는 사례를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 보기 >

북두칠성은 ㉠ 어느 계절에나 북쪽 밤하늘을 보면 쉽게 찾을 수 ㉡ 있다. 북두칠성을 흔히 국자㉢에 비유하는데, 그것이 국자라면 국을 쏟을 때 국이 흐를 마지막 두 별을 잇㉣는 직선상에 있는 별 중 가장 밝고, 두 별의 간격의 다섯 배쯤에 있는 별을 발견할 것이다. 그 ㉤ 자리에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밤하늘의 북극성이다.

	A	B	C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⑤	㉢	㉢, ㉤	㉠, ㉣

12. 다음은 문법 수업의 일부이다. 이를 바탕으로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

* 자음 동화

자음 동화에는, 자음 ‘ㄱ, ㄷ, ㅂ’이 비음 ‘ㄴ, ㄹ’ 앞에서 비음의 영향을 받아 각각 ‘ㅇ, ㄴ, ㄹ’으로 발음되는 ‘비음화’와 자음 ‘ㄴ’이 유음 ‘ㄹ’의 앞이나 뒤에서 유음의 영향을 받아 ‘ㄹ’로 발음되는 ‘유음화’가 있다. ‘국물[궁물]’은 ‘ㄱ’이 ‘ㄹ’ 앞에서 ‘ㅇ’으로 발음되는 비음화의 사례이며, ‘난리[날리]’는 ‘ㄴ’이 ‘ㄹ’ 앞에서 ‘ㄹ’로 발음되는 유음화의 사례이다.

선생님의 설명

‘음운의 첨가’란 원래는 없던 소리가 첨가되어 발음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맨입으로는 알려 줄 수 없다.’에서 ‘맨입’은 ‘[맨입]’으로 발음됩니다.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앞말의 끝이 자음이고 뒷말이 ‘이, 야, 여, 요, 유’로 시작하는 경우에는 뒷말의 첫 소리에 ‘ㄴ’ 소리가 첨가되기 때문이지요. 또 합성어에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ㄴ, ㄹ’으로 시작되는 경우에도 앞말의 끝소리에 ‘ㄴ’ 소리가 첨가됩니다. 이때에는 ‘뒷문[뒨문]’의 경우처럼 앞말에 사이시옷(‘ㅅ’)을 넣어서 이를 표시해 준답니다.

< 보기 >

- ㄱ. 그는 날렵한 ㉠ 콧날[콘날]이 매우 인상적이다.
- ㄴ. 나는 아끼던 ㉡ 색연필[생년필]을 잃어버려 속이 상했다.
- ㄷ. 그 사람은 회사의 ㉢ 막일[망닐]을 도맡아 하고 있었다.
- ㄹ. 아이가 아직 알약을 먹지 못해서 ㉣ 물약[물략]을 지어갔다.
- ㅁ. 그녀는 ㉤ 잇몸[인몰]이 약해져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았다.

- ① ㉠은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ㄴ’으로 시작되는 합성어이므로 앞말의 끝소리에 ‘ㄴ’ 소리가 첨가된 경우라고 할 수 있군.
- ② ㉡에서 ‘ㄴ’ 소리가 첨가된 이유는 앞말의 끝이 자음이고 뒷말이 ‘여’로 시작하는 합성어이기 때문이군.
- ③ ㉢는 ‘ㄴ’ 소리가 첨가된 후, ‘ㄹ’의 영향으로 ‘ㄱ’이 비음화 된 경우라고 할 수 있군.
- ④ ㉣는 ‘ㄴ’ 소리가 첨가되어 ‘[물냐]’로 바뀐 후, ‘ㄹ’의 영향으로 유음화가 일어난 경우라고 할 수 있군.
- ⑤ ㉤는 사이시옷을 넣어서 ‘ㄴ’ 소리가 첨가됨을 표시한 경우라고 할 수 있군.

16. <보기>를 바탕으로 중세 국어의 음운 ‘빙’, ‘△’, ‘·’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ㄱ. ㅁ술 > ㅁ을 > 마을
 ㅁ술 > ㅁ을 > 가을

ㄴ. (날씨가) 덥(다) + -어; 더벼

ㄷ. (색깔이) 곱(다) + -아; 고바 > 고와
 (고기들) 곱(다) + -어; 구벼 > 구워

- ① ㄱ으로 보아, 중세 국어 ‘ㅁ술’과 ‘ㅁ을’의 ‘△’은 음운 변화 양상이 같았음을 알 수 있군.
- ② ㄱ으로 보아, ‘·’는 현대 국어에서 첫째 음절과 둘째 음절에서 변화된 음운의 모습이 같았음을 알 수 있군.
- ③ ㄴ으로 보아, ‘덥다’의 ‘비’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하여 ‘빙’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군.
- ④ ㄷ으로 보아, ‘빙’에 결합되는 어미의 모음에 따라 현대 국어에서의 표기가 달라지는군.
- ⑤ ㄱ과 ㄷ으로 보아, ‘△’과 ‘빙’은 현대 국어에 표기되지 않게 되었음을 알 수 있군.

[17~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특정 상품에 대한 어떤 사람의 수요가 다른 사람들의 수요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을 네트워크효과(network effect)라고 말한다. 이러한 네트워크효과에는 유행효과와 속물효과가 있다.

어느 한 상품이 유행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그 상품을 구입하려는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소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물건을 사는 것에 영향을 받아 그 물건을 구입하게 되는 것을 유행효과라고 한다. 예를 들어 유행효과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A 게임기의 가격이 20만 원일 때 5천 대, 15만 원일 때 6천 대로 수요량이 변한다고 한다. 그런데 유행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20만 원이었던 A 게임기의 가격이 15만 원으로 하락했을 때 게임기의 수요량이 6천 대가 아닌 8천 대로 늘어난다고 하자. 이는 가격이 떨어짐에 따라 게임기를 사려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고, 이들의 소비가 다른 사람들의 소비에 영향을 미쳐 새로운 소비가 창출된 결과, 수요량의 증가폭이 더욱 커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유행효과는 유행에 민감한 소비자들이나 연예인을 동경하는 소비자들에게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와는 달리, 어떤 상품을 소비할 때 소수만이 소유하기를 바라는 심리가 ㉠ 깔려 있는 경우, 그 상품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상품을 구입하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생기게 된다. 이렇게 소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물건을 사는 것에 영향을 받아 그 물건을 구입하지 않게 되는 것을 속물효과라 한다. 예를 들어 속물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B 손목시계 가격이 3백만 원에서 1백만 원으로 하락했을 때 수요량이 1천 개 더 늘어난다고 한다. 그런데 속물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B 손목시계의 가격이 1백만 원으로 하락했을 때 수요량의 증가폭이 5백 개에 그쳤다고 하자. 이는 가격 하락으로 인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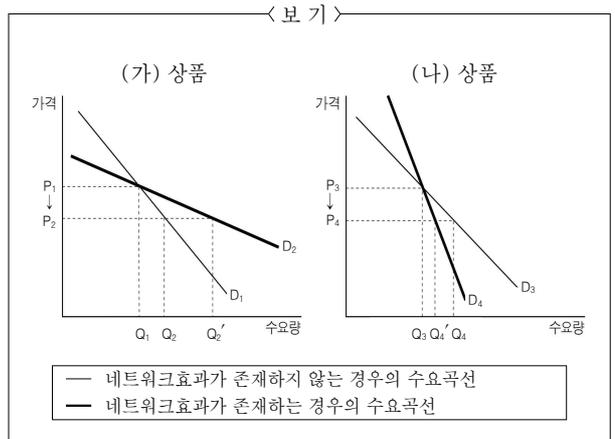
수요량이 증가하게 되어 남들과 차별화하고자 하는 심리가 충족되지 못해 그 상품을 사지 않겠다는 사람이 생겨나므로, 결과적으로 수요량의 증가폭이 감소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속물효과는 상품의 희소성이 약화될 때 나타나기 때문에, 판매자들은 높은 희소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격 할인이나 적극적인 판촉 활동을 자제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다른 소비자들과 독립적으로 소비를 결정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위의 두 경우와 같이 여러 사람의 수요가 상호의존적으로 영향을 주고받기도 한다.

17. 밑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은?

- ① 네트워크효과 개념은 무엇인가?
- ② 유행효과가 유발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 ③ 유행효과는 어떤 소비자에게서 잘 나타나는가?
- ④ 속물효과에 따라 수요량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 ⑤ 속물효과를 발생시키는 심리적 배경은 무엇인가?

※ <보기>는 네트워크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존재하는 경우의 수요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18번과 19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18. 밑글과 관련지어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 상품의 가격이 P₁에서 P₂로 하락할 때 수요량이 Q₁에서 Q₂로 증가했다면, 유행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겠군.
- ② (가) 상품의 가격이 P₁에서 P₂로 하락할 때 유행효과가 존재한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Q₁에서 Q₂만큼 수요량이 더 증가하겠군.
- ③ (나) 상품의 가격이 P₃에서 P₄로 하락할 때 속물효과가 존재한다면, 수요량은 Q₃에서 Q₄로 변화하겠군.
- ④ (나) 상품의 가격이 P₃에서 P₄로 하락할 때 수요량이 Q₄가 아니라 Q₄'로 된다면, 타인과 차별화되고 싶은 심리가 작용한 것이겠군.
- ⑤ D₁과 D₂, D₃과 D₄를 각각 비교해 볼 때, 다른 사람들의 수요가 개인의 수요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군.

19. 다음은 <보기>의 (가), (나) 상품에 대한 판매 전략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상품	판매 전략
(가)	상품이 처음 출시되었을 때 그 상품에 대한 무료 체험 행사를 실시하여 사람들의 구매를 촉진한다. ①
	유명인들이 해당 상품을 방송에서 사용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줌으로써 상품의 소비를 대중적으로 확대시킨다. .. ②
(나)	가격 경쟁보다는 해당 상품의 특성과 이미지를 차별화하는 전략을 수립한다. ③
	해당 상품의 수량을 조절하여 상품의 시장 판매량이 어느 수준 이상으로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한다. ④
	해당 상품과 어울리는 상품을 묶음으로 구성하여 제곱함으로써 상품 구매 시 가격 부담을 줄인다. ⑤

20. 밑줄 친 단어 중, ㉠과 가장 가까운 뜻으로 쓰인 것은?

- ① 내 가방에 깔려 납작해진 빵을 발견했다.
- ② 할머니 집 마루에는 돛자리가 깔려 있었다.
- ③ 그 사람의 말에는 좋은 의도가 깔려 있었다.
- ④ 동네에는 그에 대한 소문이 짜 깔려 있었다.
- ⑤ 여기저기에 깔려 있는 돈만 해도 상당한 액수였다.

[21~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주자학과 양명학은 사물의 궁극적인 이치인 ‘이(理)’를 탐구한다. 하지만 주자학의 ‘이’는 ‘만물의 본성이 곧 이치’라는 ‘성즉리(性卽理)’이며, 양명학의 ‘이’는 ‘내 마음이 곧 이치’라는 ‘심즉리(心卽理)’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

주자학의 ‘이’는 인간 주체와 분리되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하늘의 이치’이다. 만물이 존재하는 근원적인 원리로서의 ‘이’는 하나이지만 각각의 사물에는 저마다의 ‘이’가 개별적으로 담겨 있다. 즉 만물에 있는 개별적인 ‘이’는 모두 다르지만, 근원적인 ‘이’는 하나인 것이다. 그런데 인간이 ‘하늘의 이치’인 ‘이’를 깨닫기 위해서는 각각의 사물에 들어 있는 ‘이’를 탐구한 다음, 지극한 경지에 이르러야 한다. 그러므로 주자학적 전통은 개별적인 ‘이’ 보다 하늘의 이치인 ‘이’에 대한 예의범도를 중시한다.

지방마다 절도사를 두어 행정과 군 통치권을 맡겼던 당나라는 왕실의 힘이 약화되면서 절도사들의 반란이 잦아졌고 그 결과 멸망했다. 이에 송나라에서는 군주에게 의리(義理)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송나라 지식인들은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를 ‘현실에서의 의리’로 보았고, 주자학적 전통을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통치 원리로 삼았다.

양명학을 창시한 ‘왕수인’은 ‘이’가 주체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본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마음의 본체는 ‘양지(良知)’이며, 양지는 곧 하늘의 이치라고 하였다. 그의 철학은 인간 주체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에 사람은 하늘의 이치인 양지를 지니고 있다고 했다. 양지는 옳고 그름을 가려낼 수 있는 타고난 도덕적 자각 능력이다. 그래서 자신의 사사로운 생각에서 벗어나서 양지를 회복하는 과정을 강조했다. 자신의 양지를 보존하려는 마음, 자신에게 충실하고 진실하여 그 스스로 만족하기를 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마음과 이치가 합일된 경지이자 인간 자신이 타고난 도덕적 자각이 완성된 상태인 ‘치양지(致良知)’에 이르게 된다.

명나라 중기 이후 지배 세력이 농민의 세금 부담을 늘리자 농민 봉기가 확산되었다. 당시 농민의 구호는 ‘혼돈의 하늘을 열자’였다. 이는 주자학에서 말하는 정해진 하늘의 이치에 대한 부정이었으며, 주자학 대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라는 시대적 요구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왕수인은 하늘이 정한 이치가 인간 주체와 분리되는 철학으로는 백성을 제대로 다스릴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양명학은 개인과 자아라는 근대적 의식이 싹트고 전통 도덕으로 개인 의지를 억압하는 것에 대한 반성이 대두되면서 나타난 것이다.

결국 주자학과 양명학은 새로운 질서의 시대적인 요청에 의해 궁극적인 값인 ‘이’에 관한 차이를 보이게 된 것이다.

21. 밑글을 통해 알 수 없는 것은?

- ① 주자학에서 설정하는 ‘이’와 ‘기’의 관계
- ② 명나라 중기 이후 농민 봉기가 확산된 이유
- ③ 주자학에서 제시하는 만물의 궁극적인 이치
- ④ 양명학에서 주장하는 ‘양지’가 회복된 상태
- ⑤ 송나라에서 ‘현실에서의 의리’를 강조하게 된 배경

22. <보기>에 대해 ‘왕수인’의 입장에서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인간의 마음은 본래 백지(白紙)와 같은 것으로 어떠한 생득적 관념도 갖고 있지 않다. 인간은 사물에 대한 감각적 지각과 경험을 통해 지식과 사물의 이치를 획득한다.

- ① 치양지를 위해서는 경험이 아니라 각각의 사물에 들어 있는 이치를 탐구한 다음 만물의 근원적인 원리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 아닌가?
- ②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 감각적 지각을 우선시하는 것보다 먼저 주체와 분리된 ‘이’를 자각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 ③ 경험을 통한 지식의 획득보다 감각적 지각을 통해 사물의 이치를 획득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 ④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 경험을 우선시하기보다 만물의 본성이 곧 이치라는 깨달음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 ⑤ 인간의 마음은 본래부터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양지를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닌가?

2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이유에 대해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양명학은 왕수인 이후에 개인의 수양을 강조하는 흐름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주자학은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지배 이념인 관학(官學)으로서의 지위를 잃지 않고 이어졌다.

- ① 양명학은 타인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의리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 ② 주자학이 군주에 대한 의리를 강조하여 사회 질서 유지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 ③ 양명학은 양지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사물의 본성을 탐구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 ④ 주자학은 예의법도를 중시하여 도덕적 자각 능력의 수양 측면에서 양명학보다 우월했기 때문에
- ⑤ 근대적 의식에 부합하는 주자학의 이념이 양명학에 비해 궁극적인 이치를 탐구하는데 효율적이었기 때문에

[24~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수면은 피로가 누적된 심신을 회복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잠을 자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렇게 수면은 심신의 회복과 생명 유지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셰익스피어는 수면을 ‘자연의 부드러운 간호사’라고 했다. 수면은 ‘비-REM수면’과 급속한 안구 운동을 동반하는 ‘REM(Rapid Eye Movement)수면’이 교대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비-REM수면 이후 REM수면이 진행된다. 비-REM수면은 4단계로 진행되면서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되는 수면이다. 이러한 수면의 양상은 수면 단계에 따라 달리 측정되는 뇌파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막 잠이 들기 시작하는 1단계 수면 상태에서 뇌는 ‘세타파’를 내보낸다. 세타파란 얇은 잠을 자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뇌파로, 이때는 언제든 깰 수 있을 정도의 수면 상태이다. 이 단계는 각성 상태에서 수면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상태로 뇌파가 각성 상태보다 서서히 느려진다.

2단계 수면에서는 세타파 사이사이에 ‘수면 방추’와 ‘K-복합체’라는 독특한 뇌파의 모습이 보인다. 수면방추는 세타파 중간마다 마치 실이 감겨 있는 것처럼 촘촘한 파동의 모습인데, 분당 2~5번 정도 나타나며 수면을 유지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K-복합체는 2단계 수면에서 나타나는데, 세타파 사이사이에 아래위로 갑자기 빠르게 솟아오르는 모습을 보인다. 실험에 의하면 K-복합체는 수면 중 갑작스러운 소음이 날 때 활성화된다. 이를 통해 이것은 잠자는 사람이 깨는 것을 방지해 주는 역할을 하여 깊은 수면을 유도함을 알 수 있다.

깊은 수면의 단계로 진행되면 뇌파 가운데 가장 느리고 진폭이 큰 ‘델타파’가 나타난다. 3단계와 4단계는 ‘델타파’의 비중에 따라 구별된다. 보통 델타파의 비중이 20~50%일 때는 3단계로, 50%를 넘어서 더 깊은 수면에 빠지는 상태가 되면 4단계로 본다. 때문에 4단계 수면은 ‘서파수면(slow-wave-sleep)’으로도 알려져 있다.

서파수면은 대뇌의 대사율과 혈류량이 각성 수준의 75%까지 감소되는 깊은 잠의 상태이고, ① REM수면은 잠에 빠져 있음에

도 정신 활동이 이루어지는 상태이다. 때문에 서파수면 상태에 있는 사람을 깨우면 정신을 못 차리고 비틀거리며 혼란스러워하고, REM수면 상태의 사람을 깨우면 급세 각성 상태로 돌아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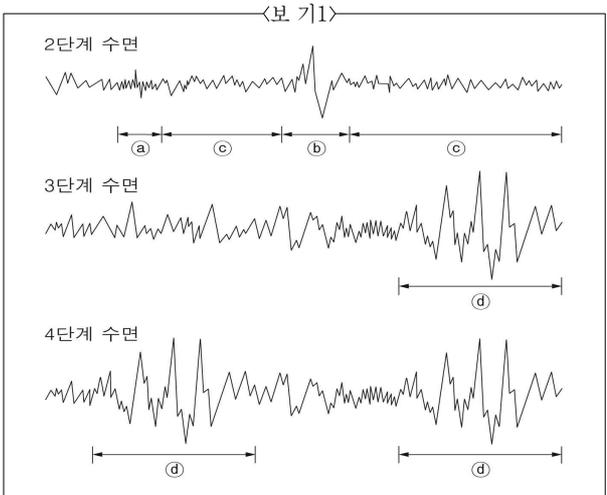
자극에 반응을 하지 않을 정도의 비-REM수면은 온전한 휴식을 통해 진정한 심신의 회복을 가져다 준다. 자면서도 정신 활동이 이루어지는 REM수면은 인간의 뇌의 활동이나 학습에도 도움을 준다. 비-REM수면이든 REM수면이든 문제가 생기면 인간의 활동은 영향을 받게 된다.

* 각성 상태: 눈을 뜨고 깨어 있는 상태

2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구체적 수치를 통해 대상을 구분하고 있다.
- ② 대상의 개념을 정의하고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 ③ 현상이 진행되는 과정을 단계별로 보여주고 있다.
- ④ 비유적 진술을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 ⑤ 질문과 대답하는 형식을 통해 의문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

25. <보기1>은 수면의 각 단계에서 나타나는 뇌파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참고하여 <보기2>의 사례를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2〉

- 선우는 한 번도 깨지 않고 깊은 수면을 취했다.
- 재형이는 얇은 잠에서 깊은 잠으로 가지 못하고, 자다 깨다를 반복했다.
- 수민이는 밖에서 소리가 날 때마다 깨어 깊이 잠들지 못했다.

- ① 선우는 수면 상태에서 수민이보다 ④가 빈번히 나타났겠군.
- ② 선우는 수면 상태에서 수민이보다 ①과 ②가 여러 번 나타났겠군.
- ③ 재형이는 수면 상태에서 선우에 비해 ①이 자주 나타나지 않았겠군.
- ④ 재형이는 수면 상태에서 ③이 나타나는 단계와 ④가 나타나는 단계가 규칙적으로 교체되었겠군.
- ⑤ 수민이는 수면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소음이 날 때 ⑥가 활성화되지 못했겠군.

26. 윗글을 읽고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각성에서 수면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상태이다.
- ② 대뇌의 대사율과 혈류량이 최소화되는 단계이다.
- ③ 각성 상태로 돌아오는 것을 억제해 주는 역할을 한다.
- ④ 정신적 피로보다는 신체적 피로 회복에 더 도움이 된다.
- ⑤ 수면의 상태이나 정신 활동이 일어나고 뇌 기능에 도움을 준다.

[27~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제2차 대전 이후 전쟁으로 인한 불안, 인간 소외 등 예술적 정서나 의미를 과도하게 표현하려는 예술적 경향이 나타났다. 이에 비해 미니멀리즘(minimalism)은 간결하고 절제된 표현 기법으로 대상의 본질을 표현하려는 예술적 경향을 지닌다.

이 사조는 예술 표현이 단순할수록 오히려 현실 세계를 더 쉽게 표현할 수 있다는 '단순성의 원리'와 인간의 지각은 총체적으로 이해된다는 '확장성의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예술 양상은 음악에서는 변함없는 강세 및 빠르기, 건축에서는 단순한 색채 및 재료의 사용과 기하학적 구성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단순성과 확장성의 원리는 특히 조형물에서 잘 나타난다. 미니멀리즘에 의한 조형물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매개의 최소화를 통한 '단순성의 원리'를 지향한다. 매개의 최소화는 작품의 재료, 소재, 형태 등 작품 표현에 사용되는 매개 요소를 변형하거나 가공하지 않고 원재료에 가깝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원재료를 그대로 사용하는 구상, 일상의 사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오브제 트루베에 의한 구상,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에 의한 구상 등으로 표현된다. 작품에서 매개 요소가 최소화되면 감상자가 떠올릴 수 있는 대상은 오히려 더 많아지고, 감상자의 마음속에 잠재하고 있는 이미지를 보편적인 형상으로 떠올리기가 더 쉬워진다. 작품에 사용되는 매개가 적고 단순할수록 감상자는 그것을 즉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고, 감상자의 인식 속의 보편적 형상과 일치시키기가 더 쉽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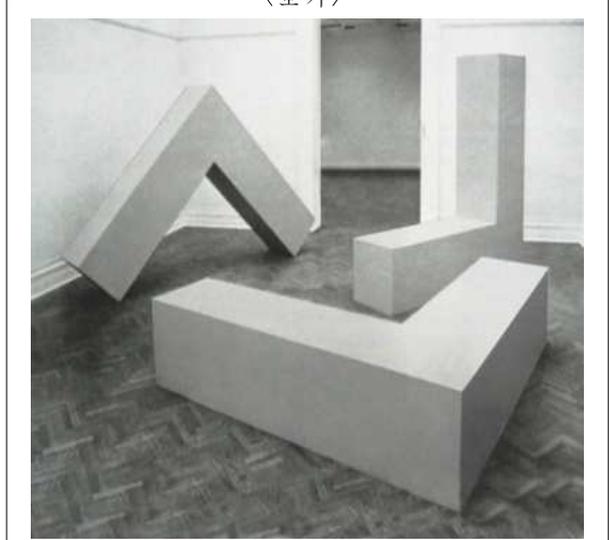
둘째, 미니멀리즘에 의한 조형은 기하 추상에 의한 '확장성의 원리'를 추구한다. 미니멀리즘 조형물이 놓인 공간은 작품의 배경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작품이 놓인 공간은 감상자로 하여금 작품을 그 작품이 놓인 공간의 관련성 속에서 감상하게 한다. 예를 들어 기하 추상에 의한 미니멀리즘 조형물을 감상할 때, 감상자는 그것을 인지함과 동시에 작품 주위의 배경으로까지 시선이 이동되어 감상이 확대된다. 미니멀리즘 조형물은 기존의 조형물이 설치된 방식과 달리 주로 바닥에 배치된다. 이로써 작품 자체가 놓인 공간과 감상자가 서 있는 장소는 관람만을 위한 전망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술적 감상을 위한 총체적 공간이 되는 것이다. 즉 '확장성의 원리'는 조형물이 놓인 배경에까지 공간 체험을 확대하여 예술적 환경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27.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미니멀리즘 음악은 일정한 강세 및 빠르기를 사용한다.
- ② 미니멀리즘 조형은 매개 요소를 원재료에 가깝게 사용한다.
- ③ 오브제 트루베는 미니멀리즘 조형의 한 방법으로 사용된다.
- ④ 매개 요소가 다양할수록 미니멀리즘에 의한 감상의 폭은 넓어진다.
- ⑤ 미니멀리즘은 절제된 표현에 의해 본질을 표현하려는 예술적 경향이다.

28. 윗글과 관련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무제-L빔들>은 로버트 모리스의 미니멀리즘 경향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회색 빛깔의 두꺼운 나무로 된 산업재료 L빔들을 그대로 가져다가 배치하여 작품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 ① L빔들을 바닥에 배치한 것은 일정한 위치에서 작품을 감상하도록 공간을 한정시킨 것이군.
- ② L빔들과 공간을 총체적으로 인식하는 감상자는 예술적 환경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하겠군.
- ③ 감상자는 배치되어 있는 L빔들을 감상할 때, 그것을 인지함과 동시에 주위의 배경으로 시선이 확대되겠군.
- ④ 실제 산업재료를 그대로 사용하여 매개를 최소화함으로써 감상자로 하여금 더 많은 대상을 떠올리게 하는군.
- ⑤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를 매개요소로 사용하여 감상자의 마음속에 잠재된 이미지를 더 보편적인 형상으로 떠올리게 하는군.

[29~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글을 읽으면서 의심할 줄 모르는 것은 처음 배우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문제이다. 이것은 그들이 ㉠ 평소 많이 읽고 뜻을 터득하는 데에만 힘써 자세히 불 여유를 갖지 못한 채, ㉡ 쫓기듯 바빠 책을 많이 읽는 데에만 버릇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이 점을 경계하여 위와 같은 버릇을 깨끗이 씻어 버리고 별도로 독서의 체계를 세워 ㉢ 자신에게 적합한 책 중에서 더욱 절실하고도 긴요한 것을 택해야 한다. 또한 책을 볼 때에는 자기의 능력에 따라 하루에 우선 한두 단락을 보고 그 부분의 이해가 끝나면 다른 단락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해서 ㉣ 책 한 권이 다 끝나거든 다른 책으로 바꾸어야 한다. 이때 무엇보다 먼저 요청되는 것은, 마음을 텅 비우고 기운을 고르게 하여 숙독(熟讀), 숙고(熟考)해서 한 글자 한 구절까지 다 확실히 이해하여야 한다. 또 여러 학자들의 주석(註釋)을 하나 하나 독파한 다음, 그들의 ㉤ 옳고 그름을 비교하여 성현들이 말씀하신 본뜻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 뜻을 이미 이해했다 하더라도 또다시 반복 음미하여 그 의미와 이치를 몸으로 체득

해야만 그것을 배웠다고 말할 수 있다. 윤화정(尹和靖)의 문인들이 자기 스승을 칭찬하기를 ‘대단하시다. 성현들의 말씀과 육경(六經)의 내용을 환히 이해하고 마음 깊이 터득하시어 마치 자신의 말을 하는 것같이 하시는구나’ 하였다. 이러한 경지에 이르러야 글 읽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처음 글을 읽을 때는 전혀 의심이 없었는데 두 번째 읽으면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여 나중에 가서는 구절마다 의심스러워진다. 이러한 과정을 한 번 거쳐야만 의심이 점차 풀리게 된다. 이렇게 해서 나아가 전체적으로 일관되게 이해하여 전혀 의심없는 경지에 이르러야 비로소 공부했다고 할 수 있다.

- 이이, 「성학집요」 -

29. ㉠~㉥ 중, <보기>에 나타난 정약용의 독서 태도와 가장 유사한 것은?

< 보 기 >

다산 정약용은 식견을 새로 여는데 아무런 보탬이 되지 못하는 맹목적인 독서를 혐오하였다. 정약용은 질서(疾書)의 독서 방법을 취했다. 이것은 책을 읽다가 의문이 생기거나 깨달은 것이 있으면 잊지 않기 위해 빨리 메모했던 독서 방법이다. 그는 질서의 핵심이 의심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의심은 책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것으로 본래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과정이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30. 밑글에 나타난 독서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을 때,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단계	독서 전략
읽기 전	· 잘못된 독서 태도를 경계하여 자신에게 맞는 독서 계획을 세워야 한다. ①
읽기 중	· 글의 구조를 통해 내용을 예측하며 읽어야 한다. ② · 자신의 독서 능력에 맞게 독서의 분량을 조절하여 읽어야 한다. ③ · 자세히 읽기를 통해 본래의 의미를 탐색해야 한다. ④
읽기 후	· 내용을 반복적으로 음미하여 깨달은 바를 내면화 해야 한다. ⑤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안평국의 왕자 적성은 어머니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일영주를 얻기 위해 서천으로 떠난다. 성의는 일영주를 구하지만 돌아오던 길에 형인 향의에게 일영주를 빼앗기고, 칼에 찔려 장님이 된다. 성의는 성에 표류하였다가 중국 사신에 의해 황제를 만나게 되고 공주의 벗이 된다.

각설. 안평국 왕비 병세가 쾌복되었으나 성의의 사생 존물을 몰라 밤낮으로 슬퍼하더니 하루는 ㉠ 성의 있던 방에 들어가니 산호 서안에 만 권 서책은 의구(依舊)하나 형용(形容)*이 돈절(頓絶)*한지라. 심회 감창하여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 옷깃을 적

시며 슬피 통곡하는데, 홀연 기러기 슬피 울거늘 왕비 울음을 그치고,

“네 비록 금수이나 성의의 소식을 전하고자 왔느냐?”

눈물을 금치 못하더니, 기러기 또 울거늘 괴이히 여겨 시녀에게 묻는데, 큰 소리로 가로되,

“이 기러기는 공자가 기르시던 바이라. 연전에 공자님 임행(臨幸)시에 기러기를 쓰다듬어 경계하여 가로되, ‘네 나와 더불어 일지도 떠남이 없더니 내 이제 곤전(坤殿)* 환후로 하여 만리원정에 가 약을 구하여 올지라. 기간 원별을 당하매 창연한지라. 너는 모름지기 처소를 떠나지 말고 부디 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라. 만일 무슨 소식이 있거든 곧 전하라. 지금 떠나면 언제 서로 모이리오.’ 하시니 기러기 대답하는 듯 응하여 울거늘 공자가 등을 어루만져 가장 사랑하시고 가신 후 우금 나가지 아니하옵기로 궁녀 등이 밥을 먹이옵더니 요새 밤이면 슬피 울거늘 이상하오나 내전이 초원(稍遠)*하옵기로 낭량이 모르심이니이다.”

왕비 청과(聽罷)에 시녀 등을 대책(大責)하사 왈,

“여등(汝等)이 이런 말을 나더러 아니 한다?”

궁녀 등이 황송하와 머리를 숙이더라. 왕비 즉시 기러기를 어루만지며 가로되,

“네 비록 미물이나 네 임자 있는 곳을 알지니 서천에 들어가 살았느냐, 망망대해 중에 어별(魚鱉)의 밥이 되었느냐? 만일 살았거든 내 앞에서 세 번 올라.”

이르시니, 기러기 목을 늘리어 세 번 울거늘 왕비 기뻐하시어 가로되,

“네 아는도다.”

이로써 즉시 한 봉 서찰을 쓰시며 가로되,

“네 임자가 살았거든 이 편지를 전할소냐?”

기러기 세 번 머리를 조아리거늘, 왕비 즉시 서찰을 기러기 다리에 매고 경계하여 가로되,

“네 두 날개로 만리를 가는 제주라 부디 이 글을 잘 전하라.”

이르니, ㉠ 기러기 세 번 소리하고 두 날개를 치며 청천에 올라 운간(雲間)으로 서북을 향하여 가는지라.

<중략>

성의 옷을 고쳐 벽옥을 따라 ㉡ 금각당에 올라가니 공주 반겨 좌를 주고 물어 가로되,

“그 사이 객고 어떠하뇨?”

성의 큰 소리로 가로되,

“천생이 성상의 하해지덕을 입사와 아직 일신이 편하나이다.”

공주 시녀를 명하여 진수성찬을 내오며 향온(香醞)*을 권하며 상을 물리매, 혹 단서도 불고 혹 단금도 희롱하며 각각 한 수시를 지어 화답하여 서로 칭찬하더니, 문득 월색이 명량하며 홀연 동남으로부터 기러기 슬피 울며 점점 가까이 와 중천에서 금각당을 맴돌아 울거늘, 공주와 좌우 시녀 나와 하늘을 우러러 살펴보며 심히 괴이히 여겨서 서로 볼 즈음에 성의 기러기 우는 소리를 듣고 혼백이 비월하여 생각하되, ‘이 짐승이 반드시 나의 기르던 기러기이다.’ 하고 정신이 어린 듯 취한 듯하여 앉았더니, 기러기 두 날개를 펴며 점점 내려와 성의의 앞에 앉으며 목을 늘리어 슬피 울거늘, 성의 그제야 쾌히 본즉, 기러기 온 줄 알고 급히 두 손으로 기러기를 덥석 안고 그 등을 어루만지며 울어 가로되,

“네 이제 나를 찾아왔으니 증전께서 반드시 승하시도다.”
 언파에 엮어져 혼절하기를 좌우 시너 놀라 급히 구할 때에
 공주 살펴보니 기러기 다리에 한 봉서 매였거늘 바삐 끌러 본
 즉 곁봉에 하였으니,

‘안평국 국모는 아자 성의에게 부치노라.’

공주 이르되,

“기러기 다리에 한 봉서가 매여 있으니 그대는 정신을 수습하
 면 내 때어 읽으리니 자세히 들으라.”

이르고 **봉서**를 떼어 보니 하였으니,

‘모년 모월 모일에 안평국 국모는 읍혈하고 아자 성의에게 글
 을 부치노니 슬프고 슬프다. 네 나의 슬하를 떠난 지 거의 기
 년이라. 망망천지 사이에 어느 곳에서 죽었느냐 살았느냐? 너
 의 출천지효(出天之孝)로 나의 명(命)을 위하여 황당한 도사
 의 말을 듣고 부모 슬하를 떠나 만경창파에 일신을 편주에
 실어 서천에 가 일영주를 얻었으니 네 효성을 하늘이 감동하
 십이나 너의 회정(回程)*하는 소식 없어 슬프다. 나의 아이
 창과 중 어벌의 밤이 되었느냐? 어느 지방에 의지하여 살았
 느냐? 네 형이 일영주를 가지고 와 이르되, 네 삭발위승(削髮
 爲僧)하여 불경에 잠심(潛心)하여 부모 버리고 부귀를 부운
 같이 여긴다 하니 그 말을 가히 준신(遵信)*하지 못하리로다.
 그러나 너의 사생 존몰을 모르는 중이나, 일영주를 먹은 후로
 백병이 구되하여 완인(完人)*이 되었으니 너의 효성은 대순
 (大舜) 증자(曾子)를 따를지라. 슬프다, 천사만량(天思萬量)
 하여도 네 형의 불측한 행실은 천고에 드물지라. 너를 시기하
 여, 노중에 불측한 환(患)을 만나 돌아오지 못함이나. 월명심
 야(月明深夜)와 일모황혼(日暮黃昏)에 망망한 천지를 부양하
 여 부르짖어 울 따름이로다. 하루는 너 있던 방에 가 고적을
 살펴본즉 슬픔만 쌓이고, 기러기 슬피 우니 이것은 내가 기르
 는 짐승인 고로 경계하고 부탁한즉, 이것이 사람의 심사를 요
 동하게 하는지라, 구만리 장천에 지향 없이 한 봉서를 부치나
 니 행여 명천이 감동하시어 소식을 천만 전할까 바라나니, 기
 러기 회편에 답서를 볼까 축수하나, 만행으로 소식을 들을진
 대 구천에 들어가도 한이 없을까 하노라. 만단수회(萬端愁
 懷)*를 지리히 피고자 하나 혈루 먼저 가리니 여산약해(如山
 若海)*한 말을 다 기록하지 못하고 그만 그치노라.’

성의 정신을 차려 듣기를 다하매 가슴이 미어지고 간장이 스
 는 중 타는 중에 일변 반갑고 일변 처창(棲槍)하매*, 정신이 쇠
 락(灑落)*하여 바삐 일어나 배사할 제, 문득 두 눈이 번개같이
 뜨이니, 비하건대 구년지수에 햇빛을 본 듯, 칠년대환에 빗발을
 본 듯, 침침칠야에 명월을 대한 듯, 황천에서 살아온 듯, 청천에
 뛰어오른 듯, 생시인지 몽중인지 깨닫지 못하여 도리어 어린 듯
 취한 듯이 정신이 황홀한지라.

- 작자미상, 「적성의전」 -

- * 형용: 사람의 생김새나 모습
- * 곤전: 왕비를 높여 이르는 말
- * 향은: 술의 한 종류
- * 준신: 그대로 좇아서 믿음.
- * 만단수회: 마음속에 새겨진 온갖 근심
- * 여산약해: 산과 바다와 같이 매우 많음.
- * 처창하다: 몹시 구슬프고 애달프다.
- * 쇠락: 기분이나 몸이 상쾌하고 깨끗함.
- * 돈절: 전혀 없음.
- * 초원: 거리가 조금 멀.
- * 회정: 돌아오는 길에 오름.
- * 완인: 병이 완전히 나은 사람

31.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안평국 왕비는 성의와 함께 기러기를 길렀다.
- ② 성의는 항의의 계약에 의해 서천으로 떠났다.
- ③ 안평국 왕비는 성의의 현재의 거처를 알지 못한다.
- ④ 안평국 왕비는 항의의 행실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 ⑤ 어머니의 병을 고치려 했던 성의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32. ㉠와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와 ㉡는 기러기라는 매개체로 인하여 연결되는 공간이다.
- ② ㉠는 왕비가 상황에 대해 슬픔을 느끼는 공간이고, ㉡는 성의와 공주가 친교를 나누는 공간이다.
- ③ ㉠는 왕비가 문제 해결을 시도하게 되는 공간이고, ㉡는 성의가 타인의 도움을 받게 되는 공간이다.
- ④ ㉠는 왕비가 성의의 소식을 궁금해 하는 공간이고, ㉡는 성의가 왕비에 대한 소식을 접하는 공간이다.
- ⑤ ㉠는 왕비의 지혜가 발휘되는 공간이고, ㉡는 성의가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지를 발휘하는 공간이다.

33. 「봉서」의 서사적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주인공의 위기를 예고하는 복선이 된다.
- ② 주인공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계기가 된다.
- ③ 주인공이 신체적 장애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된다.
- ④ 주인공이 주위 사람들과 겪는 갈등을 해소시켜 준다.
- ⑤ 주인공이 자신이 처한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는 계기가 된다.

34. ㉠의 상황에서 왕비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할 때,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으)로 성의의 소식을 들었으면 좋겠구나.”

- ① 고식지계(姑息之計) ② 설상가상(雪上加霜)
- ③ 어부지리(漁父之利) ④ 천우신조(天佑神助)
- ⑤ 타산지석(他山之石)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 지당(池塘)에 활수(活水)*이 드니 노논 고기 다 헬로다*
 송음(松陰)에 청뢰(淸籟)*이 나니 금슬(琴瑟)*이 여기 있다
 안자서 보고 듣거든 도라갈 주를 모르로다.

<제2수>

[B] 술 아래 길들 내고 못 우히 덕*를 뵈니
 풍월연하(風月烟霞)*는 좌우(左右)로 오느괴야
 이 스에 한가히 안자 늘는 주를 모르리라.

<제3수>

[C] 집 두혜 즈차리* 뜯고 문 알편 물곤 심 기러
 기장밥 너게 짓고 산채羹(山菜羹)* 므로 술마
 조석(朝夕)게 풍미(風味)이 족(足)함도 내 분인가 흥노라.

<제5수>

[D] 빅 고프거든 버구렛* 밥 먹고 목 므르거든 바갓* 물 마시니
 이리 흥는 가운데 즐거오미 쏘 인는다
 늬의외* 부운(浮雲)* 又든 부귀(富貴)이사 브를 주리 이시라.
 <제6수>

[E] 도원(桃源)이 잇다 흥야도 네 듣고 못 뵈더니
 흥하(紅霞)*이 만동(滿洞)흥니* 이 진짓 거괴로다
 이 몸이 쏘 엇더 흥노 무릉인(武陵人)인가 흥노라.
 <제14수>
 - 김득연, 「산중잡곡(山中雜曲)」 -

- * 활수: 흐르는 물
- * 헬로다: 헤아리겠다
- * 창외: 맑은 바람 소리
- * 굽슬: 거문고와 비파를 아울러 이르는 말. * 덕: 축대(築臺)
- * 풍월연하: 바람, 달, 안개, 노을. 여기서는 자연의 아름다운 경치를 뜻함.
- * 즈차리: 산나물의 일종으로 추정됨. * 산채갱: 산나물로 만든 국
- * 버구렛: 바구니의
- * 바갓: 바가지의
- * 늬의외: 다른 사람의
- * 부운: 뜬구름
- * 흥하: 해 주위에 보이는 붉은 노을
- * 만동 흥니: 골짜기 안에 가득 하니

35. 윗글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영탄을 통해 화자의 반성적 성찰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대구의 방식을 활용하여 리듬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③ 자문자답의 형식을 통해 시적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
- ④ 설의적인 표현을 통해 화자의 가치관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직유법을 사용하여 대상이 지닌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36.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는 [B]와 달리 화자가 본받고자 하는 자연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 ② [A]와 [B]는 모두 주변 경치를 묘사한 후, 그 속에 머물며 즐거워 하는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③ [C]에는 [D]와 달리 화자의 행위가 일어나는 공간이 드러나 있다.
- ④ [C]와 [D]는 모두 화자의 소박한 삶의 모습을 그린 후, 그러한 삶에 대한 화자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⑤ [E]에는 화자가 처한 공간을 이상향에 견주어 그곳에서 살아가는 화자 자신의 자긍심이 드러나 있다.

[37~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심란한 것뿐, 무슨 이렇다할 병이 있어서도 아니요 자기 체질에 저혈(豬血)*이 맞으리라는 무슨 근거를 가져서도 아니었다. 손이 바쁘던 때는, 어서 이 잡무에서 헤어나 조용히 쓰고 싶은 것이나 쓰고 읽고 싶은 것이나 읽으리라 엄볼처럼 외워 왔으나 이제 막상 손을 더 대려야 댈 수가 없게 되고 보니 ㉠ 그것들이 잡무만은 아니었던 듯 와락 그리워지는 그 편집실이요 그 교실들이었다.

사람이 안정한다는 것은 손발이 편안해지는 데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한은 한동안 문을 닫고 손발에 틈을 주어 보았다. 미닫이 가까이 앉아 앙상한 앵두나뭇가지에 산새 내리는 것도 내다 보았고 가랑잎 구르는 응달진 마당에 싸락눈 뿌리는 소리도 즐겨 보려 하였다. 그러나 하나도 마음에 안정을 가져오지 않을 뿐 아니라 점점 신경을 날카롭게 메마르게 해주는 것만 같았다. 이번 사냥은 이런 신경을 좀 녹여 보려는 한갓 산책에 불과한

것이였다.

한은 즐거웠다. 오래간만에 학생 때 친구 윤을 만나는 것도 반가웠다. 편지 한 장으로 구정을 생각하여 모든 것을 주선했고 놓고 부르는 그의 우정이 감사하였다. ㉡ 오래간만에 촌길을 걸을 것, 험준한 산마루를 달려 볼 것, 신에게서 받은 자세대로 힘차게 가지를 뺐은 정정한 나무들을 쳐다볼 수 있을 것, 나는 평을 떨구고, 단는 노루와 멧도야지를 고꾸라트릴 것, 허연 눈 위에 온천처럼 용솟음쳐 흐를 피, 통나무 화롯불에 가죽 째 구워 뜯을 짐승의 다리, 생각만 하여도 통쾌한 야성적인 정열이 끊어올랐다. 아무리 문화에 길들여어도 사람의 마음 한구석에는 야성의 향수가 늘 대기하고 있는 듯하였다.

<중략>

[중략 부분의 줄거리] 사흘째 되는 날, 한은 늙은 포수가 커다란 멧도야지를 잡았다는 소식을 듣는다. 그런데 누군가가 멧도야지의 일부는 떼어가고 일부는 훼손하는 일이 발생한다. 늙은 포수는 범인을 잡기 위해 물이꾼으로 부렸던 산골 사람들에게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게 하여 물에 기름기가 뜨는지 확인하려 한다.

좌중이 일시에 눈들이 서로 손으로 갔다. 모두 둘씩은 가진 손이었다. 모두 울퉁불퉁 마디들이 험한 손이었다. 선한 일이고 악한 일이고 시키는 대로 할 뿐인, 죄 없는 손들이었다. 더구나 피로 살지 않고 힘으로 살기에, 도회지 사람들의 발보다도 더 험해진 그 순박한 손들에게 이런 야박스런 모욕이란 생후 처음 들일 것이였다.

한은 한편이긴 하나 늙은 포수가 오히려 알미웠다. ㉢ 이 자리에 한 손도 그 죄의 기름이 뜨는 손은 없기를 바랐다. 그러나 테운 물그릇이 나오기 전에 여러 사람의 시선을 혼자 쪼이는 손이 있었다. 곤색 양복 조끼의 손이었다. 깍지도 껌고, 무릎 밑에 깔아도 보고, 허리춤을 굽적거리도 보고, 나중엔 완전히 떨리어 곰방대를 내어 담배를 담았다.

눈치 빠른 늙은 포수는 얼른 끼고 앉았던 화로를 내밀었다. 담뱃불을 붙이느라고 길게 뻗 고개가 어딘지 어색할 뿐 아니라 불에 갖다 대는 대통이 덜덜 떨리었다. 늙은 포수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저 사람이 담배 붙여, 뭘 붙여?”

양복 조끼는 그만 입에서 놓쳐 버린 곰방대를 화로에서 집노라고 쪼찔매었다. 늙은 포수는 움광한 눈으로 그를 할퀴듯 쏘아 보았다. 그만 양복 조끼의 얼굴은 화로보다도 더 이글거렸다. 늙은 포수는 문을 열어 쫓으며 안으로 소리를 쳤다.

“취인장? 물 데 내올 것두 없죄다.”

그리고,

“한 사람만 남구 죄 없는 분들은 하나씩 일어나 나가슈.”

하였다. 끝내 못 일어서기는커녕, 고개도 못 들고 남아 있는 것이 이 양복 조끼였다. 늙은 포수는 어느새 철썩 그의 귀매기를 갈겼다.

결국 구장이 나와, 자기 동리에서 생긴 불상사를 사과하였고, 이쪽의 처분을 기다리노라 하였다. 늙은 포수에게서는 이내 계산이 나왔다.

“피가 그 돼지한테서 다섯 사발만 나왔겠소? 소불하* 다섯 사발 치구두 오십 원허구, 쓸개가 어제 저 사람 제 입으루두 사십 원짜린 염려없을 게라구 그랬소. 사십 원허구, 뒷다릴 함 부루 썰어 났으니 가죽이 못쓰게 되잖었소? 가죽값 십 원만

허구, 백 원만 물어 노슈. 오늘 이 지경 됐으니 사냥할 맛 있게 됐소? 오늘 하루두 우린 손해요.”
 “참, 손해가 많으시군요! 허나 이 사람이야 단돈 십 원을 해낼 주제가 어디 되나요. 요 너머 이 사람 사춘이 한 분 계시니 내 넘어가 의논허구 과히 억울치 않두록 마련하오리다. 아무튼 주재소에만 알리지 말구 내려가 기다려 주시지요.”

㉔ 늙은 포수는 주재소 말이 저쪽에서 나온 김이라, 오후 세 시까지 기다려서 소식이 없을 때는 주재소에 고소를 한다고 하였고,

“저따위 덜된 자식은 몇 해 감악소 밥을 맥여야 사람 구실을 할 거요.”
 하고 울러베었다.

아무튼 도야지를 각을 떠 석 점이나 지워 가지고 거리로 내려왔다. 식전에 십 리 길을 걸은 속이라 모두 시장했으나 한 사람도 고기 맛이 있을 리 없었다. 뒷일은 늙은 포수에게 말기고 한과 윤은 젊은 포수를 데리고 꿩 사냥을 나갔다가 어스름해서야 돌아와 보니, 일은 더욱 상스럽지 못하게 번져 있었다.

양복 조끼의 사촌형이 돈 삼십 원을 주며, 이 돈만으로는 포수가 들을 리가 없으니 또 주재소에서 소문으로도 벌써 모르고 있을 리 없을 것이니, 주재소로 가서 때리는 대로 맞고, 그저 죽을 때라 잘못했노라 하고, 이 돈 삼십 원밖엔 해놓을 수가 없으니, 이 돈으로 무사하게 처분해 달라고 빌라고 일러 보냈는데 돈 삼십 원을 넣은 양복 조끼는 주재소로도 포수에게로도 나타나지 않았다. 밤이 이슬해서는 그가 월정리역에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 차표 사는 것을 보았다는 소문까지 퍼지었다.

사냥은 이렇게 마치고 말았다.
 차가 창동을 지나니 자리가 수선해지는 바람에 한은 깜박 들었던 잠을 깨었다. ㉕ 집이 있는 서울이 가까워 온다. 그러나 한은 조금도 반갑지 않았다. 그는 생각하였다. 단돈 삼십 원으로도 탈아날 수 있는 그 양복 조끼에게는 세상이 얼마나 넓으랴! 싶었다.

- 이태준, 「사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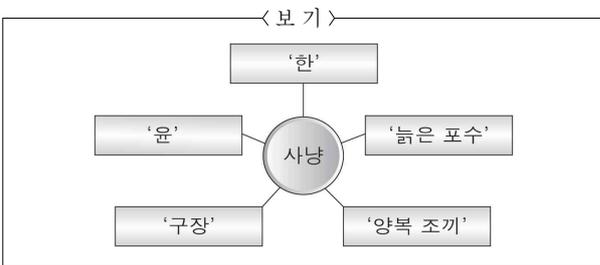
* 저혈: 돼지의 피

* 소불하: 적게 잡아도

37.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를 교체하여 새로운 사건을 도입하고 있다.
- ② 서로 다른 장면을 연결시켜 결말을 암시하고 있다.
- ③ 과거 사건을 삽입하여 인물들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 ④ 행동 묘사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⑤ 서술자가 자기 경험을 직접 서술하여 사건의 전모를 드러내고 있다.

38. <보기>는 '사냥'과 관련된 인물들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한'은 어떤 이도 사냥에서 생긴 불상사의 범인으로 밝혀지지 않기를 바란다.
- ② '늙은 포수'는 사냥에서 얻은 포획물이 '양복 조끼'에게 훼손당하여 손해를 입는다.
- ③ '윤'은 사냥에서 생긴 불상사의 범인이 밝혀진 것에 대하여 안도감을 느끼고 있다.
- ④ '한'에게 있어서의 사냥은 '늙은 포수'와 달리 일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경험에 대한 갈망이다.
- ⑤ '구장'은 사냥에서 생긴 불상사를 해결하기 위해 '늙은 포수'와 '양복 조끼' 사이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39. <보기>를 참고하여 ㉑~㉕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은 일상적인 공간에서 비일상적인 공간으로, 다시 일상적인 공간으로 회귀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주인공은 일상적인 삶의 공간인 도시에서 벗어나 비일상적 공간인 야성의 세계를 찾아가나. 그러나 그곳 역시 매물찬 계산의 논리와 위압에 의해 지배되는 세계라는 것을 확인하며 다시 도시로 돌아온다. 어떤 공간에서든 질곡의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인식은 식민지 지식인으로서의 고뇌와 갈등을 보여주는 것이다.

- ① ㉑: '편집실'과 '교실'은, 식민지 지식인이 찾아가고 싶어 하는 비일상적 공간이군.
- ② ㉒: '촌길'과 '협준한 산마루'는, 야성의 세계에 대한 인물의 지향을 보여주는 공간이군.
- ③ ㉓: '이 자리'는, 야박하고 계산적인 논리에 의해 삶이 속박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공간이군.
- ④ ㉔: '주재소'는 위압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비일상적인 세계도 위압에 의해 지배됨을 보여주는 공간이군.
- ⑤ ㉕: '서울'은, 질곡의 현실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식민지 지식인으로서의 고뇌와 갈등을 보여주는 공간이군.

[40~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하루해
 너의 손목 싸취면
고드름은 운하(運河) 못 미쳐
 녹아 버리고.

풀밭
부러진 허리 꺼건지다 보면
 밀동 긴 폭포(瀑布)처럼
역사(歷史)는 **철철** 흘러가 버린다.

피다순 쪽지 잡고
 너의 눈동자 령(嶺)넘으면
정전지구(停戰地區)는
 바심*하기 좋은 이슬젖은 안마당.

고동치는 젓가슴 뿌리세우고
 치솟은 삼림(森林) 거니노라면
 초연(초煙)* 걷힌 발두덕 가
새벽 열려라.

- 신동엽, 「새로 열리는 땅」 -

- * 정전지구: 일시적으로 전두가 중지된 지역
- * 바실: 곡식의 이삭을 떨어서 낱알을 거두는 일
- * 초연: 화약의 연기

(나)

아마 무너뜨릴 수 없는 고요가
공터를 지배하는 왕일 것이다
빈 듯하면서도 공터는
늘 무엇인가로 가득 차 있다
공터에 지는 바람, 봄비는 바람,
때때로 바람은
숨털에 싸인 풀씨들을 던져
공터에 꽃을 피운다
그들의 늙고 시름에
공터는 말이 없다
있는 흙을 베풀어주고
그들이 지나가는 것을 무심히 바라볼 뿐.
밝은 날
공터를 지나가는 도마뱀
스쳐가는 새가 발자국을 남긴다 해도
그렇게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하늘의 빗방울에 자리를 바꾸는 모래들,
공터는 흔적을 지우고 있다
아마 흔적을 남기지 않는 고요가
㉠ 공터를 지배하는 왕일 것이다

-최승호, 「공터」-

40.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을 의인화하여 대상의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 ② 어조의 변화를 통해 시적 긴장감을 고조하고 있다.
- ③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시적 정서를 심화하고 있다.
- ④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부정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수미상응의 구조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고조시키고 있다.

41.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신동엽의 현실 인식은 민족이 '처해 있는 현실'에 머물지 않고 '있어야 할 현실'을 지향한다. 이 시에서도 분단이라는 부정적 상황에 머물지 않고, 공동체의 동질성이 회복된 현실에까지 나아가고 있다. 결국 이 시에서 '있어야 할 현실'은 민족 공동체의 염원과 기대가 담긴 민족 화합의 장이다.

- ① '고드름'은 공동체의 동질성이 회복된 민족 화합의 현실로 볼 수 있군.
- ② '부러진 허리'는 민족 공동체의 분단이라는 부정적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군.
- ③ '역사는 철철 흘러가 버린다.'는 민족이 처해 있는 현실이 현재에 머물지 않고 미래로 나아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군.
- ④ '정전지구'는 민족이 처해 있는 현실을 나타내는 공간으로 볼 수 있군.
- ⑤ '새벽 열려라.'는 민족 공동체의 염원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군.

42.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자의 방황을 유발하는 대상이다.
- ② 화자가 통념과 달리 새롭게 바라보는 대상이다.
- ③ 화자의 세계에 대한 대결 의지를 드러내는 대상이다.
- ④ 화자가 낯선 세계를 동경하게 하는 계기가 되는 대상이다.
- ⑤ 화자의 삶이 투영되어 회상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대상이다.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현'은 현실에 안주하려는 삶을 살아가는 할아버지와 현실을 개혁하려는 삶을 살았던 아버지 사이에서 방황하는 지식인이다. '현'은 일제 강점기 학병으로 끌려갔다가 탈주하여 고향으로 돌아와 평범한 생활을 추구한다. 그러나 '현'은 윤희였다가 625때 돌아온 친구 '연호'가 주도하는 인민재판에 분노하여 총을 난사하고, 자신도 총상을 입은 채 동굴로 피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된다.

S#53. 읍내 플랫폼

이른 새벽, 안개 속에 기차를 기다리는 사람들. 길 떠날 차림의 현과 고영감, 어머니가 온다. 플랫폼에서 여남은 장 ㉠ 지진 다발을 꺼내더니.

고영감 아랫말 과수원 판 돈이여. 헛되이 쓰지 말구 꼭 대학에 붙어서 판검사가 되어 혀.

공손히 받는 현.

고영감 내가 우리 집안에 기둥이 되어 혀. 부디 성공을 해라.

이윽고 먼 기적 소리. 기차가 들어온다.

현 그럼, 할아버님.

고영감 오냐. 일본에 가 거처를 정하걸랑 곧 연락을 혀. 돈도 필요하면 더 보낼 테니께.

현 (어머니를 돌아본다.)

현모 내 걱정 말구 아무쪼록 객지에서 몸 성히 다녀와라.

눈물고인 시선 꼭 손목을 잡아준다. 기차에 오르는 현. 저만치 역 구내에 영순이가 서 있다. 가만히 손 들어주는 현. 영순 돌아서 온다. 이윽고 ㉡ 발차 신호. 천천히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점차 멀어지는 그들. 손을 흔드는 현.

S#54. 기차 안

차창에 앉은 현. 멀어져가는 고향 풍경. 자꾸 뒤돌아본다. 기차가 터널로 들어간다. 어두워지는 주위. 웬일일까? 기차만 가고 현만 남아 있다. 이상하다. 동굴 안에 달랑 남아 꿈결인 양 둘러보는 현.

S#55. 동굴 안(밤)

동굴 속에 앉아 있는 현. 몽롱한 의식 속에 괴로워하다가 펄쩍 눈을 뜬다. 딱, ㉢ 떨어지는 물방울. 아, 역시 동굴 속이라 정신을 가다듬어 내다보는 현. 밖에는 추적추적 비가 내리고 있다. 점점 기력이 쇠진하고 의식이 몽롱해지는 현. 상처 찌시는 다리에 가만히 손을 댔다가 눈앞에 가까이 본다. ㉣ 겉붉은 핏자국. 가쁜 숨결. 이윽고 헛소리 하는 현.

“..... 죽는 걸까? 여기서 이대로 죽는 건가? 맥박이 뭇 적마다 피가 흐른다. 몇 시간이나 더 지탱할 수 있을까...... 아니 그놈이 울 텐데...... 그놈은 꼭 오고야 말 것이다.”

메마른 입술. 전신을 스치는 소란. 현, 총신을 잡고 고통에 쩡

그리며 가만히 일어난다. 지레 문 어금니 사이로 신음이 새어나 온다. 현, 다리를 끌고 나가 동굴 입구에 떨어지는 빗물을 받아 마신다. 얼굴을 적시는 빗줄기. 어두운 계곡에 뽀얀 물보라. 저 멀리 마을 쪽에 ㉠ 예광탄 하나가 밤하늘을 긋는다. 흠칫 놀라는 현. 충신을 거머쥐고 겨냥하며 슬금슬금 안으로 든다. 마치 개 한 마리 나오려다 도로 기어들어가는 것 같다. 현, 눈을 지그시 감고 고통을 참는다.

현 높은 온다...... 꼭 온다...... 나를 죽이러 온다......

문득 먼 포성. 흠칫 귀를 기울이는 현. 계속되는 포성.

현 천둥소리? 아니 저건 포 소리 같은데...... 포 소리...... 포 소리가 분명해.

현의 목소리가 우렁우렁 굴속을 메아리쳐 굴러가며 거기 다시 환청으로 누구의 목소리가 메아리 되어 울리며,

“(오노오노 소노 도꼬로에 에시무) 모두들 각자의 자기 설 자리에 서게 한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다. 개인을 절대적 단위로 하고 무원칙적인 평등과 무제한한 자유를 목적으로 한 서구의 사회 질서는 극도의 혼란을 조장케 되었고 그 문명은 바야흐로 몰락의 과정에 이르게 된 것이며......”

S#56. 일본 제대 강의실

칠판에 커다랗게 팔굉일우(八紘一宇) 휘갈겨 써 놓고 변사조의 강의를 계속하는 동양윤리학 교수 다카라. 명한 얼굴로 강의를 듣는 현.

다카라 이때야말로 빛은 동방으로부터 첫손 미족이 쫓기할 때는 당도한 것이다. (오노오노)...... 그것은 존재의 근화원리를 투시한 것이며 겹쳐진 인간 정신의 가치(고에 다카라니 우따우모노)...... 소리 드높여 노래하는 것이라. 역사적 대사명...... 팔굉일우 얼마나 장엄한 선언이나?

장엄한 선언? 비웃듯 되물어보는 현의 표정.

다카라 대동아공영권 건설의 정신이 바로 이것이다. 미영의 굴레에 억압된 황색민족을 해방하고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여 일본은 아시아의 맹주가 되어야 한다. 이 얼마나 비장하고 장엄한 사명이나?

S#57. 동굴 안(밤)

눈감은 채 괴로워하는 현.

현 그래서?

S#58. 강의실

다카라 (쫄르르 달려가 흑판에 대일본제국이라고 휘갈겨 쓰고) 따라서 우리 국민 각자는 이 거룩한 대의에 한 목숨 초개 같이 버려 천황 폐하의 황은에 보답해야 하는 것이다. 보라. 들에 노는 축생일지라도 그들 자신을 벌함으로써 그 가치를 발휘하고 있지 않느냐? 그들은 그들의 한 가닥 뼈마져 인간을 위해 달게 바치고 있는 것이다.

S#59. 동굴 안(밤)

“(따지듯) 달게?”

- 선우휘 원작. 이은성 외 각색, 「불꽃」 -

4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의 내면 의식의 흐름을 중심으로 극이 진행되고 있다.
- ② 다양한 효과음이 활용되어 작품의 긴장감이 완화되고 있다.
- ③ 시간의 역전된 흐름에 따라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되고 있다.
- ④ 새로운 인물의 등장을 통해 인물 간의 관계가 개선되고 있다.
- ⑤ 공간의 변화에 의해 현실의 모순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다.

4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에 나타난 장면 전환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영화의 장면은 연속된 시간이나 공간으로 전환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서로 다른 공간이나 연속성을 벗어난 시간으로 장면이 전환되기도 한다. 서로 다른 공간이나 시간을 연결하는 경우, 두 장면의 연속성을 암시하는 연결고리가 필요하다. 이는 주로 선·후행 장면에서 나타나는 상황의 유사성, 선·후행 장면 내의 소재나 형상의 유사성, 선·후행 장면에 포함된 소리의 유사성 등으로 표현된다.

- ① S#54에서 터널로 들어가는 것과 S#55의 동굴 안은 어둠이라는 상황의 유사성을 이용한 장면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군.
- ② S#55에서 굴속에서의 현의 목소리와 일본인 교수의 목소리는 메아리라는 소리의 유사성을 활용하여 S#56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군.
- ③ S#56에서 S#57로의 장면 전환은 교수의 강의에 대해 현이 반문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강의에 대한 반응’이라는 상황의 유사성으로 연결시키고 있군.
- ④ S#57에서 S#58로의 장면 전환은 괴로워하는 현의 신음 소리와 교수의 강의 소리라는 소리의 유사성을 활용하여 이루어지고 있군.
- ⑤ S#58에서 S#59로의 장면 전환은 교수의 말의 일부를 다시 사용하여 ‘달게’라고 반문하는 ‘현’의 말의 소리의 유사성을 활용하여 이루어지고 있군.

45. ㉠~㉡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현’에 대한 ‘고영감’의 기대를 보여주고 있다.
- ② ㉡은 이별의 시간이 되었음을 청각적으로 일깨워주고 있다.
- ③ ㉢은 ‘현’이 자신이 있는 장소가 어디인지를 확인하게 하고 있다.
- ④ ㉣은 ‘현’의 부상이 심각한 상태임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⑤ ㉤은 자신을 구해줄 사람에 대한 ‘현’의 기대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확인사항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2013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1교시 국어 영역 •

[A 형]

1	3	2	4	3	1	4	2	5	5
6	5	7	5	8	2	9	4	10	5
11	4	12	3	13	2	14	3	15	2
16	2	17	2	18	5	19	3	20	4
21	2	22	5	23	3	24	1	25	3
26	5	27	5	28	3	29	1	30	1
31	5	32	4	33	4	34	1	35	1
36	1	37	1	38	3	39	3	40	2
41	2	42	3	43	1	44	4	45	5

[화 법]

1. [출제의도] 토론 전략 이해하기

찬성 측의 첫 번째 발언에서 성공 사례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① 사회자는 토론 주제를 제시한 후 '일수벌과곰'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② 반대 측은 첫 번째 발언에서 제도 도입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을 언급하며 자신의 주장을 밝히고 있다. ④ 반대 측은 두 번째 발언에서 물음의 형식을 통해 일수벌과곰제의 도입이 오히려 위반 행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상대방 주장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⑤ 찬성 측은 두 번째 발언에서 소득 파악이 어렵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다시 한 번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고 있다.

2. [출제의도] 토론에 대한 반응의 적절성 파악하기

반대 측은 두 번째 발언에서 정확한 소득 파악이 어렵다면 일수벌과곰제를 시행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찬성 측 주장을 비판하고 있다.

3. [출제의도] 발표 시 고려할 사항 이해하기

발표를 위해서는 고려하여야 할 다양한 요소들이 있다. 제시된 대화 상황을 통해 윤서가 화법 시간 발표 시 시정각 보조 자료를 활용하여 말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② 윤서가 발표를 준비하면서 전통혼례에 대해서 뭐가 궁금한지 친구들에게 미리 물어봤다는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다. ③ 윤서가 화법 시간 발표 시 평소와는 다르게 큰 목소리로 발표해서 맨 뒤에 있던 현식이에게도 잘 들렸다는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다. ④ 전통혼례의 절차나 의미 등에 대해 순서대로 이야기했다는 현식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⑤ 윤서가 발표를 잘하고 싶어서 도서관에 가서 전통혼례의 절차, 혼례 시 착용하는 의복, 혼례 물품 등에 담긴 상징적 의미,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의 전통혼례의 차이점까지 찾아봤다는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4. [출제의도] 면접 상황 평가하기

경찰을 꿈꾸는 학생1은 두 번째 질문인 '학업 계획'에 대해, 대학 홈페이지에서 찾아본 교육과정과 같은 구체적인 정보에 근거하여 답변하고 있다. 이것은 전공 필수 과목인 심리학 개론과 심리 통계, 선택과목인 범심리학과 범교 심리학을 언급하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2는 구체적인 정보 없이 막연하게 전공과목이나 영어 공부를 하겠다고 답변하고 있다. 따라서 면접 체점표에 '학업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답변했는가'에 대한 체점은 학생1은 '그렇다'에 학생2는 '아니다'에 √가 되어야

한다.

① 학생1은 지원 동기에 대한 답변에서 면접관의 질문 의도에 맞게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인 경찰과 관련하여 답변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2는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을 밝히고 있지 않다. ③ 학생1의 답변에는 불필요한 내용이라고 볼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학생2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에 '수학도 참 좋아했습니다.'라는 불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④ 학생1은 '면접'이라는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에서 격식에 맞지 않는 비격식적인 해례체와 '내가'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⑤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답한 학생1이나, 면접관과 시선을 맞춘 학생2의 비언어적 표현은 모두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5. [출제의도] 의사소통의 장애 요인 파악하기

[A]는 면접관과 두 학생이 의사소통의 장애를 겪고 있는 부분이다. 면접관의 질문에 대해 두 학생 모두 '지음(知音, 마음이 서로 통하는 진한 벗)'이라는 어휘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면접관이 사용한 어휘를 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했다' 때문이다.'라는 진술은 의사소통 장애가 발생한 원인으로 적절하다.

[작 문]

6. [출제의도] 작문 과제에 맞게 내용 구상하기

'깎두기'가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배제하지 않고 참여시키려는 의도를 지녔다는 긍정적인 측면에 착안하였고, 굶주림이라는 예상 독자를 명시적으로 밝혔으며 발표 기회를 보장해 주자는 주장이 담긴 제안의 글을 구상했으므로 적절하다.

① 예상 독자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보고서는 주장하는 글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놀이 문화에서의 '깎두기'가 아닌 김치의 종류인 '깎두기'를 통해 구상한 내용은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③ 예상 독자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④ 예상 독자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놀이의 결과가 결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은 <보기>에 제시된 정보가 아니다.

7. [출제의도]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글의 구상 보완하기

(가)의 내용 중 도난을 당한 문화재 및 해외로 유출된 문화재에 대한 것이 있으나 예상 독자를 고려할 때, [마무리]에서 도난을 당한 해외 문화재의 반환을 위해 시민들의 인식 전환을 촉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가)를 통해 도난을 당한 문화재의 수가 매우 많으며, 도난 및 도굴의 과정에서 훼손된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도입] 부분에 '문화재 훼손 및 도난의 심각성'을 추가해야 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② (가)를 통해 문화재의 도난 실태를, (나)와 (다)-2를 통해 도난 방지 시설이 미비한 상황을 알 수 있으므로 [중간] 부분에 문화재 도난 원인의 세부 항목으로 '도난 방지 시설의 미비'를 넣어야 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③ (다)-1을 통해 화재 정보 장치의 설치가 미비함을 알 수 있으므로 [중간] 부분에 문화재 훼손 원인의 세부 항목으로 '화재 예방 시설의 미비'를 넣어야 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8. [출제의도] 조건에 맞게 표현하기

'의로워하는 우리의 문화재'에 의인법을 사용하였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속담을 활용하였으며, '문화재의 가치를 알려드립니다.'에 문화재 지킴이 활동 내용을 언급했다.

① 의인법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속담이나 격언도 활용하지 않았다. ③ 지킴이 활동 내용을 언급하지 않

았으며, 의인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④ 의인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⑤ 지킴이 활동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

9. [출제의도] 작문 과정에서의 글쓰기 전략 이해하기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는 다양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지만, 시간적 순서에 따라 내용을 조직하고 있지는 않다.

① '수정하여 쓴 글'에서는 '신비의 바닷길 축제'가 열리는 기간에 대한 정보를 추가했다. ② '처음 쓴 글'에서는 '있어', '좋아' 등의 표현을 썼지만 '수정하여 쓴 글'에서는 '형성됩니다', '있습니다' 등의 정중한 표현을 사용하였다. ③ '수정하여 쓴 글'에서는 단순히 축제 기간에 할 수 있는 체험을 소개하고 있지만,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는 남도 민요를 배웠던 경험과 바닷길을 걸었던 경험을 추가하였다. ⑤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는 '신비의 바닷길 축제' 홈페이지의 주소를 안내하여 독자가 인터넷 매체를 통해 축제와 관련된 내용을 더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10. [출제의도] 고쳐 쓰기의 적절성 판단하기

'소개시켜'는 불필요한 사동의 의미가 추가되어 어법에 맞지 않으므로 '소개해'가 적절한 표현이다.

① '물'의 의미가 중복되어 있으므로 둘 중 하나를 삭제해야 한다. ② 바로 뒤의 문장에서 언급한 '다양한 체험'의 예를 들고 있는 문장이므로, 뒤의 문장과 순서를 바꾸어야 한다. ③ '공연'에 해당하는 서술어가 없으므로 '공연도 보고'와 같이 고쳐야 한다. ④ 글의 내용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삭제해야 한다.

[문 법]

11. [출제의도] 형태소의 분류 기준 이해하기

<보기>에서 A에는 실질적인 의미를 갖지 못한 형식 형태소가 속한다. 따라서 조사 '에'와 어미 '-는'은 A에 해당한다. B에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태소 중, 혼자 쓰일 수 없는 의존형태소가 속한다. 따라서 어간 '있-'은 B에 해당한다. C에는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실질형태소이자, 혼자 쓰일 수 있는 자립형태소가 속한다. 따라서 '자리'와 '어느'는 C에 해당한다.

12. [출제의도] 자음동화화 및 첨가 현상 이해하기

③ '막힐'은 앞말의 끝이 자음이고, 뒷말이 '이'로 시작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ㄹ' 소리가 첨가되는데, [막닐]이 아닌 [망닐]로 발음한다. 그 이유는 앞말의 받침인 'ㄱ'이 뒷말의 첫소리에 첨가된 'ㄹ'의 영향을 받아 'ㅇ'으로 비음화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ㄹ'의 영향으로 'ㄱ'이 비음화 되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④는 앞말인 '코'가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인 '날'이 'ㄹ'으로 시작되므로 앞말의 끝소리에 'ㄹ'이 첨가된 경우이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② ⑥는 앞말인 '색'이 자음 'ㄱ'으로 끝나고 뒷말이 '어'로 시작되므로 뒷말의 첫소리에 'ㄹ' 소리가 첨가된 경우이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④ ⑥는 앞말 '물'의 끝이 자음이고 뒷말이 '야'로 시작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ㄹ' 소리가 첨가되는데, [물낙]이 아닌 [물락]으로 발음한다. 그 이유는 뒷말의 첫소리에 첨가된 'ㄹ'이 앞말의 받침인 'ㄹ'의 영향을 받아 'ㄹ'로 유음화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절한 진술이다. ⑤ ⑦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ㄹ'으로 시작되므로 앞말의 끝소리에 'ㄹ'이 첨가된 경우인데, 사잇소리를 추가하여

‘잇몸’이라고 표기한 것이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13. [출제의도] 용인의 불규칙 활용 이해하기

‘파래서’는 어간인 ‘파랠-’, 어미인 ‘-아서’의 형태가 모두 변해, 어간과 어미가 모두 바뀐 불규칙 활용에 해당한다.

① ‘오너라’는 어간 ‘오-’에 명령형 어미가 결합될 때 ‘-아라’가 아닌 ‘-너라’로 활용한다. 따라서 어미가 불규칙하게 변하는 활용에 해당한다. ③ ‘지어’는 어간 ‘짓-’에 어미 ‘-어’가 결합할 때 어간 ‘짓-’에서 ‘ㅈ’이 탈락하므로 어간이 변하는 불규칙 활용에 해당한다. ④ ‘묻다’는 어간 ‘묻-’에 어미 ‘-어’가 결합할 때 ‘묻-’이 ‘물-’로 변하므로 어간이 변하는 불규칙 활용에 해당한다. ⑤ ‘하다’는 어간 ‘하-’에 어미 ‘-어’가 결합하므로 어미가 불규칙하게 변하는 활용에 해당한다.

14. [출제의도] 구어 담화의 표현 이해하기

같은 대상을 철수는 ‘이 과자’라고 표현하고 영희는 ‘그거?’라고 표현한 것은 ‘과자’가 영희보다 철수에게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② 발화 상황을 고려할 때, ‘참 잘하셨네요.’라는 진술에서 높임 표현이 사용된 것은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상하 관계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철수의 행위에 대해 영희가 자신의 불만 또는 언짢음을 반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④ ‘대신 이 과자라도 먹올래?’라는 철수의 발화 내용을 고려할 때 ‘먹올래’라는 영희의 발화에는 주체인 ‘나’와 대상인 ‘과자’가 생략되어 있다. ⑤ 과자를 건네는 행위와 ‘배 안 고프?’라는 물음에 담긴 의도를 고려할 때 점심을 먹었다는 철수의 진술은 과자를 먹었다는 영희의 제안에 대한 거절의 의미를 담고 있다.

15. [출제의도] 문장의 구조 이해하기

ㄱ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므로 앞뒤 문장의 순서가 바뀌어도 의미가 동일하지만, ㄴ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므로 앞뒤 문장의 순서가 바뀌면 그 의미가 달라진다.

① ㄱ은 두 문장이 대조의 관계로 이어진 문장이고, ㄴ은 조건의 의미 관계로 이어진 문장이다. ④ ㄷ은 안건 문장이 안은 문장에서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명사처럼 쓰인 경우이고, ㄹ은 안건 문장이 ‘영수’를 꾸미는 역할을 하므로 명사를 꾸미는 관형사처럼 쓰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사 회]

[16~19] <출전> 이준규, 「미시경제학」

16.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하기

유행효과가 잘 나타나는 소비자의 특성에 대해서는 2문단에서 언급하고 있지만, 유행효과가 어떤 문제점을 유발하는지는 이 글에서 찾을 수 없다.

① 1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2문단의 마지막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3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3문단의 앞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17. [출제의도] 핵심 내용 이해하기

가격이 P₁에서 P₂로 하락할 때, 유행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요량이 Q₁에서 Q₂로 증가하고, 유행효과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수요량이 Q₁에서 Q₃로 증가한다. 따라서 유행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Q₂에서 Q₃만큼 수요량이 더 증가하게 된다.

③ (나) 상품의 가격이 P₃에서 P₄로 하락할 때, 속물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수요량은 Q₃에서 Q₄로 변화하게 된다. 그런데 속물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소비에 영향을 받아 (나) 상품을 구입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생겨나므로 결과적으로 수요량은 Q₃에서 Q₄로 변화한다. ④ (나) 상품의 가격이 P₃에서 P₄로 하락할 때 수요량의 증가폭이 감소한 것은 3문단의 내용과 관련이 없 때 타인과 차별화되고 싶은 소비자의 심리가 작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⑤ D₂와 D₄는 각각 유행효과와 속물효과가 존재하는 경우의 수요곡선이므로, 다른 사람들의 수요가 개인의 수요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게 해 준다.

18. [출제의도] 글의 내용 적용하기

(가)는 유행효과, (나)는 속물효과가 나타나는 상품이다. 유행효과는 다른 사람의 소비에 영향을 받아 수요량이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것이므로 소비를 증가시키기 위한 판매 전략이 필요하다. 속물효과는 남과 차별화하고자 하는 심리가 소비의 배경이 되므로 상품의 희소성을 높게 유지시키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묶음으로 구성되어 상품 구매 시 가격 부담을 줄이는 것은 희소성을 높게 유지시키는 전략과 관련이 없다.

① 상품이 출시되었을 때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행사를 실시하여 구매가 촉진되면 이에 영향을 받은 추가적인 수요가 발생하게 된다. ② 유명인들의 모습을 본 소비자들이 이에 영향을 받아 구매를 하게 되면, 이는 또 다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어 수요를 증가시키게 된다. ③ 해당 상품의 특성과 이미지를 유지하게 되면, 그 상품에 대해 다른 사람과 차별화하려는 심리를 지닌 사람들의 소비를 유도할 수 있다. ④ 시장 판매량이 늘어나지 않게 관리하면 희소성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으므로 차별화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소비를 유도할 수 있다.

19. [출제의도] 단어의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의 ‘심리가 깔려 있는 경우’에 사용된 ‘깔려’와 ‘좋은 의도가 깔려 있었다’에 사용된 ‘깔려’는 ‘사상이나 감정, 생각 따위가 겹으로 드러나지 않고 묻혀 있다’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① ‘무엇을 밑에 두고 누르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② ‘바닥에 퍼 놓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④ ‘널리 퍼져 있다, 또는 많이 퍼져 있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⑤ ‘돈이나 물건 따위를 여기저기 빌려 주거나 팔려고 내놓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인 문]

[20~22] <출전> 송관재 외, 「인간 심리의 이해」

20. [출제의도] 글의 서술 방식 이해하기

이 글의 중심화제는 반두라(Bandura)의 관찰학습 이론을 바탕으로 한 인간의 공격행동이 학습되는 과정이다. 반두라는 관찰학습 이론을 바탕으로 공격행동이 나타나는 과정을 4단계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③ 이 글에는 여러 심리학자들의 견해가 제시되어 있지만 상반된 이론을 비교하여 대안적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지는 않다.

21.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반두라는 관찰학습을 통해 공격행동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주의집중→과자→행동재생→동기부여’로 보았다. 이 과정을 살펴보면 행동재생, 즉 행동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과자 과정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과자 과정에서 인지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머릿속에 저장된 공격행동을 신체적 움직임을 통해 한번 실행해 보게 되는 행동재생에 관한 글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공격행동을 관찰하게 되는 빈도가 높을수록 공격행동이 학습되기 쉽다는 글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자신의 공격행동으로 무엇인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공격행동을 다시 표출하게 된다는 글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공격행동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않더라도 이를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것만으로도 기억이 된다는 인지적 시연과 관련된 글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2. [출제의도] 글의 세부내용 이해하기

학생이 이 글을 읽고 작성한 독서록의 내용은 이 글을 바탕으로 작성되어야 하는데, 4문단을 보면 과거 과정에서 자신이 관찰한 것을 언어적 기호 또는 영상의 형태로 인지 능력을 바탕으로 기억한다고 언급되어 있을 뿐이지 어느 것이 더 잘 기억된다는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으므로 ㉠과 같은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과 학]

[23~25] <출전> 도성재·김광호, 「교지자기학」

23.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하기

3문단의 ‘전자기유도현상을 근거로 지구 외부에 형성되어 있는 자기장이 지구 자기장 형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전제하였다.’라는 내용을 참고할 때 지구 자기장의 존재 여부를 통해 전자기유도현상이 증명되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24. [출제의도] 글의 내용 적용하기

㉠은 지구의 자전축으로서 다이나모에서는 회전관을 돌게 하는 중심축에 해당한다. ㉡는 지구 자기장으로 지구가 다이나모에서는 코일을 타고 흐르는 전류에 의해 형성된 2차적인 자기장에 해당한다. ㉢는 외핵으로서 다이나모에서는 회전을 통해 전류가 생성되는 회전관에 해당한다.

25. [출제의도] 반응의 적절성 판단하기

4문단을 통해 지구 자기장이 형성된 후에는 지구 외부로부터의 자기장이 없더라도 전류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지구 외부로부터의 자기장에 계속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외핵(㉢) 속에서 발생한 전류가 유지될 수 없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3문단과 4문단을 통해 ㉠(지구 자기장)가 유지되려면 ㉡(자전축)를 중심으로 한 자전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③ 3문단을 근거로 ㉢(외핵)의 구성 물질이 전기 전도도가 높다는 것이 ㉠(지구 자기장)을 형성하는 조건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⑤ 3문단을 통해 전류가 형성되려면 ㉢(외핵) 속 물질들의 순환뿐 아니라 지구 외부로부터의 자기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기 술]

[26~28] <출전> 은희준 외, 「방음벽 최적 설계기술 및 고성능 투명 방음벽 개발」

26. [출제의도] 표제와 부제 파악하기

1문단에서 방음벽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음저감장치가 추가로 필요함을 밝히고 있으며, 대표적인

소음저감장치로서 2문단에서 흡음형용, 3문단과 4문단에서 간섭형을 각각 설명하고 있다.

27. [출제의도] 세부 내용 파악하기

<보기>에서 ㉔는 회절음 중 간섭 통로를 거치지 않은 음이고 ㉓는 간섭 통로를 통과한 음이며, ㉔는 흡음체 내부로 유입된 회절음이다. 2문단을 통해 ㉔ 내부에서 ㉔와 섬유소의 접촉면이 많을수록 소음저감 효과가 커짐을 알 수 있으므로, 부딪히는 접촉면이 줄어들수록 소음저감 효과가 더 커진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28. [출제의도]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㉔ 지점에서 ㉔ 지점으로 움직이는 동안 소리의 세기가 변하게 된 것은 파동의 간섭 현상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스피커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움직이면서 소리의 크기를 측정하여도 파동의 간섭 현상으로 인해 소리의 세기는 변화될 수밖에 없다.
 ㉔ 지점에서 움직이면서 소리의 세기가 작아지다가 ㉔ 지점을 지난 후 소리의 세기가 다시 커졌으므로 ㉔ 지점에서 상쇄 간섭이 일어났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㉔ 텅 빈 운동장에 두 개의 스피커가 마주 보고 있는 상태이므로 다양한 지점에서 소리의 중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㉔ 한 개의 스피커에서만 소리가 나온다면 소리의 중첩에 의한 간섭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㉔ 지점에서 ㉔ 지점으로 갈수록 소리의 세기가 작아진다는 점과 소리의 세기는 진폭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참고할 때 적절한 진술이다.

[독서]

29. [출제의도] 읽기 전략 이해하기

영수와 진호는 모두 책을 읽기에 앞서 책의 제목이나 목차를 보고 책의 내용을 짐작하고 있다. 영수는 목차와 소제목목을 보며 책에서 기억과 망각의 과정에서 뇌가 어떻게 기능하는지 설명할 것 같다고 짐작하고 있으며, 진호는 책 제목을 보고 풍속화 감상법에 대한 내용, 실제 그림 감상 내용 등이 있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다.

30. [출제의도] 읽기 상황에 대한 조건의 적절성 파악하기

영수는 중요한 내용을 요약하고 메모하며 글을 읽는, 읽기 중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진호는 글의 내용을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㉑과 같이 책의 핵심 내용을 제대로 떠올리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영수가 ㉑에 대해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 보라는 내용으로 조언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㉔ 진호는 '해학'이나 '소박함'과 같은 핵심 단어를 파악하고 있으므로, 조언으로 적절하지 않다. ㉔ 진호는 '해학'의 사전적 의미를 확인하였다. ㉔ 진호는 책을 읽기 전에 풍속화 감상법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겠다고 예측한 뒤, 글을 읽으면서 풍속화 감상법을 확인하고 있다. ㉔ 진호는 풍속화에 대한 설명을 들었던 경험을 떠올리며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고 있다.

[고전소설]

[31~34] <출전> 작자 미상, 「안락국전」

31. [출제의도] 서술상 특징 파악하기

이 글에서 서술자는 작품 속에 직접 개입하여, 원왕 부인의 죽음에 대해 '안타깝다'라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으며, 장자를 '몸술 천인(賤人)'이라고 서

술하며 인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32. [출제의도] 공간의 변화에 따른 내용 파악하기

이 글에서는 안락국의 이동에 따라 사건이 진행되고 있으며 작품 속에 등장하는 두 공간인 [A]와 [B](서역국)를 관통하여 이동하는 인물 역시 안락국뿐이므로 사라수 대왕이 함께 이동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33. [출제의도] 소재의 기능 파악하기

이 글에서 안락국이 돌아와 듣게 되는 노래는 사라수 대왕의 예견이 실제로 실현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죽은 원왕 부인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안락국에게 전해 준다. 이는 안락국의 슬픈 심리를 불러일으키고, 안락국의 다음 행동을 유발하게 된다. 그러나 이 노래는 안락국 모자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을 뿐 원왕 부인이 안락국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을 대신 전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34. [출제의도] 상황에 맞는 사자성이 추리하기

간난신고(艱難辛苦)는 매우 심한 고통과 고난, 또는 그러한 고난과 고초를 겪는 상태를 의미한다.
 ㉔ '고진감래(苦盡甘來)'는 고통이 끝나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뜻이다. ㉔ '괄목상대(刮目相對)'는 대상의 발전이나 변화가 놀라울 정도라서 깜짝 놀라 눈을 비비고 대상을 바라본다는 뜻이다. ㉔ '방약무인(傍若無人)'은 주위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함부로 행동한다는 뜻이다. ㉔ '좌고우면(左顧右盼)'은 이쪽저쪽을 돌아본다는 것으로, 앞뒤를 재고 망설인다는 뜻이다.

[고전시가]

[35~36] <출전> 김득연, 「산중잡곡(山中雜曲)」

35.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 파악하기

이 글은 '모르겠다', '하노라' 등에서 감정을 강하게 나타내는 영탄을 사용하였으나, 이를 통해 화자의 반성적 성찰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이 작품의 화자는 자연 속에서의 삶에 대한 즐거움과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을 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있지 않다.
 ㉔ [A]의 '지당(池塘)에 활수(活水)이 드니 노는 고기 다 헤아리겠다 / 송음(松陰)에 청뢰(淸嶽)이 나니 금슬(琴瑟)이 여기 있구나', [B]의 '술 아래 길을 내고 못 위에 대를 쌓으니', [C]의 '집 뒤에 차차리 뜰고 문 앞에 맑은 샘 길어', [D]의 '배 고프거든 비구랫 밥 먹고 목 마르거든 바깥 물 마시니' 등에서 대구의 방식을 활용하여 리듬감을 부여하고 있다. ㉔ [E]의 '이 몸이 또 언더하노 부릉인(武陵人)인가 하노라.'에서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하는 자문자답의 형식으로, 자연 속을 살아가는 화자의 만족감이라는 시적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 ㉔ [D]의 '남의 부운(浮雲) 같은 부귀(富貴)이사 부러울 줄이 이시랴'에서 '이시랴'는 설의적인 표현으로, 타인의 부귀를 부러워하지 않고 청빈한 삶을 살겠다는 화자의 가치관을 강조하고 있다. ㉔ [D]의 '부운(浮雲) 같은 부귀(富貴)'는 직유법을 사용한 부분으로, '뜬구름'이라는 보조 관념을 통해 '부귀'가 헛된 것이라는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36. [출제의도] 시상 전개에 따라 감상하기

[A]와 [B]에는 모두 화자가 즐기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만 나타나고 있고, 화자가 반반고 싶어 하는 자연의 모습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㉔ [A]는 초·중장에서 '지당'에 '활수'가 들어 그 속에 '고기'가 노는 모습과 '송음'에 맑은 바람 소리가 나는 주변 경치를 묘사하고, 중장에서 이를 즐기라고 돌아갈 줄 모르는 화자의 심정을 그리고 있다. [B]는 초·중장에서 '술' 아래 '길'을 내고 '못' 위에 '대'를 쌓으니 바람, 달, 안개, 노을이 좌우에서 오는 주변 경치를 묘사하고, 중장에서 이 사이에서 '한가히' 앉자 즐기라고 늙는 줄도 모르는 화자의 심정을 그리고 있다. ㉔ [C]에는 화자가 '차차리' 뜰는 공간인 '집 뒤에'와 '맑은 샘' 길는 공간인 '문 앞에'를 드러내고 있는 데 반해, [D]에는 화자가 '비구랫 밥' 먹고 '바깥 물'을 마시는 공간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 ㉔ [C]는 초·중장에서 '차차리' 뜰고 '맑은 샘' 길어 '기정방' 짓고 '산채물' 삶아 먹는 소박한 삶의 모습을 그린 후, 중장에서 '풍미(風味)이 족(足)함도 내 분인가 하노라'라고 하여 이러한 생활에 대한 화자의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D]는 초·중장에서 '비구랫 밥' 먹고 '바깥 물' 마시는 가운데 즐거움을 찾는 소박한 삶의 모습을 그린 후, 중장에서 '남의 부운(浮雲) 같은 부귀(富貴)이사 부러울 줄이 이시랴'라고 하여 타인의 부귀를 부러워하지 않고 현재의 삶에 만족감을 느끼는 화자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㉔ [E]에서 화자는 자신이 거처하는 공간을 '도원'이라는 이상향에 견주어, 그 속에서 살아가는 자신을 '부릉인'이라고 하여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을 드러내고 있다.

[현대소설]

[37~39] <출전> 윤홍길, 「무지개는 언제 뜨는가」

37. [출제의도] 서술상 특징 파악하기

이 글은 차 서방의 막내 아들로 태어난 동근이가 당숙모의 아들이 되고, 김씨 집안의 양아들이 되는 과거의 사건을 요약적 계시를 통해 서술하고 있다.

38. [출제의도] 서사 흐름에 따른 세부 내용 이해하기

동근이의 입적 문제가 결론이 나지 않는 사이 당숙모는 큰당숙 집에 불을 질렀고, 당숙모의 위협적인 행동 때문에 집안 어른들은 결국 동근이를 호적에 올리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큰당숙 역시 어쩔 수 없이 동근이를 호적에 올려 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때문에 '동근'이 김씨 집안의 양아들이 되는 상황이 큰당숙이 '동근'을 가지 있는 존재로 여겼기 때문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㉔ 당숙모가 잣나무를 데리고 올 때와 당숙모가 동근을 호적에 올려 달라고 요구할 때, 김씨 집안사람들이 '동근'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 이유는 '동근'의 아버지가 빨갱이로 지목된 차 서방이었기 때문이다. ㉔ 동근이 김씨 집안의 양아들로 호적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당숙모가 동근에게 가진 변함없는 애정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

39.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참고하여 작품 감상하기

'냇물 들고 양식을 얻으러 다니던 당숙모의 행동은 '먹을 것이 떨어질 때마다 어김없이 폭발되곤 하였'는 점에서 먹을 것을 얻기 위한 행동이지, 이태울로기로 인한 긴장과 갈등의 심리를 드러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㉔ 필사적으로 잣나무를 품에 안고 도망치는 당숙모의 행동에서는 잣나무가 빨갱이의 아들인지 아닌지는 개입되지 않으므로 개인적인 원한 관계를 초월한 모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㉔ 당숙모는 가

죽을 잃고 실성한 뒤 이상행동을 보였으나 동근을 키우면서 귀신같이 산발한 채 다니던 당숙모의 행동이 없어진 것으로 보아 가족을 잃은 심리적인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대시]

[40~42] <출전> 김광규, 「매」

40.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 파악하기

이 글은 시간과 계절의 변화를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와 일상적인 언어로 드러내며, 변화에 따라 이를 수용하며 그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함을 노래하고 있다. 시상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전개되고 있으나, 역설적 표현을 통해 시적 의미를 긴장감 있게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① '앞산의 검푸른 숲이 짙은 숨결 뿜어내고'에서 활유법을 구사하여 숲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② '이제는 무엇인가 거두어들이 때'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여운을 주고 있다. ④ '~ 때'를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오고 있는 시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형성화하고 있다. ⑤ '생각지 말자', '고집하지 말자'에서 청유형 종결 어미를 사용하여 화자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41. [출제의도] 의적 증거를 참고하여 작품 감상하기

<보기>를 참고할 때 이 시에서는 계절의 변화를 통해 인생의 흐름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맥락에서 보면 '검푸른 숲이 짙은 숨결 뿜어내는 것'은 한여름 짙은 녹색을 지녔던 숲이 가을이 되어 가며 색이 변해가는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인생의 흐름과 대응시켜 이해한다면 청년 시절에서 장년 시절로 흘러가고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끊임없이 삶을 탐구하는 자세와 삶에 대한 의지는 확인할 수 없다.

42. [출제의도] 시어에 담긴 심리나 태도 파악하기

'아직도'는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오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여름이라고 생각하고 고집하는 태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여기에 지난 시간에 대한 체념이 내포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① '어느새'에는 광복절로 표현되는 여름이 지나가고 있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담겨 있다. ② '이미'에는 더욱 커진 귀뚜라미 울음소리에 의해 가을이 오고 있는 것에 대한 인식이 나타나 있다.

[극]

[43~45] <출전> 선우휘 원작, 이은성 외 각색, 「불꽃」

43. [출제의도] 극의 진행 방식 이해하기

이 글은 현재 동굴에 피신해 있는 주인공 '현'의 내면 의식을 따라 현재와 과거를 넘나들면서 극이 진행되고 있다. 즉 현재의 시각에서 과거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변화하는 심리를 중심으로 극이 진행되고 있다.

② 등장하는 효과음에는 기차의 발차신호, 포성 등이 있는데, 이들 효과음은 작품의 긴장감을 높이는 기능으로 사용되었으며, 긴장감을 완화하는 효과음은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③ 찾을 수 있는 인물 간의 갈등은 '현'과 '놈'의 갈등, '현'과 '다카라'의 갈등인데, 제시된 부분에서는 이들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④ 이 글에는 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인물들은 나타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⑤ 이 글에는 '동굴'과 '강의실' 등으로 공간의 변화가

나타나지만, 이에 따라 인물의 내면적 갈등이 드러날 뿐 현실의 모습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44. [출제의도] 장면 전환 방식 이해하기

<보기>에 따르면 소리의 유사성을 이용한 장면 전환에서는 선·후행 장면 내에 유사한 소리가 장면을 전환하는 연결고리가 된다. 그런데 S#57에서는 '현'의 괴로워하는 모습만 나타날 뿐 '현'의 신음 소리는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현의 신음 소리와 교수의 강의 소리라는 소리의 유사성을 활용하여 장면을 전환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45. [출제의도] 소재의 기능 이해하기

㉔의 뒤에 이어지는 '흠뻑 놀라는 현. 충신을 거머쥐고 겨냥하며 슬금슬금 안으로 든다.'는 지문과 '놈은 온다...... 꼭 온다...... 나를 죽이러 온다......'는 '현'의 대사를 통해 볼 때, '예광탄'이 자신을 구해줄 사람에 대한 기대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㉔의 뒤에 이어지는 '아랫말 파수원 판 돈이여. 헛되이 쓰지 말고 꼭 대학에 붙어서 관급사가 되야 하.' '내가 우리 집안에 기둥이 되어 하. 부디 성공을 해라.'라는 고영감의 말에서 확인된다. ② ㉔의 뒤에 이어지는 '천천히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점차 멀어지는 그들. 손을 흔드는 현.'이라는 지문에서 확인된다. ③ ㉔의 뒤에 이어지는 '아, 역시 동굴 속이라 정신을 가다듬어 내다보는 현. 밖에는 추적추적비가 내리고 있다.'에서 확인된다. ④ ㉔의 앞에 나타나는 '점점 기력이 쇠진하고 의식이 몽롱해지는 현. 상처 찌르는 다리에 가만히 손을 댔다가 눈앞에 가까이 본다.'와 ㉔의 뒤에 이어지는 '가쁜 숨결. 이윽고 헛소리 하는 현.'에서 확인된다.

[B형]

1	2	2	1	3	1	4	2	5	5
6	5	7	4	8	3	9	4	10	5
11	4	12	3	13	3	14	4	15	4
16	2	17	2	18	2	19	5	20	3
21	1	22	5	23	2	24	5	25	4
26	5	27	4	28	1	29	5	30	2
31	3	32	5	33	3	34	4	35	1
36	1	37	4	38	3	39	1	40	1
41	1	42	4	43	1	44	4	45	5

[화법]

1. [출제의도] 토의의 절차 이해하기

토의의 절차 중,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문제 분석' 단계는 첫 번째 사회자의 발화 이후에 나타나는 남학생1, 여학생1, 남학생2의 발화에 해당한다. 재능 기부 봉사활동이 활발하지 못했던 원인은,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만 게시하여 아이들이 그 내용을 알기 어려웠기 때문이며,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책 읽어주기'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도 제대로 홍보하지 못한 것이 재능 기부 봉사활동 활성화를 저해하는 원인이었다는 문제 분석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2. [출제의도] 토의에서 사회자의 역할 파악하기

사회자의 두 번째 발화와 세 번째 발화에서, 앞서 논의된 토의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하면서 토의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출제의도] 공감적 듣기의 전략 파악하기

이 대화에서 지아의 이야기에 대한 선생님의 다양한 공감적 듣기 전략이 나타나지만, 자신의 경험담을 활용하여 지아의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부분은 없다.

② 선생님이 지아의 말에 '응', '그래', '아' 등으로 적절하게 맞장구치고 있는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선생님의 다섯 번째 발화와 여섯 번째 발화에서 지아의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선생님의 네 번째 발화를 통해 지아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며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려는 선생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는 몸짓과 격정스런 표정을 사용하여 지아의 말에 호응하고 있는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다.

4. [A형 4번과 동일]

5. [A형 5번과 동일]

[작문]

6. [출제의도] 글쓰기 계획의 적절성 판단하기

<보기>의 모둠원들의 협의 내용으로 보아 '장애인 직업 훈련을 내실화하여 장애인 고용의 질적 수준을 높이자.'는 주제에 맞게 글쓰기 계획이 작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II. 본론-4. 장애인 고용 인원 증가를 위해 직업 훈련을 개선해야 함을 제시함.'이라는 내용은 장애인 고용의 양적 측면의 개선과 관련된 내용이다. 때문에 '질적 수준을 높이자.'는 주제문의 내용과 관련이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7. [출제의도] 자료 활용의 적절성 판단하기

(가)-1에는 장애인 취업자가 전체 취업자에 비해 전문직과 사무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은 제시되어 있지만 이것과 장애인 직업 훈련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 그리고 (나)에는 장애인 직업 훈련이 몇몇 직업군에 집중되어 있어 선택의 기회가 많지 않음은 제시되어 있으나, 직업 훈련이 집중된 몇몇 직업군이 전문직 직업군인지 희망 취업 분야의 직업군인지에 대해 언급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두 자료를 활용하여 장애인 직업 훈련이 전문직 직업군과 희망 취업 분야의 직업군 중 어느 직업군에 집중되어 있는지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8. [출제의도] 글의 유형에 따른 전략 확인하기

동아리 공지 사항에서 밝힌 '참소리' 동아리의 창단을 알리고 지역 주민과 문화적 감성을 공유한다는 '참소리' 연주회의 취지는 '하윤'의 초대장에서는 '참소리'의 창단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연은 아름다운 음악의 향연을 통해 지역 주민과 감성을 공유하는 장이 될 것이라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원우'의 초대장에서는 '참소리' 연주회의 취지나 목적을 밝히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원우'가 '하윤'에게 '독자들이 행사의 취지나 목적을 알 수 있도록 밝히는 것이 좋겠어.'라고 조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원우'의 초대장에는 지역 주민과 함께 연주를 한다는 내용과 우리 학교 동아리들의 활동을 소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동아리 공지 사항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② '하윤'의 초대장에는 '참소리'의 창단을 알리는 관현악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이 있지만, '원우'의 초대장에는 제목이 없다. ④ '하윤'의 초대장에는 '즐거우세요'라는 독자와 글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어휘가 사용되고 있다. ⑤ '원우'의 초대장에는 일시와 장소 같은 중요한 내용이 항목별로

구분되어 있지만, '하술'의 초대장에는 항목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

9. [A형 9번과 동일]

10. [A형 10번과 동일]

11. [A형 11번과 동일]

12. [A형 12번과 동일]

[문 법]

13. [출제의도] 한글 맞춤법을 이해하고 단어에 적용하기

<보기1>의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 겹쳐 나가거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는 설명에 따라, ㉔에서 '작두기'는 'ㄱ'받침 뒤에서 된소리인 'ㄷ'으로 발음되지만,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작두기'가 아닌 '작두기'로 적어야 한다.

14. [출제의도] 표준 발음법을 참고하여 우리말을 로마자로 표기하기

'중의사'에서 '의'는 표준 발음법 제2장 제5항 다만4. 규정으로 보아 [i]로 발음하지만 로마자 표기법 제2장 제1항 [붙임1]의 규정에 의해 'ui'로 적어야 한다. ㉑ '승례문'에서 '례'의 'ㄷ'는 표준 발음법 제2장 제5항 다만2.로 보아 'ke'로 발음하며, 로마자 표기법 제2장 제1항 2.로 보아 'ye'로 표기해야 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㉒ '도예촌'에서 '예'의 'ㄷ'는 표준 발음법 제2장 제5항 다만2. 규정으로 보아 [ke]로 발음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㉓ '퇴계원'에서 '계'의 'ㄷ'는 표준 발음법 제2장 제5항 다만2. 규정으로 보아 [ke]나 [ke]로 발음할 수 있으나, [ke]로 발음되는 경우 'e'로 표기하는 것은 로마자 표기법 제2장 제1항 2.로 보아 적절하지 않다.

15. [출제의도] 정확한 문장 사용하기

㉔은 '개방하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적절하지 않은 사동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고친 문장에도 '개방시키고 있습니다'로 사동 표현을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 경우 '우리 학교는 도서관을 매일 개방하고 있습니다.'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16. [출제의도] 'ㄹ, ㅅ, ㅁ, ㅂ'의 변화 탐구하기

'ㄱ'의 'ㅁ술'과 'ㅂ술'의 첫째 음절 'ㅁ'과 'ㅂ'는 현대 국어에서 각각 '마'와 '가'로 바뀌고, 둘째 음절에서 공통적으로 쓰인 '술'은 현대 국어에서 '올'로 바뀐다. 이를 통해 'ㅁ술'과 'ㅂ술' 모두 첫째 음절의 'ㅂ'는 'ㅂ'로 바뀌고, 둘째 음절의 'ㅂ'는 'ㅂ'로 바뀌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㉑에 쓰인 'ㅂ'가 현대 국어에서 첫째 음절과 둘째 음절에서 변화된 음운의 모습이 같았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㉑ ㉒을 보면 'ㅁ술'과 'ㅂ술'의 'ㅁ'은 변천 과정 중에 모두 소멸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㉓ ㉔에서 '덥다'의 어간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어'와 결합하여 '더뵤'로 바뀐 것을 볼 때, '덥다'의 'ㅂ'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하여 'ㅂ'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㉕ '고바'는 '방' 뒤에 양성 모음 'ㅂ'가 결합하여 현대 국어에서 '고'로 변화했고, '구뵤'는 '방' 뒤에 음성 모음 'ㅂ'가 결합하여 현대 국어에서 '구'로 변화했다. 그러므로 '방'에 결합되는 어미의 모음에 따라 현대 국어에서의 표기가 달라졌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㉖ 'ㅁ술'과 'ㅂ술'은 현대 국어에서 각각 '마'와 '가'로, '고바'와 '구뵤'는 현대 국어에서 각각 '고'와 '구'로 변

화한 것을 볼 때, '방'과 'ㅁ'은 현대 국어에서 쓰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방'과 'ㅁ'이 현대 국어에 표기되지 않게 되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사 회]

17. [A형 16번과 동일]

18. [A형 17번과 동일]

19. [A형 18번과 동일]

20. [A형 19번과 동일]

[인 문]

[21~23] <출전> 김교민 외, 「함께 읽는 동양철학」

21. [출제의도] 세부 정보 파악하기

이 글은 주자학과 양명학이 핵심적인 명제에서 차이를 보이는 까닭을 시대적인 배경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즉 두 사상의 '이'에 대한 관점의 차이와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게 된 역사적인 배경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주자학에서 설정하는 '이'와 '기'의 관계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㉑ 5문단의 '지배 세력이 농민의 세금 부담을 늘리자 농민 봉기가 확산되었다'는 진술에서 확인할 수 있다. ㉒ 1문단의 만물의 궁극적인 이치가 곧 '이'라는 진술에서 확인할 수 있다. ㉓ 4문단의 왕수인은 '양지를 회복하는 과정'을 종시했고 마우과 이치가 합일된 경지이자 인간 자신이 타고난 도덕적 자각이 완성된 상태를 지양지라고 한 진술에서 확인할 수 있다. ㉔ 3문단의 당나라는 지방 세력에 의해 멸망했고, 이에 송나라에서는 군주에게 의리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았고, '이'를 '현실에서의 의리'로 보았다는 내용에서 송나라에서 '현실에서의 의리'를 강조하게 된 배경을 확인할 수 있다.

22. [출제의도] 사례에 대한 비판의 적절성 판단하기

<보기>는 인간의 마음은 본래 백지(白紙)와 같은 것이므로 감각적 지각과 경험을 통해 지식과 사물의 이치를 획득해야 한다는 경험론적 관점을 취하고 있다. 이것은 인간은 본래부터 하늘의 이치인 '양지'를 가지고 있다는 왕수인의 주장에 배치된다. 그러므로 '인간의 마음은 본래부터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양지를 지니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것은 왕수인의 관점에서 <보기>의 글을 비판하는 진술로 적절하다.

23.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하기

<보기>에는 양명학과 달리 주자학이 관학(官學)으로서의 지위를 잃지 않고 백성을 다스리는 지배 이념으로 작용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 이유는 3문단의 신하들은 군주에게 의리(義理)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현실에서의 의리'로 본 주자학이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대안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진술을 통해 추론할 수 있다.

[과 학]

[24~26] <출전> Neil R. Carlson, 「생리심리학」

24. [출제의도] 글의 설명 방식 파악하기

이 글은 수면의 과정을 비-REM수면과 REM수면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 글로, 질문과 대답하는 형식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㉑ 4문단 세 번째 문장에서 '20~50%', '50%'와 같은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여 단계를 구분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㉒ 1문단 첫 번째 문장에서 수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글 전체에서 수면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㉓ 전체 흐름이 단계별로 진행되는 수면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

절하다. ㉔ 1문단 두 번째 문장의 '자연의 부드러운 간호사'와 3문단 두 번째 문장의 '마치 실이 감겨 있는 것처럼'에서 비유적 표현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수면에 대한 이해와 수면방추의 모습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25. [출제의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기

㉑는 수면방추 ㉒는 K-복합체 ㉓는 세타파 ㉔는 델타파이다. 이 중 델타파는 깊은 수면 시에 나타난다. 그런데 제대로 잠을 이루이지 못하는 재형이는 수면이 단계별로 진행되지 못하는 상태이다. 게다가 깊은 잠에 들지 못하므로 델타파가 나타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재형이는 수면 상태에서 세타파가 나타나는 단계와 델타파가 나타나는 단계가 규칙적으로 교체되었던'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㉑ 선우는 한 번도 깨지 않고 깊은 수면을 취했으나 수면이는 깊은 잠에 들지 못했다. 4문단의 내용으로 보아, 깊은 잠의 단계에서 측정되는 델타파는 수면이 보다 선우에게 더 빈번히 나타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㉒ 선우는 깊은 수면을 유지하였고, 수면이는 소리가 날 때마다 자주 깬다고 수면도 유지하지 못했다. 3문단의 내용으로 보아, 선우가 수면이보다 K-복합체와 수면방추가 여러 번 나타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㉓ 재형이는 자다 깨다를 반복하여 잠이 유지되지 못했으나, 선우는 한 번도 깨지 않고 깊은 수면을 취했다. 3문단의 내용으로 보아, 재형이가 선우에 비해 수면방추가 자주 나타나지 않았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㉔ 3문단에서 K-복합체와 수면방추 소음으로 인해 잠이 깨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내용으로 보아 적절하다.

26. [출제의도] 세부 정보 파악하기

5문단에서 'REM수면은 잠에 빠져 있을 때도 정신 활동이 이루어지는 상태이다.'라고 진술되어 있고, 6문단에서 '자면서 정신 활동이 이루어지는 REM수면은 인간의 뇌의 활동이나 학습에도 도움을 준다.'라고 진술되어 있으므로 REM수면이 '수면의 상태이나 정신활동이 일어나고 뇌 기능에 도움을 준다.'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예 술]

[27~28] <출전> 임석재, 「건축과 미술이 만나다 1945-2000」

27. [출제의도] 세부 정보 파악하기

3문단의 내용으로 보아 미니멀리즘은 작품 표현에 사용되는 재료, 소재, 형태 등의 매개 요소를 최소화함으로써 감상자가 더 많은 대상을 떠올리기 쉽도록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매개 요소가 다양할수록 미니멀리즘에 의한 감상의 폭은 넓어진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㉑ 2문단 두 번째 문장의 음악에서는 변함없는 강세 및 빠르기라고 한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㉒ 3문단 네 번째 문장의 매개 요소를 변형하거나 가장하지 않고 원재료에 가깝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㉓ 3문단 다섯 번째 문장의 미니멀리즘 조형물의 특징은 일상의 사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오브제 트루베에 의한 구성 등으로 표현된다는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㉔ 1문단 두 번째 문장의 미니멀리즘은 간결하고 절제된 표현 기법으로 대상의 본질을 표현하려는 예술적 경향을 지닌다는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28. [출제의도]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기

4문단의 내용으로 보아 <보기>는 산업재료 1.1부들을 그대로 바닥에 배치한 것으로, 감상자로 하여금 시선을 작품 주위의 배경으로까지 이동시켜 감상을 확대시키고 있다. 나아가 작품이 놓인 공간을 관람만을 위한 전방대로서가 아닌 예술적 감상을 위한 총체적

공간으로 만들어 예술적 환경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이끌어 내고 있다. 따라서 '1번들을 바닥에 배치한 것은 일정한 위치에서 작품을 감상하도록 공간을 한정시킨 것이군.'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 4문단 마지막 문장의 "확장성의 원리"는 조형물이 놓인 배경에까지 공간 체험을 확대하여 예술적 환경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4문단 네 번째 문장의 미니멀리즘 조형물을 인지함과 동시에 작품 주위의 배경으로까지 시선이 이동되어 감상이 확대된다는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3문단 여섯 번째 문장의 '작품에서 매개 요소가 최소화되면 감상자가 떠올릴 수 있는 대상은 오히려 더 많아진다'는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3문단의 단언 기하학적 형태에 의한 구성은 감상자 마음속에 잠재하고 있는 이미지를 보편적인 형상으로 떠올리기가 더 쉬워진다는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독서]

[29~30] <출전> 이이, 「성학집요」

29. [출제의도] 독서 태도 비교하기

<보기>를 보면 정약용은 의심의 과정을 통해 본래의 의미를 깨닫는 독서 태도를 강조한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 옳고 그름을 비교한다는 의심의 과정을 통해 성현들이 말하신 본 뜻을 찾아야 한다는 ㉔의 독서 태도가 가장 유사하고 볼 수 있다.

30. [출제의도] 독서의 전략 파악하기

이 글에는 잘못된 독서 태도를 경계하여 독서 계획 세우기, 독서 능력에 맞게 분량 조절하기, 자세히 읽기를 통해 본래의 의미 탐색하기, 반복적으로 음미하여 깨달은 바를 내면화하기 등의 독서 전략은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글의 구조를 통해 예측하며 읽어야 한다는 독서 전략은 나타나 있지 않다.

[고전소설]

[31~34] <출전> 작자미상, 「적성의전」

31. [출제의도] 글의 내용 파악하기

안평국 왕비는 성의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기러기를 통해 성의에게 소식을 전하고자 하므로, '안평국 왕비는 성의의 현재의 거처를 알지 못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② 성의는 도사의 말을 듣고 일영주를 구하기 위해 서천으로 떠났다. ④ 안평국 왕비가 성의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을 보면, 왕비는 향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고 했으며, 그 행실이 불측하다고 했다. ⑤ 성의의 어머니인 안평국 왕비는 성의가 구한 일영주를 먹고 병이 나았다. 따라서, 어머니의 병을 고치려 했던 성의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것은 아니다.

32. [출제의도] 공간적 배경을 바탕으로 작품 감상하기

성의는 '금각당'에서 위기 상황에 처하지 않으므로, '금각당'을 성의가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거를 발휘하는 공간이라고 설명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성의 있던 방'에서 기러기가 안평국 왕비의 편지를 다리에 매고 출발하여 '금각당'에 있는 성의에게 전달하므로 '성의 있던 방'과 '금각당'은 기러기를 매개체로 하여 연결되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② '성의 있던 방'에서 왕비는 성의의 부재로 인해 큰 슬픔을 느끼고, '금각당'에서 성의와 공주는 같이 음식을 먹고 약기를 연주하는 등 친교를 나누었으므로 '성의 있던 방'은 왕비가 상황에 대해 슬픔을 느끼는 공간이고, '금각당'은 성의와 공주가 친교를 나누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33. [출제의도] 소재의 서사적 기능 파악하기

안평국 왕비가 성의에게 보낸 '봉서'로 인해 성의는 눈을 뜨게 된다. 따라서, '봉서'의 서사적 기능은 '주인공이 신체적 장애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된다.'이다.

34. [출제의도] 상황에 맞는 한자성어 파악하기

'천우신조(天佑神助)'는 '하늘이 돕고 신령이 돕는다.'는 뜻이므로, 기러기를 통해 성의에게 편지를 보낸 왕비가 했을지언 말이다.

① '우선 당장 관한 것만을 택하는 피나 방법.'을 의미한다. ② '눈 위에 서리가 덮인다.'는 뜻으로 '난처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 잇따라 일어남.'을 이르는 말이다. ③ '두 사람이 이해관계로 서로 싸우는 사이에 엉뚱한 사람이 애쓰지 않고 가로챌 이익.'을 이르는 말이다. ④ '다른 산의 나뭇 풀이라도 자신의 산의 옥들을 가는 데에 쓸 수 있다.'는 뜻으로 '본이 되지 않는 남의 말이나 행동도 자신의 지식과 인격을 수양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고전시가]

[35~36] <출전> 김득연, 「산중잡곡(山中雜曲)」

35. [출제의도] 표현상 특징 파악하기

이 작품은 '모르리라', '호노라' 등에서 감정을 강하게 나타내는 영탄을 사용하였으나, 이를 통해 화자의 반성적 성찰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이 작품의 화자는 자연 속에서의 삶에 대한 즐거움과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을 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있지 않다. ② [A]의 '지당(池塘)에 활수(活水)이 드니 노는 고기 다 켈로다 / 송음(松陰)에 청뢰(淸瀨)이 나니 금슬(琴瑟)이 여겨 있다', [B]의 '술 아래 길들 내고 못 우히 되를 뵈니', [C]의 '집 두해 차차리 뜯고 문 알켜 들긴 심 기러', [D]의 '빈 고프거든 버구렛 밥 먹고 목 마르거든 바깥 물 마시니' 등에서 대구의 방식을 활용하여 리듬감을 부여하고 있다. ③ [E]의 '이 몸이 쫓 었더호노 무릉인(武陵人)인가 호노라.'에서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하는 자문자답의 형식으로, 자연 속을 살아가는 화자의 만족감이라는 시적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 ④ [D]의 '늬의 부운(浮雲)이 닷 부귀(富貴)이사 브를 주리 이시라'에서 '이시라'는 설의적인 표현으로, 타인의 부귀를 부러워하지 않고 청빈한 삶을 살겠다는 화자의 가치관을 강조하고 있다. ⑤ [D]의 '부운(浮雲)이 닷 부귀(富貴)는 직유법을 사용한 부분으로, '똥구름'이라는 보조 관념을 통해 '부귀'가 헛된 것이라는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36. [출제의도] 시상 전개에 따라 감상하기

[A]와 [B]에는 모두 화자가 즐기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만 나타나고 있고, 화자가 본받고 싶어 하는 자연의 모습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② [A]는 초중장에서 '지당'에 '활수'가 들어 그 속에 '고기'가 노는 모습과 '송음'에 맑은 바람 소리가 나는 주변 경치를 묘사하고, 중장에서 이를 즐기라고 돌아갈 줄 모르는 화자의 심정을 그리고 있다. [B]는 초중장에서 '술' 아래 '길'을 내고 '못' 위에 '되'를 쌓으니 바람, 달, 안개, 노을이 좌우에서 오는 주변 경치를 묘사하고, 중장에서 이 사이에서 '한가히' 앉자 즐기라고 늙은 줄도 모르는 화자의 심정을 그리고 있다. ③ [C]에는 화자가 '즈차리' 뜯는 공간인 '집 두해'와 '들근 심' 같은 공간인 '문 알켜'를 드러내고 있는데 비해, [D]에는 화자가 '버구렛 밥' 먹고 '바깥 물' 마시는 공간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 ④ [C]는 초중장에서 '즈차리' 뜯고 '들근 심' 길어 '기장밭' 짓고 '산채쟁' 삶아 먹는 소박한 삶의 모습을 그린 후, 중장에서 '풍미(風味)이 죽(足)홀도 내 분인가 호노라'라고 하여 이러한 생활에 대한 화자의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D]는 초중장에서 '버구렛 밥' 먹고 '바깥 물' 마시는 가운데

즐거움을 찾는 소박한 삶의 모습을 그린 후, 중장에서 '늬의 부운(浮雲)이 닷 부귀(富貴)이사 브를 주리 이시라'라고 하여 타인의 부귀를 부러워하지 않고 현재의 삶에 만족감을 느끼는 화자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⑤ [E]에서 화자는 자신이 거처하는 공간을 '도원'이라는 이상향에 견주어, 그 속에서 살아가는 자신을 '무릉인'이라고 하여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을 드러내고 있다.

[현대소설]

[37~39] <출전> 이태준, 「사냥」

37.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양복 조끼'는 자신이 도야지를 훼손한 사실이 밝혀질까 불안하여 손을 '꼭지도 꺼보고, 무릎 밑에 깔아도' 본다. 그리고 '허리춤을 금겨거려도 보고', '곰방대를 내어 담배를 담'는 등의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이는 자신의 불안한 심리를 행동을 통해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과거 사건을 삽입했다는 건물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보여준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① 이 작품은 처음부터 끝까지 3인칭 전지적 서술자에 의해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므로 서술자를 교체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 이 작품에서 결말 암시를 위해 서로 다른 장면을 연결하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③ 이 작품에서 과거 사건은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과거 사건을 삽입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이 작품은 작품 속에 등장하지 않는 3인칭의 전지적 서술자에 의해 서술되고 있다. 그런데 서술자가 자기 경험을 직접 서술하는 것은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는 1인칭 시점 소설의 특징이다. 그러므로 이 작품이 서술자가 자기 경험을 직접 서술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38. [출제의도] 중심 사건과 관련된 인물 간의 관계 파악하기

'늙은 포수'에 의해 '양복 조끼'가 사냥에서 일어난 불상사의 범인으로 밝혀진 후, '식전에 심 리 길을 걸은 숙이라 모두 시장했으나 한 사람도 고기 맛이 있을 리 없었다.'라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이를 통해 불상사의 범인이 밝혀진 후, 범인이 밝혀진 자리에서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심리는 안도감과는 거리가 먼, 무언가 개운치 않았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윤'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한 사람이므로, '윤'이 사냥에서 생긴 불상사의 범인이 밝혀진 것에 대해 안도감을 느끼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한'은 '늙은 포수'가 도야지를 훼손한 범인이 누구인지 확인하려 하자, '이 자리에 한 손도 그 죄의 기쁨이 뜨는 손은 없기를 바라'고 있다. 이를 통해 '한'이 어떤 이도 사냥으로 인한 불상사의 범인으로 밝혀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늙은 포수'가 사냥으로 잡은 도야지를 훼손한 것이 '양복 조끼'였음에 그의 폐에 의해 밝혀지고, '구장'은 '늙은 포수'가 '양복 조끼'로 인해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한다. 그러므로 '늙은 포수'가 사냥에서 얻은 포획물이 '양복 조끼'에게 훼손당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④ '한'은 사냥을 통해 일상에서 벗어나 '야성'의 향수를 느낄 수 있기를 갈망한다. 이와 달리 '늙은 포수'에게 사냥은 돈을 벌 수 있는 일종의 직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에게 있어서 사냥은 '늙은 포수'와 달리 일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경험에 대한 갈망이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⑤ '구장'은 '양복 조끼'의 행위에 대해 '늙은 포수'에게 사과하며 '요 너미 이 사람 사춘이 한 분 계시니 내 내이가 의논허구 과히 억울치 않두록 마련하오리다. 아무튼 주재소에만 알리지 말고 내려가 기다려 주시기요.'라고 말하며 중재 역할을 하고 있다.

39. [출제의도] 공간을 중심으로 한 감상의 적절성 파악하기

‘편집실’과 ‘교실’은 ‘한’의 ‘손이 바쁘던 때’에 그가 있었던 공간으로, ‘한’의 일상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도시에 있는 공간이다. 그러므로 ‘편집실’과 ‘교실’을 비일상적 공간이라고 한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 ‘한’은 일상적 공간에서 벗어나 비일상적인 야성의 세계를 갈망한다. ‘촌길’과 ‘힘준한 산마루’는 이러한 비일상적 야성의 세계에 있는 공간이므로, ‘촌길’과 ‘힘준한 산마루’가 야성의 세계에 대한 인물의 지향을 보여주는 공간이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③ ‘한’은 ‘도회지 사람들의 발보다도 더 험해진 그 순박한 손들에게 이런 야박스런 모욕이란 생후 처음들일 것’이라면서, ‘늪은 포수’가 야박하고 계산적인 태도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추궁할 때, ‘한’은 그 죄의 기쁨이 뜨는 손은 없기를 바랐다. 이를 통해 ‘이 자리’는 야박하고 계산적인 논리에 의해 삶이 속박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공간이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④ ‘늪은 포수’는 자신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입힌 ‘양복 조끼’에 대해 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 ‘주재소’에 보내야 한다고 말한다. 이 때 ‘주재소’는 ‘양복 조끼’를 압박하기 위해 사용한 위압의 수단이다. 그러므로 ‘주재소’가 위압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비일상적인 세계 또한 위압에 의해 지배됨을 보여주는 공간이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⑤ <보기>를 통해 ‘한’은 어떤 공간에서든 질곡의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인식을 하게 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한’이 ‘집이 있는 서울이 가까워’ 오는 것을 반가워하지 않으며, ‘단돈 삼십 원으로도 달아날 수 있는 그 양복 조끼’에 대해 생각한다는 것은, ‘한’에게 있어 ‘서울’은 식민지의 지식인이 질곡의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서울’이 질곡의 현실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식민지 지식인으로서의 고뇌와 갈등을 보여주는 공간이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현대시]

[40~42] <출전> 신동엽, 『새로 열리는 땅』, 최승호, 『당터』

40. [출제의도] 작품들 간의 공통점 파악하기

(가)는 분단 상황의 조국을 ‘나의 손목’, ‘부러진 허리’, ‘나의 눈동자’의 표현으로 의인화하여 회복의 공간이라는 국토의 의미를 부각하고 있으며, (나)는 궁터를 ‘말이 없다’, ‘베풀어주고’, ‘무심히 바라볼 뿐’의 표현으로 의인화하여 묵묵히 베풀어주는 궁터의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41. [출제의도] 자료를 활용하여 시 감상하기

1연의 ‘고드름’은 <보기>에서 밝힌 민족이 처해 있는 분단이라는 부정적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공동체의 동질성이 회복된 민족 화합의 현실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42. [출제의도] 공간의 의미 이해하기

이 시에서 화자는 통념상 빈 공간으로 인식되는 ‘궁터’에 ‘고요’만이 있는 줄 알았지만 ‘궁터’를 주목하면서 ‘바람, 풀씨, 꽃’ 등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으로 새롭게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궁터’가 화자가 통념과 달리 새롭게 바라보는 대상이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극]

[43~45] <출전> 선우휘 원작, 이은성 외 각색, 『불꽃』

43. [A형 43번과 동일]

44. [A형 44번과 동일]

45. [A형 45번과 동일]

국어 영역(B형)

제 1 교시

1

[1 ~ 3] 다음은 청소년 단체와 여행사 간의 협상 장면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청소년 단체에서 리더십 캠프를 계획하고 있다. 단체 대표는 협상을 통해, 선택한 여행사 상품의 세부 조건을 조정하려 한다.

청소년 단체 대표: 귀사가 제시하신 여행 일정과 교육 프로그램 계획서는 잘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해 보니 숙소가 견학 장소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더군요. 이동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좀 더 가까운 숙소로 옮겼으면 합니다.

여행사 직원: 숙소가 견학 장소와 조금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곳은 저희 여행사 직영 숙소라서 저희도 좋지만, 고객 입장에서도 가장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고, 단체 행사를 위한 넓은 공간도 있습니다. 가까운 숙소로 옮기게 되면 제시하신 가격으로는 상품을 구성하기 어렵습니다.

청소년 단체 대표: 그래요? 그렇다면 견학지 중에 ○○은 생략하면 어떨까요? 저희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그곳은 이번 리더십 캠프의 성격과 맞지 않아서요. 입장료와 버스 유류비 등을 빼면 비용이 절감되어 숙소를 옮길 수 있지 않을까요?

여행사 직원: ○○은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있고 입장료도 저렴해 비용 절감 효과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정 그러시면 비용을 조금만 더 들이시는 게 어떨까요? 정확한 인상분은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 단체 대표: 아, 그건 좀 어렵겠는데요. 현재의 금액도 저희가 책정한 예산을 조금 초과한 것이어서요. 조정이 어려우면 다른 여행사를 알아보 수밖에 없네요.

여행사 직원: 그럼,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 견학을 생략하고 첫 날 저녁 프로그램을 귀 단체에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 프로그램은 다른 업체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라 그걸 제외하면 비용을 꽤 절감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청소년 단체 대표: 글썽요, 리더십 강의나 모듬 활동 정도면 모를까 프로그램 전체를 진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인력이나 장비도 부족하고 프로그램 구성도 쉽지 않아서요. 음, 그러면 프로그램을 1부와 2부로 나누어 1부만 저희가 진행하면 어떨까요?

여행사 직원: 네, 그럼 그렇게 하지요. 1부는 귀 단체에서 진행하시고 2부는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 견학을 취소하고 프로그램의 절반을 귀 단체에서 진행하시면 숙소를 옮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숙소를 옮기면 단체 행사 공간은 협소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단체 대표: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점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계획하죠. 단, 그 외에 다른 여건이 기존 숙소보다 나빠지면 곤란합니다.

여행사 직원: 알겠습니다. 일단 조정안으로 준비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내일 오후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단체 대표: 고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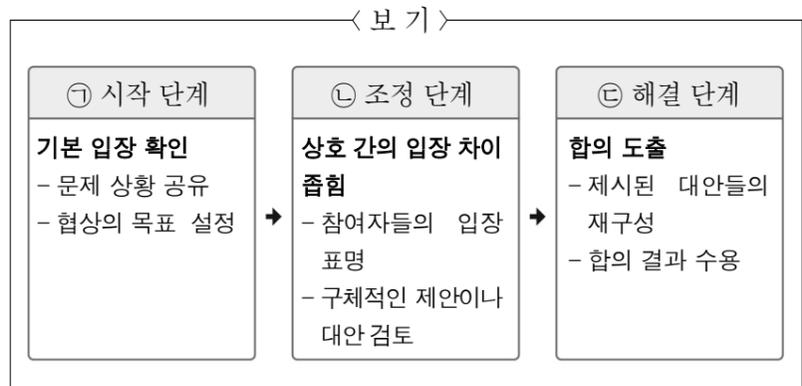
1. 협상에 대한 설명 중, 위 ‘협상’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 ① 협상의 쟁점은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새롭게 추가되기도 한다.
- ② 협상에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 ③ 협상 당사자는 양보와 설득을 통해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타협안을 모색한다.
- ④ 협상이 이루어지려면 협상을 필요로 하는 구체적 갈등 상황이 존재해야 한다.
- ⑤ 협상 과정에서 상대방이 제시하는 제안이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2. 청소년 단체 대표(A)와 여행사 직원(B)의 협상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질문을 통해 상대의 의견을 비판하고 있다.
- ② A는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타협을 유도하고 있다.
- ③ A는 갈등을 회피하며 기존 방안을 고수하고 있다.
- ④ B는 상대의 약점을 파악하여 공격하고 있다.
- ⑤ B는 상대와의 관계를 강조하며 감정에 호소하고 있다.

3. <보기>의 협상 절차를 바탕으로 위 협상을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에서 여행사 직원은 숙소를 변경하지 않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기본 입장을 밝혔군.
- ② ㉡에서 청소년 단체 대표는 상품 가격을 낮추면 여행사의 기존 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군.
- ③ ㉡에서 여행사 직원은 상대가 추가 비용을 부담한다면 타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세웠군.
- ④ ㉡에서 청소년 단체 대표는 상대의 제안을 검토한 후 서로의 양보가 전제된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군.
- ⑤ ㉢에서 청소년 단체 대표는 일정한 조건의 이행을 요구하며, 도출된 합의안을 수용했군.

[4 ~ 5]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분, 보물찾기가 무엇인지 아시죠? 갑자기 무슨 보물찾기 이야기냐고 의아해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네요. 저는 방송을 제작하고 이를 시청하는 과정이 보물찾기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것은 방송 모니터링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이슈, 인코딩, 코드, 디코딩 등의 생소한 용어가 보이실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드라마로 범위를 좁혀 설명하자면, 이슈란 드라마에서 사용되는 소재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제작자에 의해 이슈가 다양한 형태로 구현된 것을 코드라고 하고, 그 과정을 인코딩이라고 합니다. 또한 디코딩은 시청자가 방송 제작자에 의해 코드화된 내용을 메시지로 풀이하는 과정입니다. 즉 방송 제작자가 보물을 숨기는 사람이라면, 시청자는 보물을 찾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해가 잘 되시나요?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사람들도 있네요. 일단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동영상을 시청한 후)

동영상을 보면서 주인공의 갑작스러운 불행에만 집중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주인공이 불행해지기 전에 천둥번개가 치는 장면을 기억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주인공의 갑작스러운 불행이 이슈라고 한다면, 천둥번개가 치는 장면은 코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보고 주인공이 불행해질 것을 예측하는 과정이 바로 디코딩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드라마를 포함한 방송에는 다양한 코드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또한 방송 제작자는 의미 없는 인코딩을 하지 않습니다. 방송 제작자의 인코딩에 무엇인가 의도가 있다면, 디코딩을 통해 메시지로 이끌어내는 것은 바로 시청자의 몫입니다. 능동적인 시청자는 이렇게 숨겨진 코드들을 찾아내면서 보물찾기의 재미를 느끼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발표자가 사용한 말하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② 비언어적 표현을 이용하여 청중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다.
- ③ 발표 내용의 출처를 제시하여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 ④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발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⑤ 질문을 던지는 방식을 사용하여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고 있다.

5. 위 발표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발표자는 시청자가 메시지를 이끌어내는 주체라고 생각하고 있군.
- ② 발표자는 방송 제작자가 의미 없는 인코딩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군.
- ③ 발표자는 시청자가 방송 제작자의 인코딩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군.
- ④ 발표자는 디코딩을 통해 방송을 더 재미있게 시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군.
- ⑤ 발표자는 방송 제작자의 인코딩을 보물찾기에서 보물을 숨기는 과정과 유사하다고 생각하고 있군.

[6 ~ 7] <보기 1>은 '청소년참여활동의 활성화'를 주제로 논설문을 쓰기 위해 수집한 자료이고, <보기 2>는 글의 개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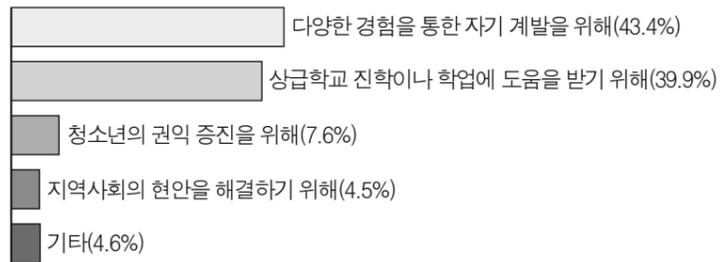
<보기 1>

(가) 신문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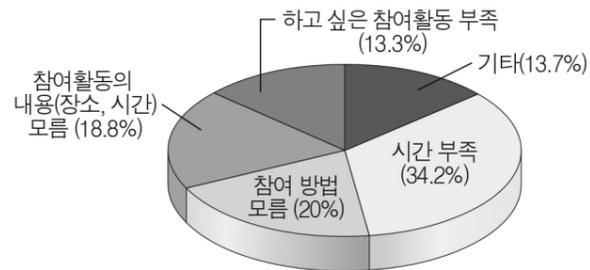
청소년이 새로운 문화 및 첨단산업의 생산과 소비 주체로 등장하면서 청소년참여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청소년참여활동은 청소년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직접 참여하는 활동으로, 교육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참여활동에 대한 선입견으로 부모가 반대하거나, 입시에 대한 학생들의 부담이 커서 실제 참여율은 낮은 편이다.

(나) 설문 자료

1. 청소년참여활동 참여 목적



2. 청소년참여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다) 인터뷰 내용

“청소년참여활동은 청소년의 자아성취와 청소년이 속한 학교나 조직,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참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먼저 청소년들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충족하는 청소년참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여 참여활동의 방법 및 활동 내용에 대해 충분히 안내해야 합니다.”

<보기 2>

I. 서론

II. 본론

1. 현황

- 가. 청소년참여활동에 대한 관심 증대
- 나. 청소년참여활동에 대한 적극적 참여 권장 ㉠

2. 문제점

- 가. 청소년참여활동의 참여 방법에 대한 안내 미흡 ㉡
- 나. 청소년참여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 ㉢
- 다. 청소년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청소년참여활동 프로그램 부족
- 라. 학업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참여 시간 부족

- 3. 개선 방안 ㉞
 - 가. 청소년참여활동에 대한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 나. 학부모 인식 개선을 위한 청소년참여활동의 의의 홍보
 - 다. 청소년참여활동 프로그램의 유형 조사 ㉟

III. 결론

6. <보기 1>을 활용하여 <보기 2>를 수정·보완하기 위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㉞은 상위 항목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가)를 참고하여 ‘청소년참여활동에 대한 낮은 만족도’로 고친다.
 - ② (나)-2를 참고하여 ㉞을 ‘청소년참여활동의 참여 방법과 내용에 대한 안내 미흡’으로 고친다.
 - ③ ㉟은 인식의 주체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므로 (가)를 참고하여 ‘청소년참여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부정적 인식’으로 보완한다.
 - ④ ‘II-2-라’를 고려하고 (나)-1을 참고하여 ㉞의 하위 항목에 ‘진학 및 진로와의 연계성을 통한 참여 시간 확보’를 추가한다.
 - ⑤ ‘II-2-다’를 고려하고 (다)를 참고하여 ㉞을 ‘청소년의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으로 고친다.

7. <보기 2>의 본론 일부를 <조건>에 따라 썼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조건 >

- ‘II-3-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쓸 것.
 - 전문가의 견해를 언급할 것.
 - 개선 방안의 기대 효과를 제시할 것.
- ① 학부모들은 자녀가 청소년참여활동에 참여하면 학업에 소홀해질 것을 우려한다. 그러나 교육 전문가에 따르면 청소년참여활동은 자기 계발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 활동의 교육적 가치를 부각해야 한다.
 - ②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이다. 청소년참여활동은 청소년이 학교에서 얻기 힘든 여러 가지 경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청소년참여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는다면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 ③ 학부모의 반대 때문에 청소년참여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청소년이 많다. 이는 학부모에게 활동의 의의를 제대로 홍보하지 못한 정책 당국의 책임이 크다. 그러므로 정책 당국은 이에 대한 홍보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 ④ 부모와 자녀의 대화는 서로의 의식 개선에 큰 도움이 된다. 따라서 청소년은 부모와 자주 대화를 나누어 청소년참여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그러면 부모의 부정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전환되어 청소년참여활동이 활성화될 것이다.
 - ⑤ 청소년참여활동의 가치를 모르는 학부모들이 많아 이에 대한 홍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청소년 정책 연구원에 따르면 대중매체보다 연수의 홍보 효과가 크다고 한다. 그러므로 학부모 연수를 활성화하면 인식이 개선되어 자녀의 참여를 지원하게 될 것이다.

8. <보기>의 항목 중에서 ‘답사 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보기 >

- ㄱ. 답사 목적을 제시한다.
- ㄴ. 답사 대상의 가치를 언급한다.
- ㄷ. 답사 이동 경로가 드러나게 한다.
- ㄹ. 답사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에 대한 느낌을 덧붙인다.
- ㅁ. 답사 대상에 대해 사전에 조사한 내용을 제시한다.

< 답사 보고서 >

제 목 : 우리나라의 세계 유산 동구릉을 다녀와서
 작성일 : 2014년 4월 ○일
 작성자 : □□ 고등학교 ‘문화 유적 탐방 동아리’

우리 동아리에서는 4월 정기 답사지로 ‘동구릉’을 선정했다. 지난 사회 시간에 선생님께서 그곳이 세계 유산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동구릉을 답사하여 조선 왕릉의 특성을 알아보기로 했다.

동구릉에는 아홉 개의 왕릉이 모여 있다. 우리는 먼저 태조의 무덤인 건원릉에 들렀다. 그곳은 참배객을 위한 속세의 공간인 진입 공간, 참배자가 죽은 자에게 예(禮)를 올리는 제향 공간, 선왕의 봉분이 있는 성역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봉분은 잔디가 아닌 억새풀로 덮여 있었다. 고향을 그리워했던 태조의 유언에 따라 고향의 흙과 억새를 가져다 덮어주었다는 일화가 전해진다고 한다. 그 말을 들으니 그의 인간적인 면모가 느껴졌다.

이후에 현릉, 목릉을 차례로 둘러보는 동안 왕릉의 나무들과 주변의 산림 덕분인지 삼림욕을 하는 듯한 상쾌한 느낌을 받았다. 조선 왕릉은 대도시 주변의 생태 환경을 위해서도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하니, 조선 왕릉은 먼 과거의 유산만이 아닌 현재에도 살아 숨 쉬는 우리의 삶의 공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⑤ ㅁ

[9 ~ 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상황

(가)를 읽고, ‘충간소음으로 인한 갈등 해결 방안’에 대해 주장하는 글을 써 보았다. (나)는 그 초고이다.

(가) 신문 기사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충간소음에 대한 규정과 방지 대책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5월부터 입주민이 아파트 관리 주체에 소음 피해를 신고하면 관리 주체는 소음을

유발한 세대에 소음 중단이나 차음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층간소음의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기준이 마련되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 등에서 진행되는 각종 분쟁 조정에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나) 학생의 글

얼마 전, 국토교통부가 층간소음 문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만들었다는 기사를 보았다. 그동안 층간소음에 대한 명확한 처벌 기준과 규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드디어 법령 개정을 통해 기준안이 ㉠ 마련한 것이다. 그런데 법적 규제만으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법적 규제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불필요한 감정싸움을 줄이고, 가해자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 왜냐하면 법적 해결에만 의존할 경우,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점점 줄어들어 오히려 이웃 간의 관계가 단절될 수 있다. ㉢ 자연에서 나는 소리 같은 백색 소음은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소음이다. 따라서 법적 규제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사회 구성원 상호 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공동 주택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개인 주택과 달리 공동 주택은 천장과 바닥을 이웃과 ㉣ 함께 공유한다. 따라서 개인만의 공간이 아닌 공동의 공간이라는 인식을 갖고 서로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대부분의 층간소음은 생활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자신의 생활습관을 돌아보고 이를 ㉤ 개발하려는 노력도 중요하다. 이렇게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이웃을 배려하려는 노력이 더해진다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은 점차 사라질 것이다.

9. (가)를 읽은 학생이 (나)를 쓸 때 활용한 방법이 아닌 것은?

- ① 기사에서 언급한 개정안의 적용 방법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 ② 독자의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 글의 시작 부분에서 기사의 내용을 언급한다.
- ③ 기사를 읽고 가지게 된 문제의식을 드러내기 위해 의문의 형식을 사용한다.
- ④ 층간소음을 해결하는 방안을 이끌어내기 위해 공동 주택의 특징을 제시한다.
- ⑤ 기사에서 언급한 개정안을 적용했을 때의 긍정적 효과와 우려되는 점을 함께 제시한다.

10. ㉠ ~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문장 성분 간 호응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마련된’으로 고쳐야겠어.
- ② ㉡은 문장 간의 연결 관계를 고려하여 ‘그러나’로 고쳐야겠어.
- ③ ㉢은 글의 흐름과 어긋나는 문장이므로 삭제해야겠어.
- ④ ㉣은 단어의 의미가 중복되었으므로 ‘함께’를 삭제해야겠어.
- ⑤ ㉤은 문맥상 부적절한 단어이므로 ‘개발’로 고쳐야겠어.

11. <보기>는 표준 발음법의 일부이다. 이를 이해한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제18항 받침 ‘ㄱ(ㄱ, ㅋ, ㆁ, ㄷ), ㄷ(ㄷ, ㅌ, ㅊ, ㅌ, ㅌ, ㅌ), ㄴ(ㄴ, ㄴ, ㄴ, ㄴ, ㄴ, ㄴ), ㄹ(ㄹ, ㄹ, ㄹ, ㄹ, ㄹ, ㄹ)’은 ‘ㄴ, ㄹ’ 앞에서 [ㅇ, ㄴ, ㄹ]으로 발음한다.

제29항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 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음을 첨가하여 [니, 냐, 녀, 뇨, 뉴]로 발음한다.
[붙임 1] ‘ㄴ’ 받침 뒤에 첨가되는 ‘ㄴ’ 음은 [ㄴ]로 발음한다.
[붙임 2] 두 단어를 이어서 한 마디로 발음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 ① ‘떡물’은 제18항에 따라 [명물]로 발음해야겠군.
- ② ‘물약’은 제29항에 따라 [물냑]으로 발음해야겠군.
- ③ ‘한 입’은 제29항에 따라 [한닙]으로 발음해야겠군.
- ④ ‘집일’은 제29항에 따라 [집닐]로, 다시 제18항에 따라 [집닐]로 발음해야겠군.
- ⑤ ‘색연필’은 제29항에 따라 [색년필]로, 다시 제18항에 따라 [생년필]로 발음해야겠군.

12. <보기>는 ‘문법 학습 게시판’에 올라온 자료이다. 이를 참고할 때, (가)~(마)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 질문 】

선생님! 띄어쓰기와 관련해서 헷갈리는 것이 있어요. ‘만큼, 대로, 뿐’은 어떤 경우에 띄어 쓰고 어떤 경우에 붙여 쓰나요? 그리고 ‘못하다’와 ‘못 하다’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답변 】

‘만큼, 대로, 뿐’이 조사로 쓰일 때는 앞말에 붙여 쓰고, 의존 명사로 쓰일 때는 띄어 쓴다. 그러니까 앞말이 체언일 경우에는 붙여 쓰고, 용언의 관형사형일 경우에는 띄어 쓴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못 하다’는 부사인 ‘못’이 동사인 ‘하다’를 꾸미는 것이고, ‘못하다’는 형용사나 동사로 그 자체가 하나의 단어란다. 형용사일 때는 ‘정도가 극에 달한 나머지’, ‘비교 대상에 미치지 아니함’ 등의 뜻을 나타내지.

- (가) 공부를 할 만큼 했으니 성적이 오르겠지?
- (나) 나는 나대로 열심히 공부했어.
- (다) 지금까지 공부한 것이 고작 그것 뿐이야?
- (라) 배가 고프다 못해 아프다.
- (마) 실력이 예전보다 많이 못하구나.

-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13. B를 고려하여 A를 고친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 틀린 문장	B: 고쳐야 하는 이유	고친 문장
그는 슈퍼맨이라 불리우는 사람이다.	⇨ 피동 표현이 잘못됨.	⇨ ㉠
손님, 저쪽 방으로 들어가실게요.	⇨ 화자의 약속, 의지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르게요'를 부적절하게 사용함.	⇨ ㉡
그는 설레임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었다.	⇨ '설레다'의 명사형이 잘못됨.	⇨ ㉢
주호는 나보다 책을 더 좋아한다.	⇨ 비교하는 대상이 불분명함.	⇨ ㉣
지금 보고 계신 제품은 올해 신상품이셔요.	⇨ 높임 표현이 잘못됨.	⇨ ㉤

- ① ㉠: 그는 슈퍼맨이라 불리는 사람이다.
- ② ㉡: 손님, 저쪽 방으로 들어가세요.
- ③ ㉢: 그는 설렘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었다.
- ④ ㉣: 주호는 책을 나보다 더 좋아한다.
- ⑤ ㉤: 지금 보고 계신 제품은 올해 신상품이에요.

14. 다음은 사전의 일부이다. 이를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
 [1] (받침 없는 체언 뒤에 붙어)
 ① 어떤 상태나 상황에 놓인 대상, 또는 상태나 상황을 겪거나 일정한 동작을 하는 주체를 나타내는 격 조사.
 ② ('되다', '아니다' 앞에 쓰여) 바뀌게 되는 대상이나 부정(否定)하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바뀌게 되는 대상을 나타낼 때는 대체로 조사 '로'로 바뀔 수 있다.

[2] (받침 없는 체언이나 부사어 뒤, 또는 연결 어미 '-지' 뒤에 붙어) 앞말을 지정하여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연결 어미 '-지' 뒤에 오는 '가'는 '를'이나 '르'로 바뀔 수 있으며, 흔히 뒤에는 부정적인 표현이 온다.

이 ㉡
 [1] (받침 있는 체언 뒤에 붙어)
 ① 어떤 상태를 보이는 대상이나 일정한 상태나 상황을 겪는 경험주 또는 일정한 동작의 주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② ('되다', '아니다' 앞에 쓰여) 바뀌게 되는 대상이나 부정(否定)하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바뀌게 되는 대상을 나타낼 때의 '이'는 대체로 조사 '으로'로 바뀔 수 있다.

[2] ('-고 싶다' 구성에서 본동사의 목적어나 받침 있는 부사어 뒤에 붙어) 앞말을 지정하여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 보 기 >

- ㉠ 올챙이가 ㉡ 개구리가 되었다.
- 방이 ㉢ 깨끗하지가 않다.
- 그 늙던 갈대밭이 모두 ㉣ 뽕밭이 되었다.
- 나는 ㉤ 백두산이 제일 보고 싶다.

- ① ㉠의 '가'와 ㉡의 '이'는 '가[1]'과 '이[1]'을 통해 앞 체언의 받침 유무에 따라 선택된 격 조사임을 알 수 있군.
- ② ㉢의 '가'는 조사 '로'로 바꾸어 쓸 수 있는 걸 보니, '가[1][2]'를 통해 '되다' 앞에 쓰여 부정하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임을 알 수 있군.
- ③ ㉣의 '가'는 '를'로 바꾸어 쓸 수 있는 걸 보니, '가[2]'를 통해 앞말을 지정하여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임을 알 수 있군.
- ④ ㉤의 '이'는 조사 '으로'로 바꾸어 쓸 수 있는 걸 보니, '이[1][2]'를 통해 '되다' 앞에 쓰여 바뀌게 되는 대상을 나타내는 격 조사임을 알 수 있군.
- ⑤ ㉤의 '이'는 '이[2]'를 통해 앞말을 지정하여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임을 알 수 있군.

15.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서술어로 사용된 용언에 접미사나 선어말 어미를 결합시키면 사동이나 피동, 높임, 시간 표현, 주체의 심리적 태도 등 다양한 문법 범주를 실현할 수 있다.

- 할머니께서 진지를 ㉠ 드신다.
- 아버지께서 연을 ㉡ 날리시고 있다.
- 그는 운동장을 열심히 ㉢ 뛰었다.
- 나는 지금 영화관에 ㉣ 가겠다.
- 도둑이 경찰에게 ㉤ 쫓기고 있다.

- ① ㉠의 '-시-'와 ㉡의 '-시-'는 각각의 행위 주체를 높이기 위해 사용된 선어말 어미이다.
- ② ㉠의 '-르-'과 ㉡의 '-었-'은 현재나 과거 등의 시제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선어말 어미이다.
- ③ ㉢의 '-리-'는 행위 주체인 '아버지'가 다른 대상으로 하여금 어떤 동작을 하게끔 만드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접미사이다.
- ④ ㉣의 '-겠-'은 행위 주체인 '나'의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선어말 어미이다.
- ⑤ ㉤의 '-기-'는 행위 주체인 '경찰'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대상에 의해 동작을 당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접미사이다.

16. <보기>의 ㉠ ~ ㉤에 나타난 중세 국어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 기 >

千世(천 세)우회 미리 定(정)호산 漢水(한수) 北(북)에
累仁開國(누인개국)호샤 卜年(복년)이 ㉠ 𑖇업스시니
聖神(성신)이 니스샤도 敬天勤民(경천근민) 호샤샤 더욱
㉡ 구드시리이다
㉢ 𑖇금하 아르쇼셔 ㉣ 洛水(낙수)에 山行(산행)가 이셔 하나
빌 ㉤ 미드니잇가

<제125장>
-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세종 29년) -

[현대어 풀이]
천 세(千世) 전에 미리 정하신 한강 북쪽에,
여러 대를 물린 어진 임금의 나라를 여[開]시어 왕조가 끝이
없으시니,
성신(聖神)이 대를 이으시어도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부지
런히 섬겨야 더욱 굳건할 것입니다.
임금이시여, 아소서. 낙수(洛水)에 사냥을 가 있으면서 할아버지
를 믿으시겠습니까?

- ① ㉠: 현대 국어에는 쓰이지 않는 자음과 모음이 사용되었다.
- ② ㉡: 선어말어미 '-이-'는 듣는 이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었다.
- ③ ㉢: 조사 '하'는 부르는 대상을 높이는 역할을 하였다.
- ④ ㉣: '에'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로 사용되었다.
- ⑤ ㉤: 어간의 받침을 어간의 종성과 어미의 초성으로 겹쳐 표기하였다.

[17 ~ 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배우려고 책을 읽으려면 모름지기 번거로움을 참고 세밀하게 이해해 나가야 한다. 절대로 성급한 마음을 지녀서는 안 된다. 만약 “꼭 책을 읽어야 해? 지름길이 따로 있는데.”라고 한다면 이는 스스로를 깊은 구렁텅이로 밀어 넣는 것이다. 배우는 자가 도리(道理)를 얻기까지는 여러 겹으로 포장된 사물을 보는 것과 같아 곧바로 안을 들여다 볼 수가 없다. 한 겹을 벗겨 내어 또 한 겹을 보고, 또 한 겹을 벗겨 내어 또 한 겹을 보아 가야 한다. 겹을 다 벗겨 내면 비로소 살이 보이고 살을 발라내고 나면 뼈가 보이며, 뼈가 다 드러나면 그제야 골수가 보이는 것이다. 거친 마음과 허황된 마음을 품는다면 결코 얻을 수가 없는 일이다.

독서란 비유하자면 집을 관찰하는 것과 같다. 만약 밖에서 집의 외양을 보고는 문득 ‘집을 보았다’고 한다면 그 집을 알 연고가 없게 된다. 모름지기 안으로 들어가 하나하나 보고서 이 집은 몇 칸 집이며 몇 개의 창살이 있다고 해야 한다. 한 번 보고 또 거듭 보아서 하나하나 기억할 수 있어야 바야흐로 옳다.

(중략)

사람들은 “독서는 마땅히 조용히 완미해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곧 스스로를 나태하게 만드는 말이다. 만약 책을 읽었는데 도리를 깨닫지 못하면 비록 급히 서둘러서도 안 되겠지만 또한 놓아 버리지 않는 것이 그래도 낫다. 만약 하루 종일 배회하면서 ‘조용하다’고 말한다면 공부하는 것이라 간주할 수 없다. 약 달이는 것으로 비유하자면 모름지기 쉼 불로 달인 다음에 약한 불로 달여야 전혀 문제되지 않는 것이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다. 배움에는 늙음과 젊음이 같지 않다. 젊을 때는 정력이 남으니 모름지기 읽지 않는 책이 없어야 하고 그 뜻을 궁구하지 않는 것이 없어야 한다. 나이가 들 것 같으면 모름지기 중요한 것을 선택하여 힘을 써야 한다. 한 권의 책을 읽다가 문득 나중에 공부하기에 어렵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다시 가서 이해하여 모름지기 깊이 생각하고 의미를 찾아내 지극한 곳까지 궁구하는 것이 좋다.

정신이 우수한 사람은 널리 취해 얻는 것이 많다. 정신이 부족한 사람은 다만 말뜻이 간단하고 쉬운 것으로 함양해야 한다. 중년이 지난 사람은 책을 많이 읽으려 들면 안 된다. 단지 조금씩 조금씩 음미하고 사색해야 의미가 절로 드러난다.

- 양응수, 「독서법」 -

17.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글쓴이의 생각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글의 내용을 파악할 때까지 반복하여 읽어야 한다.
- ②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읽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 ③ 글을 대충 훑어보지 말고 정밀하게 읽어야 한다.
- ④ 글쓴이의 주장이 옳은지 판단하며 읽어야 한다.
- ⑤ 자신의 역량에 따라 독서량을 조절해야 한다.

18. 윗글의 글쓴이가 <보기>의 ‘민수’에게 조언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주형: 민수야, 어제 졸업한 선배가 와서 이야기한 것 중에 뭐가 가장 기억에 남아?
민수: 고등학교 3년 동안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이었냐는 질문에, 300권이 넘는 책을 읽은 것이라는 말이 가장 인상적이었어. 난 1년에 겨우 2권 읽을까 말까 한데..... 내 자신이 부끄러웠어. 그래서 난 오늘부터 책을 많이 읽기로 했지.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도서 100권을 일 년 동안 다 읽을 거야.

- ① 성급하게 독서량을 채우려 하기보다는 글에 담긴 의미를 깊이 있게 탐구하면서 읽어야 해요.
- ② 책을 무작정 읽기보다는 이해하기 쉬운 책부터 점점 어려운 책으로 순서를 정해 읽는 것이 좋아요.
- ③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도서만 읽기보다는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선정해서 읽는 것이 좋아요.
- ④ 아무리 많은 양의 책을 읽었다 하더라도, 책에서 배운 것을 실생활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어요.
- ⑤ 읽은 책의 권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권을 읽어도 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기록하며 읽는 것이 중요해요.

[19 ~ 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역사적 사실’은 과거에 일어난 개체적 사건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역사가에 의해 주관적으로 파악된 과거의 사실만을 의미하기도 한다. 역사가의 역사 연구 태도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두 가지의 개념 중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A] 랑케는 역사적 사실을 ‘신(神)의 손가락’에 의해 만들어진 자연계의 사물과 동일시했다. 그는 각 시대나 과거의 개체적 사실들은 그 자체로 완결된 고유의 가치를 지녔으며, 이는 시간의 흐름을 초월해 존재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역사가가 그것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은 신성한 역사를 오염시키는 것이라 여기고,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것이 역사가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역사는 사료에 대한 철저한 고증과 확인을 통해 역사를 인식해야 하며, 목적을 앞세워 역사를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반해 드로이젠은 역사적 사실이란 어디까지나 역사가의 주관적 인식에 의해 학문적으로 구성된 사실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래서 그는 역사를 단순히 과거 사건들의 집합으로 보지 않았으며, 역사가의 임무는 과거 사건들을 이해하고 해석하여 하나의 지식 형태로 구성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객관적 사실을 파악하기 위한 사료 고증만으로는 과거에 대한 부분적이고 불확실한 설명을 찾아낼 수 있을 뿐이라고 했다.

하지만 드로이젠이 역사가의 주관적 인식을 강조했다 하더라도, 역사가가 임의로 과거의 사실을 이해하고 해석한다고 본 것은 아니다. 그는 역사가가 과거의 개체적 사실들 가운데 일부를 역사적 사실로 인식하는 과정에서, 역사가의 주관이 개입하기 이전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범주’로서의 ‘역사’가 있다고 보았다. 즉 범주로서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역사가의 역사인식을 선형적으로 규정한다고 본 것이다. 이때, 역사인식의 범주를 형성하는 것은 ‘인륜적 세계’이다. 인간은 태초부터 주어진 자연의 세계보다는 인간의 의지와 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인륜적 세계에 살고 있다. 따라서 역사는 이와 같은 인륜적 세계 속에서 일어나며 또한 그것과의 연관 속에서만 파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드로이젠은 랑케의 객관적 역사인식과 달리 역사인식의 주관성을 주장하면서도, 선형적으로 주어진 인륜적 세계가 역사가의 역사인식과 해석을 결정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의 주관주의적 역사인식론은 결코 상대주의로 나아가지 않았다.

* 범주: 사물의 개념을 분류할 때 그 이상 일반화할 수 없는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최고의 유개념(類概念).

19.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랑케는 역사적 사실의 객관적 파악을 강조하였다.
- ② 랑케는 과거 사건들의 고유한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③ 드로이젠은 인륜적 세계와 자연 세계를 동일한 개념으로 보았다.
- ④ 드로이젠은 사료 고증만을 중시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았다.
- ⑤ 드로이젠은 범주로서의 역사가 역사가의 역사인식을 선형적으로 규정한다고 보았다.

20. [A]에 나타난 ‘랑케’의 관점에서 비판할 수 있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원나라의 문화적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주변 국가의 어휘들을 어휘군별로 분류하였다.
- ② 고려시대 귀족 문화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관리들의 장신구와 생활 용품 등을 수집하였다.
- ③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학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영토 경계를 나타내는 비석의 문구를 채록하였다.
- ④ 과거에 일시 편입시킨 영토에 대한 지배권 회복을 주장하기 위해 러일전쟁 전후에 체결된 국제 조약 자료를 선별하였다.
- ⑤ 조선시대 농민 계층의 생활상을 파악하기 위해 임진왜란 전후의 토지 제도 변천 과정을 보여주는 사료를 정리하였다.

21. 윗글의 ‘드로이젠’과 <보기>의 ‘신사학과’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기 〉

미국의 신사학과는 역사적 사실의 존재 방식은 영원한 실재가 아니라 변화 그 자체이며, 모든 역사는 자신의 관심과 자기 시대의 관점에 따라 과거 사실들을 해명한다고 보았다. 즉 그들은 역사 서술의 출발점을 역사가의 현재 인식이라고 보았다.

- ① ‘드로이젠’은 ‘신사학과’와 달리 역사가의 주관적 역사인식을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고 있군.
- ② ‘신사학과’는 ‘드로이젠’과 달리 역사가의 역사인식이 상대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군.
- ③ ‘신사학과’는 ‘드로이젠’과 달리 불변하는 현실이 역사인식의 범주를 형성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군.
- ④ ‘드로이젠’과 ‘신사학과’는 모두 인륜적 세계를 상정하여 역사가의 역사인식을 설명하고 있군.
- ⑤ ‘드로이젠’과 ‘신사학과’는 모두 역사인식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역사적 사실의 존재를 부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군.

[22 ~ 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저소득 계층을 위한 지원 방안으로는 대상자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소득보조, 생활필수품의 가격을 할인해 주는 가격보조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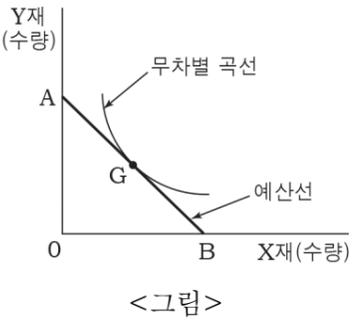
이 제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개념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소비자가 X재와 Y재만을 구입한다고 할 때, 한정된 소득 범위 내에서 최대를 구입 가능한 X재와 Y재의 수량을 나타낸 선을 예산선이라고 한다. 또한 X재, Y재를 함께 구매했을 때, 만족도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X재와 Y재 수량을 조합한 선을 무차별 곡선이라고 한다. 특별한 조건이 없다면 최적의 소비선택은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의 접점(G)에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소득보조나 가격보조가 실시되면 실질 소득의 증가로 예산선이 변하고, 이에 따라 소비자마다 만족하는 상품 조합도 변하게 된다. 즉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의 변화에 따라 각 소비자의 최적 선택지점도 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림>과 같은 상황에서 X재와 Y재가 정상재*일 경우, Y재에 대한 X재의 상대적 가격이 ① 떨어지면, 가격비율에 변화가 생기게 되고 예산선이 바뀌게 된다. 이때 상품 조합도 달라져 최적 선택지점 역시 변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하락한 X재의 수요는 늘리게 되고 Y재의 수요는 늘리지 않게 되는 것을 대체효과라고 한다. 또한 X재의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예전에 살 수 없었던, X재와 Y재의 상품 조합을 살 수 있게 되었으므로 소비자의 실질 소득이 예전보다 늘어난 것을 소득효과라고 한다. 그러나 상품 가격에는 변화가 없고 소득만 증가하면 상품들 간의 가격비율은 변하지 않으므로, X재와 Y재의 수요는 모두 늘어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에는 대체효과만 발생하게 된다.

식품과 비식품 구입비를 지출하는 사람에게, 정부가 월 30만원의 소득보조를 시행했다고 가정해 보자. 어떤 물품을 구입하든 간에 보조금 30만 원을 지출하는 데 그는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는다. 따라서 그의 입장에서는 식품과 비식품의 가격비율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대체효과는 없으며, 다만 30만 원만큼의 소득효과만 발생하는 것이다. 반면 구입하려는 식품에 대해 정부가 가격을 보조해 주는 제도를 시행했을 경우 비식품보다 식품의 소비를 늘리게 되는 경향이 뚜렷하므로 대체효과도 함께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데 소득 범위 내에서 식품보다 비식품 구입을 선호하는 성향을 지닌 사람의 입장에서는 식품에 대한 가격보조가 소득보조보다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소득보조를 받으면 주어진 예산 내에서 자신이 선호하는 비식품을 더 많이 구입할 수 있지만, 식품에 대한 가격보조를 받으면 자신의 선호도와 상관없이 일시적으로 식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반면 정부 입장에서는 소비자의 행동 예측이 어려운 소득보조보다 소비자 수요를 가시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가격보조가 경제 정책을 추진하는 데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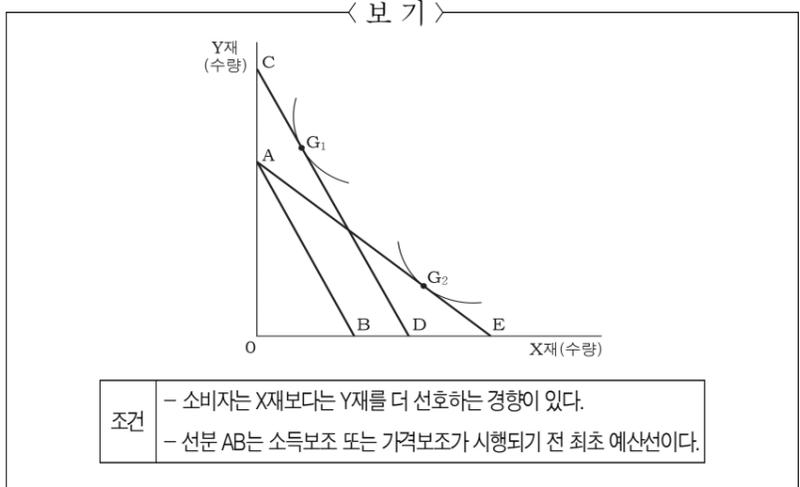
* 정상재: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증가하는 재화.



22. 윗글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무차별 곡선의 정의
- ② 상품 조합의 유형별 특징
- ③ 실질 소득과 예산선의 관계
- ④ 최적 선택지점의 변화 원인
- ⑤ 가격보조와 소득보조의 차이

23.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자료를 해석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예산선이 AB에서 AE로 이동했다면, 소비자의 실질 소득은 늘어났다고 할 수 있겠군.
- ② 예산선이 AB에서 AE로 이동했다면, 소비자는 선호도와 상관없이 일시적으로 X재를 더 많이 구매할 수도 있겠군.
- ③ 예산선이 AB에서 CD로 이동했다면, X재에 대한 Y재의 상대적 가격비율의 변화가 생겼겠군.
- ④ 예산선이 AB에서 CD로 이동했다면, AE로 이동할 때보다 정부는 소비자의 소비 행동을 더 예측하기 어렵겠군.
- ⑤ 예산선이 AB에서 CD로 이동했다면, AE로 이동할 때보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군.

24.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의 신문 기사에 대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신문 ○○○○년 ○월 ○일

정부는 서민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하반기부터 ③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쌀과 라면 중, 쌀에 대한 가격 할인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① 정책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의 최적 선택지점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 ② 정책이 시행된다면 ㉠에게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모두 발생할 것이다.
- ③ 정책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쌀에 대한 ㉠의 수요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 ④ 정책이 시행된다면 ㉠의 예산선에는 변함이 없지만 무차별 곡선은 변화할 것이다.
- ⑤ 정책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이 선택할 수 있는 상품 조합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25.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쌀이 떨어져 두 끼를 라면으로 때웠다.
- ② 감기가 떨어지지 않아 큰 고생을 하였다.
- ③ 갈수록 성적이 떨어져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
- ④ 해가 떨어지기 전에 이 일을 마치도록 하여라.
- ⑤ 파란불 신호가 떨어지자 사람들이 건널목을 건넜다.

[26 ~ 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국의 줄타기는 줄광대와 어릿광대, 악공, 관중이 서로 어울려 삶의 애환과 신명을 공유하면서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종합 예술이다. 줄타기는 기예, 재담, 노래 등을 연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극적 상황에 따라 관중이 참여하기도 한다.

줄광대는 줄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기예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줄 아래 지상의 어릿광대나 악공, 관중과도 재담을 주고받는다. 이러한 연행 방식은 줄광대가 올라서 있는 줄이라는 수평적 공간에서부터 관중이 위치한 공간으로까지 극적 공간을 수직적으로 확대시킨다는 측면에서 입체적이다.

줄타기는 긴장과 이완의 반복 구조를 지닌다. 일반적으로 줄타기는 전체적으로 ‘줄고사-기예 I-놀이-기예 II-마무리’ 등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먼저 참가자 모두의 행복을 기원하는 줄고사로 연회의 시작을 알린 후 기예 I이 연행된다. 줄 위에서 줄광대가 아슬아슬한 묘기를 선보이면 관중의 긴장감은 점차 고조된다. 기예 I에서 조성된 긴장은 이어 전개되는 재담과 노래 중심의 놀이를 통해 이완된다. 과제성을 풍자하는 ‘중놀이’와 다양한 계층을 희화화하는 ‘알짜놀이’ 등의 놀이가 극적 흥미를 제공하면서 기예 I에서 조성된 긴장을 이완시키는 것이다. 고난도 묘기들로 구성된 기예 II가 펼쳐지면 관중의 긴장은 더욱 고조된다. 정점에 달한 긴장이 마무리 과정에서 점차 이완되면서 전체 연행은 끝을 맺게 된다. 이와 같이 줄타기는 각 과정별로 긴장과 이완이 반복됨으로써 관중의 극적 몰입도를 높여 흥미를 배가시킨다.

한편, 줄타기 전체에 걸친 긴장과 이완의 반복 구조는 줄타기의 각 부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기예 II는 외발만 딛고 뛰며 걷는 ‘앵금뛰기’, 두 다리를 붙이고 거꾸로 서는 ‘배 돛대 서기’ 등의 절묘한 기술들로 이루어져 있다. 기술과 기술 사이에는 재담뿐만 아니라 인물의 외양과 행동에 대한 의도적 왜곡과 모방 등이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다. 고난도의 연행으로 인해 조성된 긴장감이 시청각을 자극하는 흥미 요소들을 통해 이완되는 것이다.

이렇듯 줄타기는 민중의 삶과 신명을 긴장과 이완의 반복 구조를 통해 현장감 있게 풀어낸다. 긴장과 이완이 반복되는 형태는 자연의 섭리인 동시에 삶의 굴곡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줄타기는 보다 근원적인 예술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26. 윗글의 내용을 이해했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줄타기에서 재담과 기예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 ② 줄고사는 줄타기 전체의 줄거리를 소개하는 기능을 한다.
- ③ 줄타기 전체와 각 부분에 적용되는 극적 구조는 서로 다르다.
- ④ 줄타기는 자연의 순환 원리를 자의적으로 변형시켜 표현한다.
- ⑤ 줄타기에서 관중의 극적 몰입도는 ‘놀이’ 과정에서 최고조에 이른다.

27.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줄타기 장면을 감상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줄광대 : 이번에는 칠보 먼장치기로 나가는데, 배우씨* 꿈!

(줄 위에서 칠보 먼장치기를 한다.)

배우씨 : ㉠ 거, 좋군! 아니 산삼 먹었나 적삼 먹었나? 오늘은 왜 이리 잘 타는고.

줄광대 : 산에 나는 산삼, 바다 나는 해삼, 물에 나는 수삼, 흥도 나는 흥삼 다 먹었겠다. 자, 이번엔 맛 먼장치기인데 앞으로 내밀고 뒤로 뛰겠다. 배우씨 꿈!

(줄 위에서 맛 먼장치기를 한다.)

배우씨 : ㉡ 오도방정이로구나. 어지러워 못 보겠다.

줄광대 : 이제는 점점 어려워지는구나. 이건 허궁 가세트림인데 가운데 한 길 이상 떠서 틀어 돌아앉는 놈이렸다. 배우씨 꿈! (㉢ 줄 위에서 허궁 가세트림을 한다.)

배우씨 : 곰배팔이 외새끼 꼬듯 하는구나.

줄광대 : (줄 복판에 앉아서) 야, 이렇게 줄만 탈 것이 아니라 노랫가락 한 마디 하겠다. ㉣ 노래란 본디 웃으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 손님 웃다가 골내지 마시오. 그럼 노래할까, 재담할까?

관중 A : 그럼 한번 골 때리듯 노래해 보소.

줄광대 : (노래 조로) ㉤ 때는 때는 어느 땐고 녹음방초 무성하다 버들버들 속잎 나고 가지가지 꽃이 피어 병글병글 웃을 땐데, 종달새 지지배배 피꼬리 피플피플.

* 배우씨 : 이제 막 기예를 배우기 시작한 어릿광대를 가리킴.

- ① ㉠ : 재주에 대해 평가하면서 줄광대와 소통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군.
- ② ㉡ : 줄광대의 기예를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관중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군.
- ③ ㉢ : 고난도의 재주를 부림으로써 관중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군.
- ④ ㉣ : 관중의 극중 참여를 유도하여 줄타기 공간을 수직의 공간으로 확대시키고 있군.
- ⑤ ㉤ : 줄광대의 노래를 삽입하여 기예로 인해 조성된 관중의 긴장을 이완시키고 있군.

[28 ~ 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반적으로 어른은 추위를 느끼면 몸을 떠는 등의 행동을 통해 열을 발생시켜 체온을 유지한다. 세포의 구성 물질인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음식을 통해 얻은 포도당을 아데노신삼인산(ATP)의 형태로 바꾸어 저장해 둔다. 이후 체온이 내려가면 근육을 떠는 과정을 통해 ATP가 분해되어 열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신생아는 성인만큼 근육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 체온을 유지할 정도로 근육을 떨 수 없어, 등뼈나 신장 주변에 분포한 갈색 지방 조직을 통해 체온을 유지한다. 갈색 지방 조직을 구성하는 갈색 지방 세포는 지방산이 포함된 기름방울과 미토콘드리아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 세포의 미토콘드리아는 기질, 내막, 외막, 내막과 외막 사이의 막간 공간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 갈색 지방 세포의 미토콘드리아 역시 그 구조는 같다. 하지만 열 발생 과정에서 내막에 있는 특정 단백질이 작용한다는 점이 다르다. 그 단백질이 작용하여 신생아가 체온을 유지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신생아의 체온이 내려갔을 때, 뇌의 시상하부에서 신호를 보내면 교감 신경 말단에서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 이로 인해 갈색 지방 세포의 세포막에 있는 β 수용체가 자극을 받으면, 갈색 지방 세포 안에 존재하고 있던 지방산이 미토콘드리아의 외막과 내막을 거쳐 기질로 운반된다. 이후 지방산의 분해로 발생한 전자가 조효소에 의해 내막에 존재하는 막관통 단백질로 전달된다. 이로 인해 막관통 단백질들은 자신을 통로로 하여 기질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수소 이온(H^+)을 막간 공간으로 이동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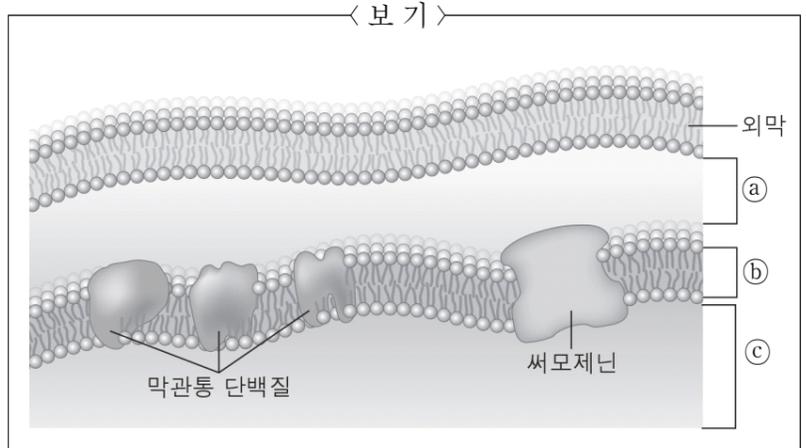
그런데 수소 이온이 기질에서 막간 공간으로 이동하면, 막간 공간과 기질에 존재하는 수소 이온의 농도 차이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농도 차이로 인해 양성자 이동력이라 부르는 에너지가 형성되고, 이 힘에 의해 수소 이온은 농도가 낮은 기질로 되돌아가게 된다. 그러나 내막은 수소 이온과 같은 양성자에 대해 불투과성이기 때문에 막간 공간으로 이동될 때와 같은 방식으로 내막에 존재하는 특정 단백질 통로를 거쳐야 한다.

이때 중요한 점은 수소 이온이, 갈색 지방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만 존재하는 ‘써모제닌’이라는 단백질 통로를 거쳐 이동한다는 점이다. 일반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수소 이온이 기질로 되돌아갈 때 ATP 합성효소를 통과하게 되는데, 이때 양성자 이동력을 ATP 합성에 사용한다. 이와 달리 갈색 지방 세포의 경우 써모제닌은 양성자 이동력을 ATP 합성에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수소 이온은 양성자 이동력에 의해 가속도가 붙어서 기질의 수분 등과 부딪히게 되고 그 결과 열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28. 윗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신생아의 체온 조절 원리
- 전자의 전달 과정을 중심으로
- ② 갈색 지방 세포의 구조와 특징
- 지방산의 분해 과정을 중심으로
- ③ 신생아의 에너지 저장 방법
- 미토콘드리아의 종류를 중심으로
- ④ 갈색 지방 세포의 생성과 분포
- 미토콘드리아의 역할을 중심으로
- ⑤ 신생아의 체온 유지 방법
- 갈색 지방 세포의 기능을 중심으로

29. <보기>는 ㉠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 ~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과 ㉡를 거친 지방산이 ㉢에서 분해되면, ㉢의 수소 이온이 ㉠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 ② ㉢의 전자가 막관통 단백질에 전달되면, ㉠에서 수소 이온이 생성될 것이다.
- ③ ㉠과 ㉢의 수소 이온 농도 차로 인해 ㉠의 수소 이온은 써모제닌을 통과한다.
- ④ ㉠의 수소 이온이 ㉢로 이동할 때에는 일반 세포에서와 달리 가속도가 붙는다.
- ⑤ ㉠의 수소 이온과 ㉢의 수소 이온은, 서로 다른 단백질 통로를 거쳐 각각 ㉢와 ㉠로 이동한다.

30.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와 같이 반응했다고 할 때, A와 B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이 글을 읽어 보니, 일반 세포의 경우 양성자 이동력을 (A)에 사용하고, 갈색 지방 세포의 경우 (B)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

- | A | B |
|----------|--------|
| ① ATP 합성 | 열 생성 |
| ② ATP 분해 | 열 생성 |
| ③ ATP 합성 | ATP 분해 |
| ④ 열 생성 | ATP 합성 |
| ⑤ 열 생성 | ATP 분해 |

[31 ~ 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방초(芳草)를 불러보며 난지(蘭芝)도 뜨더보자
 비 세여라 비 세여라
 일엽편주(一葉片舟)*에 시른 거시 무스것고
 지국충(至芻兪) 지국충(至芻兪) 어사와(於思臥)
 ㉠ 갈제논 너뿐이오 울제논 들이로다

<춘(春) 7>

구즌비 머저 가고 시넨물이 몹아온다
 비 떠라 비 떠라
 ㉡ 낫대를 두러메니 기픈 흥(興)을 금(禁) 못홀와
 지국충(至芻兪) 지국충(至芻兪) 어사와(於思臥)
 ㉢ 연강텃장(煙江疊嶂)*은 누라서 그려넨고

<하(夏) 1>

웃 우희 서리 오덕 치운 줄을 모를로다
 단 디여라 단 디여라
 ㉣ 도선(釣船)*이 좁다 흐나 부세(浮世)*와 언더흐니
 지국충(至芻兪) 지국충(至芻兪) 어사와(於思臥)
 ㉤ 너일도 이리흐고 모뢰도 이리흐자

<추(秋) 9>

몹ㄱ의 외로운 술 혼자 어이 식식흐고
 비 락여라 비 락여라
 [A] 머흔 구름 한(恨)티 마라 세상(世上)을 ㄱ리온다
 지국충(至芻兪) 지국충(至芻兪) 어사와(於思臥)
 파랑성(波浪聲)* 염(厭)티* 마라 던훤(塵喧)*을 막느또다

<동(冬) 8>

- 윤선도,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 -

- * 일엽편주: 한 척의 작은 배.
- * 연강텃장: 안개 낀 강과 겹겹이 쌓인 산봉우리.
- * 도선: 낚시배.
- * 부세: 헛되고 덧없는 세상.
- * 파랑성: 물결 소리.
- * 염티: 싫어하지.
- * 던훤: 속세의 시끄러움.

31. 윗글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문형 어구를 반복하여 심리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대상을 점층적으로 강조하여 시적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 ③ 통사 구조가 유사한 구절을 대응시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④ 색채어를 활용하여 시의 분위기를 다채롭게 조성하고 있다.
 - ⑤ 상승 이미지와 하강 이미지를 반복하여 심리 변화의 양상을 표현하고 있다.

32.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에서 화자가 친숙하게 대하는 소재인 ‘들’은 자연에 동화된 삶을 드러내는군.
 - ② ㉡에서 화자의 흥을 돋우는 ‘낫대’는 자연에서 느끼는 충만감을 고조시키는군.
 - ③ ㉢에서 ‘그려넨’ 것으로 여기는 ‘연강텃장’은 자신을 둘러싼 자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나타내는군.
 - ④ ㉣에서 ‘부세’와 대응하는 ‘도선’은 세속적 삶에 대한 화자의 미련을 반영하는군.
 - ⑤ ㉤에서 화자가 기대하는 ‘너일’과 ‘모뢰’에는 현재의 삶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심리가 내재되어 있군.

33. [A]와 <보기>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강호 한 꿈을 꾸 지도 오래러니
 입과 배가 누가 되어 어즈버 잊었도다
 저 물을 바라보니 푸른 대도 하도 할샤
 홀룡한 군자들이 낫대 하나 빌려스라
 갈대꽃 깊은 곳에 명월 청풍 벗이 되어
 임자 없는 풍월 강산에 절로절로 늙으리라
 무심한 백구(白鷗)야 오라 하며 말라 하라
 다툼 이 없을 건 다만 이건가 여기노라

- 박인로, 「누항사(陋巷詞)」 -

- ① <보기>는 [A]와 달리 현실 개혁에 대한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② [A]는 <보기>와 달리 현재의 삶에 순응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 ③ [A]의 ‘구름’은 <보기>의 ‘명월’과 달리 부정적 현실을 차단하는 자연물로 기능하고 있다.
- ④ [A]는 ‘몹ㄱ’와 ‘세상’의 대비를 통해, <보기>는 ‘강호’와 ‘풍월 강산’의 대비를 통해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⑤ [A]와 <보기> 모두 화자 자신의 삶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34 ~ 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좌승상을 지낸 정진희의 아들 을선과 우승상을 지낸 유한경의 딸 추연은 서로 혼인을 약속한 사이다. 추연의 생모는 추연이 태어난 지 3일 만에 죽고, 유한경은 후실로 노씨를 들이게 되는데 노씨는 추연을 박대한다. 한편 을선은 장원급제하여 이부시랑이 되고 초왕으로 봉해진 아버지와 함께, 추연과 혼인하고자 유소저의 집으로 간다.

각설. 이때 노씨 매양 소저를 죽이고자 하더니, 일일은 독한 약을 음식에 넣어 소저를 주되 소저 마침 속이 불편한지라 이에 받아 유모에게 들게 하고 침소에 돌아와 먹으려 할새, 하늘의 살피심이 있어, 홀연 난데없는 바람이 일어나 티끌이 죽에 날려들거늘 소저 티끌을 건져 문밖에 버리니 푸른 불이 일어나더라. 이에 크게 놀라 유모를 불러 연유를 말하니 유모도 함께 놀라 이에 개를 불러 죽을 먹이니, 그 개 즉시 죽거늘 소저와 유모 더욱 놀라 차후는 주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유모의 집에서 밥을 지어 수건에 싸다가 겨우 연명만 하더라. 노씨 마음에 헤오되, ‘약을 먹여도 죽지 아니하니 가장 이상하도다.’하고 다시 해할 계교를 생각하더니 세월이 여류하여 길일이 다다르매 정시랑이 위의를 갖추어 여러 날을 행하여 유승상 집에 이르니 시랑의 풍채 전일보다 더 흰출하여 운무같은 관대를 입고 허리에는 황금 각대를 띠었으니 천상 신선이 하강한 듯하더라.

(중략)

이튿날 예를 갖추어 전안(奠雁)*할 때 근처 수령이며 시비와 하인 무리지어 신부를 인도하여 이르매 신랑이 교배석(交拜席)에 나아가 눈을 들어 신부를 잠깐 보니 머리에 화관을 쓰고 몸에 채의(彩衣)를 입고 무수한 시녀 옹위하였으니 그 절묘한 거동이 전에 추천하던 모양보다 뛰어나더라.

그러나 신부 수심이 가득하고 유모 눈물 흔적이 있거늘 심중에 이상하나 누구를 향하여 물으리오. 이에 맞절하고 침소로 나아가니 좌우에 향촉과 운무병풍이 황홀한지라. 홀로 소저를 기다리더니 이윽고 유모 축을 밝히고 들어오거늘 시랑이 팔을 들어 맞아 신부에게 자리를 청한 후에 축을 물리고 원앙이불을 펼치니 문득 창밖에 수상한 인적이 있거늘 마음에 놀라 급히 일어나 앉으니 어떤 놈이 말하되,

“네 비록 지금 벼슬을 하였으나 남의 계집을 품고 누웠으니 죽기를 야까지 아니하는구나.”

하거늘 창틈으로 엿보니 신장이 아홉 척이요, 삼척장검(三尺長劍)을 비껴 차고 섰거늘 이를 보니 전신이 떨리어 칼을 빼어 그놈을 죽이고자 하여 문을 열고 보았더라. 문득 간데없거늘 분을 참지 못하여 탄식하고 생각함에 ‘오늘 교배석에서 보니 수심이 가득하여 이상히 여겼더니 원래 이런 일이 있도다.’하고 분을 이기지 못하여 칼을 들고 소저를 죽여 분을 풀고자 하다가 또 생각하되, ‘내 옥 같은 마음으로 어찌 저 더러운 계집을 침노하리요.’하고 옷을 입고 급히 일어나니 소저 경황 중 가로되,

“군자는 잠깐 앉아 첩의 말을 들으소서.”

하거늘 시랑이 들은 체 아니하고 나와 부친께 그 말을 고하고 바빠 가기를 청한대 초왕이 크게 놀라 바빠 승상을 청하여 지금 출발하여 상경함을 이르고 하인을 불러 행장을 차리라 하니 유승상이 계단에 내려 물어 가로되,

“어찌된 연고로 이 밤에 상경코자 하십니까?”

정공 부자 아무 대답없이 출발하니라.

[A] 원래 이 간부(姦夫)로 칭하는 자는 노년의 사촌 오라비 노태니 노씨 지난 날 독약을 시험하되 소저 무사함을 시기하여 밤낮으로 죽이기를 꾀하더니, 문득 길일이 다다르매 일계를 생각하고 이에 심복으로 노태를 불러 가만히 차사(此事)를 이르고 금은을 많이 주어 실행하라 함에 노태 금은을 욕심내어 삼척장검을 잡고 달 밝은 밤에 소저 침소에 이르러 동정을 살피고 입에 담지 못할 말로 유소저를 갱참(坑塹)*에 넣으니 가련하다.

유소저 백옥 같은 몸에 누명을 얻으니 원정을 누구에게 말하리오. 분을 이기지 못하여 칼을 빼어 죽으려 하다가 다시 생각하니 ㉠ ‘이렇듯 죽으면 내 일신이 옥 같음을 누가 알리오’하고 이에 적삼을 벗어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내어 혈서를 쓰니 눈물이 변하여 피가 되더라. 유승상이 초왕을 보내고 급히 안으로 들어와 실상을 알고자 하나 노씨는 모르는 체하고 먼저 물어가로되,

“신랑이 무슨 연고로 심야에 급히 가나이까.”

승상이 말하되,

“내 곡절을 모르매 제 노기 충천하여 일언을 부담하더니 어찌 연유를 알리요. 자세히 알고자 하노라.”

노씨 승상 귀에 대고 가로되,

“첩이 잠결에 듣사오니 신랑이 방문 밖에서 어떤 남자와 소리를 지르며 여차여차하니 아무거나 추연에게 물으소서.”

승상이 즉시 소저 침소에 가니 소저 이불을 덮고 일어나지 아니하거늘 시비를 시켜 이불을 벗기고, 꾸짖어 가로되,

“네 아버 들어오되 기동함이 없으니 이 무슨 도리이며, 정랑이 무슨 일로 밤중에 돌연히 돌아가니 이 무슨 일인지 너는 자세히 알지니 이실직고하라.”

소저 겨우 고하여 가로되,

“아버지, 불초한 자식을 두었다가 집을 망하게 하오니 소녀의 불효 죽어도 여한이 없소이다.”

[B] 하고 함구무언(緘口無言)하니 승상이 다시 말하되,

“너는 어찌 일언을 아니하느냐.”

재삼 묻되 끝까지 일언을 답하지 아니하고 눈물을 비처럼 쏟으니 승상이 생각하되,

‘전일의 지극한 성효(誠孝)에도 오늘날 불효를 끼치니 무슨 곡절이 있도다.’

하고 일어나 외당으로 나오더라.

- 작자 미상, 「정을선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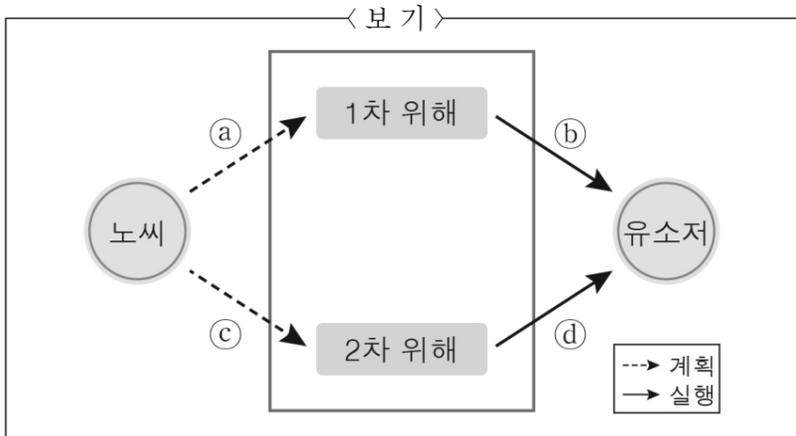
* 전안: 혼인 때에 신랑이 기러기를 가지고 신부의 집에 가서, 상 위에 놓고 절하는 예.

* 갱참: 깊고 길게 파 놓은 구덩이.

34.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초왕’은 정시랑의 성급한 행동을 꾸짖었다.
- ② ‘노씨’는 유승상을 부추겨 유소저의 혼사를 방해했다.
- ③ ‘유소저’는 유승상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항변했다.
- ④ ‘유승상’은 정공 부자가 떠날 당시 그들이 떠나는 이유를 알지 못했다.
- ⑤ ‘정시랑’은 유소저의 안색을 보고 노씨와의 갈등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35. 윗글의 서사 구조를 <보기>와 같이 나타냈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에서 노씨는 자신을 ㉡의 주체로 설정하고 있다.
- ② ㉢에서 유소는 유소저가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조력자로 기능하고 있다.
- ③ ㉠에서 노씨는 노씨의 사주를 받은 대로 ㉢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
- ④ ㉢의 결과는 노씨가 ㉢를 하게 하는 내적 동기를 유발하고 있다.
- ⑤ ㉢, ㉣에서는 비현실적 요소가 개입되어 유소저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서가 되고 있다.

36.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와 달리 [B]는 대화를 통해 인물 간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② [B]와 달리 [A]는 과장된 비유를 통해 인물의 능력을 부각하고 있다.
- ③ [B]와 달리 [A]는 사건의 내막을 설명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④ [A]와 [B] 모두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여 상황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 ⑤ [A]와 [B] 모두 특정 사물을 활용하여 인물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37. ㉠에 드러난 '유소저'의 심리를 나타낸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각골통한(刻骨痛恨) ② 동병상련(同病相憐)
- ③ 수구초심(首丘初心) ④ 풍수지탄(風樹之嘆)
- ⑤ 일희일비(一喜一悲)

[38 ~ 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나'는 삼촌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귀향하면서 과거 삼촌에 얽힌 기억을 떠올리며 애써 잊으려 한다. '나'의 조부는 몰락한 친일 거부였고, '나'의 아버지는 6·25 전쟁 중 공산주의자가 되어 행방이 묘연해졌으며, 서출(庶出)이나 천성이 밝고 착했던 삼촌은 국방군이 되어 가슴에 부상을 입고 제대한다.

마침내 삼촌이 나타났다. 두 팔로 가슴을 잔뜩 싸안은 그는 묵묵히 병원 문을 나섰다. 나는 잠자코 뒤를 따랐다. 허리를 꾸부정하게 구부린 채 그는 걸음마를 하듯 조심조심 걸었다. 한 발자국을 내딛는 데에도 무진 힘들어 보였다. 하지만 그런 상태로 우리는 털털거리는 시외버스를 타야만 했다. 수술만큼이나 길고 조마조마한 귀로였다. 어쩌면 삼촌은 가슴팍을 찢개고 작은 **파편 조각**을 뽑아낸 대신 의사들로 하여금 보다 크고 위험한 폭탄 같은 것을 거기다 숨겨 두게 한 건 아닐까 하고 나는 생각했을 정도였다.

하지만 수술은 실패였다. 무려 다섯 시간에 걸친 집도에도 불구하고 끝내 파편 조각을 찾아내지 못했던 것이다. 삼촌은 간신히 골방으로 돌아와 드러눕고 나서야 내 어머니께 씩어 뺏듯 말했다.

“백죄 몸뚱이만 생으로 난도질해 놔다 아입니꺼. 두 번 다시 할 짓 못 됩디더. 고무다리에 외팔 인생도 썩비린 판국에 그까짓 쇳조가리 하나 들었으마 어떻고 안 들었으마 어떻겠입니꺼. 어차피 죽으마 썩어질 몸뚱이..... 내사 마, 이대로 좋심더. 의사들은 다시 해보자 캡니다만 나는 싫다 아입니꺼. 거죽만 멀쩡하지 난들 성한 사람입니꺼? 불구 인생이기는 피장 파장인기라요.....”

삼촌은 두 번 다시 수술을 받지 않았다. 곳은 날이면 몸의 어딘가가 아프다고 일쭉 끄끄 앓으면서도 병원은 찾지 않았다. 밝고 낙천적이던 원래의 성품은 거의 찾아볼 길이 없었다. 수술 자리가 아문 뒤에도 그는 여전히 골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았는데, 내게 자주 들려주던 그 전쟁 이야기도 더는 꺼내지 않았다.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얼굴을 뒤덮은 그늘도 갈수록 더 짙어지지만 하는 그를 두고 내 어머니는 그것이 모두 삼촌의 가슴팍에 박혀 있는 쇳독(毒) 때문이라며 얼마나 자주 한숨짓곤 했던가.....

(중략)

“자네 아버님 제살랑 5월 중 적당한 날을 택해 모시도록 하소. 가급적이면 중순 이전이 좋겠네.”

돌아오는 차 중에서 그는 불쑥 말했다. 나는 멍하니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때까지도 나는 아버지의 제사를 모시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내 어머니의 즐기찬 희망 때문이었다. 6·25 한 해 전에 영영 행방을 감추어 버린 아버지가 세상 어딘가에 아직도 살아 계시리란 희망을 내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해마다 주인 없는 생일상만을 차려왔던 일을 생각하고 나는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러나 그는 어둠이 얽게 깔리기 시작한 창 밖 거리만을 내다볼 뿐 더 이상 말이 없었다. 버스에서 내리는 길로 그는 곧장 서울역으로 가 버렸다. 내 집으로 모시마고 나는 물론 말했지만 그는 단지 이렇게 대꾸했을 따름이었다.

“도리가 아닌 줄은 알지마는 어찌겠노. 나야 워낙 그런 사람 아닝가? 빈 꺾데기만 남아서 녀마매로 굴러댕긴다 뿐이지, 진짜 모습은 진작에 끝난 거네. 인제사 생각하마, 기왕 한 구덩이

에 묻히지 못한 것만 원통할 따름이재……, 자네 짐사람한테는 날 만났단 얘기도 하지 마소.”

나는 더 이상 그를 잡지 않았고, 그런다고 돌아설 사람도 아니었다. 그날 밤 내내 잠을 설치면서 나는 그가 남긴 말을 곰곰 되씹었다. 적어도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했다. 그는, 삼촌은 내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했던 것이다. …어쩌면 그의 가슴에 남아있는 상흔과도 관계가 있는 건지 모른다고까지 나는 생각했다. 비로소 나는 그를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체대를 하고 돌아온 삼촌의 모습, 늑늑한 골방에 드러누워 누에처럼 보내던 생활, 재수술을 거부하며 그가 내뱉었던 말들, 곳은 날이면 육신의 어딘가가 아프다면서 오밤중에도 곧잘 끄끄 앓던 일, 그리고 또 갈수록 말수가 줄어든 대신 뿌리가 점점 더 깊이 느껴지던 기침 소리 등등…… 그랬다. 옛날과는 생판 모습이 달라져 버린 그 삼촌에게서 나는 문득문득 어딘가로 종적을 감추어 버린 내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곤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는 해도 그의 기이한 행적들을 죄다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아니었다. 귀가 한 해가 가까워 오던 이듬해 초여름에 삼촌은 최초의 범법행위를 저질렀었다. 구닥다리 **엠원 소송**을 몰래 꺼내 들고 사냥을 나갔던 그는 멧돼지 대신에 사람을 쏘았던 것이다. 공판정에 서 있던 삼촌의 모습을 나는 잘 기억해 낼 수 있었다.

표적물을 착각한 것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그는 단호히 대답했었다.

“천만에, 사람인지 짐승인지쯤은 충분히 식별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디.”

“그렇다면 상대의 얼굴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는가?”

“물론입니다. 낯선 얼굴이었습디.”

“낯선 사람을 쏜 이유가 무엇인가?”

“…….”

“그럼 다시 묻겠는데 자기방어가 목적이었는가 아니면, 살해가 목적이었는가?”

“처음엔 산짐승이 움직이고 있거니 생각했습디. 잔뜩 긴장하고 있는데 표적이 불쑥 노출됐습디. 가슴쇠 위에 떠오른 것은 분명 사람의 얼굴이었습디. 그것도 낯선… 갑자기 **살의(殺意)의 충동**이 나를 사로잡았고 그러자 상대가 쓰러졌습디.”

“최초의 일발을 발사한 후 상대가 쓰러진 뒤에도 다시 두 발을 더 발사한 이유는?”

“상대가 픽 쓰러지는 것을 보았을 뿐 나 자신은 방아쇠를 당긴 기억도 또 충성을 들은 기억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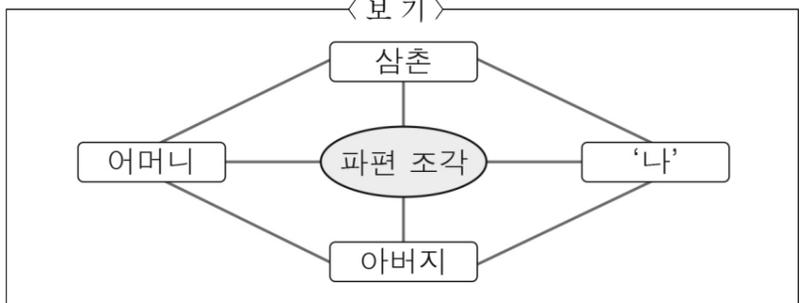
일테면 그것이 삼촌의 기이한 생애의 시작이었던 셈인데, 그 이후의 거듭된 행적에 대해서는 여전히 나로서는 이해할 길이 없었던 것이다. 그는 불법 무기 소지와 살인미수로 6년형을 살았었다. 출감 후 내 어머니는 서둘러 그를 장가들었지만 결혼 두 해 뒤에 그는 다시 재범을 했고, 재출감 1년도 못 되어 삼범을 기록했다.

- 이동하, 「파편」 -

38.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장면을 빈번하게 전환하여 사건의 긴박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② 세밀한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③ 대화를 통해 인물 간 갈등 양상이 심화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 ④ 시간을 역전적으로 구성하여 인물의 과거 행적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중심 사건을 여러 인물들의 시각으로 서술하여 사건을 총체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39. <보기>는 **파편 조각**을 중심으로 인물들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어머니는 삼촌의 갑작스런 성격 변화가 파편 조각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했다.
- ② 어머니는 파편 조각을 통해 행방이 묘연해진 아버지의 비극적인 삶을 떠올린다.
- ③ 삼촌은 어머니에게 파편 조각을 제거하는 수술을 제차 받지 않으려는 의사를 밝힌다.
- ④ '나'는 파편 조각이 삼촌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상처와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⑤ '나'는 파편 조각과 삼촌의 말을 연결하여 아버지 죽음의 정황을 삼촌이 알고 있으리라 추정한다.

40.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읽고 짧은 서평 쓰기 활동을 해 보았다.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이 작품은 작가가 겪은 유년기의 전쟁 체험을 바탕으로 한 전후 소설로, 이념적 갈등보다는 전쟁의 폭력적 상황 속에서 인간이 겪는 고통에 주목하고 있다. 즉, 전쟁이 초래한 비인간화, 인간성 황폐화, 개인에게 남긴 상처, 사회 부적응과 인간 소외, 가치관 혼란의 문제와 이에 대한 극복의 필요성을 부각하고 있다.

서평 쓰기

- ㉠ 삼촌이 자신을 '빈 껍데기'로 표현한 것은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자조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
- ㉡ 삼촌의 '말수가 줄어든' 것은 외부 세계와 소통하지 못한 채 점차 위축되어가는 상처 입은 삶의 모습으로 진단할 수 있다. …………… ㉡
- ㉢ 삼촌의 '기이한 행적'은 전쟁으로 인해 상실된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한 개인적 의지를 실현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 ㉢
- ㉣ 삼촌이 '엠원 소송'을 소지한 것은 전쟁의 상흔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그의 정체된 내면세계를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
- ㉤ 삼촌의 무의식을 지배하는 '살의의 충동'은 폭력적 상황에 내몰린 평범한 인간이 겪은 정신적 고통의 산물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 ㉤

- ① ㉠ ② ㉡ ③ ㉢ ④ ㉣ ⑤ ㉤

[41 ~ 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흙이 풀리는 내음새
강바람은
산짐승의 우는 소릴 불러
다 녹지 않은 얼음장 울먹울멍 떠내려간다.

진종일
나룻가에 서성거리다
행인의 손을 쥐면 따듯하리라.

고향 가차운 주막에 들러
누구와 함께 지난날의 꿈을 이야기하라.
양귀비 꿀여다 놓고
주인집 늙은이는 공연히 눈물지운다.

간간이 켜나비 우는 산기슭에는
아직도 무덤 속에 조상이 잠자고
설레는 바람이 가랑이를 휩쓸어간다.

예제로 떠도는 장꾼들이여!
상고(商賈)하며 오가는 길에
혹여나 보셨나이까.

전나무 우거진 마을
집집마다 누룩을 디디는 소리, 누룩이 뜨는 내음새.....

- 오장환, 「고향 앞에서」 -

(나) 흐르는 것이 물뿐이라
우리가 저와 같아서
강변에 나가 삼을 씻으며
거기 슬픔도 퍼다 버린다
일이 끝나 저물어
스스로 깊어가는 강을 보며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
나는 돌아갈 뿐이다
삽자루에 맡긴 한 생애가
이렇게 저물고, 저물어서
셋강바닥 썩은 물에
달이 뜨는구나
우리가 저와 같아서
흐르는 물에 삼을 씻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다시 어두워 돌아가야 한다

- 정희성, 「저문 강에 삼을 씻고」 -

41.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부각시키고 있다.
- ② 수미상관의 방법으로 시상 전개에 통일성을 부여하고 있다.
- ③ 과거와 현재를 교차시켜 화자의 태도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 ④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여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시적 공간을 대비하여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를 드러내고 있다.

42. <보기>는 (가)에 대한 수업 장면이다. [A] ~ [E]에 대해 학생이 발표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선생님 : 시에서는 감각적 심상이 많이 활용됩니다. 「고향 앞에서」에 사용된 다양한 심상들이 작품 속에서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 발표해 보도록 합시다.

흙이 풀리는 내음새 [A]
 다 녹지 않은 얼음장 울먹울멍 떠내려간다, [B]
 행인의 손을 쥐며 따듯하리라, [C]
 간간이 켜나비 우는 산기슭에는 [D]
 집집마다 누룩을 디디는 소리, 누룩이 뜨는 내음새..... [E]

- ① [A]에서는 후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봄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 ② [B]에서는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현실과 대비된 과거의 삶을 회상하는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 ③ [C]에서는 촉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고향의 정취를 느끼고 싶어 하는 화자의 심리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 ④ [D]에서는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고향의 처량하고 쓸쓸한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 ⑤ [E]에서는 청각과 후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화자의 의식에 잠재되어 있는 근원적 고향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43.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에서 시인은 비판적 성찰을 통해 산업화 과정에서의 모순과 부조리를 드러낸다. 화자는 하루의 노동을 마감하고, 삶의 피로움과 슬픔을 털어내는 일종의 정화 의식을 치르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그는 희망 없이 반복되는 삶에 무력감을 느끼며 산업화된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 ① ‘강변에 나가 삼을 씻으며’, ‘슬픔’을 ‘퍼다 버리’는 것은 삶의 슬픔을 털어 내려는 정화 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② ‘스스로 깊어 가는 강’을 바라보는 것은 화자가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삶을 자책하는 것으로 볼 수 있군.
- ③ ‘쭈그려 앉아 담배나 피우고’ 있는 것은 부정적인 현실에 대한 무력감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군.
- ④ ‘돌아갈 뿐이다’, ‘돌아가야 한다’에는 희망 없는 삶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화자의 인식이 내재되어 있군.
- ⑤ ‘셋강바닥 썩은 물’은 산업화된 현실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군.

[44 ~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작년 봄에 이웃에서 파초 한 그루를 사 왔다. 얻어 온 것도 두어 뿌리 있었지만 모두 어미 뿌리에서 새로 찢어 낸 것들로 앉아서나 들여다볼 만한 키들이요 ‘요게 언제 자라서 키 큰 내가 들어선 만치 그들이 지나!’ 생각할 때는 적이 한심하였다.

그래 지나다닐 때마다 눈을 빼앗기던 이웃집 큰 파초를 그예 사 오고야 만 것이다. 위낙 크기도 했지만 파초는 소 선지가 제일 좋은 거름이란 말을 듣고 선지는 물론이고 생선 씻은 물, 깻묵물 같은 것을 툼툼이 주었더니 작년 당년으로 성북동에선 제일 큰 파초가 되었고 올 봄에는 새끼를 다섯이나 뜯어내었다. 그런 것이 올 여름에도 그냥 그 기운으로 장차게 자라 지금은 아마 제일 높은 가지는 열두 자도 훨씬 더 넘을 만치 지붕과 함께 솟아서 퍼런 공중에 드리웠다.

지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큰 파초는 처음 봤군!” 하고 우러러 보는 것이다. 나는 그 밑에 의자를 놓고 가끔 남국의 정조(情調)를 명상한다.

파초는 언제 보아도 좋은 화초다. 폭염 아래서도 그의 푸르고 싱그러운 그들은, 눈을 씻어줌이 물보다 더 서늘한 것이며 비 오는 날 다른 화초들은 입을 다문 듯 우울할 때 파초만은 은은히 빗방울을 통기어 주렴(珠簾) 안에 누웠으되 듣는 이의 마음에까지 비를 뿌리고도 남는다. 가슴에 비가 뿌리되 옷은 젖지 않는 그 서늘함, 파초를 가꾸는 이 비를 기다림이 여기 있을 것이다.

오늘 앞집 사람이 일찍 찾아와 보자 하였다. 나가니 “거 저 파초 파십시오.” 한다.

“팔다니요?” “저거 이제 팔아버리셔야 합니다. 저렇게 꽃이 나온 건 다 큰 표구요, 내년엔 영락없이 죽습니다. 그건 제가 많이 당해 본 걸입쇼.”

한다. “죽을 때 죽더라도 보는 날까진 봐야지 않소?” “그까짓 인제 뒤 달 더 보자구 그냥 두세요? 지금 팔면 파초가 세가 나 저렇게 큰 것 오 원도 더 받습니다……. 누가 마침 큰 걸 하나 구한다쇼. 그까짓 슬쩍 팔아버리시죠.”

생각하면 고마운 일이다. 이왕 죽을 것을 가지고 돈이라도 한 오 원 만들어 쓰라는 말이다. 그러나 나는 마음이 얼른 풀리지 않는다.

“그까짓 거 팔아 뭘 하우.” “아 오 원쯤 받으셔서 미단이에 비 뿌리지 않게 챙이나 해 다시죠.” 그는 내가 서재를 짓고 챙을 해 달지 않는다고 자기 일처럼 성화하던 사람이다. 나는 챙을 하면 파초에 비 맞는 소리가 안 들린다고 몇 번 설명하였으나 그는 종시 객쩍은 소리로밖에 안 듣는 모양이었다. 그는 오늘 오후에도 다시 한 번 와서, “거 지금 좋은 작자가 있는덴쇼…….”

하고 입맛을 다시었다. 정말 파초가 꽃을 피우면 열대지방과 달라 한 번 말랐다가는 다시 소생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 마당에서, 아니 내 방 미단이 앞에서 나와 두 여름을 낫고 이제 그 발육이 절정에 올라 꽃이 핀 것이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그가 한 번 꽃을 피웠으니 죽은들 어떠리! 하물며 한마당 수북하게 새순이 솟아오름에랴!

소를 길러 일을 시키고 늙으면 팔고 사간 사람이 잡으면 그

고기를 사다 먹고 하는 우리의 습관이라 이제 죽을 운명의 파초니 오 원이라도 받고 팔아준다는 사람이 그 혼자 드러나게 모진 사람은 아니다. 그러나 무심코 바람에 너울거리는 파초를 보고 그 눈으로 그 사람의 눈을 볼 때 나는 내 눈이 뜨거웠다.

“어서 가슈. 그리구 올가을엔 움이나 작년보다 더 깊숙하게 파주슈.”

“참 딱하십니다.”

그는 입맛을 다시며 돌아갔다.

- 이태준, 「파초」 -

4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거 회상을 통해 현재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다.
- ② 대화를 삽입하여 대상이 지닌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③ 단정적인 표현을 통해 부정적 현실의 극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④ 대상을 대하는 인물의 태도를 대비하여 글쓴이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대상에 대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여 글쓴이의 객관적인 감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45.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수필의 소재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상적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평범한 눈으로만 바라본다면 그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없다. 이 글에서 글쓴이는 일상적인 소재를 자신만의 관점으로 바라봄으로써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① 파초의 크기에 경탄하며 ‘지나는 사람’에게서 파초를 평범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려는 태도를 엿볼 수 있군.
- ② 툼툼이 좋은 거름을 주는 등 파초를 기르는 경험이 제시된 것으로 보아, 파초는 ‘나’의 일상과 관련된 소재임을 알 수 있군.
- ③ 파초 앞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를 듣고 마음에 비를 뿌린다고 표현한 것은, ‘나’가 파초를 자신만의 관점으로 보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군.
- ④ 파초를 팔라는 ‘앞집 사람’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은 것은 ‘나’가 파초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군.
- ⑤ 자신의 눈이 뜨거워졌다는 말을 통해 ‘나’가 하고 싶은 말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이겠군.

※ 확인사항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2014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1교시 국어 영역 •

[B 형]

1	5	2	2	3	2	4	3	5	3
6	1	7	5	8	5	9	1	10	5
11	2	12	3	13	4	14	2	15	5
16	5	17	4	18	1	19	3	20	4
21	2	22	2	23	3	24	2	25	3
26	1	27	2	28	5	29	2	30	1
31	3	32	4	33	3	34	4	35	5
36	3	37	1	38	4	39	2	40	3
41	1	42	2	43	2	44	4	45	1

[화 법]

1. [출제의도] 협상의 특성 파악하기

이 협상에서 청소년 단체나 여행사가 제안한 것들은 각자 자신이 생각하는 타협안을 도출하기 위한 제안일 뿐, 상대가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내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① 처음에는 숙소 변경을 쟁점으로 협상이 시작되었으나 중간에 첫 날 저녁 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쟁점이 추가되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청소년 단체 대표가 협상 전에 조사해 보니 숙소가 견학 장소에서 너무 떨어져 있다고 말한 부분과 “저희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그곳은 이번 리더십 캠프의 성격과 맞지 않아서요.”라고 말한 부분 등을 통해 사전 준비를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 견학 생각을 제안하며 숙소 변경을 설득하는 부분이나 첫 날 저녁 프로그램을 1부와 2부로 나누어 부담하는 부분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숙소에 대한 상반된 의견 때문에 갈등 상황이 발생하여 협상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출제의도] 협상 당사자들의 협상 전략 파악하기

청소년 단체 대표(A)가 숙소를 변경하자고 여행사 직원(B)을 설득하면서, 견학지의 입장료와 버스 유류비 등을 빼면 비용이 절감되어 숙소를 옮길 수 있지 않겠냐고 제안하는 부분을 통해 A가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타협을 유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① 청소년 단체 대표(A)가 질문을 하는 부분이 여러 차례 나오지만 이는 상대의 의견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며 타협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③ 청소년 단체 대표(A)가 갈등을 회피하며 기존 방안을 고수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조정이 어려우면 다른 여행을 알아볼 수밖에 없다고 한 것은 협상 결렬을 암시함으로써 비용 인상은 불가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다. 갈등을 회피하는 경우는 “더 이상 그 문제 꺼내지 말자.”라거나, “그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어물쩍 넘어가는 것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④ 여행사 직원(B)이 상대의 약점을 파악하여 공격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았다. ⑤ 여행사 직원(B)이 청소년 단체 대표(A)와의 관계를 강조하며 감정에 호소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았다.

3. [출제의도] 협상 절차에 따른 협상 내용 이해하기

㉠에서 청소년 단체 대표가 상품 가격을 낮추는 것을 조건으로 제시한 바가 없다. 청소년 단체 대표는 ○○ 견학지를 생략함으로써 동일한 상품 가격 내에

서 숙소를 변경하자는 입장을 표명했다.

① 여행사 직원의 “그곳은 저희 여행사 직영 숙소라서 저희도 좋지만, 고객 입장에서 가장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고, 단체 행사를 위한 넓은 공간도 있습니다.”라는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여행사 직원의 “정 그러시면 비용을 조금만 더 들이시는 게 어떨까요?”라는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청소년 단체 대표의 “음, 그러면 프로그램을 1부와 2부로 나누어 1부만 저희가 진행하면 어떨까요?”라는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청소년 단체 대표의 “단, 그 외에 다른 여건이 기존 숙소보다 나빠지면 곤란합니다.”라는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 [A형 4번과 동일]

5. [A형 5번과 동일]

[작 문]

6. [출제의도] 자료 활용하여 개요 수정, 보완하기

(가)에서는 청소년참여활동의 의의를 제시하고, 청소년참여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청소년들의 실제 참여율은 낮은 편이라는 현황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 선입견으로 인한 부모의 반대와 입시에 대한 부담 등을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 청소년참여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는 내용은 이끌어낼 수 없으므로 ㉠을 ‘청소년참여활동에 대한 낮은 만족도’로 고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나)-2를 보면 청소년참여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 참여 방법과 참여활동의 내용을 모른다는 응답이 있다. 그런데 개요에서는 ‘청소년참여활동의 참여방법에 대한 안내 미흡’으로 제시되어 있어 (나)-2의 내용을 포괄하지 못하므로 이를 ‘청소년참여활동의 참여 방법과 내용에 대한 안내 미흡’으로 고치는 것은 적절하다. ③ ㉡에서는 인식의 주체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데 (가)를 보면 부모가 청소년참여활동에 대한 선입견으로 참여를 반대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을 ‘청소년참여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부정적 인식’으로 보완하는 것은 적절하다. ④ 개요를 보면 ‘II-2-라’에 대한 개선 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나)-1을 보면 청소년참여활동에 참여하는 목적 중 “상급학교 진학이나 학업에 도움을 받기 위해”라는 응답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개선 방안이 ‘진학 및 진로와의 연계’를 통한 참여 시간 확보’를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다. ⑤ ㉢은 ‘II-2-다’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다. (다)를 보면 청소년참여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충족하는 청소년참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개선 방안이 ‘청소년의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으로 고치는 것은 적절하다.

7. [출제의도] 조건에 따라 쓴 글의 적절성 파악하기

학부모 연수를 통해 홍보를 실시하면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은 ‘II-3-나’에 해당하는 내용이며, 청소년 정책 연구원의 의견을 인용하여 대중매체보다 연수가 더 효과적임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학부모 연수를 활성화하면 인식이 개선되어 자녀의 참여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은 개선 방안의 기대 효과로 볼 수 있다.

① 교육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전문가의 견해는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개선 방안의 기대 효과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② 청소년참여활동 참여에 따른 기대 효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개선

방안의 기대 효과가 아니며 ‘II-3-나’에 해당하는 내용도 아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견해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③ 홍보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은 ‘II-3-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으나, 전문가의 견해를 언급하고 있지 않고 홍보에 따른 기대 효과도 나타나 있지 않다. ④ 청소년참여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는 내용은 ‘II-3-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으며 부모의 부정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전환되어 청소년참여활동이 활성화된다는 내용은 개선 방안의 기대 효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의 견해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8. [출제의도] 작문 계획의 반영 여부 파악하기

답사 보고서에는 동구릉에 대해 사전에 조사한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① 정기 답사를 통해 조선 왕릉의 특성을 알아보기로 했다는 부분에서 답사의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 ② 답사 보고서의 마지막 문단의 “조선 왕릉은 대도시 주변의 생태 환경을 위해서도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하니, 조선 왕릉은 먼 과거의 유산만이 아닌 현재에도 살아 숨 쉬는 우리의 삶의 공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부분에서 답사 대상의 가치를 언급하고 있다. ③ 가장 먼저 건원릉에 들르고 이후 현릉, 목릉을 차례로 둘러보는 부분에서 답사 이동 경로가 드러난다. ④ “그 말을 들으니 그의 인간적인 면모가 느껴졌다.”라는 부분을 통해 알게 된 내용에 대한 느낌을 덧붙였다.

9. [A형 9번과 동일]

10. [A형 10번과 동일]

[문 법]

11. [출제의도] 표준 발음 이해하기

표준 발음법 제29항 [붙임 1]에 따르면 ‘ㄹ’ 받침 뒤에 첨가되는 ‘ㄴ’음은 [ㄹ]로 발음해야 하므로, ‘물약’의 표준 발음은 [물략]이다.

① ‘떡물’은 표준 발음법 제18항에 따라 [명물]로 발음해야 한다. ③ ‘한 입’은 두 단어를 이어서 한 마디로 발음하므로, 표준 발음법 제29항 [붙임 2]에 따라 [한닙]으로 발음해야 한다. ④ ‘집일’의 발음은 먼저 ‘ㄴ’음이 첨가되고 비음화가 일어나므로, 표준 발음법 제29항에 따라 [집닐]로, 다시 제18항에 따라 [집닐]로 발음해야 한다. ⑤ ‘색연필’의 발음 역시 먼저 ‘ㄴ’음이 첨가되고 비음화가 일어나므로, 표준 발음법 제29항에 따라 [색년필]로, 다시 제18항에 따라 [생년필]로 발음해야 한다.

12. [출제의도] 띄어쓰기 이해하기

(다)에서 ‘뽀’ 앞에 있는 ‘그것’은 대명사로서 체언에 해당한다. 선생님의 설명에 의하면 ‘뽀’ 앞에 체언이 올 경우 ‘뽀’는 조사로 사용된 것이어서 붙여 쓴다고 했으므로 ‘그것’과 ‘뽀’를 띄어 쓴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할’은 용언의 관형사형이므로 ‘만큼’은 의존명사로 사용된 것이어서 띄어 써야 한다. ② ‘나’는 대명사로서 체언에 해당하므로 ‘대로’는 조사로 사용된 것이어서 붙여 써야 한다. ④ ‘못해’는 ‘정도가 극에 달한 나머지’의 의미를 가진 형용사로, 하나의 단어로 사용된 것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⑤ ‘못하구나’는 ‘비교 대상에 미치지 아니함’의 의미를 가진 형용사로, 하나의 단어로 사용된 것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13. [출제의도] 정확한 문장으로 표현하기

‘주호는 책을 나보다 더 좋아한다.’에서도 비교 대상은 명확하지 않다. ‘나’와 ‘책’이 비교 대상이라면 “주호는 나를 좋아하는 것보다 책을 더 좋아한다.”라고 고쳐야 하고, ‘주호가 책을 좋아하는 것’과 ‘내가 책을 좋아하는 것’이 비교 대상이라면 “주호는 내가 책을 좋아하는 것보다 더 책을 좋아한다.”라고 고쳐야 의미의 중의성을 해소할 수 있다.

- ① ‘부르다’의 피동형은 접사 ‘-리-’를 사용한 ‘불리다’이므로 ㉠으로 고친 것은 적절하다. ② 동작의 주체가 ‘손님’이고 화자가 명령하는 상황이므로 해요체의 종결 어미 ‘-세요’를 사용한 ㉡으로 고친 것은 적절하다. ③ ‘설레다’의 명사형은 명사형 어미 ‘-ㄴ’이 결합한 ‘설렘’이므로 ㉢으로 고친 것은 적절하다. ⑤ ‘제품’은 높임의 대상이 아니어서 ‘-시-’를 쓸 수 없으므로 ㉤으로 고친 것은 적절하다.

14. [A형 14번과 동일]

15. [A형 15번과 동일]

16. [출제의도] 중세 국어의 특징 파악하기

‘미드니잇가’에서 어간 ‘-미-’의 받침 ‘ㄷ’을 어간의 종성과 어미 ‘-으니잇가’의 초성으로 겹쳐 표기했다면 ‘미드니잇가’로 표기해야 하므로, ⑤는 적절하지 않다.

- ① ㉠에는 현대국어에서 쓰이지 않는 자음 ‘ㄷ’과 모음 ‘·’가 쓰였다. ② ‘구드시리이다’의 ‘-이-’는 상대높임 선어말어미로서 듣는 이를 높이는 표현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이는 적절하다. ③ ‘하’는 대상을 직접 호칭하여 높이는 조사로서 여기에서는 ‘님금’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④ 중세국어에서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는 현대국어와 달리 ‘에, 이, 예’의 세 가지 형태가 있었다. 이때, ‘에’는 양성모음 아래에서, ‘에’는 음성모음 아래에서, ‘예’는 ‘ㅣ’모음 아래에서 사용되었는데, ㉤의 ‘낙수’에 ‘예’가 붙은 것에 대해, ‘낙수’는 당시 [낙슈]와 같이 발음되어 뒤에 부사격 조사로 ‘예’가 사용된 것으로 추측된다.

[독서]

[17~18] <출전> 양우수, 「독서법」

17. [출제의도] 세부 정보 파악하기

글쓴이의 주장에 대해 판단하며 읽어야 한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 ① 2문단에서 ‘한 번 보고 또 거듭 보아서 하나하나 기억할 수 있어야 바야흐로 옳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② 3문단에서 ‘책을 읽었는데 도리를 깨닫지 못하면 ~ 놓아버리지 않는 것이 그래도 낫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③ 1문단에서 ‘세밀하게 이해해 나가야 한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⑤ 4문단 ‘젊을 때는 ~ 궁구하지 않는 것이 없어야 한다. 나이가 들 것 같으면 ~ 중요한 것을 선택하여 힘을 써야 한다.’와 5문단 ‘정신이 우수한 사람은 ~ 함양해야 한다.’에서 자신의 역량에 따라 독서량을 조절해야 함을 알 수 있다.

18. [출제의도] 독서 태도 파악하기

<보기>의 민수는 많은 양의 책을 읽는 것만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데 글쓴이는 4문단에서 “젊을 때는 정력이 남으니 모름지기 읽지 않는 책이 없어야 하고 그 뜻을 궁구하지 않는 것이 없어야 한다.”라고 했다. 그리고 1~2문단에서 도리(道理)를 얻기까지 세밀하게, 기억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서 읽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글쓴이는 성급하게 독서량을 채우는 것보다 글에 담긴 의미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할 수 있다.

- ② 순서를 정해 읽기, ③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선정해서 읽기, ④ 실생활에 적용하며 읽기, ⑤ 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기록하며 읽기 등은 글쓴이가 강조하는 독서 태도와 관련이 없다.

[인문]

[19~21] <출전> 김기봉, 「역사란 무엇인가」를 넘어서

19. [출제의도] 내용에 대해 사실적으로 이해하기

드로이젠은 ‘인륜적 세계’를 자연 세계가 아닌 인간의 의지와 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드로이젠이 인륜적 세계와 자연 세계를 동일한 개념으로 보았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① 랑케는 사료에 대해 철저한 고증과 확인을 거쳐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② 랑케는 과거 사건들은 고유한 가치를 지녔으며 변함없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④ 드로이젠은 사료 고증만으로는 과거에 대한 부분적이고 불확실한 설명을 찾아낼 수 있을 뿐이라며 부정적으로 보았다. ⑤ 드로이젠은 ‘인륜적 세계’라는 범주로서의 역사가 역사가의 역사인식을 선험적으로 규정한다고 보았다.

20.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A]에서 랑케는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해야 하며, 목적을 앞세워 역사를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④에서 ‘과거에 일시 편입시킨 영토에 대한 지배권 회복을 주장하기 위해’는 목적을 앞세운 것이고, ‘러일전쟁 전후에 체결된 국제 조약 자료를 선별’한 것은 역사적 사실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사선택한 것이다. 그러므로 ④는 [A]의 랑케가 비판할 수 있는 역사 연구 사례이다.

- ① ‘주변 국가의 어휘들을 어휘군별로 분류’한 것은 사료를 고증하고 확인하는 것을 중시한 랑케의 관점을 반영한 역사 연구 사례이다. ② ‘관리들의 장신구와 생활 용품 등을 수집’한 것은 사료를 고증하고 확인하는 것을 중시한 랑케의 관점을 반영한 역사 연구 사례이다. ③ ‘영토 경계를 나타내는 비석의 문구를 채록’한 것은 사료를 고증하고 확인하는 것을 중시한 랑케의 관점을 반영한 역사 연구 사례이다. ⑤ ‘임진왜란 전후의 토지제도 변천에 관련된 사료를 정리’한 것은 사료를 고증하고 확인하는 것을 중시한 랑케의 관점을 반영한 역사 연구 사례이다.

21. [출제의도] 서로 다른 관점에 대해 비교하기

<보기>의 ‘신사학과’는 역사가의 역사인식이 자신의 인식 관심과 자기 시대의 관점에 따라 변화한다고 보았으므로, 이들의 역사인식은 상대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드로이젠’은 선험적으로 주어진 인륜적 세계가 역사가의 역사인식과 해석을 결정한다고 보았으므로 그의 역사인식은 상대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 ① ‘드로이젠’과 ‘신사학과’ 모두 역사가의 주관적 역사인식을 중요하게 여긴다. ③ ‘신사학과’는 역사적 사실을 변화 그 자체라고 보았으며, 역사인식의 범주를 형성하는 것이 있다고 보지도 않았다. ④ 인륜적 세계를 상정하여 역사가의 역사인식을 설명하는 것은 ‘드로이젠’이다. ⑤ ‘드로이젠’과 ‘신사학과’가 역사적 사실의 존재를 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없다.

[사회]

22. [A형 16번과 동일]

23. [A형 17번과 동일]

24. [A형 18번과 동일]

25. [A형 19번과 동일]

[예술]

[26~27] <출전> 이호승, 「한국 줄타기의 역사와 연행양상」

26. [출제의도] 세부 정보 파악하기

3~4문단에서 줄타기는 ‘기예’와 ‘재담’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긴장과 이완의 반복 구조를 지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② 3문단에서 줄고사는 참가자 모두의 행복을 기원하는 단계임을 알 수 있다. ③ 4문단에서 줄타기 전체에 걸친 긴장과 이완의 반복 구조는 줄타기의 각 부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알 수 있다. ④ 5문단에서 줄타기의 긴장과 이완의 반복되는 형태가 자연의 섭리와 삶의 굴곡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3문단에서 ‘놀이’ 과정에서는 관중의 긴장이 이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7. [출제의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여 감상하기

3문단에서 재담과 노래에서는 관중의 긴장감이 이완된다고 했다. ㉡은 줄광대가 보인 기예에 대해 배우씨가 비아냥거리는 말로 관중의 재미를 유발하여 긴장감을 이완시킨다고 볼 수 있다.

- ① ㉠은 배우씨가 줄광대의 기예를 보고 칭찬 격려하는 재담으로서 줄광대와 배우씨는 이와 같은 재담을 통해 상호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소통한다. 보조 출연자로서 배우씨가 줄광대와 주고받는 대화는 줄광대의 극중 상황을 촉진하는 한편, 줄광대의 기예를 조절하며, 줄광대의 기예와 재담, 노래를 더욱 부각한다. 1~2문단을 통해 줄광대와 어릿광대가 함께 어울린다는 내용을 알 수 있다. ③ 3문단을 통해 줄광대의 기예가 관중들의 긴장감을 고조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은 줄광대가 줄 위에서 고난도의 재주를 부리는 부분이므로 이에 해당한다. ④ ㉣은 줄광대가 관중들에게 말을 건네는 부분으로, 2문단을 통해 극적 공간을 수직적으로 확대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은 노래 부분으로, 3문단을 통해 노래가 긴장감을 이완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학]

[28~30] <출전> 강해목 외 옮김, 「생명-생물의 과학」

28. [출제의도] 글의 핵심 내용 이해하기

이 글은 신생아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갈색 지방 세포에서 열을 생성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표제로는 ‘신생아의 체온 유지 방법’이 적절하며, 부제로는 ‘갈색 지방 세포의 기능을 중심으로’가 적절하다.

29.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 이해하기

<보기>는 갈색 지방 세포의 미토콘드리아 일부로 ㉠는 막간 공간, ㉡는 내막, ㉢는 기질이다. 3문단의 ‘막관통 단백질들은 자신을 통로로 하여 기질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수소 이온을 막간 공간으로 이동시킨다.’를 통해 수소 이온은 전자가 막관통 단백질에 전

달됨으로써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기질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① 3문단에서 '지방산이 미토콘드리아의 외막과 내막을 거쳐 기질로 운반'되면 '이후 지방산의 분해로 발생한 전자'가 '막관통 단백질로 전달'된다고 제시되어 있다. 또한 "이로 인해 막관통 단백질들은 자신을 통로로 하여 기질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수소 이온을 막간 공간으로 이동시킨다."라고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4문단에서는 수소 이온이 막간 공간으로 이동하면 막간 공간과 기질의 '수소 이온의 농도 차이로 인해 양성자 이동력이라 부르는 에너지가 형성'된다고 했으며, 5문단에서는 수소 이온이 '썩모제닌이라는 단백질 통로를 거쳐 이동'한다고 했으므로 이와 같은 내용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5문단의 '수소 이온은 양성자 이동력에 의해 가속도가 붙어서'라는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4문단에서 막간 공간의 수소 이온은 양성자 이동력에 의해 "농도가 낮은 기질로 되돌아가게 된다."라고 제시되어 있다. 또한 5문단에서 '갈색 지방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만 존재하는 썩모제닌이라는 단백질 통로를 거쳐 이동'한다는 부분과, 3문단의 "막관통 단백질들은 자신을 통로로 하여 기질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수소 이온(H⁺)은 막간 공간으로 이동시킨다."라는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0. [출제의도] 반응의 적절성 파악하기

5문단의 '일반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수소 이온이 기질로 되돌아갈 때 ATP 합성효소를 통과하게 되는데, 이때 양성자 이동력을 ATP 합성에 사용한다.'를 통해 일반 세포의 경우 양성자 이동력을 ATP 합성에 사용함을 알 수 있다. 또한 5문단의 '갈색 지방 세포의 경우 썩모제닌은 양성자 이동력을 ATP 합성에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수소 이온은 양성자 이동력에 의해 가속도가 붙어서 기질의 수분 등과 부딪히게 되고 그 결과 열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를 통해 갈색 지방 세포는 양성자 이동력을 열 생성에 사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고전시가]

[31~33] <출전> 윤선도,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

31.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 이해하기

이 작품은 사계절에 따른 흥취와 감흥을 노래하고 있다. <춘 7>의 '갈제는 다편이오 올제는 들이로다'와 <추 9>의 '늑일도 이리하고 모되도 이리하차'에서 대구의 방식으로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통사 구조가 유사한 구절을 대응시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① '무스것고'와 '그러넵고', '석식흔고'와 같이 의문형 어구를 사용하고 있지만 '무스것고'는 문답으로, '그러넵고'와 '석식흔고'는 감탄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심리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 자연의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있지만 대상을 점층적으로 강조하지는 않았다. ④ 색채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⑤ 상층 이미지와 하강 이미지의 반복은 드러나 있지 않다.

32. [출제의도] 시어를 중심으로 시적 상황 이해하기

㉞에서 '도선'은 헛되고 덧없는 세상인 '부세'와 대조되는 공간이다. 화자는 이 공간에서 세상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자연을 즐기고 있다. 따라서 '도선'이 화자가 세속적 삶에 대한 미련을 반영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㉞에서는 '들'을 배에 실어 함께 돌아오는 화자의 자연친화적인 삶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들'이 자연에 동화된 삶을 드러낸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② ㉞에서 '낫대'는 장마가 끝나고 고기잡이를 하러 가는 어부의 흥취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낫대'가 자연에서 느끼는 흥만을 고조시킨다는 진술은 적절

하다. ③ ㉞에서 화자는 '연강텃장'을 '그러넵고'라고 하며 자연이 그림처럼 아름답다고 예찬하고 있다. 따라서 '연강텃장'이 화자를 둘러싼 자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낸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⑤ ㉞은 '늑일'과 '모되'에 대한 화자의 기대감을 표현하고 있다. 현재의 화자는 추위를 잊을 만큼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고 있다. 따라서 '늑일'과 '모되'도 현재의 삶이 지속되기를 바란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33. [출제의도] 작품 비교하여 감상하기

[A]에서 '세상'과 '던훤'은 부정적인 현실을 의미하고 '구름'과 '과량성'은 이러한 부정적 현실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비해 <보기>에서의 '명월'은 화자가 벗이 되고 싶은 대상이다.

① <보기>는 자연에서의 삶에 만족하는 화자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 현실 개혁에 대한 의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② <보기>에는 현실에 순응하는 화자의 자세가 나타나 있고 [A]에는 자연을 즐기는 현재의 만족감이 표현되어 있다. ④ [A]에서 '몸'은 화자가 머물고 있는 자연 공간을, '세상'은 화자가 떠난 속세를 의미하므로 두 공간은 대비되어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그러나 <보기>에서 '강호'와 '풍월 강산'은 모두 자연 공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두 공간은 대비되는 공간으로 볼 수 없다. ⑤ <보기>에서는 '입과 배가 누가 되어 어즈버 잊었다'를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A]에서는 이러한 태도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A]와 <보기> 모두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고전소설]

[34~37] <출전> 작자미상, 「정음선전」

34.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 파악하기

정공 부자는 떠나는 이유를 묻는 유승상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출발하였다. 그러므로 유승상이 정공 부자가 떠날 당시 그들이 떠나는 이유를 알지 못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① '초왕'은 정시랑의 아버지로서 정시랑이 유소저의 부정을 의심하고 바빠 가기를 청할 때, 정시랑과 함께 유소저의 집에서 바로 떠났다. 초왕이 정시랑을 꾸짖었는지는 알 수 없다. ② '노씨'는 유승상을 부추긴 것이 아니라 노태에게 사주하여 유소저의 혼사를 방해했다. ③ '유소저'는 정시랑이 떠난 일에 대해 별다른 변명을 하지 않고 눈물만 흘린다. 따라서 유승상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항변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⑤ '정시랑'은 유소저의 안색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을 하였으나 유소저와 노씨 사이의 갈등이 있다는 것을 알지는 못하였다.

35. [출제의도] 서사 구조 파악하기

<보기>는 노씨가 유소저에게 가한 두 번의 위해를 구조화한 것이다. 1차 위해는 음식에 독약을 넣어 유소저를 죽이고자 한 것이며, 2차 위해는 노씨가 노태를 시켜 유소저의 정절을 의심받게 하여 유소저에게 해를 입히고자 한 것이다. 노씨가 유소저에게 가한 1차 위해가 실행되는 과정에서는 '난데없는 바람'이라는 비현실적인 요소가 유소저의 문제 해결을 위한 단서가 되고 있으나, 2차 위해가 실행되는 과정에서는 비현실적인 요소가 나타나지 않는다.

① 1차 위해에서 노씨는 음식에 직접 독약을 넣으므로 자신을 주체로 설정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② 노씨가 계획한 1차 위해의 실행 과정에서 유모는 독약을 든 음식을 유소저가 먹지 않도록 도와준다. 따라서 유모는 유소저가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조력자로서 기능한다고 할 수 있다. ③ 노태는 노씨의 사주를 받고 간부(姦夫)로 위장하여 2차 위해를 실행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④ 노씨는 음식에 독약을 넣어 유소저를 죽이고자 한 1차 위해가 실패로 돌아가자 노태를 사주하여 유소저에게 해를 입히고자 한다. 그러므로 1차 위해의 결과가 2차 위해에서 다른 방법을 찾는 내적 동기를 유발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36. [출제의도] 서술상 특징 파악하기

[A]는 사건의 전말을 서술자가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부분이고, [B]는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하여 내용이 전개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B]와 달리 [A]가 사건의 내막을 설명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① [B]에서 유승상은 지난 밤 정량이 돌연히 돌아간 연유를 유소저에게 재차 물음에도 불구하고 유소저가 대답하지 않음에, 말 못할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 짐작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유승상과 유소저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A]에 '갹참' 같은 비유적 표현은 있으나 이를 통하여 인물의 능력을 부각하고 있지는 않다. ④ [A]에는 '가련하다'라는 부분에서 서술자의 개입이 드러나지만, [B]에는 서술자의 개입이 드러나지 않는다. ⑤ [B]에는 특정 사물을 활용하여 인물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은 없다.

37. [출제의도] 상황에 맞는 한자성어 파악하기

㉠은 유소저가 정절을 의심 받은 것에 대하여 결백함을 알리기 위해 혈서를 쓰니 눈물이 변하여 피가 되었다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드러난 유소저의 심리를 표현한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뼈에 사무치게 맺힌 원한이라는 뜻의 '각골통한(刻骨痛恨)'이다.

② '동병상련(同病相憐)'은 같은 병을 앓는 환자끼리 서로 가엾게 여긴다는 뜻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동정하고 도움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③ '수구초심(首丘初心)'은 여우가 죽을 때 머리를 자기가 살던 굴 쪽으로 둔다는 뜻으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일컫는 말이다. ④ '풍수지탄(風樹之嘆)'은 효도하고자 할 때 이미 부모를 여의고 효행을 다하지 못하는 자식의 슬픔을 이르는 말이다. ⑤ '일희일비(一喜一悲)'는 기쁜 일과 슬픈 일이 번갈아 일어남, 혹은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슬픔을 이르는 말이다.

[현대소설]

[38~40] <출전> 이동하, 「파편」

38. [출제의도] 서술상 특징 파악하기

이 작품은 작품 속 인물인 '나'가 서술자가 되어 '나'가 어렸을 때의 삼촌 모습과 '나'가 성인이 된 후 만난 삼촌의 일을 회상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은 시간을 역전적으로 구성하여 삼촌의 과거 행적을 서술하고 있다.

① 이 작품은 '나'가 삼촌의 과거 행적을 회상의 형식으로 서술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건 장면을 빈번하게 전환하여 서술하고 있지는 않다. ② 인물의 외양을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다. ③ 공판정에서의 대화 장면은 삼촌과 상대와의 갈등 양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건 당시 삼촌의 내면세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⑤ 삼촌의 행적을 '나'의 시각으로 서술하고 있다.

39. [출제의도] 소재를 중심으로 인물들의 관계 이해하기

어머니가 아버지의 삶과 관련지어 생각하는 장면은 나타나지 않는다.

① 어머니는 삼촌의 말수가 줄어들고 얼굴에 그늘이 짙어지는 것을 파편 조각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③ 삼촌은 파편 조각 제거 수술이 실패한 다음, 두 번

다시 수술을 받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다. ④ 삼촌은 제대한 후 고향에서 틀어박혀 지내며 파편 조각으로 인해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워하면서 동시에 성격도 폐쇄적으로 변하는데, '나'는 이러한 삼촌의 모습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를 통해 '나'는 파편 조각이 삼촌에게 육체적 상처를 넘어서 내면에 상처를 입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아버지 제삿날을 알고 있다는 삼촌의 말을 통해 '나'는 삼촌이 아버지의 죽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것이 삼촌의 상흔, 즉 파편 조각과 관계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나'는 삼촌의 말과 파편 조각을 결합하여 삼촌이 아버지 죽음의 정황을 알고 있으리라고 추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0. [출제의도] 감상의 적절성 파악하기

<보기>에서는 전쟁의 상황 속에서 인간이 받은 고통의 양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삼촌의 '기이한 행적'은 무의식 속에서 살인을 저지르는 것으로, 이는 전쟁으로 인해 황폐화된 내면이 행동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삼촌의 '기이한 행적'을 전쟁으로 인해 상실된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한 의지의 실현으로 보기 어렵다.

- ① '빈 껍데기'는 삼촌이 전쟁의 상처로 인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한 자신을 자조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삼촌이 말수가 줄어든 것은 성격이 점점 폐쇄적으로 변한 것으로, 전쟁의 상처로 인해 외부 세계와 소통하지 못하고 위축되어 가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총은 전쟁의 무기로 삼촌이 '엿원 소총'을 지니고 있던 것은 전쟁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내면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 ⑤ 총구에 사람의 얼굴이 나타나자 무의식적으로 방아쇠를 당겼다는 것으로 보아, '살의의 충동'은 전쟁의 폭력적 상황에 내몰린 삼촌이 입은 정신적 고통의 산물이라 볼 수 있다.

[현대시]

[41~43] <출전> (가) 오장환, 「고향 앞에서」
(나) 정희성, 「저문 강에 삼을 씻고」

41. [출제의도] 작품의 공통점 파악하기

- (가)는 '산짐승', '젠나비' 등의 자연물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였고, (나)는 '강', '달' 등의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였다.
- ② (가) (나)에는 모두 수미상관의 방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 ③ (가) (나) 모두 과거와 현재를 교차시키지 않았다.
- ④ (가)에서는 말을 건네는 방식이 활용되었으나, (나)는 그렇지 않다.
- ⑤ (가) (나)에는 모두 시적 공간의 대비가 나타나 있지 않다.

42.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 이해하기

- [B]는 봄을 맞아서 얼음장이 떠나려가는 정경을 표현한 것이다. 현실과 대비된 과거의 삶을 회상하는 화자의 태도를 나타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① 후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겨울에서 봄으로 계절이 바뀌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 ③ 촉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따뜻한 고향의 정취를 느끼고 싶어 하는 화자의 심리를 표출하고 있다.
- ④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고향의 쓸쓸하고 처량한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청각과 후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화자가 그리워하는 평화롭고 풍요로운 고향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43. [출제의도] 감상의 적절성 파악하기

'스스로 깊어 가는 강'은 해가 저물어 점점 더 깊어

보이는 강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자 노동자의 비애가 깊어감을 나타낸 것이다. 이것을 바라보는 행위를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삶을 자책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① 화자가 '강변에 나가 삼을 씻으며', '슬픔'을 '퍼다 버리'는 것은 강물에다 삼의 비애를 덜어 내는 것으로 일종의 정화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 ③ '쭈그러 앉아 담배나 피우고' 있는 것은 화자가 적극적인 현실 극복 의지 없이 무력감과 실의에 빠져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 ④ '돌아갈 뿐이다', '돌아가야 한다'는 화자의 무기력하고 체념적인 태도를 드러낸 것으로, 희망 없는 삶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화자의 인식이 내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셋강바닥 썩은 물'은 산업화로 인해 환경이 오염되었음을 나타낸 것으로 산업화된 현실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수 필]

[44~45] <출전> 이태준, 「파초」

44. [A형 44번과 동일]

45. [A형 45번과 동일]

국어 영역(B형)

제 1 교시

1

[1 ~ 3] 다음은 ○○고등학교 학생들이 실시한 토론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우리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다목적 강당 신축에 대해 심의하기에 앞서 학생들의 찬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합니다. 다목적 강당 신축 예정지는 학교 본관 동쪽으로, 강당은 운동장 일부와 그 주변 공간을 할애해 지어질 것이라고 하며, 각종 행사 진행이 가능한 공간 겸 실내 체육관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다목적 강당을 신축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찬성 측부터 입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1: 다목적 강당 신축은 꼭 필요합니다. 눈이나 비가 내리던 날 체육 시간을 떠올려 보면 학생들은 그 필요성을 절감할 것입니다.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풀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체육 활동이 필요한데, 다목적 강당이 있다면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체육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목적 강당은 이렇다 할 체육 시설이 없는 지역 주민들이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하여 생활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으며, 이렇게 지역 주민들과의 교류가 잦아지면 학교의 이미지도 더 좋아질 것입니다.

학생 2: 저는 다목적 강당 신축에 반대합니다.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강당을 신축하는 데에는 최소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공사는 주로 낮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음이나 먼지가 많이 발생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불가피합니다. 또한 강당이 신축된다면 학생들은 소중한 공간 하나를 잃게 됩니다. 그곳에는 학생들이 정성껏 가꾸어 온 화단과 야의 휴식 공간인 정자가 있는데 그 공간은 학생들에게 쉼터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학생회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의 78%가 이 쉼터를 자주 이용한다고 합니다. 이런 공간이 사라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회자: 두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양측의 반론을 들겠습니다.

학생 3: 다목적 강당 신축으로 체육 활동에 날씨 제약을 받지 않게 된다는 찬성 측의 주장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강당을 신축하면 학교 운동장의 적지 않은 부분이 훼손됩니다. 그렇게 되면 운동장에서 축구 경기를 제대로 할 수 없고, 점심시간에 많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집니다. 따라서 다목적 강당의 신축은 오히려 학생들의 체육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측면이 더 큼니다. 또한 방과 후에 다목적 강당을 개방한다면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겠지만, 교내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은 높아질 것입니다. 이웃 학교에서도 학교 시설 개방 이후 야간에 외부인들과 차량이 수시로 출입하면서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학생 4: 물론 공사 기간 동안 학습권이 다소 침해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동안 장소 제약으로 인해 할 수 없었던 명사 초청 강연이나 학생 발표 대회, 그리고 실내 체육 수업 등이 가능해져서 오히려 학습 기회가 확대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휴식 공간이 사라지는 것은 아쉽지만 다목적 강당을 새로운 의미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작은 음악회와 같은 문화 공연 등을 한다면 다목적 강당은 학생들의 또 다른 쉼터가 될 것입니다.

사회자: 이제 최종 변론을 준비하기 위한 협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양측 발표자들께서는 최종 변론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위 토론 참여자들의 말하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회자는 토론이 열리게 된 배경을 설명하며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
 - ② '학생 1'은 과거 경험을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 ③ '학생 2'는 구체적인 수치를 활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 ④ '학생 3'은 관련 사례를 근거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 ⑤ '학생 4'는 주제와 관련된 용어의 개념을 언급하며 주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2. 다음 자료를 위 토론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문화체육관광부가 ○○시에서 실시한 '생활체육 참여 실태 조사'에 따르면, 시민들이 선호하는 체육 시설은 학교 체육 시설, 공공 체육 시설, 민간상업 체육 시설 등의 순이었다. 특히 시민들은 학교 체육 시설을 이용한다면, 자녀와 함께 운동을 하기 위해 저녁 시간이나 주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교 시설은 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교육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개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학교 시설 개방과 관리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학교에 있어 그에 따른 부담 때문에 실제로 학교 체육 시설을 개방하는 곳은 25%에 불과한 실정이다.

- ① 학교 시설 개방의 책임 주체에 주목하여, 학생들의 야의 휴식 공간이 줄어들 수 있다는 반대 측 주장을 강화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 ② 학교 시설 개방의 전제 조건에 주목하여, 학교의 기본 목적은 학생 교육에 있다는 찬성 측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 ③ 학교 시설 관리의 책임 주체에 주목하여, 강당 개방이 학교 시설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반대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 ④ 시민들의 체육 시설에 대한 선호도에 주목하여, 학교가 지역 사회 주민과의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찬성 측 주장을 강화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 ⑤ 시민들의 학교 체육 시설 이용 선호 시간대에 주목하여, 강당 개방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는 찬성 측 주장의 근거 자료로 활용한다.

3. 위 토론에서 양측 모두가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학교와 지역 사회 간 교류가 확대되어야 한다.
 - ② 학생들의 체육 활동을 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 ③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 시설을 재정비해야 한다.
 - ④ 학생들을 위한 새로운 문화 공간의 확충이 필요하다.
 - ⑤ 학교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4 ~ 5] 다음은 동아리 회의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 학생 1:** 오늘은 학교 축제 준비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지 않을까? 벌써 다음 달이 축제인데, 아무런 준비를 못 했잖아. ㉠ 이번엔 우리 도서부에서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까?
- 학생 2:** 맞아. 작년엔 친구들이 함께하기 어려운 주제를 선정해서 호응이 적었잖아. 이번엔 흥미로운 주제를 잡아 제대로 준비해 보자. 뭐가 좋을까?
- 학생 3:** 음..... 얼마 전 TV에서 책에 대한 특집 프로그램을 보았는데, 우리 선조들이 책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 소개하는 거였어. 지금과 다르게 수작업으로 정성껏 책을 만드는 모습이 신기하더라구. ㉡ 그래서 말인데 이번 기회에 친구들에게 옛날 책을 소개해 보면 어떨까?
- 학생 1:** 그래, 좋은 생각이야. 그러면 이번 축제에는 옛날 책을 소개하는 전시회를 열면 좋을 것 같아.
- 학생 2:** 나도 좋아. 그러면 옛날 책을 직접 구해서 전시해 보자.
- 학생 3:** ㉢ 근데 옛날 책은 아무래도 구하기 쉽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옛날 책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고 사진 자료를 함께 전시해 보면 어때?
- 학생 1:** 그거 좋네. 그런데, 전시만 하는 것은 너무 밋밋하지 않을까? 뭔가 친구들이 흥미를 느낄 만한 것이 있으면 좋겠는데? 체험 같은 것 말아야.
- 학생 2:** 그럼, 전시회 한쪽에서 옛날 방식으로 책을 직접 만들어 보는 체험 코너를 진행해 보는 것은 어때?
- 학생 3:** 옛날 책 만들기 체험?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네!
- 학생 1:** 나도 적극 찬성! ㉣ 그러면 이번 축제에는 옛날 책 만드는 방법을 사진과 함께 전시하고 직접 만드는 체험 코너도 마련해 보자. 그런데 옛날 책에 대해 공부도 하고, 준비할 게 많을 것 같은데?
- 학생 2:** ㉤ 인터넷도 검색해 보고 도서관에도 가 보면 참고 자료가 있을 거야.
- 학생 3:** 음..... 아까 말했던 TV 프로그램에서 '고서 박물관'이라는 곳도 나오던데. 어디, 한번 검색해 볼까?
- 학생 1:** 그래, 찾아보자.
- 학생 3:** (인터넷을 검색한 후) 여기 있다. 이것 좀 봐. 전화나 인터넷으로 사전 예약을 하면 고서 전문가가 전시물에 대해 직접 안내도 해 준다고 하네.
- 학생 2:** 정말? 우리한테 딱 필요한 곳이네. 함께 찾아가 보자. 궁금한 점도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
- 학생 1:** 응. 좋은 생각이네. 이번 주말에 찾아가 보자.

4.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회의 참여자들에게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 ② ㉡: 회의 참여자들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③ ㉢: 도출된 대안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④ ㉣: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해결 방법을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 ⑤ ㉤: 회의 참여자들에게 해결 방법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5. 다음은 동아리 회의 이후에 전문가와 인터뷰한 내용의 일부이다. 참여자들의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학 생:** 안녕하세요? 저희는 사전 예약하고 전화로 연락드렸던 ○○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 전문가:** 네, 반갑습니다. 찾아오기 힘들지 않았나요?
- 학 생:** (웃으며) 네, 홈페이지에 약도가 잘 나와 있어서 어렵지 않았어요.
- 전문가:** 우리 선조들의 책을 전시하고 책 만들기 체험을 진행한다고요? 좋은 생각이네요. 학생들에게 우리 문화제에 대한 관심을 높일 방법이라고 봅니다.
- 학 생:** 네, 옛날 책을 만드는 방법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도 여쭙고 조언도 듣고자 찾아 왔습니다.
- 전문가:** 그럼, 궁금한 점부터 해결하고 박물관을 관람해 볼까요?
- 학 생:** 네, 좋아요. 그런데 옛날 책 제작 방법 중에서 친구들에게 소개할 만한 방식이 있을까요?
- 전문가:** 음..... '선장'이라는 방식을 추천하고 싶네요. 조선 시대에 대체로 책을 만들던 방식이죠.
- 학 생:** 선장이요? 어떤 방식인가요?
- 전문가:** 선장은 종이들을 끈으로 꿰매서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림 자료를 보여주며) 여기를 볼까요? 속지들은 반으로 접고 모은 뒤, 우측에 구멍을 뚫고 끈으로 고정시킵니다. 표지에는 문양을 새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표지와 속지를 끈으로 튼튼하게 꿰매는 겁니다.
- 학 생:** 선생님, 표지의 문양은 어떻게 새기나요?
- 전문가:** 네, (나무판 실물을 보여주며) 그림을 새긴 나무판에 밀랍을 바르고 이것을 표지에 대고 꼭 눌러주어 문양을 새기죠.
- 학 생:** 그런데 밀랍을 바르는 이유가 있나요?
- 전문가:** 네, 밀랍을 바르면 종이가 밀리지도 않고 무너도 더 선명하게 찍히기 때문입니다.
- 학 생:** 아, 그렇군요. 학생들이 만들기에다 어렵지 않겠소?
- 전문가:** 그럼요. 그럼 박물관을 돌아보면서 더 설명해 줄게요.
- 학생들:** 네, 선생님.

- ① 학생은 전문가의 의견에 호응하면서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 ② 학생은 전문가에게 추가적인 질문을 던져 화제와 관련된 정보를 듣고 있다.
- ③ 전문가는 화제와 관련된 자료를 제시하여 정보 전달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④ 전문가는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화제를 유추의 방식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⑤ 전문가는 학생들이 계획한 활동을 확인하며 그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6~8] 다음은 '감정노동자들이 겪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청소년 신문에 기고할 목적으로 쓴 학생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감정노동자는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고 고객을 응대해야 하는 사람으로, 판매나 상담 등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얼마 전 우리나라 감정노동자들이 과도한 스트레스 상황에 처해 있다는 뉴스 진행자의 말을 듣고 그 심각성을 알게 되었다.

감정노동자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된 원인은 고객들이 감정노동자를 단순한 서비스 제공자라고만 인식하여 그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서비스업계의 과열된 경쟁으로 인해 기업은 고객에 대한 무조건적인 친절만을 강요할 뿐, 감정노동자들의 고통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데는 소홀하다. 또한 현재 근로기준법에는 감정노동과 관련된 세부적인 규정이 없어 감정노동자들의 권익이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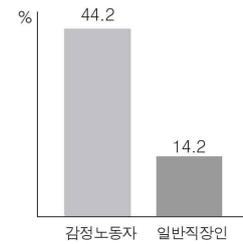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은 감정노동의 고충을 이해하고, 감정노동자들을 해당 서비스의 전문가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해당 기업은 감정노동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더불어 정부는 감정노동자들이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감정노동자가 겪는 문제는 단지 그들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는 문제이다. 특히 이는 청소년들이 앞으로 겪을 수도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감정노동자들의 문제를 방지할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이 관심을 갖고 함께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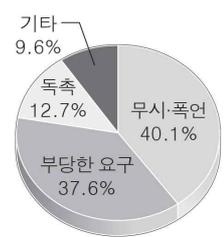
7. 다음은 초고를 작성한 후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이를 활용하여 초고를 수정·보완하고자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가) 감정노동자 관련 통계 자료

1. 스트레스성 질병 발생 비율



2. 고객 응대 시 스트레스 요인



(나) 인터뷰

저희 회사는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폭언과 무리한 요구를 하는 고객에 대한 응대 매뉴얼을 만들어 소비자들의 부당한 행위에 직원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자율 헬스클럽, 정신 건강 상담실' 등을 운영하여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했으며, 직원들의 업무 능력을 평가할 때 고객 평가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자체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 제작년 18.9%에 달하던 이직률이 올해에는 2.1%까지 줄어들었습니다.

- ○○회사 대표이사

(다) 신문기사

최근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률을 마련할 목적으로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공청회에서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는데, 특히 고객의 폭언과 폭행, 인격 무시 등에 대한 처벌 기준을 논의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되면 소비자의 부당한 행위로부터 감정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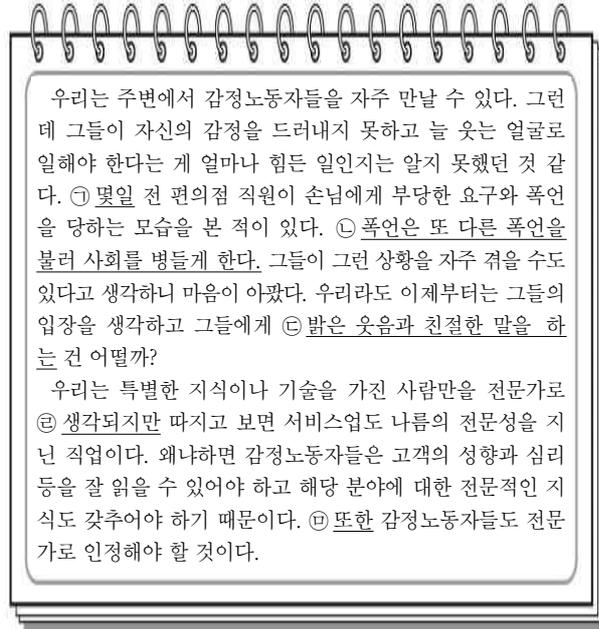
- △△신문

6. 학생의 초고에서 활용된 글쓰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용을 통해 문제 상황의 심각성을 제시하고 있다.
- ②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여 각각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③ 대상의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대조의 방법을 활용한다.
- ④ 예상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소한 개념에 대한 예를 들고 있다.
- ⑤ 예상 독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하여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 ① (가)-1을 활용하여 첫째 단락에서 언급한, 감정노동자들이 과도한 스트레스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의 구체적인 근거로 제시한다.
- ② (가)-2와 (나)를 활용하여, 감정노동자에 대한 고객들의 폭언도 감정노동자가 겪는 어려움의 원인임을 둘째 단락에 추가한다.
- ③ (나)를 활용하여 셋째 단락에서 언급한, 감정노동자의 근무 여건 개선의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한다.
- ④ (다)를 활용하여 셋째 단락에서 언급한, 감정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내용을 구체화한다.
- ⑤ (나)와 (다)를 활용하여, 근로기준법의 개정 내용을 바탕으로 감정노동자들의 업무 능력을 평가하면 이직률을 줄일 수 있음을 셋째 단락에 추가한다.

8. 다음은 윗글을 읽은 학생이 교내 누리집에 올리기 위해 쓴 글이다. 이를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어문 규범에 맞지 않으므로 '머칠'로 고친다.
- ② ㉡은 글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 앞 문장과 순서를 바꾼다.
- ③ ㉢은 호응을 고려하여 '밝은 웃음을 짓고 친절한 말을 건네는'으로 바꾼다.
- ④ ㉣은 어법에 맞도록 '생각하지만'으로 고친다.
- ⑤ ㉤은 앞뒤 내용을 자연스럽게 이어주지 못하므로 '그러므로'로 바꾼다.

[9 ~ 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수업 상황]

노인 생애 체험에 참가한 학생에게 선생님께서 작문 과제를 부여하셨다.

작문 과제 1

○ 노인 생애 체험 참여를 권유하는 짧은 글을 써 보자.

작문 과제 2

㉠~㉤을 고려하여 노인 생애 체험에 참가한 소감을 한 편의 글로 작성해 보자.

㉠ 노인 생애 체험에 참가하게 된 동기를 밝히고, ㉡ 체험 중 가장 관심이 있었던 내용을 제시할 것. ㉢ 프로그램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제시하며, ㉣ 체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으로 끝맺고, ㉤ 노인 생애 체험 프로그램의 진행 순서에 따라 글을 전개할 것.

9. <보기>의 내용을 반영하여 [작문 과제 1]을 수행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 노인은 풍부한 연륜을 지닌 삶의 스승이라는 점과, 세대 간 이해를 위한 노인 생애 체험의 필요성을 모두 언급할 것.
- 비유적 표현을 활용할 것.

- ① 어르신은 우리 인생길을 알려주는 귀중한 지도입니다. 그 지도는 여러분의 삶의 등대가 될 것입니다.
- ② 우리 사회에서 노인 분들은 지식과 문화를 전승해 주시는 분입니다. 노인 생애 체험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 ③ 혹시 의미 없는 생활로 바쁘신가요? 의미 있는 삶을 찾고 싶으시면 어르신에게 눈을 돌려 보세요. 노인 생애 체험은 당신의 마음을 열 것입니다.
- ④ 어르신의 지나온 세월은 나무의 나이테같이 우리에게 풍요로운 경험을 들려줍니다. 노인 생애 체험으로 가까워지는 세대 간의 정을 느껴 보세요.
- ⑤ 여러분이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 할머니의 지팡이가 되어 보시는 건 어때요? 노인 생애 체험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당신을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10. 다음은 [작문 과제 2]를 수행한 글이다. ㉠~㉤ 중, 반영되지 않은 것은?

우리 할머니께서는 큰 소리로 말씀 드려도 잘 못 들어서서 안타가웠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노인 생애 체험을 안내해 주셔서 이 활동에 참가하게 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체험에 대한 사전 강의, 노화 체험, 그리고 체험 나누기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참가했던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청각 노화 체험이다. 이 체험은 소리를 막는 헤드폰을 쓴 후 친구와 서로 말해 보는 활동이다. 친구가 큰 소리로 말해도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 그런데 강사님께서 서로 얼굴을 마주 보고 입모양을 분명히 하면서 천천히 말해 보라고 하셨다. 그러자 친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있었고 할머니와 대화할 때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체험 전 사전 강의를 통해 어르신들과의 대화가 왜 어려운지 그 이유를 알았다. 나이가 들면 대뇌의 움직임이 젊을 때보다 활발하지 않아 소리가 들려도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었다. 체험 후에는 자신이 새롭게 안 사실과 체험 후 느낀 점을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노인 생애 체험을 통해 우리에게서 사소한 일이지만 어르신에게는 힘든 일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어르신들에게 진정성 있는 보살핌이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1. <보기>의 자료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표준발음법]

제18항
받침 ‘ㄱ(ㄱ, ㅋ, ㆁ, ㄷ, ㄷ, ㅌ, ㄷ, ㅌ, ㅎ), ㅂ(ㅂ, ㅃ, ㅍ, ㅍ)’은 ‘ㄴ, ㄹ’ 앞에서 [ㅇ, ㄴ, ㄹ]으로 발음한다.

제23항
받침 ‘ㄱ(ㄱ, ㅋ, ㆁ, ㄷ, ㄷ, ㅌ, ㄷ, ㅌ, ㅎ), ㅂ(ㅂ, ㅃ, ㅍ, ㅍ)’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 ① ‘앞마당’은 18항이 적용되어 [암마당]으로 발음된다.
- ② ‘늦가을’은 23항이 적용되어 [늦까을]로 발음된다.
- ③ ‘꽃망울’은 18항과 23항이 모두 적용되어 [꼰망울]로 발음된다.
- ④ ‘맛떡다’는 18항과 23항이 모두 적용되어 [만떡따]로 발음된다.
- ⑤ ‘홀낚시’는 18항과 23항이 모두 적용되어 [혼낙씨]로 발음된다.

12. ㉠~㉤에 들어갈 문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원래 문장	표현하려는 의미	수정한 문장
현우는 새로 산 옷을 입고 있다.	옷을 입는 동작이 진행 중임을 나타내고자 함.	㉠
영철이는 지수보다 야구 경기를 더 좋아한다.	영철이가 더 좋아하는 것은 지수가 아니라 야구 경기임.	㉡
친구들이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았다.	친구들이 일부만 참석함.	㉢
민수는 아침에 윤서가 여행에서 돌아왔다고 말했다.	돌아온 사실을 말한 시점이 아침임.	㉣
그는 내게 장미와 튤립 두 송이를 주었다.	받은 꽃의 개수가 세 송이임.	㉤

- ① ㉠: 현우는 새로 산 옷을 입고 있는 중이다.
- ② ㉡: 영철이는 지수를 좋아하는 것보다 야구 경기를 더 좋아한다.
- ③ ㉢: 친구들이 약속 장소에 다는 나오지 않았다.
- ④ ㉣: 윤서가 아침에 여행에서 돌아왔다는 것을 민수는 말했다.
- ⑤ ㉤: 그는 내게 장미 한 송이와 튤립 두 송이를 주었다.

13. <보기>에 제시된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탐구한 결과로 적절한 것은?

< 보기 >

선생님: 지난 시간에 부사화 접미사 ‘-이’와 ‘-히’의 표기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한글맞춤법 51항의 해설을 통해 ‘-하다’가 붙지 않는 용언의 어간이나 ‘ㅅ’받침 뒤에서는 ‘-이’로 적는다고 배웠는데, 여기에는 다음의 세 가지 경우가 더 제시되어 있습니다.

㉠ (첩어 또는 준첩어인) 명사 뒤
예) 샫살이, 다달이

㉡ 부사 뒤
예) 더욱이, 히죽이

㉢ ‘ㅂ’ 불규칙 용언의 어간 뒤
예) 가벼이, 새로이

판서 내용을 참고하여, 다음의 단어들을 ㉠~㉣로 구분해 봅시다.

나날이, 오뚝이, 일찍이, 즐거이, 겹겹이

- | | ㉡ | ㉢ |
|------------|----------|----------|
| ① 나날이, 오뚝이 | 일찍이 | 즐거이, 겹겹이 |
| ② 나날이, 즐거이 | 겹겹이 | 오뚝이, 일찍이 |
| ③ 나날이, 겹겹이 | 오뚝이, 일찍이 | 즐거이 |
| ④ 오뚝이, 겹겹이 | 일찍이, 즐거이 | 나날이 |
| ⑤ 겹겹이 | 오뚝이, 즐거이 | 나날이, 일찍이 |

6

국어 영역(B형)

14. <보기>에 제시된 국어사전의 정보를 완성한다고 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주다

㉠ **동사**

① [...에/에게 ...을] 물건 따위를 남에게 건네어 가지거나 누리게 하다. **친구에게 선물을 주다.**
반의어 주다 ↔ ㉠

② 남에게 어떤 자격이나 권리, 점수 따위를 가지게 하다.
일등 항해사에게 가산점을 주다. / ㉡

③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게 하다. **동생과 싸웠다고 어머니가 나에게 핀잔을 주다.** / ㉢

받다

㉡ **동사**

① [...에서/에게서/...으로부터 ...을] 다른 사람이 주거나 보내오는 물건 따위를 가지다. **남자 친구로부터 선물을 받다.**

② [...을] 공중에서 밑으로 떨어지거나 자기 쪽으로 향해오는 것을 잡다. **날아오는 공을 받다.**
반의어 받다 ↔ ㉡

③ **호르거나 쏟아지거나 하는 것을 그릇 따위에 담기게 하다.** **따끈한 차를 찻잔에 받다.**

- ① '주다㉠'의 뜻풀이와 용례로 보아 ㉠에 들어갈 말은 '받다㉡'이다.
- ② ㉡에는 '약을 사 먹으라고 누나가 나에게 돈을 주다.'를 넣을 수 있다.
- ③ ㉢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은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다.'를 넣을 수 있다.
- ④ '받다㉡'의 용례로 보아 ㉡에는 '던지다'를 넣을 수 있다.
- ⑤ ㉢에 들어갈 말은 '...을 ...에'이다.

15. <보기1>을 바탕으로 <보기2>의 ㉠~㉣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지칭어와 호칭어, 높임 표현이 발달한 우리말에서는 특히 담화 상황에서 화자, 청자,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그 대상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인 지칭어와 그 대상을 직접 부를 때 사용하는 말인 호칭어를, 화자와 청자, 담화에 언급된 대상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해야 한다. 또한 높임 표현은 청자나 담화 속 주체와 객체의 높임 관계를 고려하여 어미, 조사, 어휘 등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한다.

<보기 2>

혜연: 삼촌, 어서 오세요. 좀 늦으셨네요?
삼촌: 생각보다 차가 밀리더구나. 다들 오셨니?
혜연: 아니요. 차가 밀리는지 ㉠ 할머니께서도 아직 도착하지 못하셨어요.
삼촌: ㉡ 어머니는 어디 계시니?
혜연: ㉢ 할아버지를 모시고 조금 전에 결혼식장에 들어가셨어요.
삼촌: 아침부터 너희 ㉣ 어머니께서 많이 바쁘셨겠네. 너도 언니 결혼식 때문에 옆에서 이것저것 도와주느라 힘들었지?
혜연: 아니에요. 그것보다 삼촌께서 이렇게 멀리서 와 주셔서 ㉤ 언니가 정말 기뻐할 것 같아요.

- ① ㉠에서는 화자가 자신을 기준으로 대상을 파악하여 지칭어를 사용하고 있군.
- ② ㉡에서 문장의 주체는 화자가 높여야 할 대상이므로 특수한 어휘를 통해 높임을 실현하고 있군.
- ③ ㉢에서 문장의 객체는 화자가 높여야 할 대상이므로 조사를 통해 높임을 실현하고 있군.
- ④ ㉣에서는 화자가 청자를 기준으로 대상을 파악하여 지칭어를 사용하고 있군.
- ⑤ ㉤에서는 청자가 화자보다 높은 대상이므로 종결어미를 통해 높임을 실현하고 있군.

16. <보기>의 ㉠~㉣에서 알 수 있는 중세국어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雙鵝(쌍조) | 忽 사래 ㉡ 曠世(절세) 英才(영재)를 邊人(변인)이 拜伏(배복) ㉢ 忽 사받니
 [현대어 풀이]
 두 마리 독수리가 한 살에 웨이니, 절세의 영재를 변방의 사람들이 절하며 복종하니

雙鵝(쌍작)이 忽 ㉣ 사래 ㉤ 디니 曠世(광세) 奇事(기사)를 北人(북인)이 稱頌(칭송) 忽 사받니
 [현대어 풀이]
 두 마리 까치가 한 살에 떨어지니, 세상에 없는 기이한 일을 북녘 사람들이 칭송하니

-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제23장> -

- ① ㉠을 보니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 목적격 조사로 'ㅣ'가 사용되었군.
- ② ㉡을 보니 음절의 초성에서 두 개 이상의 자음이 사용되었군.
- ③ ㉢을 보니 '△', 'ㅍ', 'ㅅ' 등 현대 국어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문자가 사용되었군.
- ④ ㉣에서 양성 모음 'ㅏ'와 'ㅑ'가 어울리는 것을 보니 모음조화가 지켜졌군.
- ⑤ ㉤에서 'ㅣ' 앞의 'ㄷ'이 'ㅈ'으로 변하지 않은 것을 보니 구개음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군.

[17 ~ 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현대인들에게 무엇인가가 '있다/없다'라는 존재 ㉠ 여부에 대한 판단과 무엇인가가 '좋다/나쁘다'라는 존재에 대한 가치 판단은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특히 현대인들에게 '있다/없다'는 양자택일의 문제이다. 그러나 플라톤은 이와는 다른 ㉡ 관점을 보여준다. 플라톤의 관점에는 무엇이 '있다/없다'라는 존재론적 판단과 무엇이 '좋다/나쁘다'라는 가치론적 판단이 하나로 일치되어 있다. 즉 플라톤에게 존재론적으로 '있다/없다'는 가치 판단의 문제인 것이다.

존재와 그 존재의 가치가 일치한다면, 특정한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플라톤은 그것을 '있음'의 '정도'로 보았다. 이때 '있다'에는 '존재한다'라는 측면에서 실재성의 정도와 '가치 있다'라는 측면에서 완전성의 정도를 모두 포함하게 된다. 따라서 어떤 대상이 다른 대상보다 '더 존재한다'는 것은 그것이 상대적으로 더 완전한 대상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덜 존재한다'라는 것은 그 대상이 덜 완전한 대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플라톤은 가장 실재하는 것, 가장 완전한 것을 '이데아'라고 ㉢ 규정하는데 이는 현실 세계를 초월한 차원에 존재한다. 반대로 세계에 존재하는 만물인 '현상'은, 이데아에 비해 덜 존재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플라톤은 현상을 만드는 창조자로 '데미우르고스'를 설정하고, 그 창조자가 외부의 이데아를 본으로 삼아 현상을 만든 것으로 보았는데, 플라톤은 이 과정을 '모방'이라고 한다. 모방을 통해 현상은 이데아의 본질을 나누어 갖게 된다. 그런데 현상은, 영원불변한 존재인 이데아의 본질을 모방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이다. 이데아와 현상의 관계에 대해 플라톤은 '관여(關與)' 또는 '임재(臨在)'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설명했다. 이때 '관여'와 '임재'는 사실상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개념으로서, 현상이 이데아의 본질과 유사한 정도를 '관여'의 정도라고 하고, 현상이 이데아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정도를 '임재'의 정도라고 한다. 플라톤에게 중요한 것은 개개의 현상들이 이데아에 얼마나 '관여'하는가 또는 이데아가 개개의 현상들에 얼마나 '임재'하는가의 문제이다. 즉 '관여' 혹은 '임재'의 정도가 그 사물의 존재론적이지자 동시에 가치론적 ㉣ 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관여'나 '임재'의 정도가 높다는 것은 그 현상이 이데아의 본질에 더 가깝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완전성의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말'의 이데아가 지닌 본질 중의 하나가 빠르게 달리는 능력이라면 경주에서 빨리 달리는 말일수록 그렇지 못한 말들보다 이데아에 대한 '관여'나 '임재'의 정도가 높은 것이다. 이처럼 현상들에는 관여나 임재가 다양한 정도로 나타난다.

존재론적 판단과 가치론적 판단을 하나로 여기는 플라톤의 ㉤ 사유 방식은 당시 그리스 사람들의 보편적인 사유 방식을 반영하고 있었고, 더 나아가 서구의 고대와 중세의 사유 방식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다.

17.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개념들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특정 이론의 관점을 소개하고 있다.
- ② 비교되는 두 대상을 제시한 후 상반된 관점에서 각각을 평가하고 있다.
- ③ 문제를 제기한 후 그 원인을 다양한 측면에서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 ④ 특정 개념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이를 비판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 ⑤ 통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근거를 들어가며 특정 이론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다.

18. 윗글의 '이데아'에 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장 완전하면서 현실 세계를 초월한 차원에 존재한다.
- ② 존재론적으로 모든 현상에 비해 가장 실재하는 것이다.
- ③ 관여에 의해서 생겨난 결과물로서 영원불변한 성격을 지닌다.
- ④ 현상이 모방하는 대상이자 현상에 임재의 정도가 결정되는 기준이다.
- ⑤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현상들을 만들어낼 때 창조자가 취하는 본이다.

19. 윗글의 '플라톤'과 <보기>의 ㉠에 대해 보일 수 있는 학생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기 >

㉠ 라이프니츠는 세상의 창조자인 신을 가장 완전한 존재로 보았다. 그는 신이 자신의 형상을 닮은 존재들을 창조했으며 그 존재들은 신의 형상과는 완전히 같지는 않기에 유한한 존재로 보았다. 따라서 그에게 신은 모든 사물의 근거로서 무한한 존재이다.

- ① ㉠가 신이 창조한 존재를 설명하면서 언급한 유한성은 플라톤의 '덜 존재한다'를 의미하는 것이겠군.
- ② ㉠가 말한 신은, 다른 존재들을 창조할 때 자기 외부의 형상을 본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데미우르고스'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군.
- ③ 플라톤과 ㉠는 모두, 창조자와 존재들 간의 닮은 정도에 주목하고 있군.
- ④ ㉠와 달리, 플라톤은 창조자를 끊임없이 변화하는 무한한 존재로 보고 있군.
- ⑤ 플라톤과 달리, ㉠는 존재의 완전성을 정도의 문제로 파악했군.

20. ㉠ ~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틀리거나 의심할 여지
- ② ㉡: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
- ③ ㉢: 내용이나 성격, 의미 따위를 밝혀 정함.
- ④ ㉣: 어떤 사물이 다른 사물과의 관계 속에서 가지는 위치나 상태
- ⑤ ㉤: 개념, 구성, 판단, 추리 따위를 행하는 인간의 이성 작용

[21 ~ 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부는 경기변동의 진폭을 완화시켜 좀 더 빨리 균형을 찾아가도록 여러 가지 안정화 정책을 사용한다. 정부가 사용하는 대표적인 안정화 정책에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있다.

통화정책은 정부가 화폐 공급량이나 기준금리 등을 조절하여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정책이다. 예를 들어 경기가 불황에 빠져 있을 때, 정부가 화폐 공급량을 늘리면 이자율이 낮아져 시중에 풍부한 자금이 공급되어 소비자들의 소비지출과 기업들의 투자지출이 늘어나면 총수요*에 영향을 주어 경제가 활성화된다. 재정정책은 정부가 지출이나 조세징수액을 변화시킴으로써 총수요에 영향을 주려는 정책이다. 재정정책에는 경기의 변동에 따라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자동안정화장치와 정부의 의사결정과 국회의 동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재량적 재정정책이 있다.

이러한 안정화 정책의 효과는 다소간의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데 이를 정책시차라고 한다. **정책시차**는 내부시차와 외부시차로 구분된다. 내부시차는 정부가 경제에 발생한 문제를 인식하고 실제로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시점까지의 시간을, 외부시차는 시행된 정책이 경제에 영향을 끼쳐 그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의미한다.

재량적 재정정책의 경우 추경예산*을 편성하거나 조세제도를 변경해야 할 때 입법과정과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내부시차가 길다. 이에 비해 통화정책은 별도의 입법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정부의 의지만으로 수립·집행될 수 있기 때문에 내부시차가 짧다. 또한 재량적 재정정책은 외부시차가 짧다. 예를 들어 경기 불황에 의해 실업률이 급격하게 증가할 때 정부는 공공근로사업 등에 대한 지출을 늘려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이는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소비지출의 변화에 의해 총수요를 변화시킬 수 있다. 반면 통화정책은 정부가 이자율을 변화시켰다 하더라도 소비지출 및 투자지출의 변화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외부시차가 길다. 한편 자동안정화장치는 경기의 상황에 따라 재정지출이나 조세 징수액이 자동적으로 조절될 수 있도록 미리 재정제도 안에 마련된 재정정책이다. 따라서 재량적 재정정책과 마찬가지로 외부시차가 짧을 뿐만 아니라, 재량적 재정정책과는 달리 내부시차가 없어 경제 상황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자동안정화장치의 대표적인 예로는 누진적소득세와 실업보험제도가 있다.

누진적소득세는 납세자의 소득 금액에 따른 과세의 비율을 미리 정하여 소득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정한 제도이다. 경기가 활성화되어 국민소득이 늘어날 경우 경기가 지나치게 과열될 우려가 있는데, 이때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므로 전반적 소득 증가와 더불어 세금이 자동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는 소비지출의 억제로 이어져 경기가 심하게 과열되지 않도록 진정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 한편 실업보험제도는 실업상태에 놓인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험금의 일부분을 정부가 지원해 준다. 경기 불황으로 실업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총수요가 줄어들게 되어 경기가 더욱 침체될 수 있다. 이때 정부는 실업수당을 지급하여 총수요가 줄어드는 것을 억제하여 경기를 자동적으로 안정시켜 주는 효과를 얻게 된다.

그러나 경기가 불황에서 벗어나 회복국면에 들어서 있을 때, 일반적으로 총수요가 빠른 속도로 팽창해야만 짧은 기간 안에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데, 오히려 자동안정화장치는 조세 징수액을 늘려 경기회복을 더디게 만들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다.

* 총수요: 한 나라의 경제 주체들이 일정 기간 동안 소비와 투자를 위해 사려고 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총합.

* 추경예산: 예산을 집행하다 수입(세입)이 줄거나 예기치 못한 지출요인이 생길 때 고치는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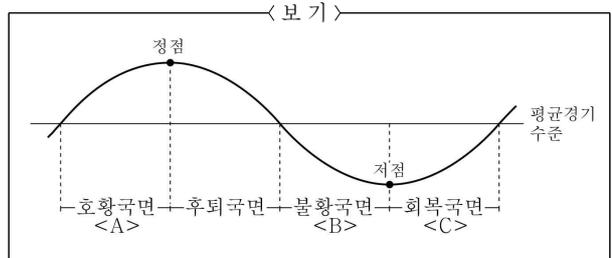
21. 밑글을 통해 알 수 없는 것은?

- ① 통화정책의 정의
- ② 정책시차의 하위 개념
- ③ 자동안정화장치의 장점
- ④ 재량적 재정정책의 사례
- ⑤ 안정화 정책의 변화 과정

22. **정책시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통화정책과 달리 자동안정화장치는 내부시차가 없다.
- ② 재량적 재정정책은 통화정책에 비해 외부시차가 짧다.
- ③ 자동안정화장치는 재량적 재정정책보다 정책시차가 짧다.
- ④ 재량적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내부 시차는 입법 절차의 유무에 의해 차이가 발생한다.
- 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외부시차는 실제로 정책을 수립하는 시점에 의해 차이가 있다.

23. <보기>는 경제 순환 모형이다. 밑글과 <보기>를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에서 경기가 과열되기 시작했다면, 정부는 화폐 공급량을 줄여 소비지출과 투자지출을 줄이는 통화정책을 실시할 수도 있겠군.
- ② <A>에서 납세자들의 소득이 늘어났다면, 누진적소득세로 인해 세금이 늘어나서 경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진정하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겠군.
- ③ 에서 재량적 재정정책을 통해 추경예산으로 정부지출이 늘어났다면, 조세 징수액을 늘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총수요를 늘려 경기침체의 정도를 조절할 수도 있겠군.
- ④ 에서 실업률이 높아졌다면, 총수요가 줄어들겠지만 자동적으로 실업수당의 지급 대상자가 늘어 총수요 감소를 억제하여 경기가 균형을 잡도록 도와줄 수도 있겠군.
- ⑤ 저점을 지나 <C>로 변동되면, 누진적소득세로 인해 조세 징수액이 늘어나 경기회복에 불필요한 제동을 가할 수도 있겠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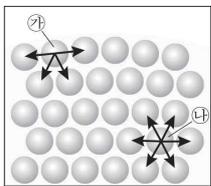
[24 ~ 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반적으로 바닷물은 영하의 온도에도 얼지 않는다. 또한 혹한 지역의 일부 생명체들은 추위 속에서도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간다. 이는 모두 어는점 내림 현상과 관련이 있다.

어는점 내림 현상이란 무엇일까? 어는점은 액체가 얼기 시작할 때의 온도를 말하는데, 순수한 물의 어는점은 일반적으로 0°C이다. 이때 ‘물이 언다’라는 것은, 온도가 0°C 이하로 내려가면서 액체 상태에서 불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던 물 분자가 규칙적으로 정렬하여 고체인 얼음이 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용매인 물에 다른 물질, 즉 용질이 녹아 있으면 용질의 분자들이 물 분자의 정렬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물만 있을 때보다 어는점이 내려가는데 이를 ‘어는점 내림 현상’이라 한다. 이때 용질의 종류나 특성이 아닌, 용질의 양에 의해서 어는점 내림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성질을 ‘용액의 총괄성’이라 한다. 염분의 농도가 3.5%인 일반적인 바닷물의 경우, 많은 양의 소금이 나트륨 이온과 염소 이온으로 물에 녹아 그 이온들이 물 분자의 정렬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얼음이 쉽게 형성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바닷물은 총괄성에 의한 어는점 내림으로 0°C가 아닌 -1.9°C에서 얼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남극 빙어의 경우 총괄성에 의한 어는점 내림만으로는 어떻게 생명을 유지하는지를 설명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물고기의 경우 물의 온도가 어는점 아래로 내려가면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얼음 결정들이 혈액이나 체액 내에 생기기 시작한다. 이 조그마한 얼음 결정들이 방치되면 물 분자들이 얼음 결정과 결합하여 얼음 결정이 순식간에 커져 결국 물고기는 죽고 말 것이다. 그런데 남극 빙어의 혈액 속에는 결빙방지단백질이라는 물질이 있어서 얼음 결정이 커지는 것을 막는다. 그렇다면 어떤 원리에 의해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먼저 결빙방지단백질이 녹아 있는 물에 얼음 결정이 들어 있고 어는점 아래로 온도를 낮춘다고 가정해 보자. 얼음 결정의 표면에는 물 분자가 얇게 물 층을 이루고 있는데, ㉠ 그 얇은 물 층에 결빙방지단백질이 순식간에 결합한다. 결빙방지단백질이 결합된 부분에는 더 이상 물 분자가 결합하지 못한다. 따라서 얼음 결정의 물 층은 물 분자가 계속해서 결합하는 부분과 결합하지 못하는 부분으로 나뉘진다. 이렇게 되면 물 분자가 결합할 수 있는 부분은 결합이 계속 이루어져 ㉡ 불룩한 모양의 물 층이 형성된다. 그 결과 평평했던 얼음 결정의 물 층이 불룩하게 되어 표면적이 넓어지므로, 평평했을 때보다 물 층의 표면에 있는 물 분자의 수도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이때 물 층 표면에 있는 물 분자들은 불안정한 상태이다.



<그림>

<그림>은 물 층에 존재하는 물 분자 간의 결합 상태를 나타낸 것으로 화살표는 물 분자 간의 인력을 의미한다. <그림>의 ㉠은 물 층 내부에 있는 물 분자로서 모든 방향으로 동일한 인력이 작용하므로 안정적인 상태이다. ㉡는 물 층 표면에 있는 물 분자로서 인력이 작용하는 방향이 한정적이므로 불안정한 상태이다. 따라서 ㉡는 ㉠에 비해 불안정한 상태이다. 일반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의 분자들은 다른 분자들과 결합하려는 힘이 더 큰데, 이는 에너지가 높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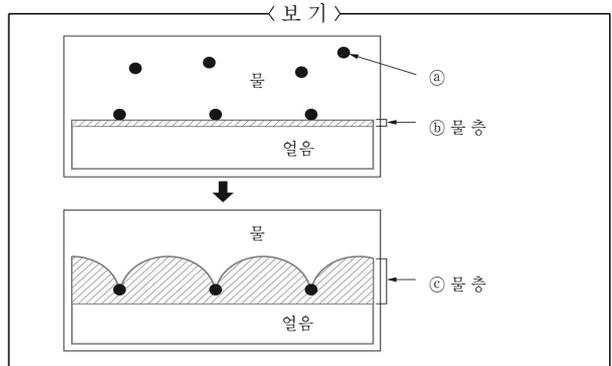
그런데 물 층이 불룩해지는 과정을 통해 평평한 상태일 때보다 물 층에 불안정한 상태의 물 분자들이 더 늘어났으므로, 얼음 결정의 물 층 표면의 에너지는 더 높아진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물의 에너지와 얼음 결정의 물 층 표면의 에너지는 동일한 상태가 되는데, 이를 열적 평형이라고 한다. 열적 평형이 되면 물 분자가 얼음 결정에 더 이상 결합하지 않게

되어 얼음 결정이 커지지 않는다. 즉, 어는점이 내려가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결빙방지단백질이라는 특정한 물질, 즉 용질의 종류로 인해 발생한 어는점 내림이라고 할 수 있다.

24. 윗글의 중심 화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결빙방지단백질의 종류
- ② 얼음 결정의 구조와 특성
- ③ 열적 평형 상태의 유형과 사례
- ④ 어는점 내림 현상이 일어나는 원리
- ⑤ 총괄성에 의한 어는점 내림의 과정

25. <보기>는 ㉠에서 ㉡으로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에 결합하면 ㉠가 결합한 지점에는 더 이상 물 분자가 결합할 수 없겠군.
- ② ㉠에 의해 ㉡가 ㉢의 형태로 변화된 후 어는점이 내려갈 수 있겠군.
- ③ ㉡가 ㉢의 형태가 되면 ㉢의 표면에 불안정한 상태의 물 분자들이 늘어나겠군.
- ④ ㉢ 표면의 에너지는 ㉡ 표면의 에너지보다 높아져 열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기 쉬겠군.
- ⑤ ㉢ 내부에 있는 물 분자의 인력 방향은 ㉢ 표면에 있는 물 분자의 인력 방향보다 제한되겠군.

26.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와 같이 반응했다고 할 때, A와 B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
“바닷물의 어는점 내림 현상은 바닷물 속의 염분이 (A)로 작용하여 (B)의 정렬을 어렵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다.”

- | | | |
|---|----|--------|
| | A | B |
| ① | 용질 | 물 분자 |
| ② | 용매 | 물 분자 |
| ③ | 용질 | 염소 이온 |
| ④ | 용매 | 나트륨 이온 |
| ⑤ | 용질 | 나트륨 이온 |

[27 ~ 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7세기 프랑스 화가 푸생(N. Poussin)은 그림을 통해 경험적인 차원 그 너머에 있는 영원불변한 본질과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나타내고자 했다. 그가 살았던 시대는 바로크 미술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는 바로크 미술이 주로 작가의 즉흥적인 감정을 형상화했다는 점에서 그것을 지적인 사고가 결여된 예술 활동으로 규정했다. 그는 우연성과 변화무쌍함을 멀리하는 대신, 이상적인 아름다움과 영원불변성을 추구했던 고대 그리스·로마 미술의 고전성에서 미의 원리를 찾고자 했다. 왜냐하면 푸생은 이성이 자연의 보편적 원리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했고, 고대 그리스·로마의 예술이 이성에 바탕을 둔 것이므로 고대 예술이 모든 시대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대 예술의 주된 대상인 신화나 역사 혹은 성서 속 이야기들을 그림의 소재로 삼았으며, 그것을 서사의 차원이 아닌 시의 차원으로 전환시키면서 절제되고 압축된 표현을 사용했다. 이를 위해 감상자의 시선을 흐트러뜨릴 가능성이 있는 요소는 철저히 배제했다. 또한 작품 속의 인물들을 표현할 때, 주제를 가장 잘 드러내기 위해 고대 조각상 중에서 자신의 표현 의도에 ㉠ 맞는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상을 골라 인위적인 자세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작품의 구성에 있어서도 화면은 오로지 이성의 법칙에 입각한 균형과 대칭, 선이나 도형 등을 활용한 기하학적 공간 구성의 원리를 적용하여 짜임새 있는 안정적인 구도를 갖추려고 했다. 이는 자연의 영원불변한 본질을 조화와 질서라고 생각하여 이를 그림에서 구현하고자 한 것이다.

이와 같은 표현 원리들을 통해 영원불변한 본질과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형상화하고자 한 푸생의 노력은 그의 다른 작품에서와 마찬가지로 풍경화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는 역사 속 영웅적 인물의 삶을 작품의 소재로 삼고 풍경에 엄격한 질서와 조화를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인간이 추구해야 할 보편적인 삶의 본질을 나타내고자 했다. 그의 풍경에는 자연 배경과 특별히 선택된 건축물이 등장한다. 작품 속 자연 풍경은 사실적인 자연의 모습이 아니라 푸생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이고 본질적인 자연의 이미지이며, 고대의 건축물 역시 배경의 일부로서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에 전경, 중경, 후경의 명백한 구분과 좌우상하의 대칭, 전경에서 후경으로의 점진적인 공간 이행, 수평과 수직의 기하학적 질서 등을 사용함으로써 자연에 엄격한 질서와 조화를 부여했다. 따라서 그는 영웅적 인물의 삶을 소재로, 자연에서 위대하고 특별한 것만을 선별하여 인간이라면 보편적으로 추구해야 할 삶의 본질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다.

이처럼 푸생은 작품 제작에 있어 자신이 정한 표현 원리들을 명료한 법칙으로 규정하여 모든 작품에 엄격하게 적용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그에게 예술은 의식적인 작업의 결과이다. 이 때문에 감상자들이 그의 작품을 통해 느끼게 되는 미적 즐거움은 감각적이라기 보다는 지적이고 정신적인 것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27. 뒷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푸생의 풍경화는 역사 속 영웅적 인물의 삶을 작품의 소재로 삼았다.
- ② 푸생은 고대 예술이 이성에 바탕을 둔 보편적 원리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했다.
- ③ 푸생은 그림을 통해 경험적 차원의 아름다움과 지적인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④ 푸생이 배경의 일부로 사용한 고대 건축물은 주제 구현을 위해 그가 특별히 선별한 대상이다.
- ⑤ 푸생은 풍경화를 그릴 때 전경에서 후경으로의 점진적 공간을 사용하여 자연에 엄격한 질서와 조화를 부여했다.

28. 뒷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이 그림은 푸생의 '세월이라는 이름의 음악과 춤'이다. 그림의 오른쪽 기둥 옆에는 시간의 신, 왼쪽에는 젊음과 늙음의 두 얼굴을 가진 야누스 석상, 양쪽 아래에는 아기 등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다. 그리고 원형으로 둘러서서 춤을 추는 인물들은

머리에 쓰고 있는 것과 옷차림에 따라 '봄'(부), '여름'(즐거움), '가을'(가난), '겨울'(힘겨움)을 각각 상징한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계절이 순환되는 자연의 본질을, 그리고 '부'와 '가난', '힘겨움'과 '즐거움'이 순환되는 삶의 본질을 강조했다.

- ① 그림의 양쪽에 '아기'를 배치한 것은 대칭을 통해 안정적인 구도를 갖추려 한 것이겠군.
- ② 작가가 배치한 '석상'과 '기둥'은 수직선을 활용한 기하학적 공간 구성 원리를 적용한 것이겠군.
- ③ '원형'을 그리며 인물들이 춤을 추는 모습을 통해 자연의 순환이라는 영원불변한 본질을 드러내려 한 것이겠군.
- ④ 작품 속 인물들의 '머리에 쓰고 있는 것'과 '옷차림'은 작가의 즉흥적인 감정을 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
- ⑤ 고대 조각상 중 신화에 등장하는 '시간의 신'과 '야누스'를 선택하여 시간의 흐름을 압축적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겠군.

29. <보기>는 푸생의 작품 제작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뒷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푸생은 작품을 제작할 때 먼저 주제를 정하고, 간단한 스케치로 전체적인 구도를 잡았다. 그런 다음 작은 밀랍 인형들을 만들어 무대 위에 배우들처럼 배치한 후 그 배치를 바꿔 보기도 하고, 인형들에게 옷을 입혀 보기도 하는 등의 과정을 반복한 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 ① '주제'를 먼저 정한 것은 대상의 변화무쌍함을 반영하기 위한 작업이다.
- ② '간단한 스케치'는 감각을 통한 미적 즐거움을 극대화하기 위한 과정이다.
- ③ '밀랍 인형'은 작품 속 인물을 현실적이고 생동감 있게 형상화하기 위한 도구이다.
- ④ '배치'와 '재배치' 과정은 짜임새 있는 구도를 통해 주제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 ⑤ '전체적인 구도'는 자연의 사실적인 모습에 중점을 두고 모방하여 만들어낸 것이다.

30. ㉠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 것은?

- ① 이 안경이 바로 아까 그 학생 것이 맞다.
- ② 이 식당의 음식 맛은 내 입에 잘 맞는다.
- ③ 그녀는 아무리 보아도 내게 잘 맞는 것 같다.
- ④ 과연 그 답이 맞는지 더 생각해 보기로 하자.
- ⑤ 나의 의견이 그의 생각과 맞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31 ~ 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아마도 꿈이로다 일마다 꿈이로다
동냥도 꿈이로다 등짐도 꿈이로다
 뒤에서 당기는 듯 앞에서 밀치는 듯
 아무리 구브려도 차빠지니 어이 할꼬
 멀지 않은 주인집을 친신만고(千辛萬苦) 찾아오니
 존전(尊前)의 출입인가 한출침배(汗出沾背)* 무슨 일고
 저 주인의 거동 보쇼 코웃음에 비웃음에
 양반도 하릴없다 동냥도 하시는고
 귀인도 속절없네 등짐도 지시는고
 밥 쌀 노릇 하오시니 저녁밥은 많이 먹소
 네 웃음도 듣기 싫고 많은 밥도 먹기 싫다
 동냥도 한번이지 빌긴들 매양일까
 평생에 처음이요 다시 못할 일이로다
 차라리 굶을지언정 이 노릇은 못하리라
 무슨 일을 하잔 말고 신 삼기나 하오리라
 질 한 단 추려놓고 신날부터 꼬아보니
 종이노*도 못 꼬거든 **짚신날**을 어찌 꼬리
 다만 한 발 못 꼬아서 **손가락**이 부르트니
 하릴없이 내어놓고 자리노*를 배워 꼬니
 천수만한(千愁萬恨)* 이 내 마음 노 꼬기에 부치리라
 날이 가고 밤이 새니 어느 시절 되었는고
 오동이 엽락(葉落)하고 금풍(金風)이 소슬(蕭瑟)하니
 만산초목(萬山草木)이 잎일이 추성(秋聲)이라
 새벽서리 지는 달에 ㉠ 외기러기 슬피 울 제
 잠 없는 내 먼저 듣고 임 생각이 새로워라
 보고지고 보고지고 **임금** 보고지고
 나래 돌친 **학(鶴)**이 되어 날아가서 보고지고
 만리장천(萬里長天) 구름 되어 불려가서 보고지고
 오동추야(梧桐秋夜) 달이 되어 비추어나 보고지고

- 안조원, 「만언사(萬言詞)」 -

* 한출침배(汗出沾背) : 땀이 나와 등을 적심.
 * 종이노 : 종이를 꼬아 만든 끈.
 * 자리노 : 명석 등을 만들기 위해 짚 등을 꼬는 것.
 * 천수만한(千愁萬恨) : 이것저것 슬피하며 원망함.

3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구의 방법을 사용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② 영탄적 표현을 통해 고조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계절감을 표현하고 있다.
- ④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그리움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⑤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가 처한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32~33] 윗글과 <보기1>, <보기2>를 바탕으로 32번과 33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보기1>

윗글은 화자의 독백과 특정 인물과의 ㉠ 대화를 바탕으로 유배 생활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화자는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 유배지에서의 고충을 드러내기도 하고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기도 하는 한편, 유배지에서 벗어나고자하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보기2>는 윗글에 대한 화답형식으로 지어진 작품으로, ㉡ 윗글에서의 고통 받는 화자를 청자로 설정하여 현실을 참고 견뎌야 한다는 점을 ㉢ 대화 형식을 빌려 표현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보기2>

이보소 **손님**내야 **설운 말씀** 그만하고
 광부(狂夫)의 말이라도 성인(聖人)이 가리시니
 시골말이 무식하나 **나**의 말씀 들어보소
 천지인간(天地人間) 큰 기틀에 존비귀천(尊卑貴賤) 짜여내어
 하루 한 때 근심 없이 모두 즐거움이 뉘 있을꼬
 하늘에도 **변화** 있어 일월식(日月蝕)을 되시옵고
 바다에도 진퇴(進退)있어 밀물과 썰물이 있사오니
 춘추동사시절(四時節)에 한서온냉(寒暑溫冷) 돌아가니
 부귀엔들 풀칠하여 몸에 붙여 두었으며
 공명(功名)엔들 끈을 달아 옆에 채워 있을손가
 손님 팔자 좋다 한들 한결같이 다 좋으며
 변화(繁華)하다 **고생**한들 저런 고생 계속 할까
 화려하게 치장한 경대부(卿大夫) 높은 신분 귀공자도
 섬 고생 다 지내고 **천은(天恩)**입어 올라갔네

- 안조원, 「만언사답(萬言詞答)」 -

32. <보기1>을 참고하여 윗글과 <보기2>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윗글에서 '동냥'을 해야 하는 화자의 처지는 <보기2>의 '설운 말씀'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군.
- ② 윗글에서 '짚신날'을 꼬는 행위는 <보기2>의 '고생'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
- ③ 윗글에서 '손가락'이 부르트도록 일하는 모습은 <보기2>의 '변화'를 겪은 화자가 삶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윗글에서 '임금'을 보고 싶은 마음은 <보기2>의 '천은(天恩)'을 통해 해소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군.
- ⑤ 윗글에서 '학'이 되어 날아가고자 함은 <보기2>의 '손님'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라고 볼 수 있겠군.

33. <보기1>의 ㉠ ~ ㉢를 고려하여 [A]의 양반과 <보기2> 나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양반은 청자를 훈계하고 있고, 나[㉡]는 청자의 험겨운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
- ② 양반은 청자의 태도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고, 나[㉡]는 청자를 위로하고 있다.
- ③ 양반은 청자를 설득하고 있고, 나[㉡]는 청자에게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양반과 나[㉡] 모두 미래의 상황을 언급하며 청자의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 ⑤ 양반과 나[㉡] 모두 현학적 표현을 사용하여 청자의 언행에 대해 질책하고 있다.

34.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자에게 심리적 위안을 주는 기능을 한다.
- ② 화자의 부정적 인식을 완화하는 기능을 한다.
- ③ 특정 대상을 떠올리는 매개물의 기능을 한다.
- ④ 외부 대상과의 단절을 유발하는 기능을 한다.
- ⑤ 삶의 지향점을 집약적으로 제시하는 기능을 한다.

[35 ~ 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천상에서 지은 죄로 인간 세상에 태어난 김진옥은, 내란으로 부모와 헤어지고 화산도사를 만나 무예와 학문을 익혀 한림학사가 된다. 황제는 진옥이 공주와 결혼하기를 바라지만, 천상의 인연에 따라 진옥은 유승상의 딸(유부인)과 결혼한다. 이후 전여선과 결혼한 우양공주는 진옥에 대한 복수심으로 간신들과 결탁하고, 진옥이 전쟁에 참여한 틈을 노려 그의 가족을 죽이려고 하지만 김응철 등의 반대와 황후의 만류로 결국 실패한다. 황제는 진옥을 양산군에, 유부인을 정렬부인에 봉하고, 유부인과 김진옥은 공주의 죄를 용서한다.

부마 전여선과 공주가 양산군을 시기하여 다시 해하고자 하되 온갖 계교를 다 써도 해결할 방도를 찾지 못함이라. 서로 의논하되, 태자(太子)를 죽이고 천자와 양산군을 내치고 **천자의 지위를 빼앗고** 하여 계교(計巧)를 행할새, 장군 이지필과 수문장(守門將) 양철 등으로 더불어 약속을 정하니라.

이때 태자의 나이 구세라. 총명하여 백사(百事)를 무불통지(無不通知)하니, 일세성군이 될지라. 일일은 후원의 봄 풍경을 완상하고 돌아올새 태자 침전에 드사 우연히 찬 기운이 몸에 닿아 병이 나서 침석에 누워 계시더니, 공주가 천자에게 나아가 아뢰되,

“태자가 양산군과 함께 후원에 가 놀고 돌아와 병이 나사 기운이 불평하시니 실로 안타깝고 답답하여이다.”

상이 들으시고 대경하사 양산군을 청하여 태자의 병을 의논하실새, 공주가 **태자궁(太子宮)**에 이르러 문병하고 모셔 있다가, 시녀가 탕약(湯藥)을 올리려 하거늘 공주가 받아 가지고 들어오며, 미리 독약을 몸에 지녔다가 빨리 내어 **탕약에 타** 가지고 들어와 태자에게 드리니, 태자가 드시려 하다가 약 냄새 심히 독한 듯하니 먹을 길이 없는지라. 이에 가로대,

“아직 싫으니 조금 지체하여 먹으리라.”

공주가 왈,

“약을 드시지 않으시면 신체 안위를 어느 때에 회복하시리요?”

하며 약그릇을 받들어 간곡히 권하니, 태자가 마지못하여 약을 받아 마시니, 가련하다! 어린 태자가 독약이 장위(腸胃)에 들어가니 어찌 살기를 바라리오.

공주가 가만히 심복을 불러, **경화문 밖**에 이지필과 양철을 매복하였다가 양산군이 나가거든 내달아 베라 하고, 한편으로 모든 간신에게 알리되, ‘이제 태자가 약을 먹었으니 분명 죽을 지라. 오봉루에 북을 울리면 모든 신하가 들어올 것이니, 불문곡직하고 다 베라.’하고, 공주가 급히 천자 침전에 들어가 황망히 아뢰되,

“태자가 병세 위중하시니 신첩이 너무나 황공하나이다.”

하고 나와 부마를 청하여 귀에 대고 계교를 가르치니, 부마가 기꺼 양산군을 보고 왈,

“내 들으니 정렬부인이 만삭에 낙태하여 위급하다 하더이다.”

양산군이 그 말을 듣고 대경하여 급히 나오려 하더니, 홀연한 궁녀가 고하되,

“태자가 즐지에 승하시니이다.”

할 즈음에 천자가 들으시고 대성통곡(大聲痛哭)하여 양산군을 부르샤 한가지로 태자궁으로 들어가시는지라.

전여선이, 천자와 양산군이 친히 태자의 시체를 보시면 독약에 의해 죽음을 아시고 사정을 조사하여 밝히면 역모가 탄로할까 하여 급히 쫓문으로 나가 일을 주선하려 하더니, 매복하였던 복병이 양산군이 나오는 줄 알고 내달아 일시에 창검을 들어 죽이고 보니 양산군이 아니요, 부마 전여선이라. 모두 대경실색하여 아모리할 줄 모르더라.

차시 김응철이 태자가 승하고 쫓내에 대변(大變)이 났음을 듣고 크게 놀라 황극전(皇極殿)에 들어오더니, **경화문 밖**에 이르러 보니, 도총장군 정한영이 품속으로 ㉡ **일봉서(一封書)**를 내어주거늘, 응철이 보고 수상히 여겨 수문장(守門將)더러 문왈,

“그대 무슨 서간을 받으뇨?”

수문장이 대왈,

“한영이 주기로 받았나이다.”

하고 손을 들어서 북(北)을 가리키니, 복병(伏兵)이 이에 응하여 내달아 응철을 에워싸고 죽이려 할새, 동령장군 호동과 우승상 조선이 들어오거늘, 응철이 한칼로 수문장을 베고 그 서간을 앓으니, 복병이 다 흩어져 달아나더라.

응철이 그 서간을 양산군께 드리니 양산군이 보고 대경낙담하여 정신을 진정치 못하더라. 양산군이 급히 본부(本府)로 돌아와 목욕재계하고 종남산을 향하여 삼 일을 지성으로 기도하니, 화산도사가 **구름을 타고 내려와** 양산군의 손을 잡고 왈,

“그대 무슨 연고가 있어 나를 청하나뇨?”

양산군이 공경 대왈,

“국가에 당극한 변(變)이 있사와 선생을 뵈옵고자 함이니이다.” 도사가 왈,

“이제 태자가 별세하시고 쫓중에 대변(大變)이 난 줄 내 **이미 짐작하고 회생하는 약**을 가져왔으니, 가져다가 태자의 입에 넣으면 회생하리니 빨리 가서 구하고, 더디지 말라.”

하고 갑자기 사라지거늘, 양산군이 공주를 향하여 사례하고 **쫓내**를 향하여 들어오더라.

차시 공주가 태자를 독살하였으나 부마가 죽고 의논할 사람이 없으니 정히 답답하더니, 일계를 생각하고 쫓내에 들어가 울며 상게 아뢰니,

“양산군을 성상이 태산 같이 믿으시니, 신첩이 자세히 듣자오니 양산군이 환자(宦者)로 더불어 동모(同謀)하여 먼저 태자를 독살하고 천자의 지위를 도모하다가, 부마가 알고 들어오매 황상께는 미처 범치 못하고 먼저 애매한 부마를 해(害)하니이다.” 상 왈,

“네 어찌 그 진위를 자세히 아난다?”

공주가 체읍 대왈,

“도총장군 한영이 그 말을 하더이다.”

상이 진노하사 급히 한영을 **잡아들여 엄히 국문**하시니, 한영이 아뢰는 말이 또한 공주의 말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지라. 상이 크게 의심하시더니 김응철이 아뢰되,

“공주가 태자 전하를 독살하여 승하시게 한 후 모역(謀逆)하려다가 성사치 못하고, 하늘이 무심치 않으사 반수기양(反受其殃)*하옵고 죄를 남에게 돌려보내려 하여 무죄한 양산군을 모함하오니 공주를 바빠 국문하사 그 간상(奸狀)을 자세히 조사하여 밝히옵소서.”

상이 들으시고 반신반의(半信半疑)하샤 결정을 유보할 즈음에 양산군이 들어오거늘, 상이 문왈,
“경이 어디로 갔더뇨?”

양산군이 태자의 급하심을 보고 회생하실 약을 구하러 갔던 일을 아뢰고, 즉시 ㉠ 환약(丸藥)을 내어 드린 후 천자와 한가지로 태자궁에 들어가 태자를 뵈오니, 승하하신 지 오래되 조금도 생시나 다름이 없는지라. 즉시 약을 받들어 태자의 입에 넣으니 이윽고 호흡을 통하여 회생하시거늘, 상이 태자의 환생함을 보시고 크게 기뻐하샤 왈,

“경의 태산 같은 은혜를 무엇으로 다 갚으리오.”

하시고 역모를 모의한 자들을 조사하여 장안에 참하고 인하여 양산군과 김응철로 더불어 국사를 의논하여 다스리니, 차후는 천하가 태평하고 사방이 무사하여, 산에 도적이 없고 백성이 평안하더라.

- 작자 미상, 「김진옥전」 -

* 환자(宦者): 환관, 내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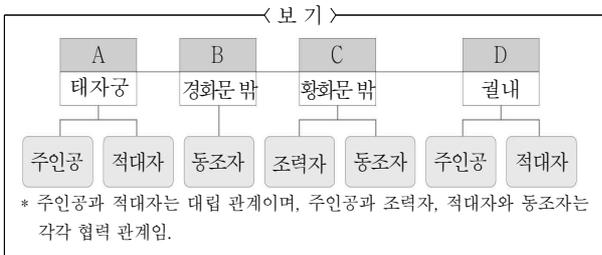
* 반수기양(反受其殃): 남에게 재앙을 입히려다 오히려 재앙을 당함.

35.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배경 묘사를 활용하여 특정 인물의 심리를 암시하고 있다.
- ② 특정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평가와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빈번한 장면 전환을 통해 서사를 빠르게 전개시키고 있다.
- ④ 대화를 통해 악인의 교활한 면모를 뚜렷이 드러내고 있다.
- ⑤ 동일한 사안에 대한 두 인물의 상반된 진술이 드러나 있다.

36. <보기>는 윗글의 주요 공간 및 관련 인물을 구조화한 것이다.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주인공은 ‘태자의 죽음’을 알게 된 후 A로 이동하게 된다.
- ② 적대자는 B의 동조자에게 ‘부마의 죽음’을 막기 위해 주인공을 해칠 것을 지시한다.
- ③ 조력자는 ‘태자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입궐하지만 C에서 기다리던 동조자에 의해 위기를 맞게 된다.
- ④ 적대자는 D에서 ‘태자의 죽음’과 ‘부마의 죽음’을 모두 주인공 탓으로 돌린다.
- ⑤ 주인공은 D로 이동하여 ‘태자의 죽음’을 해결하기 위한 자신의 노력을 밝힌다.

37.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영웅소설은 도식성과 환상성이라는 특징을 지니는데, 영웅의 위기와 극복 과정은 도식성에, 초월적 존재의 개입은 환상성에 해당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김진옥전’의 경우, 애정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로 확장되면서 해소된 듯한 갈등이 재발하고, 신이한 존재의 능력이 부각되는 등 도식성과 환상성이 강화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독자를 고려한 결과로도 볼 수 있는데, 위기 상황의 반복은 독자들에게 긴장감과 함께 흥미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신이한 존재의 개입에 의한 갈등 해소는 독자들의 긴장감을 이완시켜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 ① ‘천자의 지위를 빼앗’으려는 행위는 인물 간의 애정 문제가 정치적 문제로 확장된 것이자 도식성이 강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군.
- ② ‘독약’을 태자의 ‘탕약에 타’는 대목에서 독자들은 긴장하면서도 이후 전개될 내용에 흥미를 느낄 수도 있겠군.
- ③ 신이한 존재가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것은 영웅 소설의 환상성을 드러내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군.
- ④ 위기 상황을 ‘미리 짐작’하고 ‘회생하는 약을 가져’온 행위는 초월적 존재의 능력이 부각된 것이라고 할 수 있군.
- ⑤ ‘한영’을 ‘잡아들여 엄히 국문’하는 장면에서 독자들의 심리는 급속히 이완되어 안정감을 찾겠군.

38. ㉠과 ㉡의 서사적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을 통해 인물은 사건의 내막을 알게 되고, ㉡을 통해 인물에 대한 다른 인물의 신뢰가 유지된다.
- ② ㉠을 통해 인물은 미래의 사건을 예측하게 되고, ㉡을 통해 인물은 과거의 상황을 떠올리게 된다.
- ③ ㉠을 통해 인물의 과거 행적이 드러나게 되고, ㉡을 통해 상황에 대한 인물의 판단이 유보된다.
- ④ ㉠을 통해 인물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고, ㉡을 통해 인물이 모함에서 벗어나게 된다.
- ⑤ ㉠을 통해 인물 간의 대립은 완화되고, ㉡을 통해 인물 간의 긴장이 고조된다.

[39 ~ 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 동무, **특별동**에 위급한 환자가 생겼시오. 원장 동무가 직접 나와보구 야단났습네다레.”

“여긴 더 위급한 환자가 있소. 수술 중이라 꼼짝할 수가 없소.”

한 교수는 나지막한 의자에 누운 **아이**의 몸에 얼굴을 바짝 갖다 대고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서 동무도 어디루 갔는지 자리를 비웠시오. 지금 사방으루 찾아댕기면 법석 이래두요.”

“끝나면 곧 가겠다고 전하시오.”

“다 알아서 하시겠다만..... 가서 보고를 하디요.”

한영덕 교수가 밖의 왁자지껄하는 소리에 주의를 돌리고 나서 옆에 쪼는 두 사람에게 속삭였다.

㉠ “간호원과 조수 두 분은 빨리 나가시오.”

간호원이 말했다.

“우리가 어케 손씨를 테니 선생님 날래 가보시라요.”

한 교수는 그들의 등을 밀어 내보내고 침착하게 바늘귀에 실을 꿰었다. 채봉실에 보통 바늘이었지만, 별로 손색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았다. 거친 음성과 구둑발 소리가 다가왔으나 ㉡ 그는 첫 바늘을 꿰어 실이 팽팽해질 때까지 살포시 잡아당겼다.

방공호의 통로를 몸 그림자로 가리고서 원장이 성급하게 소리쳤다.

“뭘 하구 있는 거요?”

한 교수는 봉합 부분을 잘 살피기 위해 아이의 몸 가까이 무릎을 꿇었다. 방공호 안의 어둠에 눈이 익은 원장이 그 광경을 들여다보고 어처구니없다는 듯 혀를 찼다.

“까짓, 애들은 또 낳는 거요. 지금 경무원이 기총소사의 관통상을 입구 피를 흘리는데 이런 따위 일에 시간을 낭비하거요?”

한영덕 씨는 침착하게 바늘을 들고 섬세한 숨씨로 장의 천공 부위를 꿰매어나갔는데, 경험 많은 외과 전문의에 못지않은 훌륭한 숨씨였다.

[A]

“관통상은 압박붕대 처리만 해놓으면, 몇 시간이라두 견딜 수 있습니다.”

지혈점자를 떼어내고 혈관을 묶는 동안 피가 그 작은 몸에서 샘처럼 솟구쳐 한씨의 손과 방공호 바닥을 적셨다. 원장이 분개한 어조로 말했다.

“고발하겠소.”

“좀 비켜주시오. 어둡습네다.”

한 교수의 이마에서 땀이 솟아나 불을 타고 줄지어 흘러내렸다. 그는 마지막 부분의 봉합을 끝내고서 얼굴을 들었다. 호의 통로에서 잔광이 비껴 들어왔다. 싱싱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나무들의 건강한 잎새 사이로 석양이 물발처럼 퍼져 나와 여기저기 누운 환자들의 몸 위를 적시고 있었다. 그는 두 손바닥을 벌려 눈앞에 갖다 댔다. 피가 검게 말라붙은 손톱이며 손가락 틈을 뚫고 햇빛은 여전히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잠적해버린 서학준 교수의 행방도 추궁했으나 한 교수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한씨는 **지하실**에 일주일 동안이나 갇혀 있었다. 하루에 한 번씩 이층의 깨끗하고 밝은 방에 불리어 가서 조사를 받았다. 그 방은 벽이 온통 회색 칠해져 있었고 매일 다른 심문자가 두 사람씩 교대로 기다리고 있었다. 한 교수는 축축한 냉기 속에서 밤을 지낸 다음 아침마다 그 방으로 끌려가면서 자기가 예상 외로 침착한 것에 놀라곤 했다.

[중략 줄거리] 북한에서 처형의 위기를 간신히 넘겨 살아남은 한영덕은 가족을 두고 홀로 월남하여 서학준과 여동생 한영숙과 재회한다. 그는 생계 유지를 위해 박사, 김가와 동업을 하지만 박가의 불법 중절 수술로 갈등을 빚는다. 박가의 불법 수술 도중 환자가 위험해지자 한씨는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궁 척출 수술을 해 주고 곧 병원을 그만둔다. 무면허 영업 단속을 받은 박가는 한씨를 의심하며 앙심을 품고 그를 간첩으로 고발하고, 정보대 문관 민상호는 이를 이용해 돈을 뜯어낸다. 한영숙은 감옥에서 고초를 겪는 한씨를 면회하러 간다.

한영덕 씨는 훨씬 늙어 보이는 대신 진실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이남엔 혈육이라곤 누이동생 하나하구, 친구는 서 선생님밖에 없으니끼니 아무두 믿디 말라요.”

“기래. 알겠다.”

“오라바니, 휴전이 됐시오. 어제 협정이 끝났대요.”

한영덕 씨는 한참 동안이나 눈두덩을 손끝으로 짚어 누르고 있었다.

“..... 되구 말았구나.”

끝날 시간이 다 되었으나, 한 여사는 꼭 전해야 할 말을 간직해두고 있었다. 정보대에서 고문하면서, 시인했던 사실을 재판 때에 부정하면 다시 정보대로 돌려보내어 처음부터 조사를 새로 할 거라는 식의 **협박**을 했다는 말을 들었던 것이었다. 알려야겠는데 간수가 면회일지에다 두 사람의 대화를 적고 있었다. 그 여사는 기록을 피하고 싶었다. 간수가 일지를 덮고 나서 문을 열었고, 한영덕 씨가 따라 일어섰을 때 한 여사가 그들의 등 뒤에다 대고 말했다.

㉢ “오라바니, 정보대서 한번 넘어왔은문 다신 보내지 못한대요. 걱정 말고 안 한 건 하지 않았다고 끝까지 우기시라요.”

한씨는 붉게 충혈된 눈을 껌벅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한편으로 그 여자는 법원에다 진정서를 올리기로 했다. 그러나 아무도 서명을 해주지 않았다. 한씨의 친구들은 거의 하나같이 다른 일은 몰라도 그런 문제에 관여하고 싶지 않라며 발뺌했다. 하는 수 없이 한 여사 자신과 서학준 소령, 고동수 박사, 세 사람의 이름으로 진정서를 올렸는데도 중도에서 탈락됐는지 감감무소식이었다. 재판은 자꾸 연기되었다가 한씨가 법원으로 넘어간 후에도 4개월이 지나서야 그 사건은 일단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한씨는 새로운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다. **자궁 척출**에 관한 사건이었다. 한씨가 환자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 뒷수습으로 수술했던 일이었다. 정보대에서는 투서한 비밀을 보장해주겠다며 박사, 김가, 이가에게서 돈을 많이 뜯어낸 모양이었다. 사소한 감정으로 한씨를 찍어 넣었던 그들은 손해를 예상외로 많이 입게 되자—에라 내친김이다. 한영덕이 죽어버려라 하며 사건을 들쭉서냈던 거였다. 검사 측에서도 수개월씩 가두었던 자를 생판 무죄로 내보내느니 면목을 세워야 했으므로, 재수사를 해서 의료법으로 입건을 했었다. 서학준 씨도, 한 여사도 한영덕 씨의 실수였는 줄로 알고 있었다. 그자들이 뒤집어쓴 것을 한씨는 밝혀내기도 지쳤을 것이며, 또한 그 일만큼은 자기에게 **책임**이 있었다고 그는 느꼈던 것이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천직에 대한 회한이었을지도 몰랐다.

연도 결과는 환자의 위탁이나 승낙 없이 낙태 중 치상사건 죄에 해당되는 1년의 징역과 3년의 자격정지였다. 한씨 주변 사람들은 판결이 표면상으로는 의료법을 적용했으나 사실은 정치적 인상이 짙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한 여사가 재판정을 나오다

가 민상호와 박가, 김가, 이가의 네 사람이 나란히 어울려 가는 뒤를 쫓아가 길을 막았다. 그 여자는 창백하게 질려서 어깨까지 떨었다.

“우리 오라바니가 들으시문 섭섭해할 거디만, 만약에 오라바니가 아니구 ㉠ 내 남편이됐으면 너이는 이 자리에서 내 손에 갈 맞추 죽었을 거다.”

민상호가 웃으면서 한영숙 씨의 어깨를 잡아 한쪽으로 비켜 세우고 대꾸했다.

㉡ “야, 참으라우. 다 참아뉘야 살인죄두 면할 거 아니가.”

“너이 뼈를 갈아 한강물에다..... 아니 기러문 한이 맺혀서 안 되겠다. 이답에 내 고향 대동강에 개져다가 훌훌 뿌리갔다.”

한 여사의 볼 위로 눈물이 줄지어 흘러내렸다.

- 황석영, 「한씨연대기」 -

39.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특정 인물의 시선에서 사건을 서술하여 가치관의 변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과 사건의 정황을 직접 서술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③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을 병렬적으로 서술하여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④ 장면에 따라 서술자를 교체하여 사건 해석이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 ⑤ 인물의 독백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여 서술함으로써 사건의 의미를 재구성하고 있다.

40.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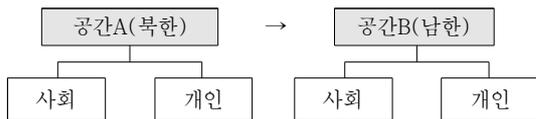
- ① ㉠: 간호원과 조수를 배려하는 한영덕의 마음이 드러나 있다.
- ② ㉡: 자신에게 닥칠 상황에 대한 한영덕의 두려움이 드러나 있다.
- ③ ㉠: 한영덕을 걱정하는 한 여사의 당부가 드러나 있다.
- ④ ㉡: 민상호와 박가, 김가, 이가에 대한 한 여사의 분노가 드러나 있다.
- ⑤ ㉡: 한 여사에 대한 민상호의 빈정거림이 드러나 있다.

41.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이 작품은 이데올로기에 의한 억압을 서로 다른 두 공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 두 공간에서 인물들은 이데올로기에 대해 다양한 태도를 보여 준다. 주인공은 각 사회에서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를 지켜 내려 하지만 사회의 이데올로기와 충돌하게 되고, 그로 인해 시련을 겪게 된다. 이를 통해 작가는 개인과 사회의 갈등으로 인해 개인의 삶이 파괴되는 부조리한 현실을 보여준다.



- ① 공간A에서 인물에게 ‘특별동’ 환자를 우선 치료하라고 요구하는 행위와, 공간B에서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협박’을 일삼는 행위는 각 사회의 이데올로기에 의한 억압을 보여주고 있군.
- ② 공간A에서 ‘아이’를 치료하는 행위와 공간B에서 ‘자궁 척출’ 수술을 한 행위는 모두 인물이 지향하는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군.
- ③ 공간A에서 인물이 일주일 동안 ‘지하실’에 갇히게 된 것은 개인의 가치관과 사회의 가치관이 충돌한 결과로 볼 수 있군.
- ④ 공간B에서 인물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양심적인 의료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통해 처벌을 받은 것은 현실의 부조리함을 보여 주는군.
- ⑤ 공간B에서 인물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 것은 개인이 사회의 이데올로기에 굴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군.

42. [A]를 <보기>의 회곡으로 각색하기 위해 토의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두 사람이 수술에 몰두하고 있는 사이, 원장이 들어온다.)

원장 한 동무! (수술하던 한영덕과 간호원 흠칫 놀란다.) 특별동에 위급한 환자를 놔두고 여기서 뭐하는 거요?

한영덕 여기에 더 위급한 환자가 있습니다. 수술 중이라 꼼짝할 수 없습니다.

원장 (화를 억제하며 수술대로 와서 지시봉으로 환자 얼굴을 가린 천을 들춰 보고) 까짓, 애들은 또 낳는 거요. 지금 특별동에는 경무원이 기총소사로 관통상을 입고 피를 흘리고 있는데 이따위 일에 시간을 낭비하십니까?

한영덕 낭비가 아닙니다. 관통상은 압박붕대 처리만 해 놓으면 몇 시간이라도 견딜 수 있습니다.

원장 한 동무, 고발하겠소.

한영덕 어둡습니다. 비켜 주시구래.

(원장, 입을 굳게 다물고 나간다.)

한영덕 (핀셋으로 파편을 집어 들고) 파편을 꺼냈소. 이 무쇳조각. 누구래 어디서 만들어 낸 거인지.....

(조명, 어두워진다. 포격 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

- ① 원장이 퇴장하는 모습과 표정을 추가하여 원장의 심리를 부각시키자.
- ② 조명의 변화와 음향효과를 활용하여 전쟁 중이라는 시대적 배경을 드러내자.
- ③ 상징적인 소재와 그에 관한 대사를 삽입하여 전쟁의 비극성을 부각시키자.
- ④ 원장의 행동을 나타내는 지시문을 추가하여 인물의 부정적인 모습을 강조하자.
- ⑤ 새로운 인물을 등장시켜 무대 밖의 사건을 전달함으로써 인물 간의 갈등을 고조시키자.

[43 ~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 꽃 사이 타오르는 햇살을 향하여
고요히 돌아가는 해바라기처럼
높고 아름다운 하늘을 받들어
그 속에 맑은 빛을 살게 하자.

가시밭길 넘어 그윽히 웃는 한 송이 꽃은
눈물의 이슬을 받아 핀다 하노니,
깊고 거룩한 세상을 우리르기에
삼가 육신의 피로움도 달게 받으라.

㉡ 피로움에 짐짓 옷을 양이면
슬픔도 오히려 아름다운 것이,
고난을 사랑하는 이에게만이
마음 나라의 원광(圓光)은 떠오른다.

푸른 하늘로 푸른 하늘로
항시 날아오르는 노고지리같이
㉢ 맑고 아름다운 하늘을 받들어
그 속에 높은 빛을 살게 하자.

- 조지훈, 「마음의 태양」 -

(나)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일은 옳지 않다

폭풍을 두려워하며
폭풍을 바라보는 일은 더욱 옳지 않다

스스로 폭풍이 되어
머리를 풀고 하늘을 뒤흔드는
저 한 그루 나무를 보라

스스로 폭풍이 되어
폭풍 속을 날으는
저 한 마리 새를 보라

㉤ 은사시나뭇잎 사이로
폭풍이 휘몰아치는 밤이 깊어 갈지라도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일은 옳지 않다

㉥ 폭풍이 지나간 들녘에 핀
한 송이 꽃이 되기를
기다리는 일은 더욱 옳지 않다

- 정호승, 「폭풍」 -

43.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반어적 표현을 통해 세태를 풍자하고 있다.
- ② 하강 이미지를 통해 애상적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 ③ 시간의 흐름에 따른 대상의 변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 ④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대상을 생동감 있게 드러내고 있다.
- ⑤ 의인화를 통해 대상의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44.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감각적인 이미지를 사용하여 대상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역설적 발상을 통해 화자의 삶의 자세가 지닌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 ③ ㉢: 청유형 어미를 사용하여 화자 자신의 다짐을 확고히 하는 한편 청자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 ④ ㉣: 대상이 처한 상황의 변화를 제시하여 시상의 반전을 유도하고 있다.
- ⑤ ㉤: 화자가 지양하는 모습을 구체적 대상을 통하여 형상화하고 있다.

45.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일반적으로 시의 소재가 되는 대상들은 화자에게 깨달음을 줄 수 있고, 특정한 의미로 인식되거나 화자의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이를 바탕으로 화자는 삶의 지향점을 제시하거나 시련에 대한 대응 방식을 모색하는 등 삶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기도 한다.

- ① (가)에서 '높고 아름다운 하늘'은, 화자가 자신의 삶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세계로 볼 수 있군.
- ② (가)에서 '한 송이 꽃'은, 화자에게 '육신의 피로움'을 감내한 존재로 인식되는 대상이군.
- ③ (가)에서 '노고지리'는, 화자에게 높은 정신세계를 지향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주는 대상이군.
- ④ (나)에서 '새'의 모습은, 화자에게 시련에 대한 적극적인 삶의 의지를 갖게 하는군.
- ⑤ (나)에서 '하늘'을 뒤흔드는 '폭풍'은, 화자에게 경외의 대상인 동시에 극복해야 할 대상이군.

※ 확인사항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2015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1교시 국어 영역 •

[A 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화 범]

1. [출제의도] 발표 준비의 적절성 파악하기

㉠의 학교 텃밭을 조성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은 (나)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다.

- ① 1분단의 텃밭 가꾸기에 대한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학생들도 직접 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다는 내용에서 제안 배경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2분단의 '농작물을 직접 키움으로써 성취감이나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생명의 소중함도 깨달을 수 있다'며, '잠깐씩 머리를 식힐 수도 있고, 정서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에서 학교 텃밭 가꾸기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 ③ 3분단의 '이와 같이' 텃밭 가꾸기는 '작은 관심과 시간 투자만으로도 나와 내 이웃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학교의 자투리 공간을 이용해 농작물을 직접 키울 수 있다'는 내용에서 발표한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2분단의 '학교에 그만한 공간이구나 하'는 의문점과, '평소 해보지 않은 농사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제기하는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출제의도] 발표 전략 파악하기

(나)에서 발표자가 청중의 수준을 고려하여 어려운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설명하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 ① '텃밭 가꾸기라고 하니 혹시 농촌의 드넓은 들판을 떠올리셨나요?'와 같은 질문을 통해 텃밭 가꾸기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고 있다.
- ② 신문 기사를 보여준 후 청중의 반응을 보며 다시 읽어 주는 것과 같이 청중의 반응을 반영하여 정보 제시 방법을 바꾸고 있다.
- ③ 사진, 동영상, 신문 기사 등의 매체를 활용하여 발표 내용의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 ④ 선생님께서 직접 키우신 토마토를 맛있게 먹었던 자신의 경험을 제시하면서 자연스럽게 텃밭 가꾸기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3. [출제의도] 듣기 전략의 적절성 파악하기

듣기는 발표자가 옆 학교 친구의 말을 인용한 것이 자신의 상황과 다를 수 있음을 들어 친구의 말이 근거로 부적절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인용한 내용의 타당성에 대해 비판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 ① 동수는 발표자가 학교 텃밭을 조성하기 위한 자투리 공간에 대해 언급한 내용의 타당성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따라서 통계 자료의 신뢰성 점검과는 관련이 없다.
- ② 찬호는 구체적 실행 방안이 대해 질문하고 있다. 따라서 찬호에게 필요한 정보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자신에게 필요한 진술을 선별하여 들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④ 보라는 텃밭 가꾸기의 어려움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따라서 청중의 반응을 예측하며 들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⑤ 예지는 발표자가 텃밭 가꾸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언급한 내용을 간파한 채 발표자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 따라서 발표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감하며 들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4. [출제의도] 의사소통 전략 파악하기

㉠에서 '학생 3'은 옛날 책을 구하기 쉽지 않다는 단점을 제시하고 있으나 다른 대안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 ① 축제 때 어떤 활동을 해야 할지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 ② 옛날 책을 소개해 보자는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 ④ 옛날 책을 만드는 방법을 사진과 함께 전시하고 직접 만드는 체험 코너도 마련해 보자는 이전까지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해결 방법을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 ⑤ 인터넷도 검색해 보고 도서관에도 가 보자며 참여자들에게 해결 방법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5. [출제의도] 대화의 의사소통 방식 파악하기

전문가는 '선장'이라는 방식의 설명, 문양을 새기는 방법에 대한 답변에서 과정의 방식을 활용하여 답변하고 있다. 따라서 유추의 방식으로 전달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① 학생은 '네, 좋아요.', '아, 그렇군요.' 등의 말을 통해 전문가의 의견에 호응하면서 대화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 ② 학생은 '선장이요? 어떤 방식인가요?', '선생님, 표지의 문양은 어떻게 새기나요?', '그런데 밀랍을 바르는 이유가 있나요?' 등과 같이 전문가에게 추가적인 질문을 던져 화제와 관련된 정보를 듣고 있다.
- ③ 전문가는 '선장'이라는 화제와 관련된 '그림 자료'와 '나무판 실물'을 보여주면서 정보 전달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⑤ 전문가는 '우리 선조들의 책을 전시하고 책 만들기 체험을 진행한다면요? 좋은 생각이네요.'와 같이 학생들이 계획한 활동을 확인하며 그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작 문]

6. [출제의도] 작문의 특성 파악하기

학생의 글은 자신이 속한 집단과의 친교적 관계 형성에 목적을 두고 있는 친교적 글쓰기가 아니라, 시각 장애인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의 어려움이라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글쓰기라고 볼 수 있다.

- ① 학생의 글은 시각 장애인의 스마트폰 사용 체험 수기에서 발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
- ② 학생이 글을 지역 인터넷 신문에 투고하려는 것으로 보아, 학생의 글쓰기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의사소통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
- ③ 체험 수기를 읽은 것을 바탕으로 글을 작성했으므로, 학생의 글쓰기는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미를 형성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 ④ 시각 장애인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의 어려움을 지역 주민에게 알리기 위해 글을 쓰고 있으므로, 학생의 글쓰기는 글을 통해 의도하는 것을 드러내는 목표 지향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7. [출제의도] 글쓰기 계획을 점검 및 조정하기

(나)에는 '터치스크린 상의 글자나 숫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일상적인 행위도 시각 장애인들은 어려움을 느낀다는 내용과, '원하는 웹 사이트를 찾아 가더라도 찾은 정보가 음성으로 제공되지 않는다.'는 문제

점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스마트폰을 조작할 때의 어려움을 겪는 내용에 웹 사이트에서 정보에 접근할 때의 어려움을 추가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 ① (나)의 첫 부분에서 시각 장애인의 체험 수기를 다루고 있다.
- ②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비장애인과의 시각 장애인 간의 인식 차이를 시각 자료를 통해 대비한 부분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④ 시각 장애인에게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의 유형에 대한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⑤ 제도적 측면의 보안을 추구하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8. [출제의도] 고쳐쓰기의 적절성 평가하기

'점검하다'는 조사 '에(케)'와 어울리므로, ㉠의 '정보에'를 '정보를'로 고쳐 쓴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①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많지 않다는 내용으로, 문장 내 앞 결과 뒤 결을 고려할 때 '있지만'으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 ② 직접 스크린 상의 글자나 숫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잘못된 피동 표현을 '확인하고'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 ④ 추가적으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의 문장이 이어지므로, 문장의 연결 관계를 고려할 때 '또한'으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 ⑤ 시각 장애인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원하는 정보를 얻는다는 글의 흐름을 고려할 때 '획득'으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9. [출제의도] 조건에 맞는 글쓰기하기

'어르신의 지나는 세월은 나무의 나이테와 같이 우리에게 풍요로운 경험을 들려줍니다.'에서는 비유법과 노인은 풍부한 연륜을 지닌 삶의 스승이라는 점을, '노인 생애 체험으로 가까워지는 세대 간의 정을 느껴보세요.'에서는 세대 간 이해를 위한 노인 생애 체험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노인 생애 체험 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① 노인 생애 체험 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 ② 비유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 ③ 노인은 풍부한 연륜을 지닌 삶의 스승이라는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 ⑤ 노인은 풍부한 연륜을 지닌 삶의 스승이라는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10. [출제의도] 작문 계획에 따른 글쓰기의 적절성 파악하기

프로그램의 순서는 사전 강의, 노화 체험, 체험 나누기이다. 하지만 '작문 과제 2'를 수행한 글에서는 노인 생애 체험 활동에 참가하게 된 동기(1분단), 체험 중 가장 관심이 있었던 내용 제시(2분단), 체험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3분단), 체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4분단)의 순서로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노인 생애 체험 프로그램의 진행 순서에 따라 글을 전개하고 있지는 않다.

- ① 1분단의 '우리 할머니께서는 큰 소리로 말씀 드려도 잘 못 들어서서 안타까웠던 나에게 '선생님께서 노인 생애 체험을 안내해 주'셨다는 내용으로 보아 참가 동기를 확인할 수 있다.
- ② 2분단의 '참가했던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청각 노화 체험'이라는 내용에서 가장 관심이 있었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2분단의 '할머니와 대화할 때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 수 있었다.'는 내용과 3분단의 '사전 강의를 통해 어르신들과의 대화가 왜 어려웠는지 이유를 알았다.'는 내용으로 보아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4분단의 '우리에게는 사소한 일이지만 어르신에게는 힘든 일이 많다'는 것과 '어르신들에게 진정성 있는 보살핌이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보아 체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으로 끝맺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문법]

11. [출제의도] 음운의 변동 이해하기

‘맨입[맨닙]’은 선행 요소가 자음으로 끝나고 후행 요소가 모음 ‘ㅣ’로 시작할 때 ‘ㄴ’이 새로 생기는 첨가 현상에 속하며, ‘설날[설:랴]’은 ‘ㄴ’이 앞에 오는 ‘ㄹ’의 영향으로 ‘ㄹ’로 바뀌는 교체 현상에 속한다. 그리고, ‘좋은[조은]’은 ‘ㅎ’이 탈락하는 현상에 속한다. 따라서 ㉠에는 첨가 현상이 나타나는 단어를, ㉡에는 교체를 탈락 현상이 함께 나타나는 단어를 넣어야 한다. ‘눈일’은 ‘ㄴ’첨가가 발생하므로 ㉠에 적절하고, ‘달은[달른]’은 자음군 단순화에 의한 ‘ㅎ’탈락과 더불어 교체 현상이 일어나므로 ㉡에 적절하다. ‘늦어름[늦너름]’과 ‘나뭇잎[나문닙]’은 교체 현상으로 ‘음절의 끝소리’, ‘비음화’와 함께 ‘ㄴ’첨가가 나타나고, ‘달은[다은]’은 ‘ㅎ’탈락만 나타나며, ‘갈날[갈탈]’은 교체만 나타나므로 적절하지 않다.

12. [출제의도] 접사에 의한 단어의 파생

‘그것을 즐기거나 그 정도가 심한 사람’의 의미를 더하는 ‘-보’는 명사나 동사와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만든다. ‘피보’는 어근(명사) ‘피’에 접미사 ‘-보’가 결합하여 ‘잔파가 많은 사람’으로 의미를 더하거나 품사는 명사로 변함이 없으므로 품사가 바뀌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13. [출제의도] 안은 문장의 이해

‘영희는 동생이 산 빵을 먹었다.’는 관형절인 ‘동생이 빵을 산’을 안은 문장이고, ‘그는 우리가 돌아온 사실을 모른다.’는 관형절인 ‘우리가 돌아온’을 안은 문장이다. 이때, ‘동생이 빵을 산’은 안은 문장의 ‘빵을’과 겹치므로 관형절의 목적인 ‘빵을’이 생략되었지만, ‘우리가 돌아온’은 생략된 성분이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14. [출제의도] 사전 활용하기

‘약을 사 먹으라고 누나가 나에게 돈을 준다.’의 ‘주다’는 ‘물건 따위를 남에게 건네어 가지거나 누리게 하다.’의 의미인 ‘주다[주]’에 해당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주다[주]’은 ‘물건 따위를 남에게 건네어 가지거나 누리게 하다.’의 의미이므로, 반의어는 ‘다른 사람이 주거나 보내오는 물건 따위를 가지다.’의 의미인 ‘받다[받]’이다. ③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은 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의 ‘주다’는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게 하다.’의 의미인 ‘주다[주]’에 해당하므로 적절할 용례이다. ④ ‘받다[받]’의 용례는 ‘날아오는 공을 받다.’의 의미이므로 반의어로 ‘던지다’를 넣을 수 있다. ⑤ ‘받다[받]’의 용례는 ‘따끈한 차를 찻잔에 받다.’이므로 ㉠에 들어갈 내용은 ‘...을 ...’에 입을 알 수 있다.

15. [출제의도] 중의적 문장 수정하기

‘윤서가 아침에 여행에서 돌아왔다는 것을 민수는 말했다.’는 문장의 의미는 ‘윤서가 여행에서 돌아온’ 시점이 ‘아침’이라는 것으로, ‘돌아온 사실을 말할 시점이 아침임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민수는 윤서가 여행에서 돌아왔다는 사실을 아침에 말했다.’고 수정해야 한다.
 ① ‘현우는 새로 산 옷을 입고 있다.’는 문장은 ‘입은 상태의 지속’의 의미도 포함하므로, 옷을 입는 동작이 진행 중일만을 나타내고자 할 때는 ‘현우는 새로 산 옷을 입고 있는 중이다.’라고 진술해야 한다. ② ‘영철이는 지수보다 야구 경기를 더 좋아한다.’는 문장은 ‘지수도 야구 경기를 좋아하지만, 영철이가 더 좋아함.’의 의미 또한 포함하므로, ‘영철이가 더 좋아하는 것은 야구 경기임.’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영철이는 지수를 좋아하는 것보다 야구 경기를 더 좋아

한다.’고 진술해야 한다. ③ ‘친구들이 약속 장소에 다 나오지 않았다.’는 문장은 ‘모두 나오지 않음.’의 의미 또한 포함하므로, ‘친구들이 일부만 참석함’을 표현하고자 할 때는 ‘친구들이 약속 장소에 다 나오지 않았다.’고 진술해야 한다. ⑤ ‘그는 내게 장미와 튤립 두 송이를 주었다.’는 문장은 ‘장미 한 송이와 튤립 한 송이 받음’의 의미와 ‘장미 두 송이와 튤립 두 송이’의 의미 또한 포함하므로, ‘받은 꽃의 개수가 세 송이임’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는 내게 장미 한 송이와 튤립 두 송이를 주었다.’고 진술해야 한다.

[과학]

[16~18] <출전> 김옥승 외, 「인체생리학」

16. [출제의도] 표제와 부제 파악하기

이 글은 체내에서 지방이 소화되는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표제는 ‘지방의 체내 소화 원리’가 적절하며, 부제로는 ‘트리글리세리드의 분해와 운반을 중심으로’가 적절하다.

17. [출제의도] 글의 세부정보 이해하기

2문단의 ‘라이페이스는 지방을 분해하는 소화 효소로’라는 부분과 3문단의 ‘조개진 지방 덩어리에 라이페이스가 작용하면 트리글리세리드는 모노글리세리드와 두 개의 지방산으로 분해된다.’는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① 2문단의 ‘물에 녹는 성질을 가진 라이페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2문단의 ‘라이페이스는 지방을 분해하는 소화 효소로 침샘, 위, 이차에서 분비’라는 부분과 ‘쓸개에서 분비되는 담즙염’이라는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2문단의 ‘담즙의 구성 성분 중 하나인 담즙염은 친수성과 소수성을 함께 갖고 있어 지방 덩어리를 만나면 소수성 부위는 안쪽인 소수성 입자를 향해, 친수성 부위는 바깥쪽인 물을 향해 흡착된다.’는 내용으로 보아 흡착되는 것은 담즙염임을 알 수 있다. ⑤ 2문단의 ‘라이페이스는 지방을 분해하는 소화 효소로 침샘, 위, 이차에서 분비되거나 입, 위보다는 소장 내강에서 본격적으로 작용한다.’는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8. [출제의도] 글의 세부적 내용 파악하기

<보기>는 지방의 소화 과정이 진행되는 장소를 도식화한 것이다. 4문단의 ‘먼저 이들은 운반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트리글리세리드로 재합성된다.’를 통해 상피세포 안에서는 트리글리세리드가 조개지는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① 3문단의 ‘소수성과 친수성을 함께 가진 담즙염과 레시틴 등은 모노글리세리드와 지방산을 중심으로 내부는 소수성을, 외부는 친수성의 성질을 띠는 형태로 모인다.’는 부분과 2문단의 ‘담즙염은 지방 소화 효소는 아니므로 트리글리세리드를 분해하지 못한다.’는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3문단의 ‘그런데 이들은 소수성이어서 수용성 환경인 미즙 상태에서 쉽게 들어가기 어렵다. 이 때문에 소수성과 친수성을 함께 가진 담즙염과 레시틴 등은 모노글리세리드와 지방산을 중심으로 내부는 소수성을, 외부는 친수성의 성질을 띠는 형태로 모인다.’는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3문단의 ‘조개진 지방 덩어리에 라이페이스가 작용하면 트리글리세리드는 모노글리세리드와 두 개의 지방산으로 분해된다.’와 ‘이로 인해 모노글리세리드와 지방산은 미즙에서 상피세포 표면으로 이동한 후, 미셀에서 떨어져 나와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부분, 4문단의 ‘먼저 이들은 운반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트리글리세리드로 재합성된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4문단의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단백질 등의 물질로 포장되어 카일로마이크론(chylomicron)이라는 복합체를 형성한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술]

[19~22] <출전> 신경철 외, 「디스플레이 개론」

19.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 파악하기

4문단의 ‘화소의 밝기 단계를 0에서 255 사이의 화소값으로 나타내는데, 0은 가장 어두운 밝기를, 255는 가장 밝은 밝기를 나타낸다.’를 통해 화소값이 커질수록 화면의 밝기가 밝아짐을 알 수 있다.
 ① 4문단의 ‘빛의 투과율을 조절하여 화소들의 밝기 단계를 조절한다.’에서 알 수 있다. ③ 4문단의 ‘전압의 크기가 크면 응답 속도가 빠르고, 전압의 크기가 작으면 응답 속도는 느리다.’에서 알 수 있다. ④ 2문단의 ‘이 액정 분자들의 배열 방향을 일정하게 해주는 것이 배향막이다.’에서 알 수 있다. ⑤ 2, 3문단의 내용을 볼 때, 노멀 화이트 방식은 전압을 가해지지 않았을 때, 액정 분자는 90° 비틀린 상태로 배열되어, 수직 편광관을 통과하는 빛이 그 배열 방향에 따라 90° 회전하면서 수평 편광관을 통과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5문단을 보면 ‘오버드라이빙은 목표 밝기에 해당하는 전압보다 높은 전압을 순간적으로 걸어주어 액정 분자의 응답 속도를 개선하는 것이다.’에서 알 수 있듯이 V₂를 가하면 응답 속도가 빨라져 잔상 제거 효과가 나타난다. t₂는 전압을 V₁으로 낮췄을 때 화소값을 유지하는 부분으로 잔상 제거 효과는 t₂ 이전에 나타난다.
 ① 5문단의 ‘일반적으로 잔상이 발생하는 경우는 목표 밝기에 해당하는 전압의 세기만 걸어주게 되었을 때 발생한다.’에서 알 수 있듯이, 목표 밝기에 해당하는 전압은 V₁만을 가했을 때, t₀부터 t₂까지 잔상이 타난다. ③ 5문단의 ‘오버드라이빙은 목표 밝기에 해당하는 전압보다 높은 전압을 순간적으로 걸어주어 액정 분자의 응답 속도를 개선하는 것이다.’에서 알 수 있듯이, 목표 밝기에 해당하는 전압인 V₁에서 V₂로 변화시키는 것은 액정 분자의 응답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함이다. ④ 4문단의 ‘응답 속도란 액정 분자가 배열 상태를 바꾸는 속도를 말한다.’에서 알 수 있듯이, 초과 전압인 V₂를 가했을 때 응답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은 액정 분자의 배열 속도가 빨라진다는 말과 같다. ⑤ 5문단의 ‘잔상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걸어준 높은 전압을 지속시키면 역잔상이 발생하므로 해당 전압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낮춰 줘야 한다.’에서 알 수 있듯이, 초과 전압인 V₂에서 목표 밝기에 해당하는 전압인 V₁으로 낮춰주지 않으면 t₁이후에는 역잔상이 발생한다.

21. [출제의도] 글을 근거로 이유 추론하기

2, 3문단의 내용을 볼 때, 빛의 <그림 2>에서 빛이 수평 편광관을 통과하지 못한 이유는 액정 분자에 전압이 가해져 액정 분자가 대전체가 되어 전기장의 방향으로 일정하게 배열되어, 빛의 진동 방향에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② 배향막은 전압을 걸어주지 않은 상태에서의 액정의 배열 방향을 일정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만약 두 편광관의 배향막의 방향을 동일하게 한다면, 전압을 걸어주지 않은 상태에서의 액정의 배열 방향이 달라질 것이다. ③ 전압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액정 분자는 90° 비틀린 상태로 배열되어 빛을 투과하는 상태가 된다. ④ 빛이 수평 편광관을 통과하지 못한 것은 액정 분자의 배열 상태가 빛의 진동 방향에 영향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⑤ 전압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액정 분자의 배열은 90° 비틀린 상태이고, 이 배열 상태의 영향을 받아 빛은 수평 편광

판을 통과하게 된다.

22. [출제의도] 어휘의 사전적 의미 이해하기

① '구현(具現)'은 '어떠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나타냄.'의 의미이다. '몇 가지 부분을 모아서 일정한 전체를 이룸.'의 의미를 갖는 어휘는 '구성(構成)'이다.

[사회]

[23~26] <출전> 하워드 제이, 「회복적 정의란 무엇인가?」

23. [출제의도] 글의 설명 방식 이해하기

3문단에서 회복적 사법의 특성을 기존의 형사 사법과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다.

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회복적 사법의 한계를 분석하는 부분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② 구체적 수치를 활용하여 회복적 사법의 특성을 밝히는 부분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④ 비유적 진술을 이용하여 회복적 사법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부분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⑤ 두 이론을 절충하여 회복적 사법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부분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24.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회복적 사법이 실현된 사법 제도의 다양한 유형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① 1문단에 회복적 사법이 등장하게 된 계기로서 1974년 캐나다 사례가 제시되어 있다. ② 2문단에 지속적인 범죄 증가 현상과 증가하는 재범률이 응보형론과 재사회화론의 관계점으로 제시되어 있다. ④ 2문단에 기존의 형사 사법이 응보형론과 재사회화론을 기저에 두고 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⑤ 3문단에 기존의 관점에서는 범죄 행위를 국가에 대한 거역이고 위법 행위로 본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25.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 추론하기

3문단에 회복적 사법은 사과와 피해 배상, 용서와 화해를 통한 회복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으며, 응보 심리를 충족하는 것은 응보형론이다.

① 3문단에 기존 형사 사법에서는 주로 벌인, 징계당한 벌, 처벌 등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② 2문단에 응보형론은 범죄를 상쇄할 해악의 부과를 형벌의 본질로 본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③ 2문단에 재사회화론은 형벌과 교육으로 범죄인의 반사회적 성격을 교화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응보형론은 형벌 그 자체에 목적을 둔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④ 3문단에 회복적 사법의 범죄에 대한 기본적 대응 방법은 피해자와 가해자, 공동체 구성원까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대화와 합의라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26. [출제의도] 글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기

가해자가 형벌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회복적 사법에 참가하면 진정한 태도 변화와 사과와 화해가 이루어질 수 없고, 프로그램의 실시 목적이 달성되기 어렵다.

① 3문단에 회복적 사법은 피해자와 피해의 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② 3문단에 회복적 사법은 가해자의 태도 변화와 피해의 회복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이 제시된 것으로 볼 때, 가해자의 교화나 제법의 예방에 관심이 많다고 볼 수 없다. ③ <보기>에 따르면, 회복적 사법이 헌법 정신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것이지 피해자가 상처 입음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④ <보기>에 따르면, 가해자가 프로그램에 참가했을 때 유죄로 간주될 수 있다.

[예술]

[27~30] <출전> 임영방, 「바로크」

27. [출제의도] 세부 정보 파악하기

1문단을 보면 푸생은 '그림을 통해 경험적인 차원 그 너머에 있는 영원불변한 본질을 나타내고자 했다고 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3문단에서 '역사 속 영웅적 인물의 삶을 작품의 소재로 삼'았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② 1문단에서 '고대 그리스·로마 예술이 이성에 바탕을 둔 것이므로 고대 예술이 모든 시대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④ 3문단에서 '고대의 건축물은 '배경의 일부'로 사용되었고, '특별히 선택된 건축물'이라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⑤ 3문단에서 '전경에서 후경으로의 점진적인 공간이행'을 사용하여 '자연에 엄격한 질서와 조화를 부여했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28. [출제의도] 세부 정보 파악하기

1문단에서 푸생은 '바로크 미술이 주로 작가의 즉흥적인 감정을 형상화했다'는 점에서 '지적인 사고가 결여된 예술 활동으로 규정했다.'라고 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2문단에서 '대칭'을 활용해 '안정적인 구도'를 갖추려고 했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② 그림에서 '석상'과 '기둥'은 수직선을 이용한 구성임을 알 수 있고, 2문단에서 '선'을 활용하여 '기하학적 공간 구성의 원리를 적용'했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③ <보기>에서 인물들은 각각 봄·여름·가을·겨울을 상징하고, 작가는 이를 통해 계절이 순환되는 자연의 본질을 강조한다고 했고, 1문단에서 푸생은 영원불변한 본질을 나타내고자 했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⑤ 2문단에서 '진화 속 이야기들을 그림의 소재로 삼아 시의 차원으로 전환시켜 절제되고 압축된 표현을 사용했다'고 했고, <보기>에서 신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신'은 시간의 신이고, '야누스'는 젊음과 늙음의 두 얼굴을 지녔으며,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계절이 순환되는 자연에 본질을 강조했다' 했으므로 '시간의 흐름'을 압축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 설명은 적절하다.

29. [출제의도] 반응의 적절성 파악하기

<보기>의 푸생이 그림 제작 과정에서 사용한 방법들인 '배치'와 '재배치'는 2문단에서 '짜임새 있는 안정적인 구도'와 연결되고, 이는 '자연의 영원불변한 본질'을 구현하고자 한 것이라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① 1문단에서 대상의 '변화무쌍함'은 바로크 미술의 특징이고 푸생은 이를 멀리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4문단에서 푸생의 작품을 통해 느끼게 되는 '미적 즐거움은 감각적이거나보다는 지적이고 정신적인 것에 가깝다'라고 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1문단에서 푸생은 그림을 통해 '경험적인 차원 그 너머에 있는 영원불변한 본질과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나타내고자 했'으므로 '밀접 인형'이 작품 속 인물을 현실적이고 생동감 있게 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⑤ 3문단에서 푸생의 '작품 속 자연의 풍경은 사실적인 자연의 모습이 아니'라고 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30. [출제의도] 어휘의 의미 파악하기

㉠의 '맛다'는 '어떤 행동, 의견, 상황 따위가 다른 것과 서로 어긋나지 아니하고 같거나 어울리다.'의 뜻이므로 적절하다.

① '어떤 대상이 누구의 소유임이 틀림이 없다.'라는 의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어떤 대상의 맛, 온도, 습도 따위가 적당하다.'라는 의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모습, 분위기, 취향 따위가 다른 것에 잘 어울리다.'라는 의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문제에 대한 답이 틀리지 아니하다.'라는 의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고전시가]

[31~34] <출전> 이휘일, 「전가팔곡」

31. [출제의도] 표현상 특징 파악하기

<제1수>를 보면, '하는 일이 무엇인고'에 대한 물음에 '이 중에 우국성심은 풍년을 원하노라.'라고 답하고 있어 자문자답의 방식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풍년에 대한 기원을 담고 있는 것으로 화자의 안타까움을 부각시킨다고는 볼 수 없다.

① <제2수>의 '알집의 쟁기 잡고 밋집의 따미 내네'와 <제5수>의 '밤에는 새끼를 꼬고 낮에는 띠를 베어'에 나타난 대구법을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② <제3수>의 '어사와 입립신고(粒粒辛苦)' 어느 분이 아실까.'에 나타난 설의법을 활용하여 농사일의 어려움에 대한 깨달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제4수>의 '이 밖에 천사만중(千鵬萬鍾)을 부러 무엇하리오.'에는 부귀영화를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삶의 깨달음이, <제8수>의 '이 중의 즐거운 뜻을 일러 무엇하리오.'에는 전원에서의 삶에 대한 깨달음이 나타나 있다. ③ <제5수>의 '초가집 잡아 매고 농기(農器) 좁 손 보아라', <제7수>의 '배꼽은 농부들을 진시(趁時)에 먹여라'와 같이 명령형의 문장을 활용하여 구체적 행동을 지시하고 있다. ④ <제2수>의 '농인이 와 이르되 봄 왔네 밭에 가세'와 같이 청유의 방식을 활용하여 상대방의 행동을 이끌어 내고 있다.

32. [출제의도] 시의 구조에 따라 이해하기

[C]에서의 <제6수>와 <제7수>에는 시선의 이동이 두드러지지 않고 <제8수>의 초장에는 '풀 끝에 이슬 맺힌다'는 내용을 통해 원경에서 근경으로의 시선의 이동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C]에서는 농촌의 일상을 드러내고 있어 각 수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A]는 '서사'로 일 년의 풍년을 바라보고 있으며 [B]에는 사계절의 시간, [C]에는 하루 동안의 시간이 나타나 있다. 따라서 [A]는 [B]와 [C]의 시간을 통해 실현하고 싶은 풍년이라는 화자의 소망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B]에는 사계절의 흐름에 따라 농사의 과정이 드러나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봄에는 농사의 시작, 여름에는 땀 흘려 일하는 모습이, 가을에는 결실을 맺는 모습이 겨울에는 다음의 농사를 '준비'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다. ③ [B]에는 '춘-하-추-동'의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며 <제5수>의 '내년에 봄 온다 하거든'을 통해 또 다시 내년 봄을 생각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따라서 [B]에는 봄부터 겨울을 거쳐 다시 봄으로 이어지는 시간의 순환성을 바탕에 둔 것이라 볼 수 있다. ⑤ [C]에는 '새벽-낮-저녁'으로 이어지는 하루 동안의 시간이 나타나 있으며 말로써 일을 하러 나가자고 하는 새벽, 점심을 준비하는 낮,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저녁의 모습을 통해 농촌의 일상을 나타내고 있다.

33. [출제의도] 다른 작품과 함께 감상하기

㉠은 화자가 농부들에게 먹이고 싶어 하는 것이므로 농부에 대한 애정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는 '꽃나물'과 함께 소박한 음식을 나타내므로 화자의 소박한 삶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34.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라 감상하기

<제6수>를 볼 때, 새벽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화자의 모습은 드러나 있으나, 당시 유학자로서의 학문에

대한 열정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① <제1수>에는 농촌에 생활하면서도 우국성심(憂國誠心)의 마음으로 풍년을 기원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따라서 <제1수>에는 농촌에서 생활하면서도 나라를 생각하며 풍년이 오기를 바라는 사대부의 소임이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제2수>의 종장에는 서로 상부상조하며 농사일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따라서 <제2수>에는 농민들과 상부상조하는 모습을 통해 농민과 삶을 공유하는 작가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제3수>의 종장에는 전원에서의 체험을 바탕으로 노동의 어려움을 인정하는 작가의 생각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제4수>는 수확한 곡식을 보고 기뻐하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준다. 여기에는 전원에서 생활했던 작가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고전소설]

[35~38] <출전> 작자 미상, 「박씨전」

35. [출제의도] 소설의 내용 이해하기

박 씨는 추비한 외모로 인해 일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샀으며, '비복들도 박 씨를 또한 박대하더라.'라는 구절을 보아 박 씨가 부당한 대우에도 불구하고 비복들의 조력으로 견뎠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박 씨의 외모가 매우 추비한데도 불구하고, 혼인을 허락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박 씨를 머느리로 맞이하는 것으로 보아 상공은 인물을 보는 남다른 안목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 ② 시백이 병에 걸리어도 '승상이 전념하여 조심하시고 일가 황황한들 시백이 말을 감히 못하고 박 씨 혼자 아는지라.'의 내용으로 보아 승상과 일가에서는 시백이 아픈 이유를 알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③ 부인이 '남도 부끄럽고 집안도 낭패'하기 때문에 '다른 가문에 구혼하여 어진 머느리를 얻으면 어떠하오리까?'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상공 부인은 외부의 시선을 의식하여 혼사에 대해 거부감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시백이 '해가 지면 오는 밤에는 들어가 전일 박대하고 잘못한 말을 먼저 말하'겠다고 다짐하지만 화해를 청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결심과는 달리 먼저 화해를 청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6. [출제의도] 말하기 방식 이해하기

[A]에서 상공은 시백에게 '박 씨를 열골이 굵지 않다 하여 구박하니 벌집이 이러하고 어찌 수신제가하리오.'라며 유교적 명분을 들어 질책하고 있고, [B]에서 박 씨는 '부모께 영화와 효성'으로 섬겨야 하고, '일후는 수신제가하는 절자를 전같이 마음소서.'와 같이 유교적 명분에 충실할 것을 상대에게 당부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37. [출제의도] 서사의 전개 과정 이해하기

'피화당'에서는 박 씨가 그동안 외모로 인해 자신을 멀리하는 등의 시백의 잘못을 밝히고 있으며 이에 대해 시백은 그동안의 행동에 대해 후회하며 미안해하고 있다. 따라서 '피화당'에서 미안해하고 후회하는 시백의 태도는 '의당'의 상공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객절'에서 형용축직한 박 씨의 외모를 본 이후 시백은 박 씨를 박대하였으나, '피화당'에서 박 씨를 마주하여 박 씨를 박대하던 것에 대해 '후회막급'이라며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② '객절'에서는 박 씨의 형용축직한 외모가 드러나고 있으며 '피화당'에서는 박 씨가 그 동안의 서러움에도 불구하고 시백과의 화포를 풀고 공손한 태도를 취하는 모습에서 박 씨의 인품을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③ '객절'에서 박 씨를 박대하지 않았다는 승상의 결심은 '의당'에서 손님들에게 박 씨의

덕행을 칭찬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④ '중당'에서 무릎 꿇고 있는 박 씨의 모습을 본 부인들은 수군대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반면 '의당'의 상공은 박 씨의 덕행을 손님들에게 칭찬하며 박 씨를 두둔하는 것으로 보아 적절한 진술이다.

38. [출제의도] 상황에 어울리는 한자성이 이해하기

앞 뒤 상황을 통해 시백이 여러 날 동안 박 씨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마음을 태우다 병이 났음을 짐작할 수 있으므로 '몹시 마음을 쓰며 애를 태운다.'는 뜻의 노심조사(勞心焦思)가 적절하다.

① 군자삼락(君子三樂): 군자의 세 가지 즐거움을 이르는 말, ② 이심전심(以心傳心): 마음에서 마음이 통한다는 뜻, ③ 견강부회(牽強附會):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 붙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한다는 뜻, ④ 풍수지탄(風樹之嘆): 효도하고 싶을 때 이미 부모를 여의고 효행을 다하지 못하는 자식의 슬픔을 나타냄.

[현대소설]

[39~42] <출전> 황석영, 「한씨연대기」

39. [출제의도] 서술상 특징 파악하기

3인칭 전지적 작가시점에서 한영덕이나 한영숙의 내면을 직접 서술하고 있으며, 한영덕이 재판을 받게 된 정황 등을 직접 서술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① 인물의 가치관의 변화는 드러나 있지 않다. ② 북한과 남한에서 있었던 일을 제시했으나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을 병렬적으로 서술했다고 볼 수 없다. ③ 서술자의 교체가 나타나지 않는다. ④ 인물의 독백을 통한 과거와 현재의 교차 서술이 나타나지 않는다.

40. [출제의도] 구절의 서사 전개상 기능 파악하기

'거친 음성과 구두발 소리'가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수술을 하는 장면을 통해, 한영덕이 자신에게 다칠 일에 대해 두려움을 느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자신 때문에 간호원과 조수를 위협에 처하지 않게 배려하는 한영덕의 마음을 알 수 있다. ② 한 여사는 한영덕이 정보대의 협박 때문에 거짓 자백을 할까 걱정하며 그러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③ 한 여사가 한영덕의 일로 민상호와 막가, 김가, 이가에게 분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민상호가 한 여사의 말에 대해 빈정거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1. [출제의도] 종합적 감상의 적절성 파악하기

<보기>의 구조도는 공간A인 북한에서 공간B인 남한으로 이동하면서 개인인 한영덕이 각 사회에서 그 사회의 이데올로기와 갈등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남한에서 한영덕이 '자궁 적출' 수술에 대해 '책임'을 느끼는 것은 '마로 자신의 천직에 대한 회한이었을지도 몰랐다.'라는 부분으로 미루어 의사로서 느끼는 양심 때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가 사회의 이데올로기에 굴복했기 때문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북한에서 특병동 환자인 경우원을 먼저 치료하라고 요구하는 것에서 북한 사회의 이데올로기적 억압을, 남한의 정보대에서 한영덕이 죄가 없는데도 투서를 받아들이고 그를 협박하는 것에서는 남한의 반공 이데올로기의 억압이 드러난다. ② 북한에서 한영덕이 '아이'를 먼저 치료하는 것은 특병동 환자보다 아이가 더 위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남한에서 한영덕이 '자궁 적출' 수술을 한 것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였으므로 의사로서 생명을 중시하는

한영덕의 가치관을 알 수 있다. ③ 한영덕이 위급한 환자를 먼저 살렸다는 이유로 '지하실'에 갇히게 된 것은 개인과 사회의 가치관 충돌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④ 남한에서 한영덕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궁 적출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현실의 부조리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42. [출제의도] 장르 비교하기

[A]와 달리 <보기>에서는 '간호원'이 등장하지만 이를 통해 무대 밖의 사건을 전달하지 않았으며 인물 간의 갈등이 고조될契機을 암시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원장, 입을 굳게 다물고 나간다.'를 통해 원장의 심리를 부각시켰음을 알 수 있다. ② '조명, 어두워진다. 포격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에서 전쟁 중이라는 시대적 배경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파편'과 그에 대한 대사를 삽입하여 전쟁의 비극성을 부각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수술대로 와서 지시봉으로 환자 얼굴을 가린 천을 들춰 보고'를 통해 원장의 부정적 모습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대시]

[43~45] <출전> 박재구, 「절망을 위하여」

43.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 파악하기

'않았고', '않는다' 등의 부정적 의미를 지닌 서술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이웃에게 관심을 둘 수도 없고 삭막한 현실이 일상화된 시적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① 이 시에 계절적 배경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② 이 시에서는 음성 상징어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③ 이 시에서는 의문형 진술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⑤ 처음과 끝이 대응되는 수미상관의 구조를 지니고 있지 않다.

44. [출제의도] 의적 준거를 참고하여 작품 감상하기

ㄱ. '마음의 배고픔' 때문에 화자는 이 땅을 절망적인 공간으로 인식한다. ㄴ. 배고픔은 무언가가 결핍된 상태를 의미한다. 이 시에서 마음의 배고픔은 화자가 추구하는 사랑, 추억과 같은 긍정적인 것이 결핍된 상태로 화자의 현재 심리를 비유한다. ㄷ. 이 때문에 화자는 자신이 처해 있는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 노래하게 된 것이다. ㄹ. '이방의 발작 소리'는 현재의 부정적 상황을 초래한 것이며, 화자는 그 주체에 대해 연민의 감정을 느끼지는 않는다.

45. [출제의도] 내재적인 판점으로 작품 감상하기

'배'는 희망을 상징하여 이를 띄우는 것은 희망을 바라는 행위이다. <보기>를 참고할 때 이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는 것이므로, 억압적인 현실을 외면하려는 행위를 표현한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머리 위를 짓밟고 갔다는 것에서 화자가 현재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보기>를 참고할 때 이는 화자가 당시의 사회 분위기를 암울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눈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관심을 주지 않는 모습을 의미한다. <보기>를 참고할 때 이는 당시의 삭막한 현실에 있는 민중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낯선 슬픔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익숙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기>를 참고할 때 이는 자유가 억압된 당시에 민중들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가 일상이 된 현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⑤ '풀포기'는 끈질긴 생명력을 지는 민중을 상징하며 '별빛'은 하늘에서 빛나는 존재로 희

망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보기>를 참고할 때에는 부정적인 현실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려는 화자의 소망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B 형]

1	5	2	4	3	2	4	3	5	4
6	3	7	5	8	2	9	4	10	5
11	3	12	4	13	3	14	2	15	3
16	1	17	1	18	3	19	1	20	1
21	5	22	5	23	3	24	4	25	5
26	1	27	3	28	4	29	4	30	5
31	4	32	3	33	2	34	3	35	1
36	2	37	5	38	1	39	2	40	2
41	5	42	5	43	5	44	4	45	5

[화법]

1. [출제의도] 토론 전략 이해하기

‘학생 4’는 장소의 제약으로 할 수 없었던 강연이나 실내 체육 수업이 가능해지고 문화 공연 등을 통해 휴식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 등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만 관련 용어의 개념은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사회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다목적 강당 신축 심의에 앞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을 언급하며 논의를 시작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학생 1’은 눈이나 비가 내리던 날의 체육수업에 대한 과거 경험을 떠올려 보게 하며 강당 신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학생 2’는 강당 신축 예정자인 야의 휴식 공간을 다수의 학생들이 사랑하고 있음을 구체적 수치를 활용하여 밝히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학생 3’은 강당 신축 후 학교 시설을 외부인에게 개방하여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가 있었음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2. [출제의도] 자료를 활용하여 주장을 뒷받침하기

<자료>를 통해 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체육 시설은 학교 체육 시설임을 알 수 있다. 다목적 강당을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여 생활 체육 활동의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찬성 측은 논거로 활용한다면 찬성 측은 주장을 강화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① <자료>를 통해 학교 개방의 책임 주체가 학교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반대 측 학생들은 다목적 강당이 신축되면 학생들의 쉼터가 없어지기 때문에 강당 신축을 반대하고 있기에 이를 학교 시설 개방의 책임 주체와 관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자료>를 통해 학교 시설 개방의 전제 조건은 ‘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교육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임을 알 수 있다. 찬성 측은 학교의 기본 목적이 학생 교육에 있다는 주장을 한 적이 없으므로 이를 학교 시설 개방의 전제 조건과 연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자료>를 통해 학교 시설 관리의 책임 주체가 학교임을 알 수 있다. 반대 측은 다목적 강당 개방이 학교 시설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한 적이 없으므로 이를 학교 시설 관리의 책임 주체와 연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자료>를 통해 시민들의 이용 선호 시간대는 저녁이나 주말임을 알 수 있다. 찬성 측은 다목적 강당을 명사 초청 강연이나 실내 체육 수업의 장소로 활용한다면 학생들의 학습 기회가 확대가 될 수 있다고 한 것이지, 주말이나 저녁 시간에 학교를 개방해 학생들의 학습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3. [양측이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내용 이해하기]

찬성 측은 다목적 강당 신축으로 날씨의 구애를 받지 않고 학생들이 체육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근거를 들고 있고, 반대 측은 다목적 강당 신축으로 운동장 일부가 훼손되어 학생들의 체육 활동 공간이 축소될 것을 근거로 들고 있다. 양측 모두 학생들의 체육 활동을 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함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① 학교와 지역 사회 간의 교류 확대를 말한 것은 찬성 측만이다. ③ 다목적 강당 개방으로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를 언급한 것은 반대 측만이다. 또한 양측 모두 학생 안전을 위해 학교 시설의 재정을 언급하지 않았다. ④ 다목적 강당 신축으로 새로운 문화 공간이 생길 수 있음을 말한 것은 찬성 측만이다. ⑤ 양측 모두, 학교 시설 개선을 위해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함을 말하지 않았다.

4. [A형 4번과 동일]

5. [A형 5번과 동일]

[작문]

6. [출제의도] 초고를 읽고 글쓰기 전략 파악하기

초고에서 다루고 있는 대상은 ‘감정노동자’인데, 감정노동자의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대조의 방법을 활용하지 않았다.

① 첫째 단락에서 ‘우리나라 감정노동자들이 과도한 스트레스 상황에 처해 있다’는 뉴스의 내용을 인용함으로써 문제 상황의 심각성을 제시하고 있다. ② 둘째 단락에서 감정노동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는 원인을 소비자, 기업, 정부 측면으로 분석하였으며, 셋째 단락에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각각 소비자, 기업, 정부 측면으로 제시하고 있다. ④ 첫째 단락에서 ‘감정노동자는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고 고객을 응대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감정노동자’라는 생소한 개념을 정의하고, 이들의 예로 ‘판매나 상담 등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예를 들고 있다. ⑤ 넷째 단락에서 ‘특히 이는 청소년들이 앞으로 겪을 수 있는 문제이다.’ ‘사회구성원들이 관심을 갖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예상 독자인 청소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하여 감정노동자에 대한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7. [출제의도] 자료를 활용하여 초고 수정하기

(다)의 근로기준법의 개정 내용은 ‘고객의 폭언과 폭행, 인격 무시 등에 대한 처벌 기준’이고, (나)의 직원들의 업무 능력 평가 기준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자체 기준’이므로 ‘근로기준법의 개정 내용을 바탕으로 감정노동자들의 업무 능력을 평가’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가)-1은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성 질병 발생 비율이 일반직장인보다 3배 이상 높게 나온 통계 자료이므로 ‘감정노동자들이 과도한 스트레스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의 구체적인 근거’로 적절하다. ② (가)-2는 감정노동자의 고객 응대 시 스트레스 요인으로 ‘부시-폭언’이 40.1%를 차지한다는 자료이고, (나)는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폭언과 무리한 요구를 하는 고객에 대한 응대 매뉴얼을 만들어 소비자들의 부당한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인터뷰이다. 그런데 초고의 둘째 단락에는 감정노동자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사례가 많다고만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가)-2와 인터뷰의 내

용을 통해 고객의 폭언으로도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감정노동자에 대한 고객들의 폭언도 감정노동자가 겪는 어려움의 원인임을 둘째 단락에 추가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③ (나)에는 ‘자율 웰스클립, 정신 건강 상담실’을 운영하여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줄였다고 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감정노동자의 근무 여건 개선의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④ (다)의 ‘고객의 폭언과 폭행, 인격 무시 등에 대한 처벌 기준’ 마련은 근로기준법의 개정 방향이므로 (다)를 활용하여 ‘감정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내용을 구체화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8. [출제의도] 고쳐쓰기의 적절성 파악하기

㉠은 편의적 직원이 손님에게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는 내용의 통일성을 해치므로 앞 문장과 순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삭제해야 한다.

① ㉠ ‘몇일’은 어문 규범에 맞지 않게 쓴 것이므로 ‘며칠’로 고쳐야 한다. ③ ㉡의 ‘웃음’과 ‘말’에 호응하는 서술어가 각각 필요하므로 ‘밝은 웃음을 짓고 친절할 말을 건네는’으로 바뀌어야 한다. ④ ㉢은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사람만을 전문가’로 생각하는 주체가 ‘우리는’이므로 피동형인 ‘생각되지만’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생각하지만’으로 고쳐야 한다. ⑤ ㉣은 감정노동자가 전문가인 이유가 제시된 문장과 감정노동자를 전문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문장을 연결해야 하므로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그러므로’로 바뀌어야 한다.

9. [A형 9번과 동일]

10. [A형 10번과 동일]

[문법]

11. [출제의도] 표준발음법 규정 이해하기

‘꽃망울’은 받침 ‘츠’이 ‘ㄱ’ 앞에서 [ㄴ]으로 발음되어 [꼐망울]로 발음된다. 따라서 18항이 적용되었다는 진술은 타당하나, 23항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① ‘알마당’은 받침 ‘ㅍ’이 ‘ㄹ’ 앞에서 [ㄹ]으로 발음되어 [알마당]으로 발음된다. 따라서 18항이 적용되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② ‘늦가을’은 받침 ‘ㅈ’ 뒤에 연결되는 ‘ㄱ’이 [ㄱ]으로 발음되므로 23항이 적용되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④ ‘맛떡’은 받침 ‘ㅈ’이 ‘ㄹ’ 앞에서 [ㄴ]으로 발음되며, 받침 ‘ㄱ’ 뒤에 연결되는 ‘ㄷ’이 [ㄷ]으로 발음된다. 따라서 18항과 23항이 모두 적용되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⑤ ‘홀남시’는 받침 ‘ㅌ’이 ‘ㄴ’ 앞에서 [ㄴ]으로 발음되며, 받침 ‘ㄱ’ 뒤에 연결되는 ‘ㅅ’이 [ㅅ]으로 발음된다. 따라서 18항과 23항이 모두 적용되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12. [A형 15번과 동일]

13. [출제의도] 한글맞춤법 규정 이해하기

‘나날’은 준접어, ‘결집’은 접어이기 때문에 ㉡에 해당한다. 또한 ‘오희’와 ‘일찍’은 부사이므로 ㉢에 해당하고, ‘즐겁-’은 ‘ㄴ’불규칙 용언의 어간이기 때문에 ㉣에 해당한다.

14. [A형 14번과 동일]

15. [출제의도] 표준화법 적용하기

㉔에서 문장의 객체인 '할아버지'에 대해 '모시고'라는 어휘를 사용하여 높임을 실현하고 있으므로 조사를 통해 높임을 실현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① ㉔에서 화자인 '혜연'이 자신을 기준으로 대상인 '할머니'를 파악하여 지칭어인 '할머니'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㉔에서 문장의 주체인 '어머니'는 화자인 '삼촌'이 높여야할 대상이므로 특수한 어휘 '계시다(계시니)'를 통해 높임을 실현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㉔에서 화자인 '삼촌'이 청자인 '혜연'을 기준으로 대상인 '어머니'를 파악하여 지칭어인 '어머니'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㉔에서 청자인 '삼촌'이 화자인 '혜연'보다 높은 대상이므로 경절어미 '-아요'를 통해 높임을 실현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16. [출제의도] 중세국어의 특징 파악하기

중세국어에서 목적격 조사는 목적어 자리에 위치한 체언의 모음의 종류와 종성의 유무에 따라 '을/를, 을/를'이 사용되었다. ㉔은 문장의 주어이고 주격조사 '이'가 사용되었으므로 목적격 조사가 사용되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 ㉔의 '뵈니'에서 '뵈'는 세 개의 자음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음절의 조성에서 두 개 이상의 자음이 사용되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③ ㉔의 '△', 'ㅁ', 'ㅇ'는 현대 국어에서 사용되지 않으므로 적절하다. ④ 모음조화란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어울리는 현상이다. 'ㅏ'와 'ㅑ'는 양성 모음이므로 ㉔은 모음조화가 지켜졌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⑤ 구개음화는 'ㄷ, ㅌ'이 'ㄱ'과 만나서 'ㄷ, ㅌ'으로 변화하는 현상이므로 ㉔에서 구개음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인문]

[17~20] <출전> 이정우, 「사건의 철학」

17. [출제의도] 글의 서술 방식 파악하기

'있다/없다', '좋다/나쁘다'라는 개념의 관계를 중심으로 플라톤 이론이 세계를 어떻게 보았는지를 소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비교되는 두 대상을 상반된 관점에서 각각 평가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특정 개념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비판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플라톤 이론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18. [출제의도] 글의 중심 개념 파악하기

3문단의 '이때 '관여'와 '임제'는 사실상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개념으로서, 현상이 이데아의 본질과 유사한 정도를 '관여'의 정도라고 하고, 현상이 이데아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정도를 '임제'의 정도라고 한다.'를 보면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① 2문단의 '플라톤은 가장 실재하는 것, 가장 완전한 것을 '이데아'라고 규정하는데 이는 현실 세계를 초월한 차원에 존재한다.'를 보면 적절함을 알 수 있다. ② 2문단의 '플라톤은 가장 실재하는 것, 가장 완전한 것을 '이데아'라고 규정하는데 이는 현실 세계를 초월한 차원에 존재한다.'를 보면 적절함을 알 수 있다. ④ 3문단의 '현상이 이데아의 본질과 유사한 정도를 '관여'의 정도라고 하고, 현상이 이데아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정도를 '임제'의 정도라고 한다.'와 '플라톤은 현상을 만드는 창조자로 '데미우르고스'를

설정하고, 그 창조자가 외부의 이데아를 본으로 삼아 현상을 만든 것으로 보았는데, 플라톤은 이 과정을 '모방'이라고 한다.'를 보면 적절함을 알 수 있다. ⑤ 3문단의 '플라톤은 현상을 만드는 창조자로 '데미우르고스'를 설정하고, 그 창조자가 외부의 이데아를 본으로 삼아 현상을 만든 것으로 보았는데, 플라톤은 이 과정을 '모방'이라고 한다.'를 보면 적절함을 알 수 있다.

19. [출제의도] 중심 개념과 다른 개념 비교하기

<보기>의 '그는 신이 자신의 형상을 닮은 존재들을 창조했으며 그 존재들은 신의 형상과는 완전히 같지는 않기에 유한한 존재로 보았다.'와 2문단의 '덜 존재한다'라는 것은 그 대상이 덜 완전한 대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를 보면, 라이프니츠가 언급한 유한성은 신과 같은 완전함을 지니지 못한 존재들을 규정하는 특징이고, 플라톤에게 '덜 존재한다'는 덜 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적절하다.

② <보기>의 '그는 신이 자신의 형상을 닮은 존재들을 창조했으며'와 3문단의 '플라톤은 현상을 만드는 창조자로 '데미우르고스'를 설정하고, 그 창조자가 외부의 이데아를 본으로 삼아 현상을 만든 것으로 보았는데'를 보면, 다른 존재들을 창조할 때 자기 외부의 형상을 본으로 삼은 것은 '데미우르고스'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3문단의 '플라톤에게 중요한 것은 개개의 현상들이 이데아에 얼마나 '관여'하는가 또는 이데아가 개개의 현상들에 얼마나 '임제'하는가의 문제이다.'를 보면, 라이프니츠와 달리 플라톤은 이데아와 현상들 간의 닮은 정도에 주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3문단의 '플라톤은 현상을 만드는 창조자로 '데미우르고스'를 설정하고, 그 창조자가 외부의 이데아를 본으로 삼아 현상을 만든 것으로 보았는데, 플라톤은 이 과정을 '모방'이라고 한다.'를 보면, 플라톤이 창조자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만 창조자가 끊임없이 변화하는 무한한 존재라고 규정하지는 않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2문단의 '존재와 그 존재의 가치가 일치한다면, 특정한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플라톤은 그것을 '있음'의 '정도'로 보았다. 이때 '있다'에는 '존재한다'라는 측면에서 실재성의 정도와 '가치 있다'라는 측면에서 완전성의 정도를 모두 포함하게 된다.'를 보면 플라톤은 존재의 완전성을 정도의 문제로 파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20. [출제의도] 어휘의 사전적 의미 파악하기

① '어부'는 '그려함과 그렇지 않음.'을 의미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③, ④, ⑤의 어휘 의미는 모두 적절하다.

[사회]

[21~23] <출전> 이준구, 「경제학 들어가기」

21. [출제의도] 세부 정보 파악하기

이 글에서 안정화 정책의 변화 과정은 언급되고 있지 않다.

① 2문단에서 '통화정책은 정부가 화폐 공급량이나 기준금리 등을 조절하여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는 정책이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3문단에서 '정책시차는 내부시차와 외부시차로 구분된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4문단에서 자동안정화장치는 '재량적 재정정책과 마찬가지로 외부시차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재량적 재정정책과는 달리 내부시차가 없어 경제 상황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4문단에서 '경기 불황에 의해 실업률이 급격하게 증가할 때 정부는 공공근로사업 등에 대한 지출을 늘려 일자리를 창출하는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2. [출제의도] 글의 핵심 내용 이해하기

3문단에서 외부시차는 '시행된 정책이 경제에 영향을 끼쳐 그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의미'이다. '실제로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시점까지의 시간'은 내부시차에 대한 설명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4문단에서 통화정책은 '외부시차가 길다.'와 자동안정화장치는 '내부시차가 없어'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4문단에서 재량적 재정정책은 '외부시차가 짧다.'와 통화정책은 '소비지출 및 투자지출의 변화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외부시차가 길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4문단에서 자동안정화장치는 '재량적 재정정책과 마찬가지로 외부시차가 짧은 뿐만 아니라, 재량적 재정정책과는 달리 내부시차가 없어 경제 상황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4문단에서 재량적 재정 정책은 '입법과정과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내부시차가 길다. 이에 비해 통화정책은 별도의 입법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정부의 의지만으로 수립·집행될 수 있기 때문에 내부시차가 짧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23. [출제의도] 글의 내용 추론하기

4문단에서 재량적 재정정책에 대해 '경기 불황에 의해 실업률이 급격하게 증가할 때 정부는 공공근로사업 등에 대한 지출을 늘려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이는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소비지출의 변화에 의해 총수요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설명한 점을 참고할 때, 에서 정부는 재량적 재정정책의 하인 추경예산을 늘려 편성한다면 총수요도 역시 경기침체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한 진술은 적절하다. 하지만, 6문단에서 '총수요가 빠른 속도로 팽창해야만 짧은 기간 안에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데, 오히려 자동안정화장치는 조세 징수액을 늘려 경기 회복을 더디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했으므로, 조세징수액이 늘어날 경우 총수요는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조세징수액을 늘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총수요를 늘려'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2문단에서 '경기가 불황에 빠져 있을 때 정부가 화폐 공급량을 늘리면', '소비자들의 소비지출과 기업들의 투자지출이 늘어나', '총수요에 영향을 주어 경제가 활성화 된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5문단에서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므로 전반적 소득 증가와 더불어 세금이 자동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는 소비지출의 역재로 이어져 경기가 심하게 과열되지 않도록 진정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4문단에서 '정부는 실업수당을 지급하여 총수요가 줄어드는 것을 억제하여 경기를 자동적으로 안정시켜 주는 효과를 얻게 된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6문단에서 '경기가 불황에서 벗어나 회복국면에 들어서 있을 때', '오히려 자동안정화장치는 조세 징수액을 늘려 경기회복을 더디게 만들 수도 있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과학]

[24~26] <출전> 김학준 외, 「극지과학자가 들려주는 결빙방지단백질 이야기」

24. [출제의도] 글 전체의 중심 화제 파악하기

이 글은 총괄성에 의한 어는점 내림 현상과 결빙방지단백질에 의한 어는점 내림 현상을 중심으로 어는점 내림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① 결빙방지단백질의 종류, ② 얼음 결정의 구조와 특성, ③ 열적 평형 상태의 유형과 사례는 뒷글에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또한 ⑤ 총괄성에 의한 어는점 내림의 과정은 전체 내용을 포괄하지 못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25. [출제의도] 자료를 해석하여 세부 정보 파악하기

㉠은 불록해진 물 층에 해당하는데, 4문단에 의하면 그 내부에 있는 물 분자의 인력은 모든 방향으로 작용하고 물 층 표면에 있는 물 분자는 한정된 방향으로 인력이 작용한다. 따라서 표면의 물 분자가 내부의 물 분자보다 인력 방향이 제한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① 4문단에서 ㉠의 결빙방지단백질이 ㉡에 결합한 부분에는 더 이상 물 분자가 결합하지 못한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② 4~6문단에서 ㉠의 결빙방지단백질에 의해 ㉢은 ㉠처럼 불록하게 되고 이를 통해 어는점이 내려간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③ 4문단에서 ㉡가 ㉠의 형태, 즉 평평했던 얼음 결정의 물 층이 불록하게 되면 물 층 표면의 물 분자 수가 늘어나고 그 물 분자들은 불안정한 상태라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④ 6문단에서 ㉠처럼 불록해진 얼음 결정의 물 층 표면의 에너지는 평평한 ㉡ 표면의 에너지보다 높아져 열적 평형 상태에 도달한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26. [출제의도] 본문을 읽고 세부 개념 파악하기

용결은 용매에 녹아 있는 물질을 말한다. 그러므로 바닷물의 경우, 용결은 염분, 용매는 물이다. 즉 A는 '용결'에 해당한다. 한편, 바닷물의 어는점 내림 현상은 나트륨 이온과 염소 이온이 물 분자의 결합을 방해해서 일어난다. 즉 B는 '물 분자'에 해당한다.

[예술]

[27~30] <출전> 임영방, 「마로크」

27. [A형 27번과 동일]

28. [A형 28번과 동일]

29. [A형 29번과 동일]

30. [A형 30번과 동일]

[고전시가]

[31~34] <출전> 안조원, 「만언사(萬言詞)」

31.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 파악하기

과거의 일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그리움을 강조하고 있지도 않다.

① '아마도 꿈이로다 일마다 꿈이로다 / 동냥도 꿈이로다 등짐도 꿈이로다' 등과 같이 앞 절과 뒷 절을 맞대응시키는 대구법을 활용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② '평생에 처음이요 다시 못할 일이로다'와 '차라리 굶을지언정 이 노릇은 못하리라'에서 화자는 영단적 표현을 통해 동냥을 하고 사는 자신의 생활에 따른 고조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③ '만산조목

(萬山草木)이 일일이 추성(秋聲)이라'에서 가을이라는 계절감을 '추성(秋聲)'이라는 청각적 심상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⑤ '동냥도 한번이지 빌긴들 매양일 까'에서 동냥을 더 이상 하기 싫다는 화자의 생각을 설의법을 사용하여 부각하고 있다.

32. [출제의도] 외적 증거를 참고하여 작품 감상하기

윗글의 '손가락'이 부르튼 것은 화자의 고통스러운 삶의 모습을 제시한 것으로, <보기2>에서 '변화'를 겪은 화자의 삶의 의지를 드러냈다고 할 수 없다.

① 윗글의 '동냥'은 유배 생활을 하는 화자의 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기2>에서 '손님'의 '설은 말씀'의 내용 중 일부라고 할 수 있다. ② 윗글의 '질신날'을 끄는 화자의 행위는 유배지에서 끄는 <보기2>의 '고생'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④ 윗글의 화자는 '입금'을 보고 싶어 하고 있고, 이는 결국 <보기2>의 '천은(天恩)'이라는 임금의 은혜를 입어 현실에 복귀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⑤ 윗글의 화자는 <보기2>의 청자로 볼 때, '학'은 임금에게 가고 싶은 화자의 소망을 드러낸 소재로 <보기2>의 청자인 '손님'의 소망이라고 할 수 있다.

33. [출제의도] 화자의 말하기 방식

'만언사담'은 '만언사'에 대해 화답의 방식으로 지어진 작품이다. [A]의 [㉠]은 '코웃음에 비웃음'을 보이는 '주인'의 행위에 대해 '네 웃음도 듣기 싫고 많은 밥도 먹기 싫다'와 같이 반감을 드러내고 있고, <보기2>의 [㉡]는 자연 현상 등의 예를 통해 청자의 상황을 위로하고 있다.

① 양반은 청자인 주인을 혼계하고 있지 않다. ③ 양반은 청자인 주인을 설득하고 있지 않는 반면 나는 청자에게 참고 견디면 좋은 날이 있을 것이라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④ 양반은 미래의 상황을 언급하고 있지 않고, 행동을 촉구하지도 않는다. ⑤ 양반은 자신의 학식을 자랑하는 현학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34. [출제의도] 시어의 기능 파악하기

㉠은 가을 날 새벽에 울면서 날고 있는 '외기러기'로, 화자는 이를 통해 '임'을 떠올린다. 결국 '임'이라는 특정한 대상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물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전소설]

[35~38] <출전> 작자미상, 「김진옥전」

35.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 이해하기

배경 묘사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암시하는 부분이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② '일세성군이 될지라.' '어찌 살기를 바라리오.' 등을 통해 적절한 진술임을 알 수 있다. ③ 부마와 공주가 계락을 모의하는 장면, 태자에게 독이 든 탕약을 권하는 장면, 부마와 태자의 죽음, 화산도사의 도움, 천자의 국문 장면, 양산군이 태자를 살리는 장면, 역모에 가담한 자들의 처벌 등 빈번한 장면 전환을 통해 비교적 빠른 서사 전개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④ 태자에게 독이 든 탕약을 먹인 공주가 천자에게 '태자가 병세 위중하시니 신침이 너무나 황공하나이다.'라고 말하는 부분, 부마가 양산군에게 '정렬부인이 만삭에 낙태하여 위급하다 하더이다.'라며 거짓을 말하는 부분 등을 통해 적절한 진술임을 알 수 있다. ⑤ 우양공주는 천자에게 '태자를 독살하고 천자의 지위를 도모'했다고 말하며 양산군이 역모를 꾀했다고 모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김

용결은 '공주가 태자를 독살하여 승하하시게 한 후 모역하러다가'라고 말하며 우양공주가 역모를 꾀했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36. [출제의도] 서사의 흐름 이해하기

'매복하였던 복병이 양산군이 나오는 줄 알고 내내야 일시에 창검을 들어 죽이고 보니 양산군이 아니요, 부마 전여선이라. 모두 대경실색하여 아모리 할 줄 모르더라.'를 통해 부마는 '동조자'의 착각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① 양산군은 태자가 승하했다는 궁녀의 말을 들은 후 천자의 부름을 받고 천자와 함께 태자궁으로 이동하게 되므로 적절한 진술임을 알 수 있다. ③ 태자의 죽음을 듣게 된 김용결은 황화문 밖에서 수문장과 복병에 의해 위기를 맞게 되므로 적절한 진술임을 알 수 있다. ④ 공주는 켄대로 들어가 천자에게 '양산군이 환자로 더불어 동모하여 먼저 태자를 독살하고 천자의 지위를 도모하다가, 부마가 알고 들어오매 황상께는 미처 범치 못하고 먼저 애매한 부마를 해하니이다.'라고 말했으므로 적절한 진술임을 알 수 있다. ⑤ '양산군이 태자의 급하심을 보고 희생할 약을 구하려 갔던 일을 아뢰고'를 통해 적절한 진술임을 알 수 있다.

37. [출제의도] 외적 증거를 참고하여 작품 감상하기

<보기>에 따르면 주인공이 신이한 존재의 도움으로 위기가 해소될 때 독자들의 긴장이 급속히 이완된다고 했으며, '환영'을 '잡아들어 엄히 국문'하는 장면은 신이한 존재와는 관련이 없으며, 사건 또는 갈등 상황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독자의 심리적 안정감과는 거리가 먼 장면이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① 우양공주가 천자의 지위를 빼앗고자 한 것은 양산군에 대한 시기심으로부터 비롯된 행위이며 이러한 시기심은 공주와의 결혼을 거부했던 양산군의 과거 행위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공주의 계락을 통해 주인공이 다시 위기에 처하게 되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② 우양공주가 태자의 탕약에 독약을 타는 행위는, 궁극적으로 양산군에 대한 복수심 때문이다. 이는 영웅이 다시 위기에 몰릴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므로 독자들은 긴장하면서도 이후의 사건 전개에 대해 흥미를 느낄 수도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③ 화산도사가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것은, 그가 신이한 존재임을 드러내는 것이자, 영웅 소설의 환상성과 관련이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④ 초월적 존재인 화산 도사는 양산군이 처한 위기 상황을 미리 인식하고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환약을 가져온다. 이는 초월적 존재의 능력이 부각된 것이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38. [출제의도] 소재의 기능 파악하기

양산군은 '일봉서'를 통해 우양공주의 계락을 알게 되고, 양산군에 대한 우양공주의 모함에도 불구하고 '환약'을 통해 태자를 살림으로써 양산군에 대한 천자(황제)의 신뢰가 유지된다. 따라서 적절한 진술이다.

② '환약'은 인물의 과거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환약'을 통해 인물이 과거의 상황을 떠올린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③ 천자는 우양공주와 김용결의 상반된 주장을 듣고 판단을 유보하지만, 양산군이 돌아와 '환약'으로 태자를 되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역모를 모의한 사람들을 벌하게 되었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④ 양산군이 '환약'을 통해 우양공주의 모함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만, '일봉서'를 통해 우양공주의 계락을 알게 되었으므로 '일봉

서'를 통해 인물에 대한 오해가 발생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현대소설]

[39~42] <출전> 황석영, 「한씨연대기」

39. [A형 39번과 동일]

40. [A형 40번과 동일]

41. [A형 41번과 동일]

42. [A형 42번과 동일]

[현대시]

[43~45] <출전> 조지훈, 「마음의 태양」
정호승, 「폭풍」

43. [출제의도] 작품 간 공통점 파악하기

의인화는 생명이 없는 대상에 인간적인 속성을 부여 함으로써 시적 화자의 정서나 시적 분위기를, 주제 등을 강조하는 방법이다. (가)에서는 '눈물의 이슬'을 받아 편 '한 송이 꽃'의 모습을 의인화하여 '그윽히 웃는'다고 표현하여 고난을 감내하고 편 꽃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였고 (나)에서는 '폭풍'에 맞서는 '나무'의 모습을 의인화하여 '머리를 풀고 하늘을 뒤흔드는'으로 구체적으로 형상화하였다.

① 반어적 표현이란 표현할 내용을 실제 의미와 반대로 표현하는 방식인데, (가)와 (나)에는 모두 반어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으며, 세태를 풍자하는 내용도 나타나 있지 않다. ② 하강 이미지는 작품 속 대상이 땅이나 아래쪽 방향을 향하면서 나타나는 이미지인데 (가)와 (나)에는 모두 하강 이미지가 나타나지 않는다. ③ (가)에는 시간과 관련된 시어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지 않으며, (나)에는 '밤'이 제시되어 있긴 하지만 이는 '폭풍'이 거세진 상황을 나타내는 시어이며 시간의 흐름은 드러나지 않는다. ④ 음성 상징어에는 의성어와 의태어가 있는데 (가)와 (나)에는 모두 음성 상징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44. [출제의도] 시구에 대하여 이해하기

㉔에는 '폭풍', 즉 외부의 시련이 고조된 상황이 '폭풍이 휘몰아치는 밤이 깊어 갈지라도'라는 시어를 통해 제시되어 있다. 이를 '새'나 '나무'가 처한 시련이 더 커진 상황으로 이해할 수는 있지만 이 작품에서는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일은 옳지 않다', 즉 '외부의 시련'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시상이 1연부터 7연까지 일관되게 제시되어 있으므로 ㉔을 대상이 처한 상황의 변화를 제시하여 시상의 반전을 유도하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㉑에는 '꽃 사이 타오르는 햇살'(시각적 이미지)을 향하여 고평히 돌아가는 해바라기(대상)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② ㉒에서 화자는 고통을 감내하는 삶의 자세를 '피로움에 겹겹 웃을 양이면'으로 제시하고, 이러한 삶의 자세가 힘들기는 하지만 가치가 있다는 것을 '슬픔도 오히려 아름다운 것'이라며 역설적 발상을 통해 강조하고 있다. ③ ㉓에서 화자는 '높은 넋을 살게 하자'고 하며 청유형 어미를 사용하여

어 자신의 다짐을 확고히 하는 한편 청자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⑤ ㉕에서 '폭풍'에 맞서지 않고 '폭풍이 지나간 들녘에 편 한 송이 꽃이 되기'는 '폭풍'에 대해 소극적인 대응을 하는 모습인데, 화자는 이 작품에서 소극적인 대응을 옳지 않다고 하며 부정하고 있다. 따라서 ㉕에는 화자가 지양하는 모습이 '한 송이 꽃'을 통해 구체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45.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 감상하기

'경의'는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는 의미인데, (나)에서 화자는 '폭풍'을 경의하고 있지 않고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

① 시의 소재가 되는 대상들을 통해 화자는 삶의 지향점을 제시하기도 하는데, (가)에서 화자는 '높고 아름다운 하늘을 받들어 그 속에 맑은 넋을 살게 하자'고 하고 있으므로 '높고 아름다운 하늘'은 화자가 자신의 삶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세계로 볼 수 있다.

② 시의 소재가 되는 대상들은 화자에게 특정한 의미로 인식되기도 하는데, (가)에서 화자는 '눈물의 이슬을 받아' 편 '가시밭길 넘어 그윽히 웃는 한송이 꽃'을 통해 자신도 삶에서 '육신의 피로움'을 달게 받을 것임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 '한송이 꽃'은 화자에게 '육신의 피로움'을 감내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시의 소재가 되는 대상들은 화자에게 깨달음을 주기도 하는데, (가)에서 화자는 '노고지리같이 맑고 아름다운 하늘을 받들어 그 속에 높은 넋을 살게 하자'고 하고 있다. 즉 '노고지리'는 화자에게 높은 정신세계를 지향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주는 대상이다. ④ 시의 소재가 되는 대상들을 통해 화자는 삶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기도 하는데, (나)에서 '새'는 '스스로 폭풍이 되어 폭풍 속을 나는' 모습으로 제시되어, 화자에게 시련에 대한 적극적인 삶의 의지를 갖게 하고 있다.

• 2교시 수학 영역 •

[A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6	11	16	21	26	31	36	41	46	51	56	61	66	71	76	81	86	91	96	101	106	111	116	121	126	131	136	141	146	151	156	161	166

1. [출제의도] 지수법칙을 활용하여 계산하기

$$4^{\frac{1}{2}} \times 8^{\frac{1}{3}} = (2^2)^{\frac{1}{2}} \times (2^3)^{\frac{1}{3}} = 2 \times 2 = 4$$

2. [출제의도] 행렬의 실수배와 덧셈 계산하기

$$A+2B = \begin{pmatrix} 2 & 2 \\ 0 & 1 \end{pmatrix} + 2 \begin{pmatrix} 1 & 0 \\ 2 & 1 \end{pmatrix} = \begin{pmatrix} 4 & 2 \\ 4 & 3 \end{pmatri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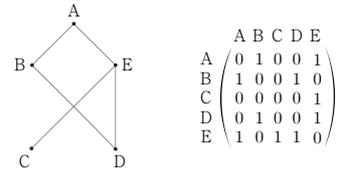
따라서 행렬 $A+2B$ 의 모든 성분의 합은 13

3. [출제의도] 무한수열의 극한 이해하기

$$\lim_{n \rightarrow \infty} \frac{2 \times 6^{n+1} + 3}{6^n} = \lim_{n \rightarrow \infty} \left(2 \times 6 + \frac{3}{6^n} \right) = 12$$

4. [출제의도] 그래프와 행렬의 관계 이해하기

그림과 같이 주어진 그래프의 꼭짓점을 A, B, C, D, E라 할 때, 그래프를 행렬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 \begin{pmatrix} A & B & C & D & E \\ B & 1 & 0 & 0 & 1 \\ C & 0 & 0 & 0 & 1 \\ D & 0 & 1 & 0 & 1 \\ E & 1 & 0 & 1 & 1 \end{pmatrix}$$

따라서 행렬의 성분 중 1의 개수는 10

[다른 풀이]

그래프의 각 꼭짓점 사이의 연결 관계를 나타내는 행렬의 성분 중 1의 개수는 그래프의 변의 개수의 2배이므로 $5 \times 2 = 10$

5. [출제의도] 로그의 성질 이해하기

$$\log_5 27 \times \log_3 5 = \frac{\log 27}{\log 5} \times \frac{\log 5}{\log 3} = \frac{3 \log 3}{\log 5} \times \frac{\log 5}{\log 3} = 3$$

6. [출제의도] 지수함수 이해하기

$$y = a \times 2^x \text{에 } (0, 4) \text{를 대입하면}$$

$$4 = a \times 2^0 = a \times 1 = a$$

$$\therefore a = 4$$

$$y = 4 \times 2^x \text{에 } (b, 16) \text{을 대입하면}$$

$$16 = 4 \times 2^b$$

$$\therefore b = 2$$

따라서 $a+b = 4+2 = 6$

7. [출제의도] 등차수열 이해하기

등차수열 $\{a_n\}$ 의 첫째항을 a , 공차를 d 라 하면

$$a_3 = a + 2d = 6 \dots\dots \text{㉑}$$

$$a_4 + a_6 = a + 3d + a + 5d = 2a + 8d = 20 \dots\dots \text{㉒}$$

㉑, ㉒에서

$$a = 2, d = 2$$

따라서 $a_7 = 2 + 6 \times 2 = 14$

8. [출제의도] 무한급수와 일반항 사이의 관계 이해하기

$$\sum_{n=1}^{\infty} \left(a_n - \frac{3n+1}{n} \right) \text{이 수렴하므로}$$

$$\lim_{n \rightarrow \infty} \left(a_n - \frac{3n+1}{n} \right) = 0$$

$$a_n - \frac{3n+1}{n} = b_n \text{이라 하면}$$

$$\lim_{n \rightarrow \infty} b_n = 0 \text{이고 } a_n = b_n + \frac{3n+1}{n}$$

$$\therefore \lim_{n \rightarrow \infty} a_n = \lim_{n \rightarrow \infty} \left(b_n + \frac{3n+1}{n} \right)$$

$$= \lim_{n \rightarrow \infty} b_n + \lim_{n \rightarrow \infty} \frac{3n+1}{n} = 3$$

9. [출제의도] 여러 가지 수열 이해하기

$$\sum_{k=2}^m a_{k+1} = \sum_{k=2}^m \{2(k+1) - 3\}$$

$$= \sum_{k=2}^m (2k-1)$$

$$= \sum_{k=1}^m (2k-1) - (2 \times 1 - 1)$$

$$= 2 \times \frac{m(m+1)}{2} - m - 1$$

$$= m^2 - 1 = 48$$

따라서 $m = 7$

국어 영역

제 1 교시

1

[1~3] 다음은 학생들의 토의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우리 학교는 여러 직업인들을 초청해 직업 세계를 알아보는 진로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로 콘서트에 대한 학생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진로 콘서트의 만족도가 높지 않은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1: 저는 진로 콘서트 프로그램을 준비할 때 학생들이 원하는 직업군에 대한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듣고 싶은 강연이 없는 학생들은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 2: 물론 그런 점도 있지만, 진로 콘서트가 직업 소개에만 그치는 일방적인 강연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해당 직업에 대해 깊이 있게 탐색하기 어려워 진로 콘서트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자: 네, 준비 단계에서부터 학생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었고, 일방적인 강연 중심이어서 학생들의 만족도가 낮았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1: 우선 진로 콘서트를 실시하기 전에, 학생들이 관심 있어 하는 직업군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강사 선정에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 2: 제 생각에는 강연에 체험을 곁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근에 있는 ○○고등학교도 체험을 포함한 진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부터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사회자: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해 주신 대안을 실행했을 때 예상되는 결과를 바탕으로 각 대안을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2: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강사 선정에 반영한다면 학생들의 만족도가 지금보다는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사 섭외의 어려움이나 학교의 여건 등으로 인해 소수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이런 학생들을 위한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 1: 저는 강연에 체험을 곁들이자는 의견이 지금의 문제를 개선하는 데 어느 정도는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체험이 교내에서만 이루어진다면 직업을 깊이 있게 탐색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업 현장에 찾아가 체험을 할 수 있게 하는 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자: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논의된 대로 준비 단계에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기존 프로그램에 체험 활동을 곁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여건 등으로 인해 반영되기 어려운 소수 학생들의 의견을 반

영하는 방안과, 연계 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세부적 방안은 [후속 토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 토의 시간에 진행하고, 우리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학교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 토의 참여자들의 발언을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생 1	학생 2
문제 원인 분석	프로그램 준비 단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문제의 원인을 밝히고 있다. …………… ①	프로그램이 실시되는 시기의 측면에서 문제의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 ②
대안 도출	프로그램 참여 학생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 ③	실제 사례를 근거로 기존 프로그램의 보완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 ④
대안 평가	‘학생 2’가 제안한 대안이 가진 한계를 언급하며 이를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⑤	‘학생 1’의 의견이 완전한 대안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하며 보완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2. 위 토의에 드러난 사회자의 역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토의 참여자들 사이의 의견 충돌을 조정한다.
- ② 토의 참여자의 발언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한다.
- ③ 다음에 토의할 내용을 안내하며 토의를 마무리한다.
- ④ 논의해야 할 내용을 제시하며 토의를 원활하게 진행한다.
- ⑤ 토의 참여자들이 논의해야 할 주제를 언급하며 토의를 시작한다.

3. <보기>는 위 토의의 후속 토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이다. 이를 활용하여 이끌어 낼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기 〉

○○시 교육지원청은 예산 부족과 적은 참여 인원으로 인해 개별 학교 차원에서는 개설하기 어려운 학업, 적성, 진로, 봉사 등 여러 분야의 프로그램을 학교 간 연합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었고, 영역별 거점 학교를 선정하여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 ① 학교 간 연합을 통해 참여 인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소수 의견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설이 가능함을 제시해야겠어.
- ② 다양한 교육에 대한 욕구를 가진 학생들의 특성에 주목하여 학생들이 선호하는 직업군에 대한 설문 조사가 필요함을 제시해야겠어.
- ③ 학교 간 연합으로 예산 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연계 프로그램에서 강연의 비중을 높일 수 있음을 제시해야겠어.
- ④ 영역별 거점 학교를 선정하여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교내에서 기존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음을 제시해야겠어.
- ⑤ 학교 간 연합 프로그램이 봉사 분야에서도 운영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진로 중심 체험 프로그램에서 봉사 중심 체험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제시해야겠어.

[4~5] 다음은 지역 방송국의 텔레비전 방송 대담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진행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새로운 형태의 도서관 서비스인 ‘사람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시립 도서관 관장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전문가: 네, 반갑습니다.

진행자: 선생님, ‘사람책’이라는 말이 저한테는 조금 생소한데요. 사람책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어요?

전문가: 여러분들은 사람책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청중의 반응을 살피며)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네요. ‘사람책’은 사람이 도서관 자료처럼 스스로 지식이나 스토리를 가진 하나의 콘텐츠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책을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책 그 자체가 되는 것이죠.

진행자: 그런데 사람이 책이 된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전문가: 네, 그럼 우리 도서관의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도서관에는 생활 속 법률 이야기를 들려주는 법대 교수 정○○ 씨, 자신의 경험담을 바탕으로 연애 상담을 해 주는 한○○ 씨 등 여러 사람책들이 있습니다. 이용자는 이러한 사람책과 직접 만나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진행자: 말씀을 듣고 보니 꼭 해당 분야의 전문가만 사람책이 될 수 있는 건 아닌가 보네요.

전문가: 네, 그렇습니다. 도서관의 심사를 거쳐야 하긴 하지만, 일종의 재능기부 형식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전하고 싶다면 누구나 사람책이 될 수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사람책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나요?

전문가: 네, 실제로 사람책에 대한 이용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람책과 활발히 상호 작용하면서 궁금증을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저도 사람책을 한번 이용해 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문가: 직접 도서관에 방문하거나 우리 도서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람책마다 신청 기간과 이용 가능한 인원이 정해져 있으니, 신청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자: 신청 방법이 생각보다는 간단하네요. 지금까지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청객 여러분 중에서 오늘 대담 내용 외에 사람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객: _____ ㉠

4. 위 대담 참여자의 의사소통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진행자는 대담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을 제시하며 대담을 시작하고 있다.
- ② 진행자는 전문가에게 추가 정보를 요구하는 질문을 하며 대담을 이어나가고 있다.
- ③ 진행자는 전문가의 발언 일부를 재진술하여 자신이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 ④ 전문가는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하여 진행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⑤ 전문가는 중심 화제에 대한 청중의 배경지식을 묻은 후 용어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5. 위 대담의 내용을 고려할 때, ㉠에 들어갈 수 있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람책을 선정하는 심사 기준은 무엇인가요?
- ② 사람책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③ 우리 시에 사람책을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또 있나요?
- ④ 사람책을 이용하는 횟수나 시간에는 어떤 제한이 있나요?
- ⑤ 우리 시의 시립 도서관이 보유한 사람책에는 또 어떤 분들이 있나요?

[6~8]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우리나라 도시광산 산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글을 신문에 기고하고자, (가)와 같이 개요를 작성하고 (나)를 썼다.

(가) 글의 개요

서론: 도시광산 산업의 성장 배경
 본론: 1. 우리나라 도시광산 산업의 실태
 2. 우리나라 도시광산 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한 원인
 3. 우리나라 도시광산 산업의 활성화 방안
 결론: 도시광산 산업의 활성화에 따른 기대 효과 및 의의 [A]

(나) 글의 초고

첨단 전자제품의 원료인 천연 광물 자원은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는 데 비해 그 수요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폐전자제품으로부터 금속을 추출하여 산업 원료로 재공급하는 도시광산 산업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자원을 재활용하는 도시광산 산업은 경제적 가치가 높고 환경친화적이어서 미래 산업의 하나로 각광받고 있다.

이런 추세에 발맞추어 많은 우리 기업들이 도시광산의 미래 가치에 주목하여 본격적으로 투자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관련 사업에서 철수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는 등 우리나라는 도시광산 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으로는 먼저 원료가 되는 폐전자제품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국내 폐전자제품의 발생량은 꾸준히 증가하지만 자원으로서의 폐전자제품과, 배출 방법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부족하여 수거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또 다른 원인은 독일, 일본 등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도시광산 기술 수준이 낮다는 점이다. 이는 그동안 도시광산 산업이 고도의 기술 기반 산업으로 인식되지 못하여 기술 개발과 이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는 폐전자제품의 경제적 가치와 배출 방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폐전자제품의 수거율을 높이는 등 도시광산 산업의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기업과 관련 단체 등은 도시광산 산업이 기술 집약적 산업임을 인식하여 기술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각 주체들 간 연계를 통해 전문적인 연구 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기술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

[B]

6. (가)의 ‘서론’과 ‘본론’을 구체화하여 (나)를 작성했다고 할 때,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① 천연 광물 자원의 매장량과 수요의 불균형을 언급하며 ‘서론’을 구체화한다.
- ② 우리나라 도시광산 산업에 투자한 외국 기업들의 손실을 언급하며 ‘본론’을 구체화한다.
- ③ 도시광산 산업의 원료 확보 측면과 기술 수준 측면에서 원인을 분석하여 ‘본론’을 구체화한다.
- ④ 도시광산 산업과 관련한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를 해결책으로 제시하여 ‘본론’을 구체화한다.
- ⑤ 도시광산 산업에 대한 관련 주체들의 인식 전환을 해결책으로 제시하여 ‘본론’을 구체화한다.

7. <보기>의 자료를 활용하여 (나)를 보완하고자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ㄱ) 신문 기사

폐휴대전화 한 대에서 추출되는 희소금속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평균 3,217원이다. 만약 이를 폐기하지 않고 도시광산 산업 원료로 활용한다면 한 해 370억 원에 달하는 희소금속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일본,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는 국민 1인당 연평균 폐전자제품의 수거량이 4~6kg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2kg 정도에 그치고 있다.

- ○○신문

(ㄴ) 인터뷰 내용

“우리나라에서는 폐촉매, 폐인쇄회로와 같은 도시광산 산업의 원료 대부분이 폐기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장 설립에도 많은 제약이 따르고, 도시광산 산업 원료를 수입할 때 관세도 물어야 해서 사업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 도시광산 업체 대표

(ㄷ) 연구 자료

- 도시광산 산업 선진국인 일본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도시광산 산업 기술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게 됨.
- 일본의 도시광산 금 축적량은 6,800톤으로 세계 금 매장량의 16%에 달하며 화폐 가치로 약 200조 원 규모로 추정됨.

- ① (ㄱ)을 활용하여, 도시광산 산업의 원료 확보가 어렵다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한다.
- ② (ㄴ)을 활용하여, 대부분의 도시광산 산업 원료를 폐기물로 지정한 제도를 도시광산 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원인으로 추가한다.
- ③ (ㄷ)을 활용하여, 도시광산 기술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한다.
- ④ (ㄱ)과 (ㄴ)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도시광산 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해결 방안으로 추가한다.
- ⑤ (ㄱ)과 (ㄷ)을 활용하여, 도시광산 산업이 경제적 가치를 지닌 산업이라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한다.

8. (가)의 [A]에 따라 작성한 [B]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도시광산 산업은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서의 무한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도시광산 산업에 대한 관련 주체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 ②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시광산 산업에 투자하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도시광산 산업에 대한 선진국 수준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 ③ 도시광산 산업이 활성화되면 폐자원으로 전력 생산이 가능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폐자원을 수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 ④ 관련 기관들은 도시광산 산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도시광산 산업 기술 개발에도 주력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도시광산 산업도 더욱 활성화되어 미래 산업으로 성장할 것이다.
- ⑤ 도시광산 산업이 활성화되면 금속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가능하고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도시광산 산업은 경제적, 환경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산업이라 할 수 있다.

[9~10] 다음은 작문 과제에 따라 작성한 학생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과제]

생활 속의 체험을 바탕으로 자기를 성찰하는 글을 써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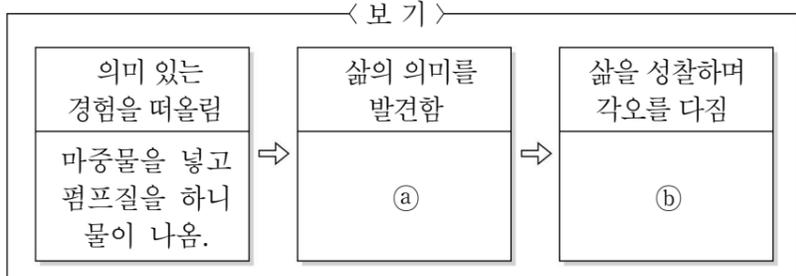
[학생의 초고]

지난 여름, 친구의 할머니 댁에 간 적이 있었다. 그 곳에는 ㉠ 눈에 익지 않은 낯선 물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마당 한 쪽에 있는 오래된 펌프였다. 나는 호기심에 펌프질을 해 보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삐걱거리는 소리만 날 뿐 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보시던 할머니께서는, 물이 나오게 하려면 먼저 약간의 물을 펌프에 ㉡ 넣어 주어야 한다고 하시며 물 한 바가지를 담아 오셨고, 이 물을 ‘마중물’이라고 하셨다. 할머니 말씀대로 그 물을 펌프에 붓고 다시 펌프질을 하자 잠시 후 물이 팔팔 쏟아져 나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해 보니 펌프가 ㉢ 쏟아내기 위해 마중물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도 꿈을 이루기 위한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는 그 마중물이 꿈을 이루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라고 생각했다. 만약 우리가 준비의 시간 없이 미래를 맞이한다면 마중물 없는 펌프와 무엇이 다를까? 더 의미 있는 미래를 맞이하기 위한 마중. 바로 그런 준비의 시간이 우리의 인생에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때로는 공부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나는 텔레비전을 보며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곤 했다. ㉣ 아버지께서는 꿈을 잃지 않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그 시간들이 늘 후회스러웠다. 앞으로 이런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을 내 인생의 마중물로 여겨야겠다. 당장 목이 ㉤ 말라다고 마중물을 마셔버리면 더 많은 물을 끌어올릴 수 없듯이, 순간의 편안함만을 추구하고 지금의 시간을 그냥 흘려보낸다면 내가 원하는 멋진 미래는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마중물과 같은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지금의 생활에 더욱 충실해야겠다.

9. ‘작문 과제’를 <보기>와 같은 사고 과정에 따라 수행했다고 할 때, ‘학생의 초고’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과 ㉡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우리에게도 미래를 위한 준비의 시간이 필요함.
 ㉡: 의미 없이 보냈던 시간을 돌아보며 현재에 충실하고자 함.
- ② ㉠: 마중물을 마셔버리면 물을 끌어올릴 수 없음.
 ㉡: 펌프질을 하며 지금이 내 인생의 마중물임을 깨달음.
- ③ ㉠: 준비 없이 미래를 맞이하는 것은 어려움.
 ㉡: 반복되는 일상을 떠올리며 인생의 마중물을 찾기로 함.
- ④ ㉠: 순간의 편안함만을 추구한 나를 돌아봄.
 ㉡: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꿈을 정하지 못한 자신을 반성함.
- ⑤ ㉠: 펌프질을 할 때는 마중물이 필요함.
 ㉡: 나태했던 생활을 후회하며 새로운 삶의 의지를 다짐.

10. ㉠ ~ ㉤을 고쳐 쓰기 위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의미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낯선’을 삭제해야겠어.
- ② ㉡: 높임의 대상을 고려하여 ‘넣어 주셔야 한다고 하며’로 고쳐야겠어.
- ③ ㉢: 필요한 문장 성분이 생략되어 있으므로 목적어 ‘물을’을 추가해야겠어.
- ④ ㉣: 글의 흐름에 어긋나는 문장이므로 삭제해야겠어.
- ⑤ ㉤: 맞춤법에 어긋나므로 ‘마르다고’로 고쳐야겠어.

11. <보기 1>은 문법 수업의 한 장면이다.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를 탐구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1>

선생님: 표준 발음법에 대한 이해는 올바른 발음 생활뿐만 아니라 국어를 로마자로 표기하려고 할 때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국어의 로마자 표기는 표준 발음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표준 발음법]

제13항 홀받침이나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 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제15항 받침 뒤에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제17항 받침 ‘ㄷ, ㅌ(ㅊ)’이 조사나 접미사의 모음 ‘ㅣ’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ㅈ, ㅊ]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제18항 받침 ‘ㄱ(ㄲ, ㅋ, ㆁ, ㄷ), ㄷ(ㅌ, ㅍ, ㅊ, ㅌ, ㅎ), ㅂ(ㅃ, ㅍ, ㅍ, ㅍ)’은 ‘ㄴ, ㄹ’ 앞에서 [ㅇ, ㄴ, ㄹ]으로 발음한다.

제29항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 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 소리를 첨가하여 [니, 냐, 녀, 뇨, 뉴]로 발음한다.

<보기 2>

덜이다, 웃어른, 굳이, 집일, 색연필

- ① ‘덜이다’를 로마자로 표기하려면, 표준 발음법 제13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군.
- ② ‘웃어른’을 로마자로 표기하려면, 표준 발음법 제15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군.
- ③ ‘굳이’를 로마자로 표기하려면, 표준 발음법 제17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군.
- ④ ‘집일’을 로마자로 표기하려면, 표준 발음법 제13항, 제18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군.
- ⑤ ‘색연필’을 로마자로 표기하려면, 표준 발음법 제18항, 제29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군.

12. <보기>의 한글 맞춤법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

제19항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

[붙임] 어간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

제20항 명사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

[붙임]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

제21항 명사나 혹은 용언의 어간 뒤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명사나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 ㉤

- ① ‘다듬이’로 표기하는 것은 ㉠의 규정을 적용한 것이군.
- ② ‘마개’를 ‘막애’로 표기하지 않는 것은 ㉡의 규정을 적용한 것이군.
- ③ ‘삼밭이’를 ‘삼바리’로 표기하지 않는 것은 ㉢의 규정을 적용한 것이군.
- ④ ‘귀머거리’로 표기하는 것은 ㉤의 규정을 적용한 것이군.
- ⑤ ‘덮개’로 표기하는 것은 ㉣의 규정을 적용한 것이군.

13. 다음은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옳지 않은 것은?

하다01

① 「동사」 【...을】

- ① 사람이나 동물, 물체 따위가 행동이나 작용을 이루다.
 ¶ 운동을 하다./사랑을 하다.
- ② 먹을 것, 입을 것, 빨감 따위를 만들거나 장만하다.
 ¶ 나무를 하다./밥을 하다.
- ③ 표정이나 태도 따위를 짓거나 나타내다.
 ¶ 어두운 얼굴을 하다.

② 「보조동사」

- ① (동사나 형용사 뒤에서 ‘-게 하다’ 구성으로 쓰여)앞말의 행동을 시키거나 앞말이 뜻하는 상태가 되도록 함을 나타내는 말.
 ¶ 숙제를 하게 하다./노래를 부르게 하다./몸을 청결하게 하다.

-하다02 「접사」

- ① (일부 명사 뒤에 붙어)동사를 만드는 접미사.
 ¶ 운동하다./사랑하다.
- ② (일부 명사 뒤에 붙어)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
 ¶ 건강하다./순수하다.
- ③ (의성·의태어 이외의 일부 성상 부사 뒤에 붙어)동사나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 ¶ 달리하다./빨리하다.
- ④ (몇몇 의존 명사 뒤에 붙어)동사나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
 ¶ 체하다./척하다./듯하다.

- ① ‘하다01①’은 두 개 이상의 의미를 갖는 다의어이겠군.
- ② ‘하다01②’는 ‘하다01①’과는 달리 혼자 쓰이지 못하고 다른 용언 뒤에 붙어 사용되겠군.
- ③ ‘-하다02’는 앞 단어에 붙어 품사를 바꾸는 기능을 하겠군.
- ④ ‘하다01①②’의 용례로 ‘새 옷을 한 벌 했다.’를 추가할 수 있겠군.
- ⑤ ‘물에 빠질 뻔하다.’의 ‘뻔하다’는 ‘-하다02②’의 용례라고 할 수 있겠군.

14.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은, ㉡과 ㉢이 대등하게 연결된 이어진문장이다.
- ② ㉡은, ‘나는’의 서술어인 ㉣을 안고 있다.
- ③ ㉡과 ㉢은, 각각 ‘주어-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난다.
- ④ ㉣과 ㉤은, ‘주어-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씩만 나타난다.
- ⑤ ㉤은, ‘책’을 수식하는 관형어 역할을 하면서 ㉢에 안겨 있다.

15.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의 ㉠~㉤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선생님: 담화에서 화자가 자신의 의도를 직접 드러내고자 하는 상황이라면 종결 표현과 화자의 의도를 일치시켜 명시적으로 표현합니다. 반면 명령이나 요청 등과 같이 청자에게 부담을 주거나 예의에 어긋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화자의 의도와는 다른 종결 표현을 사용하거나, ‘저기’, ‘만’, ‘좀’과 같은 언어 표현을 사용하여 완곡하게 표현합니다.

<보기 2>

어머니: (지연을 토닥이며) ㉠ 저기, 지연아 이제 좀 일어나라.
지 연: (힘없이 일어나며) ㉡ 엄마, 선생님께 학교에 조금 늦을 거 같다고 전화해 주시겠어요?
어머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어디 아프니?
지 연: 네, 그런 것 같아요. 열도 좀 나고요.
어머니: ㉢ 그럼 선생님께 전화 드리고 엄마랑 병원에 가자.
지 연: 네,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소 연: (거실에서 큰 소리로) 지연아, 학교 늦겠다. ㉣ 빨리 가라.
어머니: 소연아! ㉤ 동생이 아프다니까 조금만 작은 소리로 말해주면 참 좋겠다.

- ① ㉠: 명령의 의도를 ‘저기’, ‘좀’ 등의 언어 표현을 사용하여 표현함으로써 청자에게 부담을 주려 하지 않고 있군.
- ② ㉡: 요청의 의도를 의문형 종결 표현을 사용하여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군.
- ③ ㉢: 화자의 의도와 종결 표현을 일치시켜 청유의 의도를 직접 드러내고 있군.
- ④ ㉣: 화자의 명령에 대한 청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화자의 의도와 종결 표현을 일치시키지 않고 있군.
- ⑤ ㉤: 명령의 의도를 평서형 종결 표현과 ‘만’과 같은 언어 표현을 사용하여 부드럽게 표현하고 있군.

[16~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아낙케’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피할 수 없는 운명이나 필연성 등을 상징하는 여신으로 등장한다. 이처럼 신화적 상상력으로 세계의 현상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지배적이었던 시기에 아낙케는 ‘운명으로서의 필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철학적 사유가 생겨남에 따라 아낙케는 일종의 이론적인 개념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아낙케는 세계의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특히 철학적 개념으로서의 아낙케는 세계의 현상을 바라보는 두 가지 서로 다른 관점인 기계론적 관점과 목적론적 관점에 따라 상당히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된다.

기계론적 관점은, 세계에는 어떤 궁극의 목적이란 존재하지 않고 오직 기계적인 법칙만이 존재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이 관점에 따르면 세계는 정교한 기계이기 때문에 이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질량, 속도 등의 역학적 개념들만으로 세계의 현상들을 설명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세계가 오늘날과 같이 변화한 것에 어떤 궁극적인 목적은 없고 오직 인과관계의 법칙성만이 존재한다고 본다. 이와 달리, 목적론적 관점은, 세계에는 어떤 궁극적인 목적이 전제되어 있고 세계는 이것을 향해 운동하고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그래서 세계가 오늘날과 같이 변화한 것은 이상적인 목적을 향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의 세계는 완전하지 않다고 본다.

기계론적 관점에서 아낙케는 법칙성이라는 의미의 필연을 뜻한다. 데모크리토스의 이론은 이런 기계론적 관점의 아낙케를 잘 보여 준다. 이성의 작용도 일종의 원자 운동이라고 본 데모크리토스는 모양, 위치, 배열이라는 특징을 지니는 원자들이 특정하게 부딪치면 그것이 원인이 되어 정해진 결과들이 나온다는 역학적 인과 관계의 법칙만을 인정한다. 이런 법칙성이 바로 기계론적 관점에서 말하는 아낙케이다.

이와 달리 목적론적 관점에서 아낙케는 질료적 조건이라는 의미의 필연을 뜻한다. 여기서 ‘질료(質料)’는, 이상적인 목적인 ‘형상(形相)’이 현실에서 구현되기 위해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조건이다. 목적론적 관점을 지닌 플라톤은, 현실에 구현되기 이전의 형상은 그 자체로 완벽한데, 질료가 형상을 그대로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에 오차나 무질서가 있다고 생각한다. 즉 ㉠ 플라톤이 생각하는 아낙케는, 형상이 현실에 구현되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질료적 조건으로서의 필연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동시에 질료가 형상을 완벽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아낙케는 극복해야 할 어떤 것이라는 의미도 지니게 된다.

16.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아낙케는 운명이나 필연성을 신격화한 존재였다.
- ② 데모크리토스는 역학적 인과 관계로 설명할 수 없는 이성의 작용을 인정한다.
- ③ 아낙케는 세계의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들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 ④ 플라톤은 질료가 형상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해서 현실에 오차가 있다고 생각했다.
- ⑤ 아낙케라는 개념의 이론적인 성격은 철학적 사유가 생겨난 것에서 비롯되었다.

17.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기 —

민준: 얼마 전 영화에서, 한 물리학자가 세계는 무엇인가의 지향점이 있어 진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단지 역학적인 인과 관계에 의해서만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설명하는 모습을 봤어. 나도 세계가 이런 분명한 법칙성만을 가지고 변한다는 그 물리학자의 생각에 동의해.

지애: 그래? 과학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진화하고 있는 것을 보면 나는 세계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이상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해.

- ① ‘민준’과 ‘지애’는 모두 세계가 변화한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볼 수 있다.
- ② ‘민준’은 세계를 원인과 결과의 법칙성만으로 이해하려 한다는 점에서 기계론적 관점을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③ ‘지애’는 세계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이상의 존재를 확신한다는 점에서 목적론적 관점을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④ ‘민준’은 ‘지애’와 달리 역학적인 법칙들만을 세계의 유일한 원리라고 보기 때문에 세계를 정교한 기계라고 여길 것이다.
- ⑤ ‘지애’는 ‘민준’과 달리 세상이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의 세계를 완전한 것으로 여길 것이다.

18. 밑글의 ㉠과 <보기>의 ㉡에 대해 판단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 보기 —

‘과툼’은 일반적으로 운명을 의미하는데, ㉠ 스토아 학파가 생각하는 과툼은 인과 관계의 연쇄로 이루어지는 세계의 법칙성이자 동시에 신의 섭리인 질서이다. 스토아 학파는 세계가 이에 의해 이미 필연적으로 결정되어 있다고 보고, 인간은 이러한 법칙성을 이성을 통해 터득해 나가고 그 깨달음을 통해 초연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한다.

- ① ㉠은 오차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 ② ㉡은 세계의 미결정성을 공고히 한다고 할 수 있다.
- ③ ㉠은 신적인 세계를, ㉡은 원자로 구성된 세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 ④ ㉠은 형상이 구현되기 위한 조건이고, ㉡은 법칙성을 지닌 질서라 할 수 있다.
- ⑤ ㉠은 무질서를 극복한 결과이고, ㉡은 이성을 통해 터득할 수 있는 대상이라 할 수 있다.

[19~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구입하거나 자신의 물건을 판매하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다. 이렇게 다른 사람과 거래를 할 때에는 일정한 합의나 약속이 필요한데, 이를 ‘계약’이라 한다. 계약은 일반적으로 청약과 승낙의 합치에 의해 성립되지만, 특수하게 의사실현이나 교차청약에 의해 성립되기도 한다.

계약에서 계약의 성립을 제안하는 것은 ‘청약’이라고 하고, 청약을 받은 이가 그 청약을 그대로 수락하는 것은 ‘승낙’이라고 한다. 만약 청약을 받은 이가 청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한다면 이는 새로운 청약을 한 것이 된다. 청약과 승낙의 합치에 의해 성립하는 계약이 실시간 의사소통에 의해 이루어질 때는 청약자가 청약을 받은 이에게서 승낙의 의사가 담긴 말을 ㉠ 들은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다. 그러나 실시간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이들 간의 계약에서는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발송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 이때 승낙의 의사표시가 승낙기간* 내에 청약자에게 도달하지 못한다면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승낙의 의사표시가 승낙자의 과실이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도달하지 못하고 연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때 승낙의 의사표시를 받은 청약자가 승낙자에게 연락 사실을 즉시 알리지 않으면, 승낙자는 승낙기간 내에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할 것이므로 계약의 효력은 발생한다.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청약자의 의사표시의 특성이나 거래상의 관습 등에 의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통지하지 않아도 성립하는 계약이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을 통해 호텔 객실을 예약하는 청약이 있을 후, 호텔 측이 청약자에게 별도의 의사표시를 통지하지 않고 객실을 마련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처럼 승낙의 의사표시를 통지하지 않고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만 있어도, 그 사실이 발생한 때에 계약은 성립한다. 이를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라 한다. 또한 청약만 두 개가 존재하더라도 의사표시의 내용이 결과적으로 일치하면 계약이 성립하는데, 이를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라 한다. 가령 모임에서 A와 B는 각각 자동차를 팔고, 사고 싶다는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된 후, A는 자동차를 천만 원에 팔겠다는 청약의 의사표시를 B에게 보냈다고 하자. 이것이 B에게 도착하기 전에 B가 A에게 자동차를 천만 원에 사겠다는 청약의 의사표시를 보낸다면, 계약은 양 청약의 의사표시가 A, B에게 모두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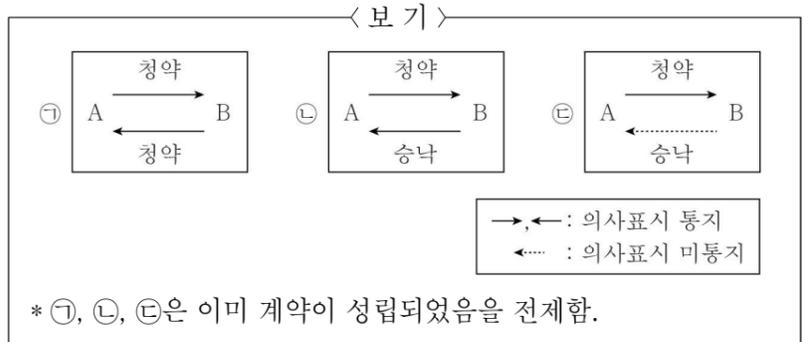
이러한 계약들이 성립되는 과정에서 매매 대상이 불에 타 없어진 것처럼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만약 청약자가 매매 대상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계약 성립 당시에 알았거나 그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확인하지 않았고, 승낙자는 매매 대상이 없다는 것을 몰랐거나 알 수 없었다면 청약자는 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한 경비나 이자 비용과 같이 승낙자가 그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음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한다. 이때 그 배상액은 계약이 이행되었다면 승낙자에게 생길 이익, 이를테면 매매가와 시가 사이의 차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승낙기간: 승낙을 할 수 있는 기간, 청약이 효력을 보유하는 기간.

19.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② 대상을 구분하고 사례를 활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 ③ 대상과 관련된 제도의 변천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 ④ 대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관점들을 소개하고 있다.
- ⑤ 대상이 지닌 문제점의 원인을 다각도로 기술하고 있다.

20.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 경우, A가 B에게, B가 A에게 청약의 의사표시를 각각 발송했을 때 계약이 성립되었겠군.
- ② ㉠의 경우, 청약만 두 개가 존재하지만 두 청약의 내용이 결과적으로 합치했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되었겠군.
- ③ ㉡의 경우, A와 B가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승낙의 의사가 담긴 B의 말을 A가 들었을 때 계약이 성립되었겠군.
- ④ ㉢의 경우,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발생했을 때 계약이 성립되었겠군.
- ⑤ ㉢의 경우, 청약자의 의사표시의 특성이나 거래상의 관습 등에 의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통지하지 않고도 계약이 성립되었겠군.

21.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사례를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가) 갑은 을에게 을이 소유한 토지를 사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4월 5일에 발송하면서 4월 20일까지 답장을 요구하였다. 을은 갑이 제시하는 가격에 토지를 팔겠다는 답장을 4월 12일에 발송했으나 배달이 지연되어 을의 답장은 4월 22일에 도착했다.

(나) 병은 정이 눈여겨본 고가의 골동품을 창고에 보관하던 중 도둑맞았지만 이를 확인하지 않고 정에게 3천만 원에 팔기로 했다. 이후 정은 이 골동품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고 이자로 30만 원을 은행에 지불했다.

- ① (가)에서, 을의 답장이 만약 4월 20일 이전에 도착했다면 계약은 4월 12일에 성립한다.
- ② (가)에서, 갑이 답장을 받자마자 을에게 연락 사실을 알리지 않는다면 이 계약은 효력이 발생한다.
- ③ (가)에서, 을이 갑이 제시한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팔겠다는 내용의 답장을 보냈다면 이는 새로운 청약이 된다.
- ④ (나)에서, 병이 팔려던 골동품의 시가가 매매가보다 100만 원이 높다면 정은 130만 원을 배상받을 수 있다.
- ⑤ (나)에서, 정이 골동품이 없어진 사실을 계약 성립 당시에 알았다면 병은 정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다.

22. 문맥상 ㉠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굵은 빗방울이 지붕에 들는다.
- ② 그 약은 다른 약보다 내게 잘 들는다.
- ③ 나는 아내에게서 그 소식을 들고 기뻐다.
- ④ 그녀는 고지식해서 농담까지도 진담으로 들는다.
- ⑤ 운전 중에 브레이크가 말을 들지 않아 사고가 날 뻔했다.

[23 ~ 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신경과학의 많은 연구들은 기억의 형성을 '장기강화'로 설명한다. 이에 따르면 뇌의 신경세포들은 세포 사이의 틈새인 시냅스로 전기적·화학적 신호를 전달하면서 정보를 공유하는 시냅스 연결을 한다. 이 신호가 강력해 시냅스 연결이 오래 유지되는 현상이 장기강화이며, 이를 통해 기억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시냅스 연결은 신경세포에 있는 이온들의 활동이 바탕이 된다. 이온은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확산되며 이동하는 성질 등으로 신경세포막의 안과 밖을 이동한다. 이러한 이온의 이동은 신경세포의 상태를 변화시킨다. 우선 외부 자극이 없으면 주로 세포막 밖은 양이온이 많고, 안은 음이온이 많아져 세포막 안팎이 각각 양전하, 음전하로 나뉘는 분극이 일어난다. 이 과정의 신경세포는 안정 상태에 있다. 그런데 새로운 정보 등의 외부 자극이 있으면 양전하를 띤 Na^+ (나트륨 이온)이 밖에서 안으로 확산되어 세포 안에 양전하가 쌓이는 탈분극이 일어난다. 탈분극은 신경세포를 흥분상태로 만들면서 전기적 신호인 활동전위를 형성한다. 신경세포가 흥분상태가 되면 세포 밖의 Ca^{2+} (칼슘 이온)이 안으로 확산된다. 그러면 이 Ca^{2+} 은 글루탐산을 비롯한 여러 신경전달물질, 즉 화학적 신호를 밖으로 분비시킨다. 이 신호가 다른 신경세포와 결합하면서 시냅스 연결이 이루어진다. 이때 화학적 신호를 분비한 세포를 '시냅스전세포', 화학적 신호를 받는 세포를 '시냅스후세포'라고 한다.

이러한 시냅스 연결이 장기강화로 이어지는 것은 글루탐산과 Ca^{2+} 의 역할 때문이다. 흥분상태의 시냅스전세포가 분비한 글루탐산은 시냅스후세포의 암파 수용체와 NMDA 수용체를 자극한다. 먼저 암파 수용체의 통로는 많은 양의 글루탐산의 자극이 있으면 개방된다. 이 통로로 Na^+ 이 안으로 확산되면 시냅스후세포도 탈분극되어 흥분상태가 된다. 이렇게 되면 글루탐산의 자극을 받고 있는 NMDA 수용체의 통로에서 Mg^{2+} (마그네슘 이온)이 제거되어 통로가 열린다. 그리고 개방된 NMDA 수용체 통로로 Na^+ 과 Ca^{2+} 이 확산에 의해 안으로 유입된다. 유입된 Ca^{2+} 은 세포 안의 단백질을 활성화시키고, 활성화된 단백질은 새로운 암파 수용체를 만들어낸다. 그 결과 시냅스후세포는 Na^+ 을 더 많이 받아들여 탈분극을 강화하고, Ca^{2+} 의 유입이 지속되어 흥분상태를 오래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흥분된 시냅스후세포는 역으로 시냅스전세포에 신호를 보내 시냅스전세포의 글루탐산 분비량을 늘려 시냅스 연결을 더욱 강화한다. 이를 통해 시냅스 연결은 3시간까지 유지되는데, 이를 초기 장기강화라고 한다. 이에 비해 시냅스 연결이 24시간 이상 지속되기도 하는데, 이를 후기 장기강화라고 한다. 후기 장기강화가 초기 장기강화와 다른 점은 새로운 단백질을 합성한다는 것이다. 암파 수용체는 수명이 짧아 시냅스 연결을 유지하려면 암파 수용체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데, 초기 장기강화 때처럼 세포 안에 있는 단백질만을 활용하면 이를 지속할 수 없다. 따라서 새롭게 단백질을 합성해 암파 수용체를 계속 만들어내는 것이다. 신경과학자들은 초기 장기강화를 통해 단기 기억이, 후기 장기강화를 통해 장기 기억이 형성된다고 본다.

* 수용체: 단백질로 된 구조물로 세포 외 물질에 반응하는 역할을 하며, 세포막을 관통하는 통로를 갖고 있어 이온을 투과시키기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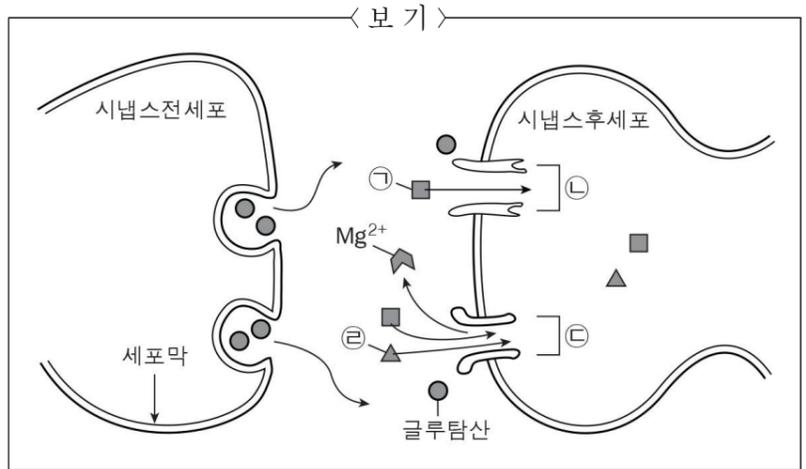
23.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신경세포들 사이에는 틈새가 존재한다.
- ② 시냅스 연결이 유지되는 시간은 일정하지 않다.
- ③ 시냅스전세포와 시냅스후세포는 상호 영향을 미친다.
- ④ 신경세포가 흥분상태일 때 전기적 신호가 만들어진다.
- ⑤ 외부 자극이 가해지면 세포 안으로 이동하는 이온의 양이 줄어든다.

24. 윗글을 통해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외부 자극이 없을 때 Na^+ 은 신경세포 외부보다 내부에 더 많이 분포하겠군.
- ② 장기강화에서 암파 수용체가 많아지면 NMDA 수용체의 기능이 억제되겠군.
- ③ 암파 수용체의 통로가 열리면 시냅스후세포 안의 Na^+ 의 농도는 떨어지겠군.
- ④ 시냅스전세포 내부의 Ca^{2+} 의 농도가 점점 짙어지면 글루탐산이 분비되겠군.
- ⑤ 글루탐산의 자극과 시냅스후세포의 강한 탈분극이 동시에 일어나면 시냅스후세포의 단백질 활성화가 억제되겠군.

25. [A]를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냅스후세포가 흥분상태로 변하기 위해서는 ㉠의 유입이 필수적이다.
- ② ㉠이 시냅스후세포로 유입되면 ㉣이 새로 만들어질 수 있다.
- ③ ㉢의 통로가 열리기 위해서는 시냅스전세포가 분비한 글루탐산의 자극이 필요하다.
- ④ ㉢의 통로로 ㉤이 유입되기 위해서는 시냅스후세포의 탈분극이 필요하다.
- ⑤ ㉤의 유입이 지속되면 시냅스후세포의 흥분상태는 오래 유지될 수 있다.

2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실험 내용 및 결과'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실험 조건]

- 신경세포 A에 강한 전기적 자극을 가해 강한 신호를, 신경세포 B에 약한 전기적 자극을 가해 약한 신호를 발생시켜 신경세포 C와의 시냅스 연결을 시도함.
- A, B, C 이외의 다른 신경세포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 실험에서 가하는 전기적 자극 이외 다른 자극은 없음.

[실험 내용 및 결과]

- ㄱ. A에서 발생시킨 신호를 C로 전달하였더니 시냅스 연결이 2시간가량 지속되었다.
- ㄴ. B에서 발생시킨 신호를 C로 전달하였더니 시냅스 연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 ㄷ. A에서 발생시킨 신호와 B에서 발생시킨 신호를 동시에 C로 전달하였더니 두 경로의 시냅스 연결은 모두 2시간가량 지속되었다.

- ① ㄱ의 A에서는 분극 상태가 지속되어 활동전위가 형성되지 않았겠군.
- ② ㄱ의 C에서는 A의 신호를 받아들여 새로운 단백질 합성을 일으켰겠군.
- ③ ㄴ의 C에서는 Na⁺이 세포 안으로 들어와 강한 탈분극이 일어났겠군.
- ④ ㄴ의 B와 달리 ㄷ의 B에서는 Ca²⁺이 유입되지 않아 글루탐산의 분비가 일어나지 않았겠군.
- ⑤ ㄴ의 C와 달리 ㄷ의 C에서는 세포 안의 단백질이 활성화되어 새로운 암과 수용체가 만들어졌겠군.

[27 ~ 3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모더니즘 예술가들은 예술의 순수성과 독자성을 강조하여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양식이나 이미지 ㉠ 차용을 거부했다. 이와 달리 개념미술가들은 예술적 메시지의 전달을 위해 통속적이거나 인식되었던 기성품들까지 작품의 오브제*로 사용함으로써 기존의 예술 작품과 다른 양식의 작품을 창조했다. 특히 불탕스키는 비전문가가 사적 일상이나 행사를 기록할 목적으로 찍은 아마추어 사진을 자신의 작품에 오브제로 사용하여 전시 공간으로 옮김으로써 새로운 미적 기능을 가지게 했다.

불탕스키가 아마추어 사진을 오브제로 활용한 것은 그것이 갖는 특징인 이데오그램과 소시오그램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이데오그램은 사회가 공유하는 사진의 ㉡ 전형적 스타일을 의미하는데, 아마추어 사진에서의 정면을 바라보는 모습, 고정된 시선, 상황에 따른 정형화된 자세와 같은 전형적인 포즈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리고 소시오그램은 개인들 간의 사회 문화적 관계 양상을 드러내는 사회적 지표이다. 결혼식이나 축제 등을 기록하고 기념할 목적으로 찍은 아마추어 사진은 가족이나 사회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드러냄으로써 그들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감정을 재확인하고 공동체의 결속을 이끄는 역할도 한다.

불탕스키는 이러한 특징을 지닌 아마추어 사진을 오브제로 활용하여 감상자로 하여금 오랫동안 ㉢ 고착화된 사회적 규범 체제나 공동체의 특징과 같은 일종의 문화적 코드를 읽게 함으로써, 작품 해석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일상적인 가족사진을 오브제로 사용한 작품을 바라보는 감상자는 ㉣ 오브제인 아마추어 사진이 나타내는 이데오그램을 통해 문화적 코드를 읽어낼 수 있고, 소시오그램을 통해 특정 가족의 삶의 모습에서 연상되는 자신의 과거나 동시대 가족의 모습을 떠올리며 능동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그는 사람들이 사진을 진짜라고 믿는 마음을 역이용하여 사진이 갖는 사실성과 허구성이라는 양면성을 드러냄으로써, 사진에 부여된 진실성을 의심하고 사진을 다의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했다. ‘진짜’처럼 여기도록 아마추어 사진을 반복적으로 재촬영하여 원래 사진의 이미지를 일부러 흐리게 만들거나 자신의 의도에 따라 사진을 재배열하기도 했다. 또 드러내 놓고 제목이나 설명과 같은 텍스트를 사진과 영터리로 ㉤ 조합하여 감상자가 이를 쉽게 알아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진이 보여 주는 것이 진실인지, 텍스트가 보여 주는 것이 진실인지 감상자를 혼란에 빠뜨리기도 했다.

이처럼 불탕스키는 일상적인 아마추어 사진을 오브제로 사용함으로써, 보편적이고 공통된 문화적 특징을 이해하게 하고 사실과 허구가 공존하는 사진의 양면성을 작품을 통해 드러냈다. 이를 통해 현대 사회가 만들어내는 이미지의 홍수 속에서 감상자의 의식적인 이미지 읽기를 ㉥ 권고하고 있다.

* 오브제: 어떤 대상이 작품의 소재가 되어 그 본래의 용도나 기능은 사라지고 새로운 느낌을 일으켜 예술 작품화될 때의 사물을 이르는 말.

27. 윗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개념미술의 전개 과정
 - 불탕스키 사진이 가지는 양면성을 중심으로
- ② 불탕스키 작품 세계의 특징
 - 오브제로서의 아마추어 사진 활용을 중심으로
- ③ 불탕스키의 오브제 활용 기법
 - 가족사진 활용 방법을 중심으로
- ④ 이데오그램과 소시오그램의 관계
 - 불탕스키의 작품을 중심으로
- ⑤ 불탕스키의 작품이 현대 미술에 끼친 영향
 - 사진의 문화적 코드를 읽는 방법을 중심으로

28. 윗글을 읽고 <보기>에 대해 반응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1939년에서 1964년 사이, D가족 앨범>

지금 보시는 것은 ‘1939년에서 1964년 사이, D가족 앨범’이라는 작품의 일부를 확대한 것으로, 불탕스키가 한 친구의 가족사진들을 빌려 와 상업 사진작가에게 다시 찍도록 한 다음, 그것에 불탕스키 자신의 가족사진을 일부 섞어서 재배열하고 진짜 한 가족의 사진 앨범처럼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 ① 감상자가 작품 속 사진을 ‘진짜’처럼 여기게 하기 위해 기존의 사진을 재촬영했다고 할 수 있겠군.
- ② 감상자가 예술의 순수성을 읽어 낼 수 있게 하기 위해 자신의 의도에 따라 사진을 재배열했다고 할 수 있겠군.
- ③ 감상자가 제시된 사진을 다의적으로 읽게 하기 위해 작품의 실제 내용에서 벗어난 제목을 붙였다고 할 수 있겠군.
- ④ 감상자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감정을 떠올리게 하기 위해 가족사진을 오브제로 활용했다고 할 수 있겠군.
- ⑤ 감상자가 고착화된 문화적 코드를 읽어낼 수 있게 하기 위해 주로 정면을 응시하는 전형적인 자세의 사진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겠군.

29. 윗글의 ㉠과 <보기>의 ㉡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관습적인 미의 기준과 예술 개념에 대한 부정에서 출발한 ‘레디 메이드’는 마르셀 뒤샹에 의해 언급된 용어로, 산업 생산물이 일상적 공간에서 전시 공간으로 단순히 옮겨져 예술 작품이 된 것을 말한다. 이로써 ㉡ 예술가가 선택하여 작품화한 산업 생산물은 본래의 용도나 기능을 잃게 되고, 새로운 미적 기능을 가진 대상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하지만 다시 원래의 장소로 이동했을 경우에는 본래의 기능을 되찾게 된다.

- ① 관습적인 미의 기준을 답습한다.
- ② 일상 공간 속에서도 예술적 의미를 지닌다.
- ③ 새로운 미적 기능을 가지면서 예술 작품이 된다.
- ④ 원본의 재가공이나 재구성 없이 예술 작품이 된다.
- ⑤ 대중이 예술성을 인정해 예술가가 선택한 소재이다.

30. a ~ e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돈이나 물건 따위를 빌려서 씬.
- ② b: 어떤 부류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 ③ c: 어떤 상황이나 현상이 굳어져 변하지 않는 상태가 된.
- ④ d: 어떤 기준이나 실정에 맞게 정돈하여.
- ⑤ e: 어떤 일을 하도록 권하고.

[31 ~ 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성진이 여덟 선녀를 본 후에 정신이 자못 황홀하여 마음에 생각하되,
 ‘남아가 세상에 나 어려서 공맹의 글을 읽고, 자라 요순 같은 임금을 만나, 나면 장수 되고 들면 정승이 되어 비단 옷을 입고 옥대를 띠고 옥궐에 조회하고, 눈에 고운 빛을 보고 귀에 좋은 소리를 듣고 은택(恩澤)이 백성에게 미치고 공명이 후세에 드리움이 또한 대장부의 일이라. 우리 부처의 법문은 한 바리 밥과 한 병 물과 두어 권 경문과 일백 여덟 날 염주 뿐이라. 도덕이 비록 높고 아름다우나 적막하기 심하다.’
 생각을 이리하고 저리하여 밤이 이미 깊었더니 문득 눈앞에 팔선녀가 섰거늘 놀라 고쳐 보니 이미 간 곳이 없더라. 성진이 마음에 뉘우쳐 생각하되,
 ‘부처 공부에서 특히 뜻을 바르게 함이 으뜸 행실이라. 내 출가한 지 십 년에 일찍 반점 어기고 구차한 마음을 먹지 않았더니, 이제 이렇듯이 염주를 그릇하면 어찌 나의 전정(前程)에 해롭지 아니하리오?’
 향로에 불을 다시 피우고 의연히 포단에 앉아 정신을 가다듬어 ㉠ 염주를 고르며 일천 부처를 염하더니, 홀연 창 밖에 동자가 부르되,
 “사형은 잠들었느냐? 사부가 부르시나이다.”
 성진이 놀라 생각하되,
 ‘깊은 밤에 나를 부르니 반드시 연고가 있도다.’
 동자와 한가지로 방장에 나아가니 대사가 모든 제자를 모으고 ㉡ 등축을 낮같이 켜고 소리하여 꾸짖되,
 “성진아, 네 죄를 아느냐?”
 성진이 ㉢ 섬돌에 내려 꿇어 가로되,
 “소자가 사부를 섬긴 지 십 년에 일찍 한 말도 불순히 한 적이

없으니 진실로 어리석고 아득하여 지은 죄를 아지 못하나이다.”
 대사가 이르되,

“중의 공부가 세 가지 행실이 있으니 몸과 말씀과 뜻이라. 네 용궁에 가 술을 취하고, 석교에서 여자를 만나 언어를 수작하고 꽃을 던져 희롱한 후에 돌아와, 오히려 미색을 권련하여 세상 부귀를 흠모하고 불가의 적막함을 싫어 여기니, 이는 세 가지 행실을 일시에 무너뜨림이라.”

성진이 고두(叩頭)하고 울며 가로되,

“스승님아, 성진이 진실로 죄 있거니와 주계를 과하기는 주인이 괴로이 권하기에 마지못함이에요, 선녀로 더불어 언어를 수작하기는 길을 뵈을 말미암음이니 각별 부정한 말을 한 바가 없고, 선방에 돌아온 후에 일시에 마음을 잡지 못하나 마침내 스스로 뉘우쳐 뜻을 바르게 하였으니, 제자가 죄 있거든 사부가 달초(撻楚)하실 뿐이지 어이 차마 내치려 하시나이까? 사부 우러러 뵈기를 부모같이 하니 성진이 십이 세에 부모를 버리고 스승님을 좇아 머리를 깎으니 연화도량이 곧 성진의 집이니 나를 어디로 가라 하시나이까?”

대사가 이르되,

“네 스스로 가고자 하기에 가라 함이니 네 만일 있고자 하면 뉘 능히 가라 하리오? 네 또 이르되 어디로 가리요 하니 너의 가고자 하는 곳이 너의 갈 곳이라.”

대사가 소리 질러 가로되,

“황건역사가 어디 있느냐?”

홀연 공중으로부터 신장(神將)이 내려와 청령하거늘 대사가 분부하되,

“네 죄인을 영거(領去)하여 풍도*에 가 교부(交付)하고 오라.”

[중략 부분 줄거리] 풍도로 끌려 간 성진은 양 처사의 아들 양소유로 환생하고, 함께 환생한 팔 선녀와 차례로 인연을 맺게 되고 높은 벼슬에까지 오른다. 벼슬에서 물러나 여생을 즐기던 양소유는 두 부인과 여섯 남자를 거느리고 뒷동산에 올라갔다 문득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된다.

잔을 씻어 다시 부으려 하더니, ㉣ 홀연 석경에 막대 던지는 소리 나거늘 괴이히 여겨 생각하되 ‘어떤 사람이 올라오는고?’ 하더니, 한 호승이 눈썹이 길고 눈이 맑고 얼굴이 괴이하더라. 엄연히 좌상에 이르러 승상을 보고 예하여 왈,

“산야 사람이 대승상께 뵈나이다.”

승상이 이인(異人)인 줄 알고 황망히 답례 왈,

“사부는 어디로부터 오신고?”

호승이 웃어 왈,

“평생 고인을 몰라보시니 귀인이 잇음 험타는 말이 옳도소이다.”

승상이 자세히 보니 과연 낮이 익은 듯하거늘 홀연 깨쳐 능파낭자를 돌아보며 왈,

“소유가 전일 토번을 정벌할 제 꿈에 동정 용궁에 가 잔치하고 돌아오는 길에 남악에 가 놀았는데, 한 화상이 법좌에 앉아서 경을 강론하더니 노부가 그 화상이냐?”

호승이 박장대소하고 가로되,

“옳다. 옳다. 비록 옳으나 몽중에 잠깐 만나본 일은 생각하고 십년을 동처하던 일을 알지 못하니 뉘 양장원을 총명타 하더뇨?”

승상이 망연하여 가로되,

“소유가 심오록 세 전은 부모 좌하를 떠나지 않았고 **십육 세에 급제하여 연하여 직명(職名)이 있었으니**, 동으로 연국에 봉사하고 서로 토번을 정벌한 밖은 일찍 경사를 떠나지 않았으니 언제 사부로 더불어 십 년을 상종(相從)하였으리오?”

호승이 웃어 왈,
 “상공이 오히려 춘몽(春夢)을 깨지 못하였도소이다.”
 승상 왈,
 “사부가 어찌하면 소유로 하여금 춘몽을 깨게 하리오?”
 호승 왈,
 “이는 어렵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손 가운데 석장을 들어 석난간을 두어 번 두드리니 홀연 네 녀 산골로부터 구름이 일어나 대 위에 끼이어 지척을 분변치 못하니, 승상이 정신이 아득하여 마치 취몽 중에 있는 듯 하더니 오래되어서야 소리 질러 가로되,

“사부가 어이 정도로 소유를 인도치 아니하고 환술로 서로 회통하느뇨?”

말을 떨구지 못하여서 구름이 걷히니 호승이 간 곳이 없고 좌우를 돌아보니 여덟 남자가 또한 간 곳이 없는 지라. 정히 경황하여 하더니, 그런 높은 대와 많은 집이 일시에 없어지고 제 몸이 한 작은 암자 중의 한 포단 위에 앉았으며 ㉠ 향로에 불이 이미 사라지고 지는 달이 창에 이미 비치었더라.

스스로 제 몸을 보니 일백 여덟 날 염주가 손목에 걸렸고 머리를 만지니 갓 깎은 머리털이 가칠가칠하였으니, 완전히 소화상의 몸이요 다시 대승상의 위(威儀) 아니니, 정신이 황홀하여 오랜 후에 비로소 제 몸이 연화도량 성진 행자인 줄 알고 생각하니, 처음에 스승에게 수책*하여 풍도로 가고 인세에 환도하여 양가의 아들 되어 장원급제 한림학사하고 출장입상하여 공명신퇴하고 두 공주와 여섯 남자로 더불어 즐기던 것이 다 하룻밤 꿈이라.

— 김만중, 「구운몽(九雲夢)」 —

* 풍도: 도가에서 '지옥'을 이르는 말.

* 수책: 책망을 받음.

3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배경이 되는 시대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② 대화를 통해 인물이 처한 상황의 원인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전기적(傳奇的) 요소를 활용하여 서사를 진행하고 있다.
- ④ 인물의 말을 통해 과거의 행적이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 ⑤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를 내적 독백의 형식으로 나타내고 있다.

32. <보기>를 참고하여 ㉠ ~ ㉤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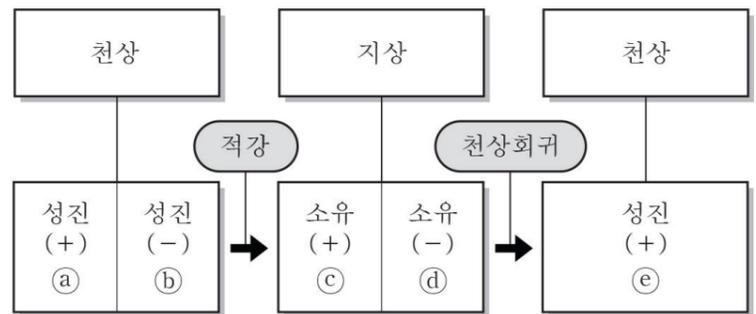
「구운몽」은 꿈에서 깨어난 주인공이 꿈속의 경험을 통해 꿈꾸기 이전보다 더욱 정진하여 득도에 이르게 된다는 내용이 주제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이는 ‘현실-꿈-현실’의 환몽 구조를 통해 잘 드러나는데, 특히 꿈속 경험이 단 하룻밤의 ‘꿈’임을 강조하기 위해 입몽에서 각몽에 이르기까지의 시간 경과 및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 ① ㉠의 ‘염주’는 주인공이 겪게 되는 꿈속의 경험을 부각하는 소재이다.
- ② ㉡의 ‘등축’은 주인공이 꿈에서 깨어난 후 득도할 것임을 암시하는 소재이다.
- ③ ㉢의 ‘섬돌’은 주인공의 입몽과 각몽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나타내는 소재이다.
- ④ ㉣의 ‘막대’는 주인공이 꿈꾸기 이전보다 더욱 정진할 수 있도록 자극하는 소재이다.
- ⑤ ㉤의 향로의 ‘불’은 주인공의 입몽에서 각몽에 이르기까지의 시간 경과를 드러내는 소재이다.

33. 윗글을 바탕으로 ㉠ ~ ㉤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아래의 도식은 「구운몽」의 공간적 배경과 인물을 대응하여 나타낸 것이다. 천상적 가치에 대해 ‘성진(+)'는 지향, ‘성진(-)'는 회의를 의미하고, 세속적 가치에 대해 ‘소유(+)'는 추구를, ‘소유(-)'는 회의를 의미한다.



- ① ‘여덟 선녀’를 만난 것을 계기로 ‘성진’의 상태는 ㉠에서 ㉡로 변했다고 볼 수 있겠군.
- ② ‘성진’이 ‘부처의 법문’을 ‘한 바리 밥과 한 병 물과 두어 권 경문과 일백 여덟 날 염주뿐’으로 생각한 것에서 ㉡를 확인할 수 있겠군.
- ③ ‘승상’이 ‘십육 세에 급제하여 연하여 직명이 있었’다는 것은 ㉢의 결과로 볼 수 있겠군.
- ④ ㉣의 ‘소유’는 ‘호승’과의 만남을 계기로 천상으로 회귀하게 되었겠군.
- ⑤ ‘성진’이 ‘두 공주와 여섯 남자로 더불어 즐기던 것’을 떠올리는 것에서 ㉤의 성진이 ㉢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군.

[34 ~ 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생시런가 꿈이런가 천상에 올라가니
 옥황은 반기시나 ㉠ 못신선이 꺼리는구나
 두어라 ㉡ 강호에 놀이며 달이 내 분수에 옳도다.

꽃잠에 꿈을 꾸어 ㉢ 천상십이루(天上十二樓)에 들어가니
 옥황은 웃으시되 못신선이 꾸짖는구나
 어즈버 ㉣ 백만억 창생을 어느 사이 물어보리.

하늘이 이지러졌을 때 무슨 기술로 기워냈는고
 백옥루(白玉樓) 중수(重修)*할 때 어떤 ㉤ 목수 이루어냈는고
 옥황께 여쭙보자 하였더니 다 못하여 왔도다.

- 윤선도, 「몽천요(夢天謠)」 -

* 중수: 건축물 따위의 낡고 헌 것을 손질하며 고침.

(나)

청광(淸光)을 머금으니, 폐부(肺腑)에 흘러 들어
 호호(浩浩)한 흉중(胸中)*이 아니 비친 구멍 없다.
 옷가슴 헤쳐 내어 광한전에 돌아 앉아
 마음에 먹은 뜻을 다 사퇴려 하였더니,
 맘나쁜 부운(浮雲)이 어디서 와 가리었나
 천지(天地) 회맹(晦盲)하여 백물(百物)을 다 못보니,
 상하 사방에 갈 길을 모르겠다.
 요잠반각(遙岑半角)*에 옛빛이 비치는 듯
 운간(雲間)에 나왔더니, 때구름 미쳐 나니,
 희미한 한 빛이 점점 아득하여 온다.
 중문을 닫아 놓고, 정반(庭畔)에 따로 서서
 매화 한 가지 계영(桂影)인가 돌아보니,
 처량한 암향(暗香)이 날 따라 근심한다.
 소렴(疎簾)을 지워 놓고, 동방에 혼자 앉아
 금작경(金鵲鏡) 닦아내어 벽상에 걸어 두니,
 제몸만 밝히고, 남 비칠 줄 모른다.
 단단 환선(團團紈扇)*으로 긴 바람 부쳐 내어
 이 구름 다 걷과다. 기원 녹죽(淇園綠竹)으로
 일천 장 비를 매어 저 구름 다 쓸과다.
 장공(長空)은 만리요, 이 몸은 진토(塵土)니,
 서의한* 이내 뜻이 헤나니 허사로다.
 가뜩 근심 많은데, 긴 밤이 어떠한가
 뒤척이며 잠 못 이뤄 다시곰 생각하니,
 영허소장(盈虛消長)*이 천지도 무궁하니,
 풍운이 변화한들 본색이 어디 가료
 우리도 단심(丹心)을 지켜서 명월(明月) 볼 날 기다리노라.

- 최현, 「명월음(明月吟)」 -

* 호호한 흉중: 넓고 넓은 가슴 속.
 * 요잠반각: 멀리 아득히 보이는 우뚝 솟은 산봉우리.
 * 단단 환선: 흰 비단으로 만든 둥근 부채.
 * 서의한: 맹세한, 약속한.
 * 영허소장: 달이 차고 지며, 초목이 자라고 스러짐.

34.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구의 방식을 활용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②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계절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대화의 형식을 통해 대상과의 친밀감을 나타내고 있다.
- ④ 인간과 자연의 대비를 통해 주제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⑤ 명령적 어조를 통해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35.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현실 정치를 떠나 초야에 묻혀 지내던 윤선도는 자신을 질시하는 세력들을 의식하여 임금의 지극한 부름을 사양했다. 그러나 고산에 은거하면서도 임금을 도와 부정적인 현실을 바로잡고, 올바른 정치를 하고 싶었던 윤선도는 그러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현실을 꿈 속 천상계의 일에 빗대어 「몽천요」를 창작하였다.

- ① ㉠은 작가가 임금의 부름을 사양한 원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② ㉡은 작가가 은거하고 있는 삶의 공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③ ㉢은 작가를 필요로 하는 임금이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④ ㉣은 작가가 올바른 정치를 실현하려는 대상으로, 임금을 떠나는 계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⑤ ㉤은 무너진 현실을 바로잡을 수 있는 주체로, 작가 자신을 비롯한 인재를 비유한다고 볼 수 있다.

36.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이 작품에서 작가는 임진왜란 당시의 혼탁하고 암담한 시대 현실 속에서 신분의 제약으로 인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안타까워하고, 피란길에 오른 임금을 달에 비유하여 임금에 대한 걱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① ‘사퇴려’는 ‘뜻’은 혼탁하고 암담한 시대 현실과 관련된 것이겠군.
- ② ‘옛빛이 ‘점점 아득하’다는 것은 임금이 처한 상황이 점점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겠군.
- ③ ‘제몸만 밝히’는 ‘금작경’은 피란길에 오른 임금의 상황을 비유한 것이겠군.
- ④ ‘단단 환선’으로 ‘바람’을 일으키려는 것은 부정적인 현실을 바꾸고 싶은 소망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⑤ 자신의 뜻이 ‘허사’라고 한 것은 신분적 제약으로 인해 자신을 ‘진토’로 인식한 결과이겠군.

[37 ~ 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S# 60. 마루

상돌네가 부엌에서 나오다가 보고 호들갑을 떤다.

상돌네 왔다! 선녀가 하강했나비! 저러니 순천 박 참봉 댁 아들이 반하지 않고 배길 것이여!

옥화 (눈을 흘기며) 누가 그런 집에 시집 간다요.

상돌네 어매- 큰일 나것네-. 그 도련님이 워디가 으째서..... 집안 좋겠다 인물 잘 낫겠다.....

옥화 흥! 그런 집에 갔다가 밤낮 구박은 누가 받고! 술장사 딸이라고..... 이름도 성도 모르는 남사당꾼 딸이라고.....

따라 나서다가 가슴을 찢린 듯 주춤하는 소향-. 그때 멀리 산사에서 쿵-하고 종소리가 울려온다. 그 소리를 듣자 부리나케 마당으로 내려가는 옥화. 어이없는 듯 쳐다보는 소향-.

S# 61. 옥화네 집 앞

옥화, 버드나무 가지를 매만지며 먼 화개협 골짜기를 바라다 본다. 울려오는 종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옥화의 얼굴에 사무치는 그리움. 등 뒤에 소향이 다가선다.

소향 또 젊은 중 생각이구나?

옥화 나두 머리 깎구 절에나 갈까?

소향 뭐라꼬?

옥화

S# 62. 쌍계사 종루

있는 힘을 다하여 종채를 잡아당겼다가 내미는 범운.

S# 63. 옥화네 집 앞

소향 어휴-, 큰일이다. 허구헌 날 저놈의 종소리만 들음 안절부절 났이 빠지나....., 네가 정 그래싸든 종소리 안 들리는 면데로 이사라도 가야 할랑가부다.

옥화 걱정 마이소. 우린 엄마가 생각하는 그런 사이가 아니구마.

소향, (믿어지지 않는 듯)

S# 64. 쌍계사 종루

범운의 이마에 구슬 같은 땀방울이 흘러내린다. 종치기를 다하고 비틀비틀 난간을 붙잡고 가쁜 숨결을 몰아쉬며 산 밑을 굽어 본다. 고뇌에 싸인 얼굴. 그때 종루 밑에서 조용히 부르는 소리.

혜초 범운아-.

범운, 후딱 정신이 들며 돌아본다.

S# 65. 절 마당

종루 밑에 혜초 스님이 서 있었다. 범운, 천천히 층계를 내려온다. 혜초 앞에서 합장한다. 지긋이 바라보다가

혜초 종소리에 한이 많구나....., 무슨 생각을 하며 울렸기에 소리가 그리도 애절한고.....

범운 (흠칫하며) 예?

혜초 무서운 업이로다. 인연이란 거미줄 같은 것! 한번 늘이기 시작하면 끝이 없느니라. 진작 끊어버려야지 정이 끊기가 어렵거든 멀리 떠나거라. 여기 있어 가지고서는 아무래도 네가 업원을 감당키 어려울레라.

범운

혜초 나무관세음보살.....

범운도 합장하고 입안에서 중얼거린다. 혜초, 서서히 법당 쪽으로 걸어간다. 선 자리에서 지켜보다가 오뇌에 싸이며 발길을 돌리는 범운.

S# 66. 산길 (밤)

송낙*을 쓰고 손에 단주*를 든 범운이 터벅터벅 산길을 내려온다. 멀리 산 밑에서 들려오는 강강술래 소리. 범운, 걸음을 멈춘다.

S# 67. 광장 (추석날 밤)

㉠ 말 만큼씩 한 삼십여 명 마을 처녀들이 손에 손을 잡고 둥글게 원을 그리며 천천히 돌아간다. 삼단 같은 머리채에 나부끼는 갑사대기가 그들의 허리 아래서 팔랑거리고 주위에는 마을의 남녀노소가 둘러서서 구경을 하며 다 같이 목청을 뽑아 “가아가양 수월래”를 화답한다. 첫소리를 먹이는 것은 옥화. 옥화의 달덩이 같은 얼굴에 조리를 먹일 때마다 흰 이가 별처럼 반짝인다.

옥화 산아 산아 수영산아. / **일동** 가양 가양 수월래.

옥화 놀이 좋다 백두산아. / **일동** 가양 가양 수월래.

옥화 잎이 피면 청산이요. / **일동** 가양 가양 수월래.

옥화 꽃이 피면 화산이요. / **일동** 가양 가양 수월래.

옥화 청산 화산 넘어가면. / **일동** 가양 가양 수월래.

옥화 우리 부모 보련마는.

저만큼 떨어져 서 있는 버드나무 아래로 범운이 다가온다.

㉡ 송낙 아래서 그의 두 눈이 화경*처럼 옥화를 쏘아 번득인다. 옥화의 첫소리가 약간 빨라짐에 따라 처녀의 발맞춤도 빨라진다.

옥화 해가 지고 달떠온다. / **일동** 가양 가양 수월래.

옥화 하늘에다 베를 놓고. / **일동** 가양 가양 수월래.

옥화 구름 잡아 잉어걸고. / **일동** 가양 가양 수월래.

옥화 달은 잡아 목 맨들고. / **일동** 가양 가양 수월래.

옥화 별을 잡아 무늬놓고. / **일동** 가양 가양 수월래.

버드나무 그늘에서 한결음 달빛 속으로 나오는 범운. ㉢ 저도 모르게 구경꾼들 등 뒤로 다가선다. 조리를 먹이며 돌아가던 옥화의 시선이 범운의 모습을 발견하고 얼굴에 함뱍 웃음이 핀다. 그러나 범운의 얼굴은 침울하기만 하다. 옥화, 달뜬 가슴을 못 이기듯 더욱 다그쳐 조리를 먹이자 처녀들의 발길은 일제히 허공에서 떴다 땅을 구르고 땅을 굴렀다 허공에 뜨면서 펄펄 돌아간다.

옥화 하늘에는 별도 총총. / **일동** 강-강-수월래.

옥화 솔밭에는 솔잎도 총총. / **일동** 강-강-수월래.

옥화 대밭에는 대가 총총. / **일동** 강-강-수월래.

지켜보며 점점 침통해지는 범운. 범운의 눈앞에 옥화의 흰 얼굴이 달덩이처럼 확 떠올라서 스러지면 다른 처녀들의 얼굴이 연달아 확확 떠올랐다 지워진다. 일제히 뛰노는 오이씨 같은 버선발들-. 갑사대기도 춤을 추고 그들의 달그림자도 춤을 추고, 하늘의 달무리도 숨 가쁘게 돌아오고-. 그러자 범운의 앞을 막 지나치려 한 옥화의 윤기 흐르는 두 눈이 범운의 오뇌에 싸인 두 눈길과 부딪친다. 옥화, 뭔가 심상치 않은 사태를 직감한 듯 후다닥 얼굴에 구름이 낀다. 보고 있는 범운이 모든 잡념을 뿌리쳐 발길을 돌린다. 다시 한 바퀴 돌아오다가 그것을 본 ㉣ 옥화가 우뚝 서버리자 손을 잡고 돌고 있던 원의 고리가 무너지며 우르르 무너진다. 아랑곳없이 범운의 뒤를 따라 달려가는 옥화. ㉤ 구경꾼들 속에 끼여 있다가 당황하는 소향.

소향 옥화야- 옥화야.

하고 부르며 뒤따라간다.

* 송낙: 예전에 여승이 주로 쓰던, 송라를 우산 모양으로 엮어 만든 모자.

* 단주: 54개 이하의 구슬을 꿰어 만든 짧은 염주.

* 화경: 햇빛을 비추면 불을 일으키는 거울이라는 뜻으로, ‘볼록 렌즈’를 이르는 말.

- 최금동·김강윤 각색, 「역마」 -

37.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다양한 소리를 활용하여 극적 긴장감을 완화시키고 있다.
- ② 새로운 인물의 등장으로 인물 간의 관계가 개선되고 있다.
- ③ 특정 인물에 의해 다른 인물의 행동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 ④ 가상 공간과 현실 공간을 대비하여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⑤ 현재와 과거를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사건의 인과 관계를 밝히고 있다.

38. 윗글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상돌네'는 '옥화'의 생각과는 다른 발언을 하고 있다.
- ② '혜초'는 종소리를 듣고 '범운'의 마음을 짐작하고 있다.
- ③ '범운'은 '혜초'의 조언을 들은 뒤 쌍계사를 나서고 있다.
- ④ '옥화'는 강강술래 소리를 하며 '범운'을 잊으려 하고 있다.
- ⑤ '소향'은 '범운'과의 관계에 대한 '옥화'의 말을 의심하고 있다.

39. <보기 1>을 참고하여 ㉠~㉣을 <보기 2>에 따라 촬영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1>

영화에서 카메라가 촬영한 장면에는 인물의 눈을 통해 대상을 바라 본 '주관적 시점의 쇼트'와 등장인물의 시선과 무관한 '객관적 시점의 쇼트' 등이 있다. 예를 들어 ㉠의 위치에서 촬영한 화면인 ㉡는 객관적 시점의 쇼트가 되며, ㉢의 위치에서 촬영한 화면인 ㉣는 주관적 시점의 쇼트가 된다. 실제 영화에서는 이 두 개의 쇼트를 연결하여 장면을 연출할 수도 있다.

<보기 2>

S# 67을 옥화, 범운의 주관적 시점의 쇼트와 객관적 시점의 쇼트만을 활용하여 촬영한다.

- ① ㉠: 범운이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강강술래 장면을 전체적으로 보여 주려 한다면 객관적 시점의 쇼트로 촬영할 수 있겠군.
- ② ㉡: 범운의 눈은 옥화가 볼 수 없으므로 객관적 시점의 쇼트로 촬영하고, 그의 시선으로 본 강강술래 장면은 범운의 주관적 시점의 쇼트로 촬영하여 연결할 수 있겠군.
- ③ ㉢: 옥화의 시점에서 바라본 범운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면 옥화의 주관적 시점의 쇼트로 촬영할 수 있겠군.
- ④ ㉣: 발길을 돌린 범운은 옥화가 멈추는 장면을 볼 수 없으므로 범운의 주관적 시점의 쇼트로 촬영할 수 있겠군.
- ⑤ ㉤: 범운과 옥화가 모두 소향을 볼 수 없으므로 객관적 시점의 쇼트로 촬영할 수 있겠군.

[40~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남편이 의도하지 않게 사기 사건에 걸려 K지청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 '나'는 남편의 사건을 담당하는 K지청 수사과 권 주임을 만난다.

“사모님 같은 분이 이렇게 오래 기다리는 면회를 하신대서야 말이 됩니까? 오죽한 사람들이 이 짓을 합니까? 돈푼이나 있는 사람은 다 특별 면회라는 걸 이용하니 사모님도 제가 그걸 알선해드리죠. 이거면 되니까요, 이거요.”

그는 다섯 손가락을 짝 펴 보였다. 그후 나는 구치소 정문 앞 주차장에 준비한 승용차가 이런 특별 면회자 중의 또 특수층의 차라는 것도 알게 됐다.

그러니까 오 분의 만남을 위한 갖은 수모와 다섯 시간의 기다림조차도 공평한 게 아니라 각양각색으로 억울한 사람들만의 이중의 억울함이었다.

특별 면회라는 것에 유혹을 안 느낀 건 아니지만 그동안 내가 친해진 사람들과의 공통의 억울함에서 나만 놓여나는 게 무슨 배신 같아 꺼림칙한 것 또한 어쩔 수 없었다.

한편 K지청 권 주임의 친절을 가장한 은밀한 공갈은 계속되었다. 어느 날은 남편이 K지청으로 검사 취조 받으러 왔는데 자기가 사식을 대접했노라는 핑계로 상당액의 금액을 요구하기까지 했다.

그가 요구한 금액을 마련해갖고 그를 만난 날 그는 더 노골적으로 나왔다.

“아줌마, 왜 이렇게 정신 못 차려. 지금 검사 손에 달렸을 때 손을 써야 한다니까. 기소돼서 판사한테로 넘어가봐. 그때야말로 큰돈 든다구, 큰돈.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다구. 불기 소처분하는 걸로 내가 아주 청부 맡고 아줌마는 이것만 준비하라니까, 이것만. 날짜가 없어, 날짜가.”

그러면서 다섯 손가락을 두 번인가 세 번 폼다 접었다 하면서 안달을 했다.

내 소박한 법률상식으로 그가 영장을 신청한 검사한테 다시 불기소처분을 교체하겠다는 게 도대체 씨가 먹지 않아 상대를 안 하려 해도 그가 담당검사와 같은 건물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 그를 아주 냉대할 수가 없었다. 그만큼 나는 어리석었고 의지할 데 라곤 없었다. 그가 남편을 결코 이롭게 할 순 없어도 수틀리면 해 롭게 할 수 있으리라는 기분 나쁜 예감은 백주의 악몽이 되어 늘 나를 소름 끼치게 했다.

드디어 나는 변호사와 의논해서 사건을 의뢰해볼까 해서 친구의 소개로 강 변호사를 만났다. 친구의 말대로 유능한 변호사인 듯 변화가에 으리으리한 사무실을 갖고 있었다. 나는 내가 의뢰하려는 사건이 그에겐 너무 작은 사건일 것 같아 미리 위축됐다.

강 변호사는 내가 설명하는 사건 내용을 시종 비웃는 듯한, 지루 한 듯한 미소로써 들었다. 다 듣고 난 그는 사건에 대한 일언 반구의 반문도 없이 엉뚱스럽게도 작가의 남편이 장사꾼이란 것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를 나타냈다. 아마 친구가 내가 작가라는 소리까지 해놓은 모양이다.

“거참 이상한데요. 암만해도 이상해요. 작가의 남편이 상인, 이래도 이상하고, 상인의 부인이 작가, 이래도 이상하고……”

사건을 검토할 척은 안 하고, 당사자들이 이십 년 넘어를 조금도 이상해하지 않으면서 산 것을 제가 뭐라고 혼자서 이상해하기에 여념이 없는가.

나는 남의 삶에 대한 그의 이런 속기(俗氣)스러운 호기심과 안이한 이해방법이 마음에 안 들었지만 친구의 소개도 있고 해서 그가 호기심을 제풀에 가라앉힐 때까지 참았다.

그는 저절로 직업적인 자신만만한 태도를 회복하더니 간단히 말했다.

“불기소로 해드리면 되죠?”

“네?”

“검사가 기소 안 하고 풀어주도록 해드리면 되냐구요?”

“그러면 오죽이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게 그렇게 쉬울까요?”

“다 되는 방법이 있죠. K지청 쪽은 훤히 통하니까요.”

“그러세요?”

나는 어정쩡했다. 어쩔 그렇게 말하는 식이 권 주임하고 똑같은 까 하고 정이 떨어졌다. 그는 불기소처분을 아주 청부 맡겠다며 삼십만 원을 요구했다.

친구에게 강 변호사가 이리저리하게 말하더라고 얘기했더니 친구는 뭘 듯이 좋아하면서 강 변호사가 그랬으면 그 일은 그렇게 될 걸로 믿어도 좋을 거라고 했다. 그러나 나는 믿어지지 않았고 마음이 썩 내키지도 않았다.

(중략)

결국 남편을 위해 합법적으로 손을 쓰는 길은 변호사한테 의뢰하는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강 변호사에게 삼십만 원을 주고 사건을 맡겼다.

그러나 남편은 기소됐다. 기소된 걸 나한테 재미난 듯이 알려준 건 권 주임이었고, 정작 강 변호사는 의뢰인이 기소된 것도 모르고 있었다. 내가 그 사실을 알려주자 그럴 리가 없는데 하면서 전화로 알아보더니,

“거 어떻게 그렇게 됐나. 그럼 그까짓 거 보석으로 꺼내드리지.”

또 한번 힘 안 들이고 큰소리를 했다. 그러나 나는 위임을 취소했다.

결국 남편은 재판받았다. 쌀을 훔치러 들어갔다가 밥을 훔쳐 먹은 도둑놈, 주인의 옷가지를 훔쳐낸 식모, 사고 낸 운전사, 버스칸에서 싸우다가 이를 부러뜨린 폭력범, 수금한 돈을 가로챈 점원 등, 삼십여 명의 조무래기 잡범들과 함께 무더기로 재판을 받았다.

신의 능력으로도 한꺼번에 그렇게 많은 사람을 심판할 수는 없으리라.

그러나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네” 하고 대답할밖에 없는, **사건의 표피를 건드리는 데 불과한 판사의 심문**이 한 사람 앞에 두 번 내지 세 번씩이나 돌아갔을까. 그런데도 워낙 피의자가 많고 보니 서너 시간은 후딱 지나갔고 곧 검사의 구형이 있었다.

나는 변호사를 취소한 걸 은근히 뉘우치고 있었는데 재판을 보면서 백번 잘한 일이다 싶었다. 왜냐하면 삼십여 명 중 단 한 사람도 변호사가 딸린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만약 남편에게만 변호사가 딸렸더라면 나머지 사람들은 법정에서까지 그 고약한 억울함을 맛보았을 게 아닌가.

십오 일 후의 연도 공판에서 남편은 자유의 몸이 됐다.

그는 다시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돌아오게 됐고, 처음엔 그것만으로도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니 차츰 시들해지면서 나는 다시 바가지를 긁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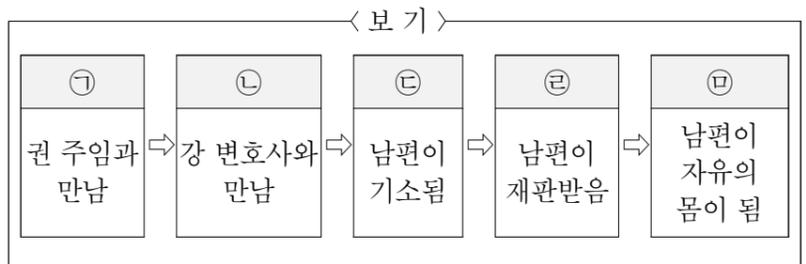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 생활의 평온이 돌아오니 다시 그전처럼 자유의 문제를 생각하는 밤까지도 돌아왔다. 어느 날이고 자유를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 좋아져서 우리 앞에 자유의 성찬(盛饌)이 차려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전 같으면 아마 가장 화려하고 볼품 있는 자유의 순서로 탐을 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는 후로는 하고많은 자유가 아무리 번쩍거리도 우선 간장 종지처럼 작고 소박한 자유, **억울하지 않을 자유**부터 골라잡고 볼 것 같다.

- 박완서, 「조그만 체험기」 -

40.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담담한 태도로 사건을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② 여러 인물의 입장에서 중심 사건을 기술하고 있다.
- ③ 서술자의 내면 서술을 중심으로 서사가 진행되고 있다.
- ④ 과거 장면을 삽입하여 인물들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인물의 외양적 특징을 부각하여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41. <보기>는 윗글의 서사 전개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 ~ ㉥을 중심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 ㉡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남편의 안위에 대한 ‘나’의 불안감은 증폭된다.
- ② ㉡을 주선한 친구의 긍정적 반응에도 불구하고 ‘나’는 강 변호사를 신뢰하지 못한다.
- ③ ㉢에서 ㉣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나는 강 변호사의 제안을 거절한다.
- ④ ㉣에서 ‘나’는 재판 과정을 지켜보며 변호사 위임을 취소한 자신의 선택을 긍정한다.
- ⑤ ㉤ 이후 예전의 평온한 삶을 회복하지 못한 남편에 대해 ‘나’는 연민을 느낀다.

42.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이 소설은 1970년대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빈부 격차로 인한 불평등, 물질주의적 세태, 법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소외 계층의 모습 등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작가는 소설에서 불합리한 현실과 양심 사이에서 고민하는 소시민의 내적 갈등과 소박한 소망을 보여주면서, 사회 현실의 부조리함을 부각하고 있다.

- ① ‘오래 기다리는 면회’와 ‘특별 면회’라는 말을 통해서 빈부의 격차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을 엿볼 수 있군.
- ② ‘권 주임’의 제안에 ‘유혹을 안 느낀 건 아니지만’이란 서술에서 현실과 양심 사이에서 갈등하는 소시민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 ③ ‘변호사와 의논해서 사건을 의뢰해볼까’하는 생각에서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세태를 확인할 수 있군.
- ④ ‘사건의 표피를 건드리는 데 불과한 판사의 심문’이라는 표현에서 법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소외 계층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억울하지 않을 자유’는 불합리한 현실을 살아가는 소시민의 소박한 소망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군.

[43 ~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내 언제고 지나치는 길가에 한 그루 남아 선 노송(老松) 있어 바람 있음을 조금도 깨달을 수 없는 날씨에도 아무렇게나 뻗어 높이 치어든 그 검은 가지는 추추히* 탄식하듯 울고 있어, 내 항상 그 아래 한때를 머물러 아득히 생각을 그 소리 따라 천애(天涯)*에 노닐기를 즐겨하였거니, 하룻날 다시 와서 그 나무 이미 무참히도 베어 넘겨졌음을 보았나니

진실로 현실은 이 한 그루 나무 그늘을 길가에 세워 바람에 울리느니보다 빠르게 육신의 더움을 취함에 미치지 못하겠거늘, 내 애석하여 그가 섰던 자리에 서서 팔을 높이 허공에 올려 보았으나, 그러나 어찌 나의 손바닥에 그 유현(幽玄)*한 솔바람 소리 생길 리 있으랴

그러나 나의 머리 위, 저 묘막(渺漠)*한 천공(天空)에 시방도 오고 가는 신운(神韻)*이 없음이 아닐지니 오직 그를 증거할 선(善)한 나무 없음이 안타까울 따름이로다

- 유치환, 「선한 나무」 -

- * 추추히: 우는 소리가 구슬프게.
- * 천애: 하늘의 끝.
- * 유현한: 깊고 그윽하며 미묘한.
- * 묘막한: 아득하게 넓은.
- * 신운: 고상하고 신비스러운 운치.

(나)

가문 섬진강을 따라가며 보라

㉠ 피가도 피가도 전라도 실핏줄 같은 개울물들이 끊기지 않고 모여 흐르며

해 저물면 저무는 강변에

쌀밥 같은 토끼풀꽃,

숯불 같은 자운영꽃 머리에 이어주며

지도에도 없는 동네 강변

식물도감에도 없는 풀에

어둠을 끌어다 죽이며

㉡ 그을린 이마 흰하게

꽃등도 달아준다

흐르다 흐르다 목메이면

영산강으로 가는 물줄기를 불러

㉢ 뻘 으스러지게 그리워 얼싸안고

지리산 뭉툭한 허리를 감고 돌아가는

섬진강을 따라가며 보라

섬진강물이 어디 몇 놈이 달려들어

퍼낸다고 마를 강물이더냐고,

㉣ 지리산이 저문 강물에 얼굴을 씻고

일어서서 꺾꺾 웃으며

무등산을 보며 그렇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노을 땀 무등산이 그렇다고 흰한 이마 꼬덕이는

고갯짓을 바라보며

저무는 섬진강을 따라가며 보라

㉤ 어디 몇몇 애비 없는 후레자식들이

퍼간다고 마를 강물인가를.

- 김용택, 「섬진강 1」 -

43.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나)는 시선의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된다.
- ② (가)는 특정 어미를 통해, (나)는 의문과 확인을 통해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다.
- ③ (가)는 명암의 대비를 통해, (나)는 대립적 시어를 통해 사물의 속성을 표출한다.
- ④ (가)는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나)는 관찰 사실을 묘사하여 대상의 역동성을 부각한다.
- ⑤ (가)는 친숙한 상황을 가정하여, (나)는 의인화된 대상을 등장시켜 공감적 정서를 표현한다.

44.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바람 있음을 조금도 깨달을 수 없는 날씨’에도 노송이 ‘추추히 탄식하듯 울고’ 있다고 표현한 것에는 자연의 미세한 변화에 반응하는 노송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담겨 있다.
- ② ‘무참히도’에는 ‘항상 그 아래 한때를 머물러’ 노닐었던 화자가 노송이 ‘베어 넘겨’진 상황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심정이 드러난다.
- ③ ‘애석하여’에는 노송을 ‘길가에 세워 바람에 울리’는 것보다 ‘빠개어 육신의 더움을 취’하는 상황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인식이 담겨 있다.
- ④ ‘팔을 높이 허공에 올려’보려 했으나 ‘유현한 솔바람 소리가 생길 리’ 없다고 한 것에는 자신이 노송에 미치지 못한다는 화자의 인식이 담겨 있다.
- ⑤ ‘증거할 선한 나무 없음이 안타까울 따름’이라는 표현에는 ‘묘막한 천공’에 ‘신운이 없음’을 인지한 화자의 상실감이 드러난다.

45. <보기>를 참고하여 ㉠~㉤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섬진강 1」은 섬진강과 그 주변의 자연물을 소재로 하여 끊임없는 수탈로 황폐해진 농촌의 고된 상황과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 농민들의 생명력을 보여 준다. 이를 통해 시인은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농민들에 대한 애정과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① ㉠에서 끊어지지 않고 흘러가는 개울물의 이미지는 농민들의 끈질긴 생명력을 환기하는군.
- ② ㉡에서 꽃등은 황폐한 농촌 상황에 놓인 농민들의 고된 삶을 부각하는 소재이군.
- ③ ㉢에서 그리워 얼싸안는 행위는 힘겨운 삶 속에서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농민들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군.
- ④ ㉣에서 지리산이 꺾꺾 웃는 모습은 수탈을 당하면서도 삶의 여유를 잃지 않는 농민들의 삶을 보여주는군.
- ⑤ ㉤에서 강물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은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농민들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는군.

※ 확인 사항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2016학년도 4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1교시 국어 영역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2	1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화법]

1. [출제의도] 토의의 흐름에 따른 발언 분석하기

‘학생 2’는 진로 콘서트가 일방적인 강연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다고 말했으므로, 프로그램이 실시되는 시기의 측면에서 문제의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학생 1’은 진로 콘서트 프로그램을 준비할 때 학생들이 원하는 직업군에 대한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학생 1’은 진로 콘서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학생들이 관심 있어 하는 직업군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학생 2’는 ‘인근에 있는 ○○고등학교’의 사례를 근거로 기존의 강연 중심의 진로 콘서트에 체험을 곁들이자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⑤ 진로 콘서트에 강연과 체험을 곁들이자는 ‘학생 2’의 제안에 ‘학생 1’은 그 체험이 교내에서만 이루어진다면 직업을 깊이 있게 탐색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 같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직업 현장에 찾아가 체험을 할 수 있게 하는 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2. [출제의도] 사회자의 역할 파악하기

토의 참여자들 사이의 의견 충돌을 조정하는 사회자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준비 단계에서부터 학생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었고, 일방적인 강연 중심이어서 학생들의 만족도가 낮았다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논의된 대로 준비 단계에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기존 프로그램에 체험 활동을 곁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등에서 사회자는 토의 참여자의 발언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학교의 여건 등으로 인해 반영되기 어려운 소수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과, 연계 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세부적 방안은 후속 토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에서 사회자는 다음에 토의할 내용을 안내하며 토의를 마무리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먼저 진로 콘서트의 만족도가 높지 않은 원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이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에서 사회자는 논의해야 할 내용을 제시하며 토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진로 콘서트에 대한 학생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에서 사회자는 토의 참여자들이 논의해야 할 주제를 언급하며 토의를 시작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3. [출제의도] 후속 토의를 위한 자료 활용하기

학교 간 연합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적은 참여 인원으로도 인해 개별 학교 차원에서는 개설하기 어려운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므로, 학교

의 여건 등으로 인해 반영되기 어려운 소수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 간 연합을 통해 참여 인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소수 의견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설이 가능함을 제시해야겠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② ‘학생들이 선호하는 직업군에 대한 설문 조사가 필요함을 제시해야겠다’는 내용은 이미 ‘학생 1’이 제시한 대안이다. 따라서 후속 토의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학생 2’는 기존의 진로 콘서트가 일방적인 강연으로 이루어져 학생들의 흥미를 끌지 못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학교 간 연합으로 연계 프로그램에서 강연의 비중을 높일 수 있다고 제시하는 것은 기존의 토의 내용과도 관련되지 않고, 후속 토의의 주제에도 맞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학생 2’는 진로 콘서트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직업 현장에 찾아가 체험을 하는 연계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있다. 사회자는 연계 프로그램의 세부적 구성 방안에 대해 후속 토의를 하자고 했는데, ‘교내에서 기존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음을 제시’하는 것은 후속 토의와 관련이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후속 토의의 주제는 진로 콘서트를 운영할 때 소수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과 연계 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세부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인데, ‘진로 중심 체험 프로그램에서 봉사 중심 체험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은 후속 토의 주제와 관련이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4. [출제의도] 의사소통 방식 파악하기

진행자는 전문가의 발언 일부를 재진술하여 자신이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① 최근 관심이 높아지는 ‘사람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를 모셨다는 진행자의 첫 발언에서 대담이 이루어지게 된 배경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진행자는 사람책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사람책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등 사람책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구하는 질문을 하며 대담을 이어가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진행자의 물음에 전문가는 세 번째 발언에서 시립 도서관의 사람책들을 사례로 들어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전문가의 두 번째 발언에서 ‘사람책’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묻은 후 ‘사람책’의 뜻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5. [출제의도] 이어질 내용 추리하기

전문가의 발언 중 사람책 이용자들이 사람책과 직접 만나 상호 작용하며 궁금증을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대담 내용 외의 질문을 하라는 진행자의 발언을 고려할 때 사람책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이유를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작문]

6. [출제의도] 글의 개요에 따른 내용 구체화하기

(나)에서는 도시광산에 투자했다가 철수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다는 내용으로 본론 1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도시광산 산업에 투자한 외국 기업들의 손실을 언급하며 본론을 구체화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천연 광물 자원의 매장량은 한정되어 있으나 그 수요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폐전자제품을 원료로 한 도시광산 산업이 각광받고 있다는 내용으로 서론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우리나라는 도시광산 산업의 원료 확보가 어렵다는 점과 도시광산 기술 수준이 낮다는 내용으로

본론 2를 구체화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폐전자제품의 경제적 가치와 배출 방법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본론 3을 구체화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기업과 관련 단체 등이 도시광산 산업이 기술집약적 산업임을 인식하여 기술 개발에 투자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본론 3을 구체화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7. [출제의도] 자료 활용의 적절성 평가하기

(ㄱ)은 폐휴대전화의 경제적 가치와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폐전자제품 수거량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내용의 자료이고, (ㄴ)은 폐전자제품을 폐기물로 지정한 우리나라의 제도로 인해 도시광산 산업 원료 수입과 공장 설립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ㄷ)과 (ㄹ)을 활용하여 도시광산 기술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을 이끌어 낼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ㄱ)에는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폐전자제품 수거량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ㄴ)에는 우리나라는 폐전자제품이 폐기물로 지정되어 있는 제도 때문에 도시광산 산업 공장 설립이 어렵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ㄷ)에는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높은 수준의 도시광산 기술을 보유한 일본의 예가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ㄱ)에는 폐휴대전화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내용이, (ㄷ)에는 일본의 높은 도시광산 금 축적량에 대한 내용이 있으므로 적절하다.

8. [출제의도] 조건에 맞게 표현하기

개요의 결론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도시광산 산업의 활성화에 따른 기대 효과로 금속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을, 도시광산 산업의 의의로 도시광산 산업이 경제적, 환경적 측면에서 중요한 산업이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①과 ②는 도시광산 산업의 의의만, ③과 ④는 우리나라 도시광산 산업의 활성화에 따른 기대 효과에 대한 내용만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9. [출제의도] 작문의 사고 과정 이해하기

2문단에서 ‘나는 그 마중물이 꿈을 이루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라고 생각했다.’와 ‘바로 그런 준비의 시간이 우리의 인생에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에서 ㉠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또한 3문단에서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그 시간들이 늘 후회스러웠다.’와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마중물과 같은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지금의 생활에 더욱 충실해야겠다.’에서 ㉡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은 삶의 의미를 발견한 내용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는 학생의 초고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는 학생의 초고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은 삶의 의미를 발견한 내용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적절하지 않다. ㉡는 학생의 초고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은 삶의 의미를 발견한 내용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10. [출제의도] 고쳐 쓰기의 적절성 평가하기

‘할머니께서는, 물이 나오게 하려면 먼저 약간의 물을 펌프에 넣어 주어야 한다고 하시며 물 한 바가지를 담아 오셨고’에서 문장의 주어는 ‘할머니께서는’이므로 높임의 대상을 고려하여 ‘넣어 주셔야 한다고 하며’라고 고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에서 ‘낯선’의 사전적 의미는 ‘사물이 눈에 익지 아니하다.’이므로 의미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낯선’을 삭제하는 것은 적절하다. ③ ‘펌프가 쏟아내기’에는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으므로 ㉡에 ‘물을’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다. ④ ㉡은 글의 흐름으로 볼 때, 앞

문장과 뒤 문장의 내용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삭제하는 것은 적절하다. ⑤ ㉠은 기본형이 '마르다'이므로 '마르다고'로 고치는 것은 적절하다.

[문법]

11. [출제의도] 표준 발음법 이해하기

'집일'은 제29항에 따라 'ㄴ' 소리가 첨가되고, 제18항에 따라 'ㅂ'이 [ㅍ]으로 발음되어 [집닐]로 발음된다. 따라서 '집일'을 로마자로 표기하려면 표준 발음법 제18항, 제29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① '덜이다'는 제13항에 따라 [더피다]로 발음되므로, 표준 발음법 제13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② '웃어른'은 제15항에 따라 [우더른]으로 발음되므로, 표준 발음법 제15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③ '굳이'는 제17항에 따라 [구지]로 발음되므로, 표준 발음법 제17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⑤ '색연필'은 제29항에 따라 'ㄴ' 소리가 첨가되고, 제18항에 따라 'ㄱ'이 [ㅇ]으로 발음되어 [생년필]로 발음되므로, 표준 발음법 제18항, 제29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12. [출제의도] 한글 맞춤법 적용하기

'귀머거리'는 동사 '귀먹다'의 어간 '귀먹-'에 접미사 '-어리'가 붙어서 명사가 된 말로, 어간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아니한다는 규정 즉, ㉠의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따라서 ㉡의 규정을 적용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다듬이'는 동사 '다듬다'의 어간 '다듬-'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말로,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은 것이므로, ㉠의 규정을 적용한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② '마개'는 동사 '막다'의 어간 '막-'에 접미사 '-애'가 붙어서 명사가 된 말로,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았으므로, ㉠의 규정을 적용한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③ '삼발이'는 명사 '삼발' 뒤에 '-이'가 붙어서 된 말로, 그 명사의 원형을 밝혀 적었으므로, ㉡의 규정을 적용한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⑤ '덜개'는 동사 '덜다'의 어간 '덜-'에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 '개'가 붙어서 된 말로,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었으므로, ㉡의 규정을 적용한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다.

13. [출제의도] 사전을 통해 단어의 특성을 이해하기

'뻔하다'에서 '뻔-'은 의존 명사이기 때문에, '-하다 02㉡'가 아니라 '-하다02㉣'의 용례에 해당한다.

14. [출제의도] 문장의 구조 파악하기

㉠의 주어 '나는'의 서술어는 '기다렸고'이고, ㉡은 '기다렸고'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므로 ㉢을 '나는'의 서술어라고 진술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15. [출제의도] 직접발화와 간접발화 파악하기

㉢에서 소연은, 학교에 늦은 지연에게 학교에 빨리 가라고 명령하려는 의도를 '가라'는 명령형 종결 표현을 통해 지연에게 전달하고 있으므로 화자의 의도와 종결 표현을 일치시키지 않고 있다고 진술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인문]

[16~18] <출전> 이정우, 「개념-뿌리들」

16.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 파악하기

3문단의 '이성의 작용도 일종의 원자 운동이라고 본 데모크리토스는 모양, 위치, 배열이라는 특성을 지니는 원자들이 특정하게 부딪치면 그것이 원인이 되어

정해진 결과들이 나온다는 역학적 인과 관계의 법칙만을 인정한다.'를 보면 데모크리토스는 역학적 인과 관계로 설명할 수 없는 이성의 작용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1문단의 "아낙케"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피할 수 없는 운명이나 필연성 등을 상징하는 여신으로 등장한다.'를 보면 적절하다. ③ 1문단의 '이 과정에서 아낙케는 세계의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를 보면 적절하다. ④ 4문단의 '목적론적 관점을 지닌 플라톤은, 현실에 구현되기 이전의 형상은 그 자체로 완벽한데, 질료가 형상을 그대로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에 오차나 무질서가 있다고 생각한다.'를 보면 적절하다. ⑤ 1문단의 '철학적 사유가 생겨남에 따라 아낙케는 일종의 이론적인 개념이 되었다.'를 보면 적절하다.

17.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사례에 적용하기

<보기>에서 지애가 '과학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진화하고 있는 것을 보면 세계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이상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한 것을 보면 지애가 목적론적 관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A]의 '세계가 오늘날과 같이 변화한 것은 이상적인 목적을 향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의 세계는 완전하지 않다고 본다.'를 보면 목적론적 관점에서는 현재의 세계를 불완전한 것으로 본다는 점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보기>에서 민준이 '나도 세계가 이런 분명한 법칙성만을 가지고 변한다는 그 물리학자의 생각에 동의해.'라고 말한 것과, 지애가 '과학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진화하고 있는 것을 보면'이라고 말한 것을 보면 두 사람 모두 세계가 변화한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보기>에서 민준이 '세계는 무엇인가의 지향점이 있어 진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단지 역학적인 인과 관계에 의해서만 변화가 이루어진다'라는 말에 동의한다는 것을 보면 기계론적 관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보기>에서 지애가 '과학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진화하고 있는 것을 보면 나는 세계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이상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한 것을 보면 지애가 목적론적 관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보기>에서 민준이 '세계는 무엇인가의 지향점이 있어 진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단지 역학적인 인과 관계에 의해서만 변화가 이루어진다'라는 말에 동의한다는 것을 보면 기계론적 관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A]의 '이 관점에 따르면 세계는 정교한 기계이기 때문에 이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질량, 속도 등의 역학적 개념들만으로 세계의 현상들을 설명해야 한다고 본다.'를 보면 기계론적 관점에서는 세계를 정교한 기계로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18. [출제의도] 핵심 개념 비교하기

4문단의 '플라톤이 생각하는 아낙케는, 형상이 현실에 구현되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질료적 조건으로서의 필연이라는 의미를 지닌다.'를 보면 ㉠이 형상이 구현되기 위한 조건이라는 것은 적절하다. 그리고 <보기>의 '스토아 학파가 생각하는 파툼은 인과 관계의 연쇄로 이루어진 세계의 법칙성이자 동시에 신의 섭리인 질서이다.'를 보면 ㉡이 법칙성을 지닌 질서라는 것은 적절하다.

① 4문단의 '이상적인 목적인 형상', '현실에 구현되기 이전의 형상은 그 자체로 완벽한데'를 보면 ㉠이 오차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인 목적이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보기>의 '스토아 학파는 세계가 이에 의해 이미 필연적으로 결정되어 있다고 보고'를 보면 ㉡이 세계의 미결정성을 공고히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은 신적인 세계를 의미하지 않고, ㉡이 원자로

구성된 세계를 의미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은 질서를 극복한 결과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보기>의 '인간은 이러한 법칙성을 이성을 통해 터득해 나가고'를 보면 ㉡이 이성을 통해 터득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은 적절하다.

[사회]

[19~22] <출전> 명순구, 「민법학원론」

19. [출제의도] 글의 내용 전개 방식 파악하기

계약이 성립하는 모습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3문단에서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① 계약이 성립하는 모습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계약이 성립하는 모습과 관련된 제도의 변천 과정을 보여주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계약이 성립하는 모습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관점들은 소개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계약이 성립하는 모습이 지닌 문제점의 원인을 기술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20. [출제의도] 글의 핵심 내용 이해하기

㉠은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으로, 3문단에서 양청약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모두 도달했을 때 계약이 성립한다고 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3문단에서 교차청약은 두 청약의 의사표시 내용이 결과적으로 일치하면 계약이 성립한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③ ㉡은 청약과 승낙의 합치에 의한 계약의 성립으로, 2문단에서 이 계약이 실시간 의사소통에 의해 이루어질 때는 청약자가 청약을 받은 이에게서 승낙의 의사가 담긴 말을 들은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④ ㉢은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으로, 3문단에서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발생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⑤ 3문단에서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은 청약자의 의사표시의 특성이나 거래상의 관습 등에 의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통지하지 않아도 성립한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21.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4문단에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한 경비나 이자 비용과 같이 승낙자가 그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음으로 인해 입은 손해이고, 배상액은 매매가와 시가 사이의 차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나)에서 정은 이 계약의 유효를 믿음으로 인해 30만 원이라는 이자 비용이 손해로 발생했고, 그 금액이 정이 사려는 골동품의 시가와 매매가의 차액인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정은 30만 원을 배상받을 수 있다.

① (가)는 실시간 의사소통이 아닌 계약으로, 2문단에서 이러한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발송된 시점에 계약이 성립한다고 했으므로 계약이 4월 12일에 성립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② 2문단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승낙의 의사표시가 연착하는 경우, 청약자가 그 사실을 승낙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계약은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2문단에서 청약을 받은 이가 청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한다면 이는 새로운 청약을 한 것이라 밝히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4문단에서 계약 성립 과정에서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고, 청약자가 계약 성립 당시에 그러한 사실을 알았으며 승낙자는 몰랐거나 알 수 없었다면 청약자가 승낙자의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정이 매매 대상이 없어진 것을 계약 성립 당시에 알았다면 정은 정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으므로 적절하다.

22. [출제의도]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④는 '다른 사람에게서 일정한 내용을 가진 말을 전

달받다.’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③의 ‘듣고’도 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① ‘눈물, 빗물 따위의 액체가 방울져 떨어지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② ‘주로 약 따위가 효험을 나타내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④ ‘어떤 것을 무엇으로 이해하거나 받아들이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⑤ ‘기계, 장치 따위가 정상적으로 움직이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과학]

[23~26] <출전> 에릭 캔델 외, 「신경과학의 원리」

23.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 이해하기

이 글은 인간의 기억이 형성되는 원리를 신경세포의 시냅스 연결과 장기 강화 과정을 통해 밝히고 있다. 2문단에서 신경세포에 외부자극이 가해지면 Na^+ 이 대량으로 들어오는 탈분극이 일어난다고 하였으므로, 세포 안으로 이동하는 이온의 양이 줄어든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① 1문단에서 신경세포들은 세포 사이의 틈새인 시냅스로 전기적·화학적 신호를 전달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② 2,3문단에서 시냅스가 오래 유지될 경우에만 장기강화라고 하였고, 4문단에서도 장기강화가 시냅스 연결 시간의 정도에 따라 초기 장기강화와 후기 장기강화로 나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2, 3문단을 통해 시냅스 연결은 시냅스전세포가 시냅스후세포에 신호를 보내며 연결되는 것이라고 하였고, 4문단에서 시냅스후세포는 시냅스전세포에 역행성 신호를 보낸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④ 2문단에서 신경세포가 탈분극되어 흥분상태가 되면서 전기적 신호인 활동전위를 만든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24. [출제의도] 세부 내용 추론하기

2문단에서 이온이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확산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시냅스 연결에서 시냅스전세포로 Ca^{2+} 가 안으로 확산되면 내부에 있던 글루탐산을 비롯한 신경전달물질들이 분비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Ca^{2+} 가 시냅스전세포에 안으로 확산된다는 것은 내부의 농도가 점점 짙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때 글루탐산을 분비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① 2문단에서 Na^+ 은 외부자극이 있으면 세포막 외부에서 세포막 내부로 확산된다고 하였다. 이는 흥분상태이 전인 안정 상태일 때는 세포막 외부에 Na^+ 이 많이 분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경세포 내부에 Na^+ 이 더 많이 분포한다는 추론은 적절하지 않다. ② 3문단에서 암과 수용체가 열리면 시냅스후세포가 탈분극되어 NMDA 수용체의 통로도 열리고 Ca^{2+} 이 유입되어 장기강화가 일어난다고 하였다. 또한 4문단에서 암과 수용체는 수명이 짧아 새로 만들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장기강화가 지속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암과 수용체가 새로 생겨 더 많아지면 NMDA 수용체의 역할은 지속된다. 따라서 NMDA 수용체의 기능이 억제된다는 추론은 적절하지 않다. ③ 3문단에서 암과 수용체 통로가 열리면 Na^+ 이 시냅스후세포막 안으로 확산된다고 하였으므로 이 이온의 농도는 짙어질 것이다. 따라서 농도가 열어진다는 추론은 적절하지 않다. ⑤ 3문단에서 글루탐산의 자극이 있을 때 시냅스후세포의 강한 탈분극이 일어나면 NMDA 수용체로 Ca^{2+} 이 유입되어 단백질이 활성화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단백질 활성화가 억제된다는 추론은 적절하지 않다.

25. [출제의도] 글의 세부적 내용 파악하기

<보기>에서 ㉠은 Na^+ , ㉡은 암과 수용체, ㉢은 Ca^{2+} 이 막고 있다가 제거된 통로를 갖고 있으므로 NMDA 수용체, ㉣은 NMDA 수용체로만 유입되는 Ca^{2+} 이다. 5문단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수용체는 암과 수용체라

고 하였고, 이를 위해서는 Ca^{2+} 이 유입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NMDA 수용체가 새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① 3문단에서 시냅스후세포가 탈분극되어 Na^+ 이 암과 수용체로 유입되어야 흥분상태로 변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③ 3문단에서 시냅스전세포가 분비한 글루탐산이 시냅스후세포의 암과 수용체를 자극해야 그 통로가 열린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④ 시냅스후세포의 강한 탈분극이 NMDA 수용체의 Mg^{2+} 을 제거하여 Ca^{2+} 이 유입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⑤ 3, 4문단에서 Ca^{2+} 의 유입이 시냅스후세포를 흥분상태로 만들고, 암과 수용체가 새로 만들어져 장기강화가 이루어질 때 Ca^{2+} 의 유입이 지속되어 흥분상태를 오래 유지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26. [출제의도] 실험 상황에 원리 적용하기

<보기>에서 실험 ㄱ은 신경세포 A와 C 간의 시냅스 연결이 2시간가량 지속되어 초기 장기강화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실험 ㄴ은 신경세포 B와 C간의 시냅스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실험 ㄷ은 A와 B를 C에 동시에 연결하였더니 두 경로 모두 시냅스 연결이 2시간가량 지속되어 초기 장기강화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실험 ㄹ은 시냅스 연결이 되지 않았으므로 C에서는 단백질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ㄷ은 두 경로 모두 시냅스 연결이 되었으므로 단백질 활성화가 일어났으며, 이로 인해 암과 수용체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① ㄱ은 시냅스 연결이 되었으므로 시냅스전세포인 A는 탈분극되어 활동전위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ㄱ은 초기 장기강화가 일어난 것이므로 후기 장기 강화에서 일어나는 단백질 합성을 일으켰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③ ㄴ은 시냅스 연결이 되지 않았으므로 탈분극이 일어나지 않았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④ ㄴ은 시냅스 연결이 되지 않았으므로 B에서 글루탐산이 분비되지 않았을 것이며, ㄷ은 시냅스 연결이 이루어졌으므로 B에서 글루탐산의 분비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예술]

[27~30] <출전> 이경률, 「현대 미술 사진과 기억」

27. [출제의도] 글의 중심 내용 파악하기

1문단에서는 아마추어 사진을 작품의 오브제로 사용해 새로운 미적 기능을 가지게 하려한 볼탕스키라는 작가를 소개하고, 2문단에서는 아마추어 사진에 담겨 있는 이데오그램과 소시오그램이라는 특징을, 3문단에서는 아마추어 사진에 담겨 있는 이데오그램과 소시오그램으로 인해 독자의 능동적인 작품 해석이 가능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 4문단에서는 작가가 아마추어 사진을 활용해 사진이 가지는 양면성을 드러내려고 했음이, 5문단에서는 위 내용들에 대한 정리가 드러나 있다. 그러므로 표제는 ‘볼탕스키의 작품 세계의 특징’이, 부제는 ‘오브제로서의 아마추어 사진 활용을 중심으로’가 적절하다.

28.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보기>에서 작가의 의도에 따라 사진이 재배열된 것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본문에서 ‘모더니즘 예술가들은 예술의 순수성과 독자성을 강조’하였고 이와 달리 개념미술가들은 ‘통속적이라 인식되었던 기성품들까지 작품의 오브제로 사용’했다고 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① 4문단에서 사진을 ‘진짜’처럼 여기도록 ‘반복적으로 재촬영’했다고 했고 <보기>에서 상업 사진작가에

게 다시 찍도록 했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③ 4문단에서 ‘사진을 다의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텍스트를 사진과 영터리로 조합’했다고 했고 <보기>에서 한 친구의 가족사진에 자신의 가족사진을 섞어 한 가족의 사진 앨범처럼 제목을 붙였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④ 3문단에서 사진 작품 속 ‘특정 가족의 삶의 모습’에서 ‘자신의 과거나 동시대 가족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고 했고 <보기>에서 가족사진을 오브제로 활용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2문단에서 ‘이데오그램은 사회가 공유하는 사진의 전형적 스타일’이라고 했고, 3문단에서 ‘아마추어 사진이 나타내는 이데오그램을 통해 문학적 코드를 읽어낼 수 있다’고 했다. 또 <보기>에서 주로 정면을 응시한 전형적인 자세의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29. [출제의도] 자료를 통한 핵심 정보 파악하기

1문단에서 작가가 아마추어 사진을 작품에 오브제로 사용하여 새로운 미적 기능을 가지게 했다고 진술했고, <보기>에서 예술가가 선택하여 작품화한 산업생산물들이 새로운 미적 기능을 가진 대상으로 재탄생하게 된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① 1문단에서 ‘통속적이라 인식되었던 기성품들까지 작품의 오브제로 사용함으로써 기존의 예술 작품과 다른 양식의 작품을 창조했다’고 했고, <보기>에서 레디메이드가 ‘관습적인 미의 기준과 예술 개념에 대한 부정에서 출발’했다고 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1문단에서 아마추어 사진을 작가가 작품에 오브제로 사용하여 전시 공간으로 옮김으로써 새로운 미적 기능을 가지게 했다고 진술했고, <보기>에서 ‘레디메이드’는 ‘산업 생산물이 일상적 공간에서 전시 공간으로 옮겨져 예술 작품이 된 것을 말한다’고 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4문단에서 ‘아마추어 사진을 반복적으로 재촬영하여 원래 사진의 이미지를 일부러 흐리게 만들거나 자신의 의도에 따라 사진을 재배열하기도 했다’고 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본문과 <보기>에 둘 다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30. [출제의도] 어휘의 사전적 의미 파악하기

‘어떤 기준이나 실정에 맞게 정돈하다’의 의미를 가진 단어는 ‘조정(調整)하다’이다. 또 ‘조합하다’의 의미는 ‘여럿을 한데 모아 한 덩어리로 짜다’이다.

[고전소설]

[31~33] <출전> 김만중, 「구운몽」

31. [출제의도] 서술 방식 이해하기

배경이 되는 시대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사부와 ‘성진’의 대화에서 ‘성진’이 수책하는 원인이 드러나므로 적절하다. ③ ‘신장’이 등장하는 장면에서 전기적 요소가 드러나므로 적절하다. ④ 승상의 ‘소유 십오륙 세 ~ 경사를 떠나지 않았으니’라는 말을 통해 ‘소유’의 과거 행적이 요약적으로 드러나므로 적절하다. ⑤ ‘성진’이 불가의 적막함에 대해 생각하는 장면에서 내면 심리를 내적 독백의 형식으로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32 [출제의도] 소재의 기능 이해하기

‘향로에 불을 다시 피우고 의연히 포단에’ 앉은 ‘성진’이 꿈을 깨었을 때, ‘포단 위에 앉았으니 향로에 불이 이미 사라지고 지는 달이 창에 이미 비치었더라.’라고 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성진’이 꿈을 꾸고 있는 공간은 암자 안의 포단 위이므로, 대사와 제자들이 모여 있는 방장의 ‘섬돌’이 입몽과 각몽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33. [출제의도] 서사 내용 파악하기

‘성진’은 꿈을 깬 후 ‘두 공주와 여섯 남자로 더불어 즐기던 것’이 사실이 아닌 ‘하룻밤 꿈’인 것을 알게 된다. 따라서 천상적 가치를 추구하는 ‘성진’이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는 ‘소유’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① ‘성진’은 ‘여덟 선녀’를 만난 후 불가의 적막함에 대해 회의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③ ‘승상’이 ‘십육세에 급제하여 연하여 직명이 있었’던 것은 세속적 가치를 추구한 결과이므로 적절하다.
- ④ ‘소유’는 호승과 만난 후 천상으로 회귀하게 되므로 적절하다.

[고전시가]

[34~36] <출전> 윤선도, 「몽천요(夢天謠)」
최 현, 「명월음(明月吟)」

34. [출제의도] 작품 간 공통점 파악하기

(가)의 ‘하늘이 이지러졌을 때 무슨 기술로 기워냈고 / 백옥루(白玉樓) 중수(重修)할 때 어떤 목수 이루어냈고’와 (나)의 ‘단단 환선(團團紈扇)으로 긴 바람 부쳐 내어 / 이 구름 다 걷과다. 기원 녹죽(淇園綠竹)으로 / 일천 장 비를 매어 저 구름 다 쓸과다.’를 통해 대구법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나)는 ‘매화 한 가지 계영인가 돌아보니, / 처량한 암향이 날 따라 근심한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가)는 계절감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두 작품 모두 대화의 형식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가)는 인간과 자연을 대비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두 작품 모두 명령적 어조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35. [출제의도] 시어의 의미 이해하기

㉞은 ‘옥황’에게 말하여 묻고자 하는 걱정의 대상인 현실 속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작가가 이들로 인해 임금 곁을 떠나지는 않았기에 적절하지 않다.

- ① ㉞은 자신을 꺼리고 꾸짖는 대상이기에, 현실 속에서 작가를 질시하는 세력으로 볼 수 있다. 이 세력들로 인해 임금의 부름을 사양했으므로 적절하다.
- ② ㉞을 ‘내 분수에 옳도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현실 정치에 참여하지 않고 머물고 있는 장소로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③ ㉞은 ‘옥황’이 머물고 있는 공간으로 현실 속 임금이 있는 궁궐을 비유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⑤ ㉞은 ‘백옥루’를 ‘중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현실을 바로잡을 수 있는 작가나 인재를 비유한 표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36.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참고하여 작품 감상하기

자신의 몸만 비추고 남을 비출 수 없는 ‘금작경’은 화자가 자신의 방에서 닦고 있는 대상이므로, 비추지 않는 구멍이 없는 ‘명월’에 비유된 임금의 상황을 비유한 것이 아니다.

- ①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의 마음먹은 뜻을 사퇴려한 것으로 보아 암담한 시대 현실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② 달빛이 구름에 가려 옛날의 빛을 잃고 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임금이 처한 상황이 점점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④ 바람을 일으켜 부정적 대상인 ‘구름’을 걷어내려고 하는 것으로 보아 현실을 바꾸고 싶은 소망을 드러낸 것이므로 적절하다.
- ⑤ 자신을 미미한 티끌과 흙인 ‘진토’로 인식한 결과 자신의 뜻을 ‘허사’라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시나리오]

[37~39] <출전> 최금동·김강운 각색, 「역마」

37. [출제의도] 작품의 특징 파악하기

S# 67에서 범운에 의해 옥화의 행동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① 다양한 소리를 활용하여 극적 긴장감을 완화시키는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② 새로운 인물의 등장으로 인해 인물 간의 관계가 개선되는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④ 가상 공간과 현실 공간을 대비하는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⑤ 현재와 과거를 반복적으로 제시하는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38. [출제의도] 등장인물 이해하기

S# 67에서 옥화는 강강술래 소리를 하며 범운을 발견하고, 웃음을 보이므로 ‘범운’을 잊으려 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① S# 60에서 상돌네는 옥화의 기대와는 다른 발언을 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② S# 65에서 혜초는 종소리를 듣고 범운의 마음을 짐작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③ 범운은 S# 65에서 혜초의 조언을 들은 뒤 S# 66에서 쌍계사를 나서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⑤ S# 63에서 소향은 범운과의 관계에 대한 옥화의 말을 의심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39. [출제의도] 영화에서의 촬영 기법 파악하기

㉞에서 범운이 옥화의 모습을 볼 수 없다고 할 때, 범운의 주관적 시점으로 촬영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① ㉞은 범운이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강강술래 전체 장면을 보여 주려 한다면 객관적 시점의 쇼트로 촬영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② ㉞은 범운의 눈은 객관적 시점의 쇼트로 촬영하고 범운의 시선으로 본 강강술래 장면은 범운의 주관적 시점의 쇼트로 촬영하여 연결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③ ㉞은 옥화의 시점에서 바라본 범운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면 옥화의 주관적 시점의 쇼트로 촬영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⑤ ㉞은 객관적 시점의 쇼트로 촬영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현대소설]

[40~42] <출전> 박완서, 「조그만 체험기」

40. [출제의도] 서술상 특징 파악하기

이 소설은 서술자 ‘나’가 ‘남편’의 재판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자신의 내면 서술을 중심으로 서사를 진행하고 있다.

- ①, ② ‘나’의 심리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④, ⑤ 과거 장면이 없고 인물의 외형적 특징도 부각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41. [출제의도] 서사 전개 과정 이해하기

‘남편’이 풀려난 후 ‘처음엔 그것만으로도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니 차츰 시들해지면서 나는 다시 바가지를 긁게 됐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 ‘생활의 평온이 돌아오니’의 서술을 볼 때, 일상으로 돌아온 ‘나’와 ‘남편’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을 뿐, ‘남편’이 ‘평온한 삶을 회복하지’ 못한다거나 ‘나’가 ‘남편’에 대해 ‘연민’을 느낀다는 진술은 해당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② ‘나’는 ‘강 변호사’를 ‘믿어도 좋을 거’라는 친구의 말을 듣고도 ‘믿어지지 않았고’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③ ‘나’는 ‘남편’이 기소된 후 ‘강 변호사’가 보석으로 꺼내준다는 제안을 거절하므로 적절하다.

42.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른 감상의 적절성 파악하기

‘변호사와 의논해서 사건을 의뢰해볼까’하고 생각하는 것은 권 주임이 나의 남편을 해롭게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걱정에 의한 것으로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세대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현대시]

[43~45] <출전> 유치환, 「선한 나무」
김용택, 「섬진강 1」

43. [출제의도] 작품 간 특징 비교하기

(가)는 화자가 ‘언제’인가 길가에서 노송 한 그루를 보고 그 아래에서 노닐다가 ‘하룻날’ 다시 와서 노송이 베어진 것을 발견하고 안타까움을 느끼며, 자신이 노송이 섰던 자리에 서서 허공에 팔을 올려 신운을 느껴 보려 하고, 자신은 느낄 수 없음을 확인하며 안타까워하고 있으므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나)는 섬진강이 흘러가는 방향을 따라가며, ‘토끼풀꽃’, ‘자운영꽃’, ‘식물도감에도 없는 풀’, ‘영산강으로 가는 물줄기’, ‘끼끼 웃는 ‘지리산’, ‘노을면 무등산’ 등 섬진강 주변의 자연물들에 시선을 주며 시상이 전개된다.

- ② (가)에서 특정 어미를 통해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는 부분은 없으며, (나)에서도 ‘섬진강물이 어디 몇 놈이 달려들어 / 떠낸다고 마를 강물이더냐고’, ‘어디 몇몇 애비 없는 후레자식들이 / 떠낸다고 마를 강물인가를’이라는 구절에 의문의 진술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를 통해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 ③ (나)에는 수탈당하는 농민들을 비유한 ‘토끼풀꽃’, ‘자운영꽃’, ‘식물도감에도 없는 풀’과 농민들을 수탈하는 대상을 비유한 ‘후레자식’처럼 대립적 시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가)에 명암의 대비는 드러나 있지 않다.
- ④ (나)는 섬진강이 흘러가는 모습을 묘사하여 역동성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으나, (가)에서 음성 상징어의 사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가)의 ‘추추히 탄식하듯 울고 있어’의 ‘추추히’는 ‘우는 소리가 구슬뜨게’를 뜻하는 말로 음성 상징어는 아니다.
- ⑤ (나)에서는 섬진강을 의인화된 대상으로 등장시키고 있으나, (가)에서는 친숙한 상황을 가정하고 있지 않지는 않다.

44.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 이해하기

‘증거할 선한 나무 없음이 안타까울 따름’이라는 표현에는 화자 자신은 인식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묘막한 천공’에는 여전히 ‘신운’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노송이 없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묘막한 천공’에 ‘신운이 없음’을 인지한 화자의 상실감이 드러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① ‘바람 있음을 조금도 깨달을 수 없는 날씨는 화자가 자연의 미세한 변화를 느끼지 못함을 나타내고, ‘추추히 탄식하듯 울고’ 있다는 표현은 노송이 흔들리는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자연의 미세한 변화에 반응하는 노송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항상 그 아래 한때를 머물러’ 노닐었다는 진술에서는 노송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태도를 짐작할 수 있는데, 그 노송이 베어 넘겨진 상황에 대해 ‘무참히도’ ‘베어 넘겨’졌다고 표현한 것에서는 자신이 긍정하는 대상이 사라진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노송의 그늘을 ‘길가에 세워 바람에 울리’는 것보다 ‘빠개어 옥신의 더움을 취’하는 상황은 노송의 실용적 가치를 더 중시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으며, ‘애석하여’에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팔을 높이 허공에 올려’ 보려는

행위는 노송이 부재한 상황에서 노송이 느꼈던 '신운'을 느껴보고자 하는 화자의 시도로 볼 수 있으며, '유현한 솔바람 소리가 생길 리' 없다고 한 것에는 자신은 노송과 달리 신운을 느낄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5.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참고하여 작품 감상하기

'그을린 이마'는 농촌의 고된 상황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농민들의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그들의 그을린 이마에 흰하게 '꽃등'을 달아주는 것은 고달픈 삶을 영위하는 농민들에 대한 위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꽃등이 농민들의 고된 삶을 부각하는 소재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① '끊기지 않고 모여 흐르'는 개울물은 고된 상황 속에서도 함께 생활하며 삶을 포기하지 않는 농민들을 나타낸 것으로, 농민들의 끈질긴 생명력을 환기한다고 할 수 있다. ③ '뻐 으스러지게 그리워 얼싸안'는 것은 끊임없는 수탈로 인해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공동체적 삶을 통해 고통을 감내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고된 현실 속에서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농민들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저문 강물에 얼굴을 씻고 / 일어서서 쫄쫄웃'는 지리산은 고된 삶 속에서도 너그러움으로 살아가는 농민들의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수탈을 당하면서도 삶의 여유를 잃지 않는 농민들의 삶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⑤ '후레자식들이 / 퍼간다고 마를 강물인가'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리 끊임없는 수탈로 고통을 겪을지라도 농민들이 삶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건강한 삶을 살아나갈 농민들에 대한 믿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2교시 수학 영역 •

[가형]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출제의도] 지수함수의 극한 계산하기

$$\lim_{x \rightarrow 0} \frac{e^x - 1}{4x} = \lim_{x \rightarrow 0} \frac{e^x - 1}{x} \times \frac{1}{4} = \frac{1}{4}$$

2. [출제의도] 순열 계산하기

$${}_nP_2 = n(n-1) = n^2 - n = 56 \text{ 이므로}$$

$$n^2 - n - 56 = 0$$

$$(n-8)(n+7) = 0$$

n이 자연수이므로 n = 8

3. [출제의도] 삼각함수의 미분 이해하기

$$f'(x) = \cos x$$

따라서 $f'\left(\frac{\pi}{3}\right) = \frac{1}{2}$

4. [출제의도] 로그함수의 그래프의 성질 이해하기

$$\log_2 16 = \log_2 2^4 = 4, \log_4 16 = \log_4 4^2 = 2 \text{ 이므로}$$

P(16, 4), Q(16, 2)이다.
따라서 두 점 P, Q 사이의 거리는 2

5. [출제의도] 조건부확률 이해하기

$$P(A^c) = \frac{1}{4} \text{ 이므로 } P(A) = 1 - P(A^c) = 1 - \frac{1}{4} = \frac{3}{4}$$

$$P(B|A) = \frac{P(A \cap B)}{P(A)} = \frac{1}{6} \text{ 이므로}$$

$$P(A \cap B) = \frac{1}{6} P(A) = \frac{1}{6} \times \frac{3}{4} = \frac{1}{8}$$

6. [출제의도] 자연수의 분할 이해하기

$$8 = 6 + 1 + 1$$

$$= 5 + 2 + 1$$

$$= 4 + 3 + 1$$

$$= 4 + 2 + 2$$

$$= 3 + 3 + 2$$

따라서 8을 세 개의 자연수로 분할하는 방법의 수는 5

7. [출제의도] 여러 가지 적분법 이해하기

$$2x - 1 = t \text{ 라 하면 } \frac{dx}{dt} = \frac{1}{2} \text{ 이고}$$

$$x = \frac{1}{2} \text{ 일 때 } t = 0, x = 1 \text{ 일 때 } t = 1 \text{ 이므로}$$

$$\int_{\frac{1}{2}}^1 \sqrt{2x-1} dx = \frac{1}{2} \int_0^1 \sqrt{t} dt$$

$$= \frac{1}{2} \times \left[\frac{2}{3} t\sqrt{t} \right]_0^1 = \frac{1}{3}$$

8. [출제의도] 삼각함수의 덧셈정리 이해하기

$$2 \sin\left(\theta - \frac{\pi}{6}\right) + \cos \theta$$

$$= 2\left(\sin \theta \cos \frac{\pi}{6} - \cos \theta \sin \frac{\pi}{6}\right) + \cos \theta$$

$$= \sqrt{3} \sin \theta$$

$$= \sqrt{3} \times \frac{\sqrt{3}}{3} = 1$$

9. [출제의도] 여러 가지 미분법 이해하기

함수 f(x)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가능하므로

$$f(1) = 2, \lim_{x \rightarrow 1} \frac{f(x) - 2}{x - 1} = f'(1) = \frac{1}{3}$$

$$f(g(x)) = x \text{ 의 양변을 미분하면}$$

$$f'(g(x))g'(x) = 1$$

$$g'(x) = \frac{1}{f'(g(x))}$$

$$f(1) = 2 \text{ 이므로 } g(2) = 1$$

$$g'(2) = \frac{1}{f'(1)} = 3$$

따라서 g(2) + g'(2) = 1 + 3 = 4

10. [출제의도] 로그함수를 활용하여 문제해결하기

편진폭이 A₁, 진동수가 10π일 때 진동가속도레벨이 83이므로 $83 = 20 \log \frac{A_1(10\pi)^2}{k}$ ㉠

편진폭이 A₂, 진동수가 80π일 때 진동가속도레벨이 91이므로 $91 = 20 \log \frac{A_2(80\pi)^2}{k}$ ㉡

$$\textcircled{1} - \textcircled{2} \text{ 에서 } 8 = 20 \left\{ \log \frac{A_2(80\pi)^2}{k} - \log \frac{A_1(10\pi)^2}{k} \right\}$$

$$\frac{2}{5} = \log \frac{A_2(80\pi)^2}{A_1(10\pi)^2} = \log \frac{64A_2}{A_1}$$

따라서 $\frac{A_2}{A_1} = \frac{1}{64} \times 10^{\frac{2}{5}}$

11. [출제의도] 정적분의 활용 이해하기

포물선 y² = 4x의 준선의 방정식은 x = -1이다.
y = e^{x+1}의 그래프와 직선 x = -1, x축 및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int_{-1}^0 e^{x+1} dx = \left[e^{x+1} \right]_{-1}^0 = e - 1$$

12. [출제의도] 평면곡선의 접선 이해하기

$$y^2 = 4x \text{ 에서 } 2y \frac{dy}{dx} = 4$$

$$\therefore \frac{dy}{dx} = \frac{2}{y}$$

포물선 y² = 4x 위의 점 (4, 4)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frac{2}{4} = \frac{1}{2}$ 이므로

접선의 방정식은 $y = \frac{1}{2}x + 2$

직선 y = $\frac{1}{2}x + 2$ 가 y축과 만나는 점 (0, 2)를 y = e^{x+k}에 대입하면 e^k = 2
따라서 k = ln2

13. [출제의도] 이차곡선의 성질 이해하기

PF = a라 하면 점 P에서 F(2, 0)까지의 거리는 점 P에서 준선 x = -2에 이르는 거리와 같으므로 FH = a - 4

$$PH = \sqrt{a^2 - (a-4)^2} = \sqrt{8a-16} = 2\sqrt{2a-4}$$

삼각형 PFH의 넓이가 3√10 이므로

$$\frac{1}{2} \times (a-4) \times 2\sqrt{2a-4} = 3\sqrt{10}$$

$$(a-4)\sqrt{a-2} = 3\sqrt{5}$$

양변을 제곱하여 정리하면

$$(a^2 - 3a + 11)(a-7) = 0$$

∴ a = 7
따라서 선분 PF의 길이는 7

14. [출제의도] 도함수를 활용하여 그래프 추론하기

$$f(x) = (2x-1)e^{-x^2} \text{ 이라 하자.}$$

$$f'(x) = (-4x^2 + 2x + 2) \times e^{-x^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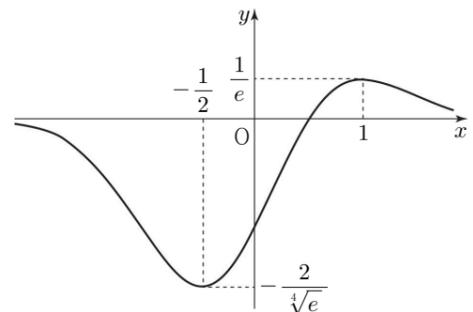
$$= -2(2x+1)(x-1)e^{-x^2}$$

f'(x) = 0에서 x = - $\frac{1}{2}$ 또는 x = 1
함수 f(x)의 증가와 감소를 표로 나타내면

x	...	-\frac{1}{2}	...	1	...
f'(x)	-	0	+	0	-
f(x)	↘	-\frac{2}{\sqrt{e}}	↗	\frac{1}{e}	↘

이므로 함수 f(x)의 극솟값은 $-\frac{2}{\sqrt{e}}$ 이다.

함수 y = f(x)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면



이므로 함수 f(x)의 최솟값은 $-\frac{2}{\sqrt{e}}$ 이다.